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현대중국어 명사술어문 연구

现代汉语名词谓语句研究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孔 凡 莲

현대중국어 명사술어문 연구

指導敎授 박 정 구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2년 5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孔 凡 蓮

孔凡蓮의 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2년 7월

위 원 장 이옥주 (인)

부위원장 강병규 (인)

위 원 김현철 (인)

위 원 백은희 (인)

위 원 박정구 (인)

국문초록

본고는 구문문법, 인지문법 및 언어유형론 이론에 입각하여 현대중국어에서 명사성 성분이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명사술어문에 대해 공시와 통시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명사술어문은 'S+NP'로 도식화할 수 있고 구문문법의 관점에서 이는 완전한 도식구문으로 간주되며 S와 NP는 구문에서 논항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어와 명사술어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선택적 의미관계가 결국 명사술어문의 형성과 인지적 해석을 결정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통시적 변천 과정의 고찰과 기타 언어의 명사술어문 사용 양상의 비교를 통해 현대중국어 명사술어문이 가진 유형론적 특성을 밝혔다.

본고는 먼저 명사술어의 통사구조와 주어, 명사술어 간의 의미관계에 근거하여 현대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을 판단성, 묘사성, 수량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우선 3장에서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경우, 즉 맨명사, 'N1·N2' 구조, 시간명사, 장소명사, 의문대명사, 'X的' 구조가 술어로 쓰이는 현상을 고찰하였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여러 형식적 유형을 갖지만 주어와 명사술어 간의 의미관계는 크게 동등관계와 귀속관계 두 가지로 나뉜다.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명사술어는 주어의 등가물이며 지시적이다.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명사술어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며 비지시적이다. 아울러 3장에서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이 경제성 원칙에 기초하여 '대상-등가물', '대상-속성'의 의미관계의 틀에서 하나의 구문으로 관습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어서 4장에서는 묘사성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 즉 'A·N' 구조가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묘사성 명사술어문의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 일음절 성질형용사, 이음절 상태형용사, ABB형식의 상태형용사, 중첩형식의 상태형용사, '부사+성질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여 형성된 구조가 술어 위치에서 직접 출현할 수 있다. 또한, 의미적 측면에서 명사술어는 주로 주어의 속성을 설명, 평가하거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주어와 술어 간의 '전체-부분'의 관계와 형용사의 서술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수식 기능을 하는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의 구

별적인 특징을 드러내야 하고, 충분한 정보량을 갖고 있으며, 피수식 명사는 일반적으로 일가명사 특히 사람의 신체부위를 표현하는 명사이거나 사물의 구성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여야 한다. 술어로 쓰인 'A·N' 구조에서의 명사는 일반적으로 비지시적이고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 이중주어문으로 전환되면 중심어 명사는 모두 지시적 성분이 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수량성 명사술어문의 경우, 즉 'Num·CL' 구조, 'Num·CL·N' 구조, '一·Ncl·N' 구조가 술어로 쓰이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도량사를 사용하는 'Num·CL' 구조는 '대상-수량' 구문에 쓰여서 주어의 양적 속성을 설명한다. 'Num·CL·N' 구조는 '소유주-피소유물', '장소-존재물' 구문에 쓰여서 유정성 주어, 장소 주어의 어떠한 정태적 특징을 설명한다. '一·Ncl·N' 구조는 '대상-속성' 구문에서 술어로 기능하고 사람인 주어의 어떠한 정태적인 특징을 평가한다. 'S+Num·CL' 구문은 경제성 원리로 인해 원형인 'S+[Num·CL+A]' 구문에서 형용사가 생략된 것이다. 'S+Num·CL·N' 구문에서는 소유주인 주어와 피소유물인 'Num·CL·N' 술어, 두 가지 논항 역할로 충분히 구문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有'의 기능과 일치하기 때문에 '有'가 출현하지 않는 것이다. '$S_{장소}$+Num·CL·N' 구문의 형성과 인지적 기재도 마찬가지다. 'S+一·Ncl·N' 구문의 형성은 주어와 임시양사로 쓰인 신체부위와의 전체-부분 관계에서 기인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부분은 전체보다 더 두드러질 수 있고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과정이다. 어휘의 다의성처럼 동등관계, 귀속관계, 전체-부분 관계, 수량관계, 소유관계, 존재관계 등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판단성, 묘사성, 수량성 등 하위 구문들은 명사술어문의 네트워크에서 다의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명사성 성분을 술어로 사용하는 현상은 항상 계사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6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명사술어문에 '是'를 부가하여 '是' 구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 후 두 구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를 통해 다양한 명사술어에 붙는 '是'의 성질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에는 '是'를 부가할 수 있는데, 명사술어문에 비해 '是' 구문의 주술관계가 보다 명확하고 주어와 술어가 구조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해당 명사술어문은 복문의 종속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명사술어문은 구조적 확장에 의해 제한되고 주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S+A·N'의 술어에 '是'

를 붙일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형식에 따라서 내부적 차이가 존재한다. '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 앞에는 '是'를 붙일 수 있지만, '이음절 상태형용사+명사', '중첩형식 상태형용사+명사', '부사+성질형용사+명사' 구조 앞에는 '是'를 붙일 수 없다. 'S+A・N' 구문과 달리 'S+是+A・N' 구문은 긍정과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술어로 기능하는 'Num・CL' 성분과 'Num・CL・N' 성분 앞에 '是'를 붙일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是' 구문은 긍정과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S+一・Ncl・N'의 술어에도 '是'가 붙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사술어는 다른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에 부가된 '是'는 문장의 주요 동사가 되어 주어와 술어 간의 동등과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전형적인 계사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S+A・N' 구문, 'S+Num・CL' 구문,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S+Num・CL・N' 구문, 존재관계를 나타내는 '$S_{장소}$+Num・CL・N' 구문, 'S+一・Ncl・N' 구문에 부가된 '是'는 계사의 기능보다 후행 성분이 문장의 초점임을 표시하는 초점표지 '是'의 기능과 더욱 유사하다. 이렇게 사용된 '是'는 계사에서 초점표지까지의 연속체의 과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대중국어에서 각 시기별로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경우 '是'가 계사로 문법화되기 이전의 상고 시기에는 주로 'S(者)+NP(也)'의 형식을 사용하였고 중고 시기에는 '是' 구문이 점차 판단문의 주요 표현형식이 되어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사용 빈도가 많이 낮아졌으며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특수 의미를 표현할 때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묘사성, 수량성 명사술어문은 '是'의 문법화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상고부터 근대까지 그 사용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형식도 더욱 다양해졌다.

마지막으로 명사술어문이 범언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유형론적 지위를 탐색하였다. 영어를 비롯한 형태 변화가 풍부한 언어에서는 명사성 성분이 술어로 직접 사용될 수 없지만 러시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등 일부 언어에는 현재시제에서 동등과 귀속관계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을 사용할 수 있다.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가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과 가장 가깝지만, 이 두 언어에는 'A・N' 구조를 직접 술어로 사용할 수 없다. 현대중국어와 같이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는 많은 소수민족 언어는 명사술어문을 사용하지만 그 형태는 현대중국어만큼 다양하지 않다. 현대중국어는 영계사 언어에서 계사 언어로까지의 연속체의 중간 단계에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是'의 사용은 강제적이지 않고 문장 각 구성 성분 간의 의미관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명사술어문의 구조 및 의미유형은 가장 다양하다.

본고는 공시와 통시, 중국어 내부와 외부의 각도에서 명사술어문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명사술어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제고와 유형론적 측면에서의 특성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명사술어문, 구문의 다의성, 판단, 동등관계, 귀속관계, 경제성 원칙, 전체-부분, 수량구, 소유관계, 존재관계, '是', 통시, 유형론적 특성
학 번: 2014-30877

목 차

국문초록 ····· i

제1장 서론 ·····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1.2 기존 연구 검토 ····· 8
1.2.1 정의와 범위에 대한 연구 ····· 8
1.2.2 구조와 의미유형, 화용 기능에 관한 연구 ····· 10
1.2.3 형성과 인지적 기제에 관한 연구 ····· 13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 19

제2장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 ····· 23

2.1 구문문법적 접근법 ····· 23
2.1.1 구문의 개념 ····· 23
2.1.2 사용-기반 모델 ····· 26
2.1.3 구문 연결의 유형 ····· 27
2.2 계사와 계사구문 ····· 29
2.2.1 범언어적 계사 ····· 29
2.2.2 계사구문의 의미 기능 ····· 38

제3장 판단성 명사술어문 ····· 45

3.1 판단을 나타내는 범언어적 수단 ····· 45
3.2 명사술어의 구조와 의미 특징 ····· 51
3.2.1 'N1・N2' 형식의 명사구 ····· 51
3.2.2 맨명사(bare noun) ····· 59

3.2.3 시간명사 ····· 62
3.2.4 장소명사 ····· 65
3.2.5 의문대명사 ····· 67
3.2.6 ‘X的’ 구조 ····· 67
3.3 구문의 형성과 인지적 기제 ····· 70
3.3.1 경제성 원칙 ····· 70
3.3.2 구문으로 인해 생성된 의미관계 ····· 73
3.4 소결 ····· 81

제4장 묘사성 명사술어문 ····· 83

4.1 명사술어의 구조와 의미 특징 ····· 84
4.1.1 성질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 86
4.1.2 상태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 90
4.1.3 ‘Adv+A’ 구조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 95
4.2 ‘S+A・N’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 96
4.2.1 전체-부분 관계 ····· 96
4.2.2 형용사의 서술성 ····· 100
4.3 ‘S+A・N’ 구문의 화용적 기능 ····· 106
4.4 소결 ····· 111

제5장 수량성 명사술어문 ····· 113

5.1 ‘S+Num・CL’ 구문 ····· 115
5.1.1 ‘Num・CL’ 술어의 구조 및 의미 특징 ····· 115
5.1.2 ‘S+Num・CL’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 119
5.1.3 ‘S+Num・CL’ 구문의 화용적 기능 ····· 124
5.2 ‘S+Num・CL・N’ 구문 ····· 125
5.2.1 주어가 사람과 사물인 경우 ····· 125
5.2.1.1 ‘Num・CL・N’ 술어의 구조 및 의미 특징 ····· 125
5.2.1.2 ‘S+Num・CL・N’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 136

5.2.1.3 'S+Num・CL・N' 구문의 화용적 기능 ····· 137
5.2.2 주어가 장소인 경우 ····· 139
5.2.2.1 'Num・CL・N' 술어의 구조 및 의미 특징 ····· 139
5.2.2.2 'S장소+Num・CL・N'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 143
5.2.2.3 'S장소+Num・CL・N' 구문의 화용적 기능 ····· 148
5.3 'S+一・Ncl・N' 구문 ····· 151
5.3.1 '一・Ncl・N' 술어의 구조 및 의미 특징 ····· 151
5.3.2 'S+一・Ncl・N'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 158
5.3.3 'S+一・Ncl・N' 구문의 화용적 기능 ····· 161
5.4 소결 ····· 164

제6장 '是'의 부가와 명사술어문 ····· 167

6.1 명사술어문의 '是'의 부가 ····· 167
6.1.1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是'의 부가 ····· 167
6.1.2 묘사성 'S+A・N' 구문의 '是'의 부가 ····· 181
6.1.3 수량성 'S+Num・CL' 구문의 '是'의 부가 ····· 188
6.1.4 수량성 'S+Num・CL・N' 구문의 '是'의 부가 ····· 192
6.1.5 수량성 'S+一・Ncl・N' 구문의 '是'의 부가 ····· 198
6.2 명사술어문에 부가되는 '是'의 유형론적 특징 ····· 201
6.3 소결 ····· 211

제7장 명사술어문의 통시적 변천 ····· 214

7.1 상고 시기의 명사술어문 ····· 217
7.2 중고 시기의 명사술어문 ····· 223
7.3 근대 시기의 명사술어문 ····· 229
7.4 소결 ····· 240

제8장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유형론적 특성 ····· 241

8.1 명사술어문의 범언어적 사용 양상 ····· 241
8.2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유형론적 지위 ····· 268
8.3 소결 ····· 281

제9장 결론 ····· 282

【참 고 문 헌】 ····· 286

【부록】 ····· 300

【中文摘要】 ····· 301

표 목차

〈표 1-1〉 통사적 범주에서 원형적 상호 관계(Croft1991) ····· 1
〈표 1-2〉 문장성분과 품사 범주의 무표적 대응 관계 ····· 2
〈표 1-3〉 중국어 체언의 범위 ····· 20
〈표 2-1〉 구문의 유형과 실례 ····· 24
〈표 2-2〉 영계사 언어와 계사 언어 ····· 30
〈표 2-3〉 계사와 명사, 동사, 형용사의 실제 결합 양상(Pustet2003) ····· 33
〈표 2-4〉 범언어적 계사구문의 의미 기능 유형 ····· 40
〈표 2-5〉 '是'의 후행 성분 ····· 42
〈표 2-6〉 중국어 'S+是+NP' 구문의 의미유형 ····· 43
〈표 3-1〉 지시와 비지시 성분의 어휘적 표현형식 ····· 54
〈표 3-2〉 한정과 비한정 성분의 어휘적 표현형식 ····· 54
〈표 3-3〉 시간명사의 세부 분류 ····· 63
〈표 3-4〉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하위 분류 ····· 70
〈표 4-1〉 술어로 사용된 'AA的+N' ····· 92
〈표 4-2〉 'A・N' 구조 내부 의미 기능 차이(张敏1998) ····· 102
〈표 4-3〉 명사술어, 동사술어, 주술술어, 형용사술어의 예 ····· 108
〈표 5-1〉 명사성 소유범주의 의미유형(叶婧婷2020) ····· 129
〈표 5-2〉 'S+Num・CL・N' 구문의 화용적 특징 ····· 138
〈표 5-3〉 '一・Ncl・N' 구조 술어로 기능한 용례 ····· 153
〈표 6-1〉 각 유형 판단성 명사술어문에 '是'의 부가 양상 ····· 167
〈표 6-2〉 'S+시간명사'와 'S+是+시간명사'의 사용 빈도 대조 ····· 178
〈표 6-3〉 'S+A・N', 'S+是+A・N' 일부 용례의 사용 빈도 ····· 184
〈표 6-4〉 '$S_{장소}$+Num・CL・N'의 세부 유형과 '是'의 부가 ····· 196
〈표 6-5〉 '是'의 계사, 초점표지 기능(石毓智2005) ····· 203
〈표 7-1〉 '是'의 계사화 단계(肖瑜2003) ····· 216
〈표 8-1〉 현대중국어 명사술어문과 소수민족 언어 간의 대조 ····· 267

그림 목차

〈그림 2-1〉 계사와 품사 범주의 결합 위계 ····· 35
〈그림 2-2〉 중국어 계사 '是'의 문법화 과정 ····· 37
〈그림 2-3〉 계사의 개념 공간(박진호2009) ····· 42
〈그림 3-1〉 주어와 명사술어 간의 동등관계 ····· 52
〈그림 3-2〉 주어와 명사술어 간의 귀속관계 ····· 57
〈그림 3-3〉 동등관계를 나타낼 때 명사술어문의 구문적 특징 ····· 75
〈그림 3-4〉 귀속관계를 나타낼 때 명사술어문의 구문적 특징 ····· 76
〈그림 3-5〉 참조점 모형(R=참조점, T=목표, D=영향권) ····· 77
〈그림 4-1〉 전체와 부분의 무대-참여자 모형 ····· 98
〈그림 4-2〉 'S+A・N'의 구문적 특징 ····· 106
〈그림 5-1〉 'S+Num・CL'의 구문적 특징 ····· 123
〈그림 5-2〉 'S+Num・CL・N'의 구문적 특징 ····· 137
〈그림 5-3〉 비한정 수량구조 내부의 지시성과 서술성 위계(李晓奇2016) ····· 147
〈그림 5-4〉 '$S_{장소}$+Num・CL・N'의 구문적 특징 ····· 148
〈그림 5-5〉 '他一脸笑意'의 이미지 ····· 159
〈그림 5-6〉 '一・Ncl・N' 구조의 서술성 위계 ····· 161
〈그림 5-7〉 'S+一・Ncl・N'의 구문적 특징 ····· 161
〈그림 5-8〉 명사술어문 하위 구문 간의 계층적 관계도 ····· 166
〈그림 6-1〉 계사에서 초점표지까지의 연속체 ····· 207
〈그림 6-2〉 계사에서 초점표지까지의 연속체(추가됨) ····· 211
〈그림 7-1〉 명사술어문의 통시적 변천 ····· 239
〈그림 8-1〉 '영계사 언어-계사 언어' 연속체에서 현대중국어의 지위 ····· 280

제1장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고는 기능주의문법의 시각에서 중국어의 명사성 성분이 계사 '是'나 다른 동사의 도움 없이도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범언어적 시각에서 볼 때 명사, 동사, 형용사는 언어마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법범주이다. Croft(1991:55)는 명사, 동사 및 형용사의 범언어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 '전형적인 상보' 원칙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의미 범주(사물, 동작, 속성)와 화용 기능 범주(지시, 서술, 수식) 사이의 몇 가지 '자연적 관련'을 설정했다. 즉, 사물과 지시가 자연스럽게 관련되어 '명사'라는 전형적인 범주를 형성하고, 동작과 서술이 자연스럽게 관련되어 '동사'라는 전형적인 범주를 형성하며 속성과 수식이 자연스럽게 관련되어 '형용사'라는 전형적인 범주를 형성한다. 아래의 〈표 1-1〉에 제시한 것과 같이, 화용적으로 명사는 지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동사는 서술의 기능을 수행하며, 형용사는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표 1-1〉 통사적 범주에서 원형적 상호 관계(Croft1991)

구분	통사적 범주		
	명사	동사	형용사
의미적 부류	사물(Object)	동작(Action)	속성(Property)
화용적 기능	지시 (Reference)	서술 (Predication)	수식 (Modification)

'원형이론(Proto-type Theory)'과 '유표성 이론(Markedness Theory)'에 의하면, 무표(unmarked)와 유표(marked) 모드는 전형 범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이 설정한 범주의 대부분은 전형적인 범주이다. 이때 범주에 속한 구성원의 지위는 불평등하며 핵심 범주와 주변 범주로 구성된다. 범주의 핵심 구성원(전형 구성원이라고도 함)은 일반적으로 이 범주에서는 표기되지 않는 항목이다.

[명사, 사물, 지시], [동사, 동작, 서술]과 [형용사, 속성, 수식]은 모두 무표적인 조합이며, 반대로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수식이나 서술로 사용될 경우,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지시 또는 서술로 사용되거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지시 또는 속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면 '비자연적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모두 형식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1] 예를 들어, [명사, 동작/속성, 서술/수식]과 같은 조합은 모두 유표적인 것들이다.

Searle(1969)은 인간의 언어행위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가장 낮은 층위의 행위는 발화행위(Utterance Acts)이고 가장 높은 층위의 행위는 서술, 의문, 명령 등 일반적인 언어행위(Locutionary Acts)이며 중간 층위에 속하는 행위가 바로 명제행위(Propositional Acts)이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행위는 지시(reference)와 서술(predication)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으로써 말하는 사람은 지시행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하고 서술행위를 통해 이 대상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다. 문장성분은 지시와 서술 등 화용적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단어의 화용적 기능을 확정하려면 그것이 문장에서 어떤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지 보지 않으면 안 된다. 沈家煊(1998:258)은 품사 범주와 문장성분 사이에도 연관된 조합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표 1-2〉 문장성분과 품사 범주의 무표적 대응 관계

무표적 대응 관계	무표적 대응 관계	무표적 대응 관계
주어, 목적어	술어	관형어
명사	동사	형용사

위 표의 대응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와 목적어로 기능하는 것은 명사의 전형적인 기능이고, 술어로 기능하는 것은 동사의 전형적인 기능이며, 관형어로 기능하는 것은 형용사의 전형적인 기능인데, 이들은 모두 무표적인 쓰임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명사는 관형어와 술어로 쓰이는 비전형적인 기능을 가지고

1) 예를 들어 영어 어휘의 무표, 유표의 예는 아래와 같다.

	지시	수식	서술
사물	무표적 명사 dog	표지를 추가: dog's	표지를 추가: be a dog
속성	표지를 추가: happi-ness	무표적 형용사 happy	표지를 추가: be happy
동작	표지를 추가: fly-ing	표지를 추가: fly-ing	무표적 동사 fly

있으며 이때 두 가지 기능은 모두 유표적인 쓰임이다.

Croft(1991)의 논의에 따르면 어휘 항목들이 그것의 전형적인 담화 기능을 수행할 때는 그것을 포함한 문법적 구성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반면, 비전형적인 환경에서 사용될 때 문법적 구성은 훨씬 복잡해진다. 명사가 술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언어에서 모두 표지(marker)를 첨가해야 하거나 유표적인 형태 변화를 겪어야 한다. 예컨대, 영어는 반드시 계사 'be'를 추가해야 하고, 중국어는 계사 '是'를 추가해야 한다. 명사가 술어로 쓰일 경우에는 계사라는 부가적 요소가 삽입되면서 구문의 구조적인 복잡성을 증가시킨다.[2)]

그러나 영어를 포함한 인도유럽어와 달리 중국어는 계사 없이 명사성 성분이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이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문장을 일반적으로 '명사술어문(名词谓语句)'[3)]이라고 부른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1) 我上海人, 你呢？[4)]
나는 상하이 사람인데, 너는?

(2) A: 喂, 您好。您哪位？
여보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B: 小张, 我小李呀。
샤오장, 나는 샤오리야.

(3) 今天星期五。
오늘은 금요일이다.

(4) 刚上车的乘客请扶稳站好, 下一站王府井。
지금 막 탑승하신 승객께서는 잘 잡고 서 있으세요. 다음 정류장은 왕

2) 탄나나(2014:35) 참조.

3) 학계에서 '명사성술어문(名词性谓语句)', '체언술어문(体词谓语句)' 등의 명칭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본고는 '명사술어문'의 명칭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정의는 1.2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본 논문에서 다루는 예문은 대부분 북경어언대학의 BCC 코퍼스(http://bcc.blcu.edu.cn/)에서 수집한 것이다. 추가로 필요할 때, 북경대학 중국언어학연구센터의 CCL 코퍼스(http://ccl.pku.edu.cn)도 참고하였다. 이 두 코퍼스에서 수집한 예문은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며 기존의 논저에서 인용한 예문은 출처를 명기하였다.

푸징입니다.

(5) 你谁啊？在这儿指手画脚的！

너 누구니?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6) 她的名字叫于北蓓，外交部的。

그녀의 이름은 위베이페이로, 외교부 소속이다.

예문(1-6)은 각각 'N1+N2' 형식의 명사구, '고유명사', '시간명사', '장소명사', '의문대명사'와 'X的' 구조가 술어로 기능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 명사술어 앞에는 '是'를 삽입하더라도 문장은 여전히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존 연구에서는 예문(1-6)과 같은 문장을 모두 '是'가 생략된 형식으로 보았다. 그러나 명사술어문과 '是'가 부가된 구문 간의 명제적 의미는 같지만 화용적 의미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이런 유형의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은 아래 (1'-6')에서 보듯이 구조의 확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1') 我上海人，你呢？ / 我是上海人，你呢？

*我一个上海人。 / 我是一个上海人。

(2') A: 喂，您好。您哪位？

B: 小张，我小李呀。/ 我是小李呀。

*小张，我上次给你打电话的小李。/

小张，我是上次给你打电话的小李。

(3') 今天星期五。 / 今天是星期五。

*今天一个忙碌的星期五。 / 今天是一个忙碌的星期五。

(4') 刚上车的乘客请扶稳站好，下一站王府井。 / 下一站是王府井。

*下一站我们要下车的王府井。 / 下一站是我们要下车的王府井。

(5') 你谁啊？在这儿指手画脚的！ / 你是谁啊？在这儿指手画脚的！

*你我的谁啊？在这儿指手画脚的！ / 你是我的谁啊？在这儿指手画脚的！

(6') 她的名字叫于北蓓，外交部的。 / 她的名字叫于北蓓，是外交部的。

*她的名字叫于北蓓，三年前外交部的。/

她的名字叫于北蓓，三年前是外交部的。

다음 예문을 계속 살펴보자.

(7) a. 母亲高个子, 长得简直像圣母像。
어머니는 키가 크고 그야말로 성모상처럼 생겼다.
b. 母亲是高个子。
어머니는 키다리이다.
c. 母亲是(一)个高个子。
어머니는 키다리이다.

(7') a. 这个孩子大眼睛。
이 아이는 눈이 크다.
b. 这个孩子是大眼睛。
이 아이는 왕눈이이다.
c. *这个孩子是(一)个大眼睛。

(8) a. 这个孩子大大的眼睛, 圆圆的脸, 可爱聪慧。
이 아이는 눈이 크고 얼굴이 둥글며, 귀엽고 똑똑하다.
b. *这个孩子是大大的眼睛, 圆圆的脸, 可爱聪慧。
c. *这个孩子是(一)个大大的眼睛, 圆圆的脸, 可爱聪慧。
d. ?这个孩子大大的眼睛。

예문(7-8)은 '형용사+명사'[5]성분이 직접 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모두 사람의 외모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예문(7a)는 성질형용사 '高'가 명사 '个子'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예문(7b)처럼 술어 '高个子'와 주어 '母亲' 사이에는 '是'가 삽입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예문(7a)와 (7b)는 같은 의미일까? 예문(7c)처럼 '高个子' 앞에 개체를 나타내는 '一个'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럼 '성질형용사·명사' 구조는 모두 '高个子'처럼 사용될 수 있을까? 예문(7')를 보면, '这个孩子大眼睛', '这个孩子是大眼睛'은 모두 성립하지만 '这个孩子是(一)个大眼睛'은 비문이다. 이로써 구조적으로는 같은 '성질형용사·명사'라 할지라도 술어로 기능할 때, 내부적으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5) 아래에서는 모두 'A·N' 구조로 기술한다.

예문(8)에서 '大大的眼睛, 高高的鼻梁'의 앞에는 '是'가 들어갈 수 없고, 개체 수량사 '一个'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문(8b-c)는 모두 비문이다. 또한 '大眼睛'은 단독으로 술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데 예문(8d)처럼 '大大的眼睛'이 단독으로 사용되면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예문(7a)와 예문(8a) 같은 현상이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계속 보기로 한다.

(9) 她今年二十六岁。
그녀는 올해 스물여섯 살이다.

(10) 我就这么一个儿子, 钱不为他花留着做什么？
나는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를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남겨두어서 무엇 할까?

(11) 山上一片松林, 阵阵松涛吹过头顶。
산 위에는 소나무 숲이 있고, 이따금 소나무 물결 바람이 머리 위로 불어왔다.

(12) 他一腔怒气, 对着壁炉站起来。
그는 노기에 가득 차서 벽난로를 마주 보고 일어섰다.

예문(9-12)는 각각 수량구 '二十岁', '수사+양사+명사' 구조 '一个儿子', '一片松林', '一+임시양사+명사' 구조[6] '一腔怒气'가 직접 술어로 쓰인 예이다. 이러한 성분 앞에 계사 '是'를 한번 삽입해보자.

(9') 她今年是二十六岁。
그녀는 올해 스물여섯 살이다.

(10') *我就是这么一个儿子, 钱不为他花留着做什么？[7]

(11') 山上是一片松林, 阵阵松涛吹过头顶。

6) 아래에서 간략히 'Num・CL', 'Num・CL・N', '一・Ncl・N' 구조로 기술한다.

7) '*'는 문장이 비문임을 의미한다.

산 위에는 소나무 숲이 있고, 이따금 소나무 물결 바람이 머리 위로 불어왔다.

(12') ?他是一腔怒气, 对着壁炉站起来。[8)]

그는 노기에 가득 차서 벽난로를 마주 보고 일어섰다.

보다시피 (9')처럼 예문(9)의 술어 앞에 '是'를 넣으면 문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이때 술어 부분을 강조하여 읽어야 하며, 문장은 곧 대조와 확인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是'를 삽입하지 않았을 때는, 주어와 술어 사이에 의도적인 휴지를 둘 필요가 없으며, 청자 역시 쉽게 주어와 술어를 구분할 수 있다. 예문(10)은 명사술어 앞에 부사가 사용되었고 '就'와 '这么一个儿子' 사이에 (10')처럼 '是'를 삽입하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예문(11)은 주어가 장소이고 이때 술어 앞에 (11')처럼 '是'를 넣을 수 있다. 예문(12)에서 술어 앞에 '是'를 삽입하면 (12')처럼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이들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량 성분을 포함한 명사술어문이라도 술어가 어떤 형식인지에 따라서 구문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상술한 차이를 무시하였으며 또한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문(1-12)는 모두 명사술어문이지만 구문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역시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중국어에서도 명사술어문의 많은 형태는 각 시대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의 많은 학자들은 명사성 성분이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명사술어문 현상을 중국어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으로 간주하여 현대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현상이라고만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범언어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현대중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사술어문을 사용하는 다른 언어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구문문법, 인지문법과 유형론 이론에 입각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우선, 구문문법에 입각하여 명사술어문을 하나의 '형식-의미 쌍'을 이루는 도식구문으로 간주하고 형식적으로 명사성 성분이 술어로 기능할 때, 문장의 구조적, 의미적 특징 및 화용적 기능을 두

8) '?'는 문장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 고찰한 뒤에 인지 측면에서 상술한 각 유형의 명사술어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是'가 출현한 유사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구문 간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세 번째로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명사술어문의 역사적인 사용 양상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언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대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유형론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2 기존 연구 검토

중국에서는 1940년대[9]부터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명사술어문이 연구되고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명사술어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赵元任1952, 龙果夫1958, 丁声树1961, 朱德熙1982, 温锁林1995, 刘月华2001, 陈满华2008, 张姜知2013 등), 명사술어문의 구조적, 의미적 유형에 대한 논의(陈建民1986, 周日安1994, 丁雪欢1994, 김희곤2004, 박정구2005, 陈满华2008, 王世群2008, 张庆文2004, 박정구2005, 周同燕2011, 王红旗2016 등), 명사술어문의 형성과 인지적 기제에 대한 논의(马庆株1991, 王珏2005, 邓思颖2002, 项开喜2001, 臧倩一2005, 박정구2007, 高航2008, 张庆翔2012, 鲁丽2013, 黄芳2013, 帖伊2019 등)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연구들은 명사술어문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가능하게 만든 초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위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 본고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연결 지음으로써 논지를 설파하고 합당한 논거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1.2.1 정의와 범위에 대한 연구

吕叔湘(1942)은 명사가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에 대하여 최초로 주목한 학자이다. 赵元任(1952)은 '体词谓语(체언술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 범위를 명사, 수식어-명사 구조(定名结构), 대명사, 수량사 및 명사 기능을 가진

9) 吕叔湘(1942)은 최초로 중국어에서 "명사가 술어 기능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的'자 구조로 정했는데, 이는 吕叔湘(1942)이 정한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다. 龙果夫(1958)는 명사가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을 '名词谓语(명사술어)' 및 '名词·谓语型句(명사·술어형 문장)'라고 제시하면서 "중국어의 일부 명사성 구조는 계사와의 결합 없이 독립적으로 술어 역할을 하는데, 이는 술어의 범주에 근접했다."라고 판단했다. 丁声树(1961)는 '体词谓语句(체언술어문)'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는데, "체언이 술어 역할을 하는 문장을 일컬어 체언술어문."라고 하며,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의 총칭으로서 이러한 단어들은 서로 결합하거나 그 앞에 수식어를 대동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체언 구조를 줄여서 체언"이라고 하였다. 朱德熙(1982)는 술어의 유형을 논할 때, '체언성 술어'를 언급했지만 직접적으로 '체언성술어문'을 정의하지는 않았고, "체언과 체언성 구조는 특정 조건에서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만 언급한 바 있다.

刘月华(2001)는 최초로 '명사술어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비교적 완전한 정의를 내렸다. 그의 논술에 의하면, 명사술어문은 체언성 성분이 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체언성 성분은 명사, 명사구, 대명사, 수사, 수량구 그리고 'X的' 구조를 포함하며 명사술어문의 주어와 술어 사이에 '是'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후에 陈昌来(2000)는 '명사성 술어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는 '명사 또는 명사성 수식구조가 술어로 작용하는 문장'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정의한 '명사성 술어'에서는 대명사, 수량사, 명사성 수식구 이외의 구조를 배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범주가 좁았다.

陈满华(2008)는 체언술어구의 정의에 기초하여 문장이 체언술어문임을 판단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구문에는 반드시 주어와 술어 두 부분이 있어야 한다. 즉, 문장의 구조가 'S+NP'이어야 한다.[10] 둘째, 술어 부분은 반드시 체언 또는 체언성 성분이어야 한다. 셋째, S와 NP의 관계는 실제로 주어-술어 관계이어야 한다. 王红旗(2016)는 陈满华(2008)가 제안한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세 번째 조건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했다. 그는 '每日三次, 每次两片', '我和大刚一个班', '三个人一组'와 같은 문장들이 비록 체언성 성분으로 구성되었지만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언술어문이 아님을 논증했다.

张姜知(2013,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유형론의 시각에서 Payne(1997)이

10) 'S'는 주어 부분을 의미하고 'NP'는 체언성 성분을 의미한다.

정의한 ‘nominal predicate sentence(명사술어문)’은 광의의 명사술어문이다. 이는 Payne(1997)가 “서술 의미가 명사로 구현된 문장은 모두 명사술어문인데, 이때 계사는 무의미하고 어떠한 서술적 기능도 없으며, 명사가 서술적 의미의 핵심이다.”라고 지적한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계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명사성 성분이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명사술어문은 협의의 명사술어문이며 이것이 바로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1.2.2 구조와 의미유형, 화용 기능에 관한 연구

① 통사구조 연구 현황

대부분의 학자들은 명사술어문에서 술어의 구조적 형태에 주목했다. 朱德熙(1982)는 명사성 술어의 구조를 분석하여 ‘명사와 시간명사 구조’, ‘수량사와 수량·명 구조’ 그리고 ‘명사성 수식 구조’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刘月华(2001)는 체언술어문이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첫째, 명사술어문에서 술어는 주로 명사 성분으로 구성되며 단일 명사는 술어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대부분의 명사술어문의 술어에는 ‘是’를 추가하여 ‘是’ 구문이 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명사술어문은 부정형이 없다. 넷째, 명사술어문에서 술어는 일반적으로 보어나 부사어와 같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구조이다. 房玉清(1992)은 명사 및 부가식 명사구와 더불어 ‘명사와 명사구’가 술어가 되는 여섯 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陈满华(2008)는 명사술어문을 체언(명사, 대명사, 수량사), 수식구조, 연합구조, 비교구조, 체언성 구조의 중첩형식, ‘的’자 구조, ‘NP+了’ 구조로 나누고 또 술어 자체를 하나의 체언술어문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두 여덟 가지로 분류했다. 刘相臣·丁崇明(2012)은 명사와 수식어가 있는 명사구가 명사술어문에서 술어로 사용될 때, 구문에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관계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명사와 수식어가 있는 명사구를 두 가지 유형으로 표현한다. 존재관계를 나타낼 때는 명사술어는 일반적으로 ‘수량·명’ 구조이고, 설명관계에서는 종종 수식어가 있는 명사구가 쓰인다.

초기의 학자들은 명사술어문의 주어, 특히 주어의 구조적 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고, 소수 학자들만이 몇몇 논문에서 체언술어문의 주어

의 구조적 유형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班吉庆(2001)은 명사술어문의 기본 형태는 '주어+술어'라고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 주어는 주로 대명사, 명사, 명사성 구조이고 술어는 주로 명사와 명사성 구조라고 분석하였다. 王世群(2004)은 주어는 주로 대명사, 명사, 동목구조, 명사성 구조, 주술구조 등으로 구성되고 명사술어는 주로 명사와 명사성 구조 및 'X的' 구조로 충당된다고 보았다. 李黎(2007) 역시 명사술어문의 주어와 술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그의 관점 역시 班吉庆(2001), 王世群(2004)과 비슷하여 주어는 주로 명사, 대명사 및 명사성 구조이고 술어로는 주로 명사, 수식구조, 수량구조, '的'자 구조 및 대명사가 쓰인다고 분석했다. 陈满华(2008)는 체언술어문에서 주어의 구조적 유형을 구체적으로 논술하면서 주어는 한 개의 체언성 성분(명사, 대명사, 수사, 수량사, '수식어+중심어' 구조) 또는 한 개의 술어 성분(맨동사, 동목구조 등) 아니면 절('他当售货员才半年'에서 '他当售货员')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沈家煊(2021)은 실례를 위주로 동사성 구조인 명사술어구가 주어가 되는 경우를 의미적, 구조적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② 의미 기능 연구 현황

丁声树(1961)는 구조와 의미를 결합하여 명사술어문을 (1) 주어가 술어의 범주에 속하는 유형, (2) 술어가 수사를 취하는 체언구조 유형, (3) 술어가 주어에 속하여 주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과 (4) 술어의 끝에 '的'자가 있는 유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朱德熙(1982)는 명사성 수식구조가 술어로 사용될 때, 중심어는 반드시 주어와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这个人黄头发'와 '这个人好记性' 같은 문장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叶长荫(1987)은 술어의 의미에 따라서 (1) 판단, 분류, 묘사 등, (2) 강조 (3) 나이, 가격의 계산 또는 가격의 논의, (4) 부정, (5) 소속, 직업, 재료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周日安(1994)은 체언술어문의 주어와 술어 사이의 의미관계는 공간, 동일, 분배 등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고 주장하였다.

丁雪欢(1994)은 NP2의 의미유형을 인종, 출신 및 직업 등의 여덟 가지 유형

으로 분류했다.

王世群(2004)은 명사술어문의 의미구조는 한 개의 영술어가 두 개의 논항을 연결시켜서 모종의 정태적 의미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형식상 P(X, Y)로 표기한다고 하였다. 그는 두 논항 X와 Y의 의미적 특징을 기반으로 명사술어문의 일반적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X와 Y의 의미적 특징은 다섯 가지 유형, 즉 (1) X는 시간, Y는 시간, 날씨, 사건 (2) X는 위치, Y는 위치 또는 비위치 (3) X는 사람 또는 사물, Y는 특징과 소속 (4) X와 Y는 모두 수량 (5) X는 어떤 한 사건, Y는 시간, 수량 및 특징 등으로 분류했다. 또한 그는 주어와 술어 사이의 의미관계를 동등(주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범위가 술어로 나타내는 대상과 범위와 정확히 동일함), 특징(주어는 종종 사물을 지시하는 명사를 말하며 술어는 주어의 어떤 특징, 예를 들면, 나이, 계급의 역할 등을 설명함), 귀속(술어는 범주를 나타내고 주어는 술어의 범주 중 한 구성원), 존재(주어는 위치를 나타내고 술어는 주어의 위치에 존재하는 사물), 시간(주어는 한 사건을, 술어는 기간을 나타냄), 분배(주어와 술어가 일종의 분배 관계를 나타냄) 등으로 분류했다.

尤翠云(2005)은 명사술어문은 의미적 관점에서 크게 정태의미(静态义)를 나타내는 명사술어문과 동태의미(动态义)를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정태의미 명사술어문에서 술어는 주로 범주, 수량, 시간, 위치 등과 같은 의미적 특성을 나타내며 행동, 변화, 정도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 중 범주와 속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은 형식상으로 볼 때 가장 단순한 명사술어문이다. 동태의미 명사술어문은 행위, 변화, 정도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주로 특징, 행위, 평가의 의미를 표현한다.

박정구(2005)는 명사성 술어는 수량, 시점, 속성, 존재의 사물, 기간 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黎(2007)는 현대중국어에서 명사술어문의 의미를 고찰하여 귀속 의미, 시량 의미, 특징 의미, 장소 의미 등 열 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한 주어와 술어 사이의 의미적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써, 크게 동등관계, 특징 관계, 귀속관계, 존재 관계, 분배 관계로 나누었다.

周同燕(2011)은 체언술어 구조를 'X·NP/N' 형식으로 표기하였고 X와 NP의 의미유형을 분석했다. 그는 명사술어 NP는 주로 직업, 직위, 학력, 신분, 존재물, 주어가 가리키는 소유물, 주어의 상태와 성질, 수량, 단위량, 사람의 이름,

출신지, 종족, 출신, 성분, 소속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童恋然(2013)은 명사술어의 의미를 구체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의미는 특징, 소속, 수량, 시간, 위치, 사건을 포함하고 추상적인 의미는 사물의 상태를 포함하거나 명사 또는 명사구의 확장된 함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③ 화용 기능 연구 현황

지금까지 통사구조와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한 연구 성과를 이룬 반면, 명사술어문의 화용 기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기 때문에 연구 성과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王世群(2004)은 명사술어문의 화제 구조, 정보구조, 표현 기능, 사용 상황 및 구조적 구성요소의 생략 상황을 분석했다.

陈满华(2007)는 체언술어문과 관용어의 결합 가능성을 분석하고 사용 양상과 구어 색채에 대해 탐구했으며 언어자료 수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李黎(2007)는 명사성술어문이 묘사, 설명과 같은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편으로는 동사술어문과 비교함으로써 그 의미의 초점을 논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구조와 구조적 구성요소의 생략 상황을 분석했다.

童恋然(2013)은 체언술어문의 상황을 수사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언어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용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체언술어문의 전체적 표현 효과를 파악하였고 중국어 특유의 표현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高航(2015)은 인지언어학의 사용모델과 화용론의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현대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을 분석하였다. 그는 현대중국어에서 명사술어문은 자주 사용되어 굳어진 독립적인 구조로서 어떠한 성분이 생략된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명사술어문의 화용 기능은 바로 청자로 하여금 주어가 지시하는 실체가 어떠한 특정 값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게끔 하는 것으로 보았다.

1.2.3 형성과 인지적 기제에 관한 연구

① 생략설

일부 초기 학자들은 명사술어문에 대한 생략설을 견지하면서 '명사술어문'과 같은 독립적 구문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그들은 체언성 구조로는 술어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체언술어문은 일종의 동사를 생략한 문장으로서 특정 동사술어문의 변형이라고 생각했다.

黎锦熙·刘世儒(1957)는 현대중국어의 판단문에서 '是'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是'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是'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생략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사술어문이라는 명칭 또한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Hashimoto(1969)는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심층구조는 '是'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명사술어문의 부정은 '是' 구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是'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으로 간주되어 생략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冯凭(1986)은 아래 네 가지 문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A. 今天星期三。　　这张桌子三条腿。
B. 他湖南人。　　我辽宁人。
C. 他傻瓜。　　他聋子。
D. 他小心眼。　　她黄头发。

그는 "A, B, C, D의 네 그룹에서 술어 역할을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성격을 띠며 물론 그들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은 진정한 형용사와는 또 다르다. 이들의 부정형식은 일반적으로 모두 판단사 '是'가 필요하고 '不'와는 직접 결합할 수 없다.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명사가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② 새로운 생략설: 형식언어학적 연구

1990년대 이후 학자들은 기존의 생략설을 포기했지만 石定栩(2011)와 李晓奇

(2016)는 새로운 생략설을 제시했다.

石定栩(2011)는 “술어로 작용하는 것은 체언의 본질적 문법적 특성이 아니며... 일반적인 체언술어문은 파생된 특수한 구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사와 형용사구가 술어 기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사구의 구조에 체언구를 포함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수동사구이론을 조금 확장하면 일반적인 체언술어문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파생 과정을 찾을 수 있다. 특수동사구이론의 핵심 가설은 동사 생략, 즉 체언술어문을 동사술어문의 생략 형태로 본다. 이러한 가설의 부족한 점은 생략의 범위가 매우 좁고 동사 ‘是’와 ‘有’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만일 생략이 가능한 범위를 조금 확장하고, 각종 동사를 모두 생략이 가능한 예로 포함시킨다면 모든 체언술어문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李晓奇(2016)는 생성문법 언어학자의 ‘생략(Ellipsis)’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을 참고하여, 특히 영어 계사 ‘be’, 계사구와의 관련 연구를 기초로 중국어 ‘是’와 계사판단문의 통사구조 및 의미 특징에 새로운 분석을 가함으로써 ‘是’와 계사 생략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Goldberg(1995)의 구문문법이론을 이용하여 중국어의 존재구문을 재분석하여 존재구문에서 발생하는 비목적어 존재동사의 생략 현상의 조건과 특징을 찾아냈다. 결론적으로 그는 중국어 판단문은 계사 ‘是’가 생략된 것이고,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술어문 역시 존재동사 ‘有’ 또는 ‘是’가 생략된 결과로 보았다.

③ 기능언어학적 연구

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많은 연구의 요점은 특정 명사성 성분이 술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명사성 성분이 서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견해는 언어학계에서 비교적 인정받고 있으며 그 연구의 주요 방법은 어떠한 요인이 명사로 하여금 술어적 기능을 가질 수 있게 했는지를 찾아내 열거하는 것이다.

龙果夫(1958)는 특정 명사성 성분이 술어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어에는 일부 명사성 구조가 계사 없이 독립적으로 술어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들은 용언의 범주에 접근했다.”라고 하였다. 龙果夫(1958)는 ‘수량・명’ 구조 역시 술어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朱德熙(1982)도 “수량사와 ‘수량·명’ 구조는 모두 체언성 성분이면서 동시에 술어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른 명사성 성분이 서술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朱德熙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문장에서 ‘是’가 생략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어떤 경우에는 ‘是’를 가볍게 발음해줌으로써 동사성 술어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丁雪欢(1994)은 체언술어문에서 술어로 사용된 명사성 성분은 분명히 술어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丁雪欢은 다양한 논증을 거친 후, “명사술어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미 표현 기능에 동사를 추가한 동사성 단어에 해당한다. 그 지위는 시간, 수량 및 정도의 가변적 술어의 특징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진정한 명사의 묘사기능과는 다르다. 이는 모두 명사성 성분이 술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项开喜(2001)는 중국어의 일부 명사성 성분은 의미적 특징의 영향을 받으며 술어화되는 경향과 서술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체언술어문은 일정한 의미적 위계를 가지며, 상위에서 하위까지 ‘변화의미〉 상태의미〉 성질의미〉 소유의미〉 존재의미〉 판단의미〉 분배의미’의 7단계 순위로 나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형이론에 기초하여 여러 체언성 성분의 기능적 가치를 나열하였다. 이러한 의미 위계는 체언술어문의 어순 제한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一张桌子三个抽屉’라고 말할 수 있지만, ‘三个抽屉一张桌子’라고는 표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전체범주(一张桌子)의 서술 기능이 부분범주(三个抽屉)보다 작기 때문으로 결국 부분범주가 술어로서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刘顺(2001)은 그의 연구에서 명사술어문의 술어를 충당하는 성분은 ‘十月一日国庆节’에서 ‘国庆节’과 같이 때로는 맨명사이고 때로는 ‘那把椅子三条腿’에서 ‘三条腿’와 같이 복잡한 형태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刘顺은 袁毓林(1994)이 제시한 결합가이론을 바탕으로 ‘삭제’ 방법을 사용하여 명사술어문의 자율적 특징에 대한 원인을 설명했다. 그는 많은 상황에서 명사의 유계성(boundness) 제약이 문장의 자율적 특징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유계성이 있는 명사와 유계성이 없는 성분은 서로 조합될 수 없어 문장의 주어가 유계성이 있는 성분으로 충당될 때, 명사술어 또한 반드시 유계성 명

사 구조이어야 한다. 예컨대, '窗前玫瑰花'와 '南边的天上乌云'이라는 문장은 비자율적인데 그 이유는 주어 '窗前', '南边的天上'은 장소명사구이며 사람들의 인지 속에 모두 유계성이 있는 성분이고 뒤에 결합되는 성분도 유계성이 있는 성분이어야하기 때문이다. '玫瑰花'와 '乌云'은 개체 사물을 지시하지 않고 수량구 '一朵', '一片'을 붙이면 유계성 성분으로 변환하여 앞의 성분과 직접 결합될 수 있게 된다.

陈满华(2008)는 'Num・CL'구조, 'Num・CL・N'구조, 대부분의 수사, 대수사 '多少', 부분 'A・N' 구조 및 동사가 없는 비교구조는 직접적인 술어적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명사와 명사구, 'X的' 구조, 의문대명사 및 소수의 중첩 양사는 간접적인 술어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周日安(2010)은 원래 두 개의 독립된 명사 사이의 관계는 수식 또는 병렬관계이며 명사술어문의 서술관계는 수식어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생긴다고 보았다.

또한 姚振武(2000), 王珏(2001), 王世群(2004), 许有胜(2005), Wei(2007) 등도 명사성 성분이 서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庞加光(2013)은 명사술어문의 성립 제한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주목하였다. 그는 명사술어문과 형용사술어문은 유사성을 가지며 모두 추상적 특징문(特征句)의 하위 구조로 간주될 수 있다는 张韧(2009)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庞加光(2013)에 의하면 형용사술어문은 전형적인 특징문이며, 명사술어문의 술어 NP는 형용사술어문을 참조하여 특징을 묘사하는 기능이 있는 관계적 성분으로 범주화되었다. 따라서 술어 위치에 출현할 수 있는 명사성 성분은 반드시 관계적 성분이어야 한다. 이는 형용사술어문이 범주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张庆翔・马强(2015)은 지시에서 서술까지의 연속체 이론을 참조하여 문장 형성의 메커니즘에 따라 명사술어문을 전형, 준전형, 비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맨명사, 'N1・N2' 구조, 'Num・CL・N' 구조 등이 술어로 쓰인 판단구문은 전형적인 명사술어문이고, 'A・N'의 구조를 갖고 '성질', '상태'의미를 나타내는 준묘사문은 준전형 명사술어문이며, 특정 구조와 문맥에 의해 형성되는 준서술문은 비전형 명사술어문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명사술어문은 전형적인 프레이밍(flaming), 은유 방식의 비전형 프레이밍, 문법화 및 관습화 등의 방식을 통해 명사술어문의 다른 단계를 형성한다. 이외에, 명사술어문을 형성할 수 있는 명사에 포함된 다른 부가적인 의미도 문장의 의미적 기초가 된다.

④ 인지언어학적 연구

叶长荫(1987), 丁雪欢(1994) 등의 연구는 일찍이 인지 방면의 연구의 싹을 틔웠다. 1990년대 이후로 명사술어문의 연구는 인지와 기능 두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기술되어 왔으며, 인지와 화용 방면으로 심도 있게 발전하여 명사술어문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马庆株(1991)는 명사술어문에서 순서성(顺序性)의 유무를 분석함으로써 순서 의미가 있는 명사만이 술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명사술어문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명사술어문에는 순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鲁迅浙江绍兴人', '她黄头发'과 같은 문장의 술어는 순서 의미를 띠지 않는다. 邓思颖(2002)은 이러한 관점을 심화하여 지시 한계가 중국어 명사술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시적 기능을 나타내는 시간명사는 술어로 작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高航(2009)은 인지문법의 관점을 탈피하여 명사술어문의 보편적 인지능력에 기초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술어명사는 동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는 주관화와 심리 스캔으로 인해 생성된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문법과는 다르게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어의 양적 명사는 절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중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帖伊(2019)는 배경화(grounding)이론에서 출발하여 의미의 틀과 인지 참조점을 실마리로 사용하여 '의미의 틀과 참조점에 기반한 배경화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명사술어문을 다시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정의 및 분류하고 명사술어문의 특징을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의미구성의 역동적 과정을 분석하고, 명사술어문 형성의 인지적 동기와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 명사술어문에 대한 연구는 구조, 의미, 화용 기능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그 형성 원인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내용 또한 심화되고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화되고 심화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명사술어문의 판단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은

명사술어문과 명사술어문이 아닌 문장을 구분하는 데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통사 형식과 의미 묘사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차이로 이어졌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는 주어와 술어를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구문문법의 관점에서 명사술어문은 완전한 도식 구문이며 주어와 명사술어 사이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의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명사술어문에 대한 해석은 지시-서술, 순서 의미, 주관화 및 심리스캔 등 다양한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는 중국어 명사술어문이 내포하고 있는 언어의 보편성 및 개별 언어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적고 빈약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 사이에는 수많은 연결고리가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는 명사술어문에서의 '是'의 필요성 문제에만 몰두하여 아직도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명사술어문이 단독으로 사용된 예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언어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부족하였다. 실제 텍스트 환경 중에 사용된 여러 형식의 문장, 이를테면 명사술어문과 동사술어문 또는 형용사술어문이 같이 사용된 현상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텍스트 환경에서 사용된 사례들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1.2.1에서 논의한 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학자들은 서로 다른 기준과 관점으로 명사술어문에 대해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했지만, 명사술어문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유사하였다. 그러나 명사술어문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우선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명사술어문의 범위와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말하는 '명사'는 넓은 의미의 명사로서 일반명사, 고유명사, 시간명사, 장소명사뿐만 아니라 대명사, 수사, 양사, 수량구조, 'Num・CL・N' 구조 등까지 포함한 '체언성 성분'을 가리킨다. 다음의 〈표 1-3〉은 체언성 성분

의 범위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의견이다.

〈표 1-3〉 중국어 체언의 범위

龙果夫(1958)	명사, 수사, 대사(대명사)
朱德熙(1982)	명사, 장소명사, 방위사, 시간명사, 구별사, 수사, 양사, 일부 대명사
『실용한어어법대사전』(1995)	①명사와 대명사. ②명사와 기능이 같은 구별사, 수사, 양사 등.
刘月华(2001)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郭锐(2002)	명사, 시간명사, 장소명사, 방위사, 양사
『현대한어사전(제6판)』(2006)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표 1-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어의 체언 성분은 주로 명사, 시간명사, 장소명사, 방위사, 대사(대명사), 수사, 양사를 포함한다. 본고는 상술한 체언 성분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로 결합되어 사용된 체언구 형식까지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인지문법에서 품사의 범주에 대한 기본개념에 의하면 이러한 성분들은 모두 '사물'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명사술어문은 형식적으로 명사성 성분이 술어로 직접 기능하면서도 계사 또는 기타 동사가 필요하지 않은 문장을 말한다. 명사술어문의 구조적 형식은 'S+NP'이며 여기서 NP는 맨명사, 시간명사, 장소명사, 대명사, 'N1・N2'구조, 'X的' 구조, 'A・N' 구조, 수사, 'Num・CL' 구조, 'Num・CL・N' 구조, '一・Ncl・N'[11] 구조를 포함한다.

위와 같이 필자는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명사술어문의 정의와 범주를 설정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은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첫째, '春天了！', '谁啊？', '都大学生了。' 등과 같은 명사문이 비주술문이며 구조 또한 'S+NP'의 형태를 띠지 아니하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둘째, '每人两本', '一人一套故事书'와 같이 수량적 분배의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은 두 번째 명사구가 첫 번째 명사구를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三个女人一台戏', '一日夫妻百日恩' 등과 같은 속어 형식의 문장은 의미

11) 임시 명량사의 약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김현철・장진개(2017)를 참조하였다.

적으로 하나의 완전체이기 때문에 주어와 술어로 나눌 수 없으므로 본고의 고찰 대상이 아니다.

넷째, '这很中国', '他太绅士', '这个地方很郊区' 등의 문장에서 '中国(중국)', '绅士(신사)', '郊区(교외)'는 원래 명사이며 지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해당 문장에서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게 되면서 명사의 외연적 의미보다 특정 속성을 표현하는 내적인 의미가 강조되면서 지시적인 기능은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형용사처럼 유연하게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문장도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제에 대한 논술을 전개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을 밝히고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2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본고는 기능주의적 분석 방법, 특히 구문문법이론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우선 Goldberg의 구문의 개념을 살펴보고 명사술어문이 일종의 구문임을 확립한다. 구문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용 빈도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므로 구문문법의 사용-기반 모델을 살펴볼 것이다. 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은 형식과 의미가 다양하고 하위 구문을 다시 나눠서 분석할 수 있어 각 하위 구문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문 연결의 유형도 살펴보고자 한다. 명사성 성분을 술어로 사용하는 것과 계사의 사용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범언어적으로 계사의 개념, 계사의 기원, 계사와 계사구문의 의미 기능을 소개하고 중국어의 계사 '是'의 의미 기능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 5장까지는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특정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는 현상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묘사와 분리될 수 없는데,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명사술어문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언어 자료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술어로 된 '一・Ncl・N'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먼저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인지구문문법의 관점에서의 해석을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구문문법의 시각에서 다양한 유형의 명사술어문의 형성과 인지적 기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 5장까지는 각각 'N1・N2' 구조, 맨명사, 시간명사, 장소명사, 의문대명사, 'X的' 구조가 판단성 명사술어문에 쓰이는 경우, 'A・N' 구조가 묘사성 술어문에 쓰이는 경우, 'Num・CL' 구조, 'Num・CL・N' 구조, '一・Ncl・N' 구조가 수량

성 명사술어문에 쓰이고 수량, 소유, 존재,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상술한 분석을 통해 각 형식별 하위 구문이 어떻게 명사술어문의 네트워크에서 연결되는지를 밝힐 것이다.

명사성 성분을 술어로 사용하는 것과 계사의 사용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6장에서는 각 유형의 명사술어문에 '是'가 부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계사의 문법화 과정을 토대로 부가된 '是'의 유형론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7장에서는 명사술어문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진행한다. 언어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영계사 언어에서 계사 언어에 이르기까지 명사술어문의 사용은 다른 문법 현상과 같이 통시적 측면에서 계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적, 통시적 고찰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고대중국어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시대의 명사술어문 사용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8장에서는 현대중국어의 명사술어문과 다른 언어의 대조를 진행한다. 본고의 연구는 현대중국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명사술어문을 사용한 다른 언어의 사례에 대하여 유형론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어와 서로 비교함으로써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필시 중국어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상술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본 논문의 연구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코퍼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로 BCC를 사용하였다. 이 코퍼스는 북경어언대학 언어교육연구소에서 제공한 코퍼스로 문학, 신문, 대화 등 다분야 데이터를 포함하여 중국 당대 사회 언어생활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 코퍼스이다. 특히 품사별로 예문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 BCC의 장점이다. 고대중국어의 예문은 북경대학 중국언어연구센터(北京大学中国语言研究中心)에서 개발한 CCL 코퍼스에서 발췌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필자가 직접 만든 예문도 있음을 밝혀 둔다.

제2장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

2.1 구문문법적 접근법

명사술어문은 하나의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본고의 논의는 인지구문문법 이론의 여러 주장과 관련이 있다. 아래에서 그 주장들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2.1.1 구문의 개념

최근 Goldberg(2006), Langacker(2008) 등 인지언어학자들이 공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문론자들은 언어를 하나의 네트워크(network) 속에서 조직화된 '형식-의미 쌍(form-meaning pairing)' 또는 '구문(construction)'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언어모델로 개념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12] Goldberg(1995)는 '구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C가 형식과 의미의 짝(Fi, Si)이고 그 Fi의 어떤 양상과 또는 Si의 어떤 양상이 C의 성분이나 이미 확립된 다른 구문으로부터 엄밀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C를 구문이라고 한다.

Traugott&Trousdale(2013)은 Goldberg(1995)의 '구문' 개념을 더욱 세부화시켰다. 그들에 의하면 형식(Form)은 통사(SYN), 형태(MORPH), 음운(PHON)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의미(Meaning)는 담화(DIS), 의미(SEM), 화용(PRAG)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통사, 형태, 음운, 담화, 의미, 화용 등 여섯 가지가 모두 '구문의 자질'인 셈이다.

구문문법은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를 구문이라고 본다. 〈표 2-1〉과 같이 형태소만큼 작은 것, 문장만큼 큰 것, 단어, 구, 고정 표현, 속어, 절 등이 모두 구문이다.

12) 박원기・강병규(2018) 참조.

〈표 2-1〉 구문의 유형과 실례

구문	형식/실례	기능
형태소	anti-、pre-、-ing	
단어	Avocado、anaconda、and	
복합어	Daredevil、shoo-in	
성어 (완전체)	Going great guns	
성어(부)	Jog (someone's) memory	
조건구문	형식: The Xer the Yer (예: The more you think about it, the less you understand)	의미: 관련성 있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중타동 구문	형식: Subj [V Obj1 Obj2] (예:He gave her a Coke; He baked her a muffin)	의미: 전달(의향적, 실제적)
피동문	형식: Subj aux VPpp (PPby) (예: The arma-dillo was hit by a car)	텍스트 기능: 행위의 수동자를 주제로 만들거나 행위자를 더 이상 주제로 만들지 않는다.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구문문법은 소위 핵심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언어 체계에 대해 완정한 설명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문문법의 핵심은 어휘, 형태, 통사가 관습화하여 확립된 상징적 단위인 연속체(continuum)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다.

구문문법은 형식문법이 견지하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 중에서 특히 변형생성문법의 반동적 형태로서 형태와 의미, 기능의 통일성을 강조한 점과 언어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사실을 외부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점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기능주의 색채가 강하다. 구문문법의 이론적 틀에서 볼 때, 각각의 구문은 변형생성문법학파가 주장한 바와 같이 생성규칙이나 일반규칙의 조작에 의해 생성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다. 즉, '구문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에 비추어 구문 자체는 특정한 독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서로 다른 형식의 구문은 역시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

구문문법은 언어 지식이 인간의 언어 경험에서 형성, 획득 및 사용된다고 믿는 인지언어학으로부터 생성된 이론이다. 이러한 지식관은 지식이 온라인 생성성(onlinegenerativity)과 확립－관습화(entrenchment-conventionalization)의 특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지식은 역동적 출현과 역사적 계승을 동시에 실현한다고 보았다. 즉, 구문문법에서 지식은 언어사용 과정에서 형성되며, 특정 사용자 집단이 공유하는 인지적 성취인 것이다. 비록 개인의 지식 또한 분명히 일종의 지식이지만, 구문문법에서 말하는 지식은 문법 체계 속에서 파생된 지식으로서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집단지식인 것이다.

吴为善(2016)은 구문문법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구문의미의 정교화에 주목하여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는 구문의미를 통사적 틀에 맞추어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문의 화용적 기능을 나타낸다. 이는 의미적 측면에서의 일반화뿐만 아니라 화용적 측면에서의 일반화도 포함한다. 둘째, 구문의 생산성, 즉 원형 구문과 구문의 변형 간의 차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최대 동기화 원리(principle of maximized motivation)에 기초하여 관련 구문 간의 상속 연결을 검토한다. 셋째, 구문의 담화 기능을 강조한다. 즉 담화 상황(scene)에 대한 화자의 '해석(construal)'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문을 사용하는지를 설명한다. 명사술어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문문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명사술어문이 갖는 특징에 대해 충분한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어, '명사술어문의 구문 의미는 무엇인가?', '생산적인가?', '어떤 담화 기능이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맥락에서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이 구문을 선택할까?'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문문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사술어문을 연구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우선, 구문문법은 문법 구조를 예측할 수 없고 파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법 구조는 그 구성 요소 중 하나에 의해 완전히 예측될 수 없으며 다른 구조에서 파생될 수도 없다. 또한 구문문법은 동사중심이론, 통사구조가 심층 구조에서 표면 구조로 파생하는 이론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 구문 형식 자체는 독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상이한 구문 형식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구문문법 이론에 따르면 명사술어문은 전형적인 문법 구성

이며 그것을 형성하는 동사중심이 없다. 명사술어문은 다른 구조적 형태(예: 계사 구문, 동사술어문)에서 변환된 것이 아니다. 둘째, 구문문법은 명사술어문 및 기타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의 요구에 부합하는 범언어적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다. 구문문법은 보편적인 인지적 제약과 구문 표현 기능을 사용하여 언어 간 문법적 공통점을 설명하는데, 이는 명사술어문의 개별적 특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더 큰 시각에서 볼 때, 명사술어문과 관련된 많은 언어 현상은 유사성을 가지며, 이는 명사술어문의 인지적 기반과 의미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2.1.2 사용-기반 모델

언어 구조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Bybee(2010)는 '사용(use)'과 '지식(knowledge)'은 모두 언어를 공시적 또는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 같다고 주장했다. Taylor(2002:592)는 "사용-기반 접근법을 통해 언어적 지식은 상향식으로 획득되며 이러한 기초 위에 언어와 접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기반 접근법으로부터 도식적인 표현이 추상화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13] 인지문법은 언어 지식에 있어서 사용의 작용을 강조한다. 구문문법 역시 문법은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고 화용 전략 규칙을 따라서 형성된 것임을 강조하는 '사용-기반 모델(Usage-based models)'을 채택한다. 언어 체계는 수시로 변하고 언어 사용은 언어 체계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언어 사용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언어 표현과 문법 패턴은 덜 자주 나타나는 언어 표현과 문법 패턴보다 자연적으로 더 쉽게 굳어진다. 사용-기반 모델에서 문법은 더 이상 예외가 없는 독립적인 규칙 집합이 아니라 관습화된 언어 단위의 거대하고 중복된 집합인 것이다.

문법 규칙을 구현한 도식은 구문문법이 사용-기반 모델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언어 표현을 추상화한 것이다. 언어 진화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간단한 구조는 복잡한 구조가 생성된 후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보다 먼저 생성된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명사술어문 역시 동사술어문의 변환에서

13) 박원기・강병규(2018:125) 참조.

파생된 것이 아니라 언어 표현의 실례(token)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본고는 여러 유형의 언어를 고찰함으로써 명사술어문이 서면어에서는 출현 빈도가 낮은 반면, 구어에서는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류의 언어는 원래 의사소통을 위해 구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훗날 문자가 발명됨에 따라 서면 의사소통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명사술어문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형태와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구조이며, 이는 구문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문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동사술어문이 단순화되어 파생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용 빈도는 구조의 관습화와 일반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의 사용에서 어떤 추상적인 구문을 도식화할 수 있으려면 그 구문이 자주 사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극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기억에 더 깊은 흔적이 남는다. 언어는 실제 사용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다. 하나의 단어가 비록 개별적 부분들로 분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화자에게 사용되는지가 그 단어가 하나의 단위로 확립되고 저장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도식성 구문도 마찬가지다.

사용-기반 모델에서 언어 지식은 네트워크를 통해 시뮬레이션 된다. 복잡한 구문의 여러 변형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교점(node)과 교점 사이의 연결이다. 서로 다른 교점은 유사성을 통해 연결된다. 이를 기반으로 명사술어문은 구문 네트워크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명사성 성분이 술어로 기능하는 것은 하위 구문을 가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2.1.3 구문 연결의 유형

구문문법은 구문이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Goldberg(2003: 221)에 의하면 다의성은 어휘와 같은 실체성 구문 및 문장과 같은 도식성 구문 모두에 적용된다. 도식성 구문은 제한적이지만 인간의 경험은 무한하며, 무한한 경험을 부호화하기 위해 유한한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조의 다의적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원자적 구문은 은유, 환유와 같은 일반적인 인지기제를 통해 파생되고 확장됨으로써 인간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험의 세계를

인코딩한다.

Goldberg(2003:219)는 언어에 대한 우리 지식의 완전체가 구문의 네트워크를 통해 포착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다만 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구문들은 질서 없이 단순히 모이거나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로 구조화되고 위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구문이 같은 구조를 갖는 다른 구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근거 없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구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어받아 서로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구문은 '동기부여(motivation)' 또는 '유연성'을 지닌다. 이처럼 하나의 구문이 다른 구문들로부터 무언가를 이어받는 것을 '상속 연결(inheritance link)'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속 연결은 몇 가지 유형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Goldberg(1995:75-81)에서는 '다의성 연결(Polysemy Link)', '부분 연결(Subpart Link)', '예시 연결(Instance Link)', '은유적 확장 연결(Mataphorical Extension Link)' 등 네 가지의 유형을 소개하였다.[14)]

다의성 연결(polysemy link)은 한 구문의 원형적인(prototypical) 의미와 그것의 확장 사이에 의미적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통사적인 내역은 동일한 반면, 그것의 의미적인 면들은 다르다. Goldberg는 다의성 연결의 대표적인 예로 이중타동구문(ditransitive construction)을 들었는데 이중타동구문은 [SUBJ V OBJ1 OBJ2]라는 통사구조로서 [X CAUSE Y to RECEIVE Z]라는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통일된 구문 구조의 이면에는 다양한 의미적 변형이 존재한다. 예컨대 이중타동구문의 원형 의미를 나타내는 'Joe gave sally the ball(Joe는 sally에게 공을 주었다.)'구문은 'Joe promised Bob a car' 또는 'Joe permitted Chris an apple'과 같은 의미적 변형 구문을 내포하고 있다.[15)]

부분 연결(Subpart Link)은 '하나의 구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보다 큰 구문'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전자는 후자의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The toddler walked to the door(아장아장 걷는 아기는 문으로 걸어갔다)'와 같은 '자동사 이동 도식(intransitive motion schema)'은 'She walked the toddler to

14) 사례(2018:49) 참조.

15) 네 가지 구문 연결 유형의 정의와 구체적인 예시는 주로 박원기・강병규(2018)를 참조하였다.

the door(그녀는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문까지 걸어가게 했다)'와 같은 '사역-이동 도식'의 적절한 하위부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예시 연결(Instance Link)은 하나의 특별한 구문이 다른 구문의 '특별한 케이스(special case)'가 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동사 'drive'가 결과구문에 사용된다면, '결과-도달점' 논항이 출현할 수 있는데 이때 결합성분은 단지 구문의 한정된 집합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즉, 'drive someone crazy, nuts(미친), up the wall(미친)'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볼 때, 'drive someone happy, delighted, up the staircase' 등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drive someone X'에서의 X는 주로 부정적으로 지향된 의미의 단어('crazy 등')나 숙어('up the wall')이다.

마지막은 '은유적 확장 연결(Mataphorical Extension Link)'이다. 이는 특별한 은유적 사상(mapping)을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동(motion)'과 '변화(change)' 간의 은유적 연결, '장소(location)'와 '상태(state)' 간의 은유적 연결 등이 있다. 상태의 변화(예컨대, 'Lisa sent him home.')란 곧 장소(위치) 변화(예컨대, 'Lisa sent him wide.')의 은유적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2 계사와 계사구문

2.2.1 범언어적 계사

Stassen(1997)은 한 자리 술어(one-place predicate)의 표현 방식을 동사적 방책(verbal strategy), 명사적 방책(nominal strategy), 장소적 방책(locational strategy)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소위 명사적 방책은 명사술어와 주어를 계사로 연결하거나, 영계사(zero copula)를 허용하는 언어의 경우에는 주어와 술어를 영계사로 연결하는 방책을 말한다. 명사적 방책으로 구현된 구문에서 'S+NP', 즉 영계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장 원형적인 경우이다. Pustet(2003)는 전 세계 131개 언어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조사를 통해 41개 언어가 계사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41개 언어 가운데 19개 언어가 오스트로네시아

(Austronesian) 어족에 속한다. WALS에서는 더 많은 언어의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386개의 언어에서 명사적 방책이 구현될 때 영계사를 허용하는 언어는 175개라는 설명이 나와 있다.[16] 아래의 〈표 2-2〉는 영계사를 허용하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의 일부 실례이다.

〈표 2-2〉 영계사 언어와 계사 언어

	수량	언어 예시
영계사 언어	175	타갈로그어(Tagalog), 차디치어(Gude), 벵골어(Bengali), 크리어(Cree), 신할라어(Sinhalese) 등
계사 언어	211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러시아어, 헝가리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현대중국어 등

아래 몇 가지 영계사 언어의 예를 들어보자.

(1) maestro ang lalaki
teacher FOC man
선생님 초점 남자
그 남자는 선생님이다. (타갈로그어[17], Pustet2003)

(2) nwənwu nə kwalii
chiefSUBJ Kwalii
우두머리 SUBJ Kwalii
콰리이는 우두머리다. (차디치어[18], Dryer2007)

(3) amarnam poul.
my name Poul.
내 이름은 폴이다. (벵골어[19], 旷书文2006)

16) 구체적인 설명은 'https://wals.info/feature/120A#2/18.0/153.6'에서 참고할 수 있다.
17) 타갈로그어는 필리핀 인구의 1/4이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다수가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 말레이폴리네시아어파의 언어이다. (위키백과)
18)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 쓰이는 차디치어이다. (위키백과)
19) 벵골어는 벵골인의 언어이다. 주로 방글라데시 및 인도의 서벵골주와 그 주변에서 사용된다. 벵골어는 인도유럽어족 인도이란 어파에 속한다. (위키백과)

(4) Nikosis ana nâpew.
my^son that man
저 남자는 내 아들이다. (크리어[20], 旷书文2006)

(5) unnaehee hungak precidde kene-k
he very famous person-NOM.
그는 유명한 사람이다. (신할라어[21], Gair1970)

예문(1-2)에서 볼 수 있듯이, 타갈로그어(Tagalog)와 나이지리아 및 카메룬 일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디치어(Gude)에서는 계사로 분석될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타갈로그어의 명사어 구문은 주로 초점표지 ang을 사용하고, 차디치어에서는 주어표지 'nə'를 사용한다. 예문(3)에서의 벵골어(Bengali), 예문(4)에서의 크리어(Cree)와 예문(5)에서의 신할라어(Sinhalese)는 별도의 연결 수단 없이 두 명사성 성분을 병렬시키면 두 번째 명사가 첫 번째 명사를 서술하는 형식의 언어이다.

상고중국어 또한 계사가 없는 언어이다.[22] 두 개의 명사성 성분을 단순히 병렬 배치함으로써 문장을 형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NP 뒤에 어기조사 '者'가 출현하고 두 번째 NP 뒤에 어기조사 '也'가 출현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6) 南冥者，天池也。 (『庄子・逍遥游』)
북녘 아득한 바다는 곧 천지이다.

(7) 董狐，古之良史也。 (『左传・宣公二年』)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다.

---

20) 크리어는 북아메리카에서 쓰이는 알곤킨(알공킨) 계통의 언어로서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 사용되는 언어이며 북미 원주민 언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인다. (위키백과)

21) 신할라어는 스리랑카에서 사용되는 싱할라인의 언어이다. 인도유럽어족 인도이란어파 인도아리아어군에 속한다. (위키백과)

22) 王力(1957), 冯胜利(2003), 梁银峰(2012) 등에 의하면 전국(战国) 말기 전의 고대중국어에는 계사가 없다.

(6)과 (7)은 모두 현대중국어의 '是' 구문으로 해석되지만 상고중국어에서 '是'의 계사 용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 이때 'NP1者, NP2也', 'NP1, NP2也' 구조는 명사적 방책의 주요 표현 형식이다.

상술한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영계사 언어는 주로 아래 몇 가지 수단으로 명사술어문을 표현한다.

첫째, 강세 혹은 강조하는 요소로 술어를 부각시킨다.

둘째, 자연 휴지이거나 음성적 휴지로 명사어 구문을 나타낸다.

셋째, 두 명사성 성분을 직접 배열한다. 이 수단은 인류언어가 명사어 구문을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계사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용된 주요 수단이다.

'NP1+NP2'는 명사적 방책의 원형적 구문이지만 현재 세계 대다수의 언어는 계사를 가지고 있고 계사를 사용하여 주어와 술어를 연결한다.

계사는 '연결', '연합'을 의미하는 라틴어 'copular'를 차용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와 술부를 연결하는 언어적 요소로 정의된다.[23] Pustet(2003:5)는 Hengeveld(1992)와 Stassen(1997)[24]이 주장한 계사 가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계사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있다.

> A copula is a linguistics element which co-occurs with certain lexemes in certain languages when they function as predicate nucleus. A copula does not add any semantic content to the predicate phrase it is contained in.
>
> (계사란 술어 핵으로 기능할 때 특정 어휘소들과 함께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이며, 이는 서술구에 어떠한 의미적인 내용도 덧붙이지 않는다.)

상술한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계사는 항상 특정한 성분과 같이 문장의 술어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계사의 사용 여부는 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23) Stassen(1997:76) 참조.

24) Hengeveld(1992)는 계사가 의미적으로 비어 있고 단순히 서술구에 대한 굴절 자질의 운반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 Stassen(1997)은 계사가 어떠한 의미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성분의 품사와 관련이 있다. 둘째, 계사는 다른 실질적인 의미 내용을 띠고 있는 어휘와 달리 어휘적 의미는 없으며 단순히 연결 기능만 한다. 따라서 계사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사구문을 다룰 수밖에 없다.

계사와 명사, 형용사, 동사와의 결합 가능성은 여덟 가지가 있지만 Pustet (2003)가 세계의 총 154개 언어를 표본으로 삼아 범언어적으로 진행한 분석과 고찰에 따르면, 현재는 여덟 가지의 결합 유형 중 〈표 2-3〉과 같이 네 가지 유형만 존재하고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2-3〉 계사와 명사, 동사, 형용사의 실제 결합 양상(Pustet2003)

언어	명사	형용사	동사
Tagalog	-[25]	-	-
Burmese	+	-	-
German	+	+	-
Bambara	+	+	+
?	-	+	+
?	-	-	+
?	-	+	-
?	+	-	+

〈표 2-3〉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타갈로그어(Tagalog)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사가 없는 언어이다.[26] 버마어(Burmese)는 계사가 있지만 명사와만 결합한

25) '-'는 계사와 해당 성분이 결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는 결합한다는 뜻이다.

26) 타갈로그어의 명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 동사술어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명사술어문: maestro ang lalaki
teacher FOC man
the man is a teacher. (Schachter&Otanes1972:97)

형용사술어문: bago ang bahay
new FOC house
the house is new. (Schachter&Otanes1972:64)

동사술어문: nag-hi-hi-lik ang lolo
AG.FOC-S-RED.IPF-snore FOC grandfather

다.[27] 독일어의 계사는 명사, 형용사와 결합하고[28] 밤바라어(Bambara)의 계사는 명사, 형용사, 동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다.[29] 이 밖에 '형용사, 동사와 결합하고 명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언어', '동사와만 결합하고 형용사, 명사와 결합하지 않는 언어', '형용사와만 결합하고 명사,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 언어', '명사,

---

grandfather is snoring. (Schachter&Otanes1972:69)

27) 버마어의 명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 동사술어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명사술어문: i ə-ja gà eɪ phjɪ? pa ði
this thing TOP house COP PLT POS
this thing is a house.
형용사술어문: i eɪ gà ŋɛ ba ði
this house TOP small PLT POS
this house is small.
동사술어문: θu gà ji ne ba ði
3SG TOP laugh PRG PLT POS
s/he is laughing.

28) 독일어의 명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 동사술어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명사술어문: das ist ein Haus
this.NOM COP.3SG.PRS.IND IDF.SG.NTR.NOM house
this is a house.
형용사술어문: das Haus ist klein
DEF.SG.NTR.NOM house COP.3SG.PRS.IND small
the house is small.
동사술어문: er lach-t
3SG.MSC.NOM laugh-3SG.PRS.IND
he is laughing.

29) 밤바라어의 명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 동사술어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명사술어문: nìn ye námása ye
this COP banana COP
this is a banana.
형용사술어문: so ka sùrun
house COP small
this house is small.
동사술어문: ne bɛ taa
1SG COP leave
I am leaving.

동사와 결합하고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언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Pustet(2003:73)는 아래와 같은 위계(Hierarchy)를 제시하였다.

NOMINALS > ADJECTIVALS > VERBALS

〈그림 2-1〉 계사와 품사 범주의 결합 위계

박진호(2005)도 계사와의 결합 가능성에 있어서 '명사〉형용사〉동사'의 위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언어에서 계사가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면 그 계사는 명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어떤 언어의 계사가 동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면 그 계사는 명사, 형용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어떤 언어에 명사와 결합이 가능한 계사가 없다면, 그 언어에는 형용사 및 동사와 결합이 가능한 계사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계사가 있는 언어에서 만약 동사가 술어로 사용될 때 계사를 필요로 하면 형용사, 명사도 술어로 사용될 때 반드시 계사를 필요로 한다. 만약 동사는 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형용사는 필요로 한다면 이때 명사는 반드시 계사를 필요로 한다. 영어는 형용사와 명사가 술어 위치에 나타날 때 모두 계사 'be'를 필요로 한다.

(8) a. This cup is big.
이 잔은 크다.
b. *This cup big.

(9) a. This is a cup.
이것은 잔이다.
b. *This a cup.

예문(8)의 형용사 'big(크다)'와 예문(9)의 명사구 'a cup(하나의 잔)'은 술어로 기능할 때는 계사 'be'와 같이 출현하고 있으며 만약 'be'가 없으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동사, 형용사가 모두 계사 없이 술어 위치에 직접 출현할 수 있고 명사는 일반적으로 계사의 도움으로 술어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0) a. 이 옷은 예쁘다.
这件衣服很漂亮。
b. *这件衣服是漂亮。[30]

(11) 나는 대학생이다.
我是大学生。[31]

예문(10)에서 한국어의 형용사 '예쁘다', 중국어의 형용사 '漂亮'은 모두 직접 술어 위치에 나타나고 특히 예문(10b)처럼 형용사가 계사 '是'와 같이 쓰이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예문(11)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성 성분이 계사 '이다', '是'와 같이 술어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계사가 존재하는 언어는 처음부터 계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Stassen(1997)에 의하면 계사는 동사로부터 문법화한 경우가 있고, 동사가 아닌 다른 요소로부터 계사화된 경우도 있다. 영어의 계사 'be'는 동사로부터 왔지만[32] 중국어의 계사 '是'는 대명사로부터 문법화했다.

중국어는 화제부각언어(topic prominent language)이다. 赵元任(1968)과 曹逢甫(1977), Li&Thompson(1976)은 주어와 술어를 화제(topic)와 평언(comment)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을 설명한 바 있다. 王力(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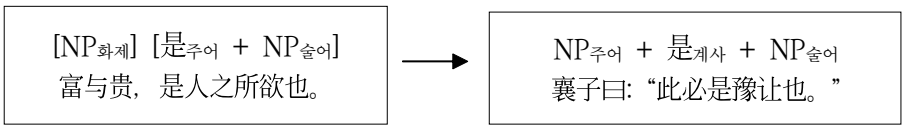
30)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따로 있다.
A: 这件衣服不漂亮吗？我觉得挺漂亮的。
B: 这件衣服**是**漂亮, 不过我不喜欢。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是'를 강하게 읽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 후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담화 맥락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

31) 한국어 문법과 중국어 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다', '是'를 계사로 간주한다.

32) 이성하(1998:146)에서는 영어와 독일어 계사의 어원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been/bin	<*bhu 'become'	Proto-Indo-European
was/war	<*wes- 'live'	Proto-Germanic
is/ist	<*es- 'exist'	Proto-Indo-European

Li&Thompson(1977), 梁银峰(2012)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중국어의 '是'가 조응(anaphora) 기능을 하는 지시대명사에서 계사로 발전한 과정을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2-2〉 중국어 계사 '是'의 문법화 과정

중국어에서는 AD 1세기부터 '是'의 문법화 과정이 시작됐고 AD 6세기까지 이러한 문법화가 계속 진행되었다(Stassen, 1997:83). 위 그림에서 보여준 변화 과정이 어떠한 원리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冯胜利(2003)는 아래와 같은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 고대중국어의 판단문에서 화제와 설명 간에는 일정한 휴지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시대명사의 품사 성질이 변하였고 [+N]에서 [+V]로 변했다. 중국어는 굴절적인 형태변화가 없기 때문에 [S/NP是NP]의 언어 환경에서 '是'의 유무는 무관하며 '是' 앞에 출현하는 부사가 '是'와 휴지의 합병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是'가 휴지 위치를 차지하여 '是'는 계사로 재분석되었고 휴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앞서 다른 언어에서 휴지가 계사를 대체하여 출현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冯胜利(2003)가 제시했던 이러한 견해는 뒤에서 명사술어문을 분석할 때 다시 언급할 것이다.

계사가 형성된 후에는 그것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Pustet(2003)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가. 연결설(Linker Hypothesis):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기능

나. 말뚝설(Dummy Hypothesis): 동사적 굴절 범주들이 부착될 수 있는 통사적 '말뚝(hitching post)'의 기능

다. 술어설(Predicator Hypothesis): 스스로 술어가 될 수 없는 어휘에 부가되는 술어로서의 기능

张姜知(2017)는 상술한 세 가지 가설은 모두 한계가 있으며 이를 중국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연결설'의 문제점은 중국어에서는 서론에서 본 것처럼 '是'가 출현하지 않는 용례가 종종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어의 형용사가 술어로 사용될 때는 '是'를 사용하지 않는다. '말뚝설'의 한계는 중국어가 고립어이며 TAM범주를 나타내는 형태적인 수단이 많이 결여된다는 점에 있다. 시제, 상, 서법, 인칭 등과 상관없이 중국어의 '是'는 형태적인 변화가 없다. 마지막으로 '술어설'의 한계는 중국어의 명사성 성분이 계사 '是' 없이도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张姜知(2017)는 중국어의 상황에 맞게 '술어-표기 가설(Predicate-indicator Hypothesis)'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是'가 중국어에서 '화제-평언' 관계를 명시 또는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어 등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와 달리 중국어는 화제부각언어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주-술 관계는 화용적으로 '화제-평언' 관계이다. 화제에 대한 서술은 동사구, 형용사구로 나타낼 수 있고 체언구로도 나타낼 수 있다. 주-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와 주-술 관계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是'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是'는 주-술 관계를 표기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문장의 NP술어 부분에 서술성을 나타내는 다른 수단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계사 '是'가 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임창국(1999)은 계사는 의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 존재이고, 서술성을 외적으로 드러내 주는 '서술 표지(predication marker)'라고 하였다.

2.2.2 계사구문의 의미 기능

이상으로 계사의 유무에 따른 인류 언어의 유형, 계사의 의미와 기능, 계사의 통사적 결합 양상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외에 계사의 유형론에서 또 하나의 관심 주제는 바로 계사구문의 의미유형이다. 계사를 내용어적 의미가 없고 화용 기능만 하는 요소로 보면 구문문법의 각도에서 볼 때 계사의 많은 의미와 기능은 모두 계사구문의 의미유형이다. 다시 말하면 계사구문의 의미유형은 주로 계사로 연결하는 주어와 술어의 의미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던 범언어적 계사구문의 의미 기능 유형을 정리 및 분석하

고자 한다.

계사구문의 정의에 대해 Curnow(1999)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 계사 구문은 언어가 다음의 의미를 인코딩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또는 구조로 정의된다. (a) 일반적으로 해당 언어의 명사구로 인코딩된 두 참가자의 (동등한)신분 (예: '그 사람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b) 명사구를 사용한 그룹 구성원 표기 또는 분류(예: '저 여자는 의사입니다', '저 남자는 교사입니다').[33]

위의 정의에서 Curnow(1999)에 의해 요약된 계사구문의 두 가지 주요 의미 기능은 바로 '동등(identity)'과 '분류(classification)'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에서는 계사 전후의 명사성 성분 사이의 관계가 동등하며, 후자에서는 계사 앞의 명사성 성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계사 뒤의 명사성 성분이 지시하는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a)유형의 계사 구문은 확인의 기능을 하고 (b)유형의 계사 구문은 귀속의 기능을 한다.

Pustet(2003)는 Curnow(1999)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바로 '식별(identificational)'과 '귀속(ascriptive)'이다. 그가 제시했던 예는 아래와 같다.

(12) a. This is Sally.
이 분은 샐리다.
b. He is the teacher. (식별)
그가 바로 그 선생님이다.

(13) He is a teacher. (귀속)
그는 선생님이다.

---

33) 원문은 아래와 같다.
A copula construction is defined as the most basic construction or constructions which a language uses to encode the meanings of: (a) identity of two participants normally encoded as noun phrases in that language (for example, 'that man is my father', 'that woman is Mary'); and (b)group membership or classification using noun phrases (for example, 'that woman is a doctor', 'that man is a teacher')

예문(12-13)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용어는 서로 다르지만 Pustet(2003)와 Curnow(1999)가 제시했던 계사구문의 의미 기능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홍재성(2010)도 계사를 정의하면서 “부류 귀속(class-membership) 서술 또는 속성(property) 서술을, 상적, 양태적 의미 첨가 없이, 언어적으로 사상되는 단문이 특정한 형태, 음운적 표지, 다시 말해 특정 형태소에 의해 현시적으로(overt) 특징지어지는 경우를 계사구문이라고 한다. 계사구문을 특징짓는 특정 형태・음운적 표지를 계사라고 한다.”라고 계사구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역시 Pustet(2003)와 Curnow(1999)와 같은 주장이다.

위에서 제시한 식별구문과 귀속구문의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 외에 Pustet(2003)의 연구에서는 많은 언어에서 존재하는 계사구문의 또 다른 유형을 소개하였으며, 박진호(2005)와 홍재성(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어의 계사 ‘이(다)’를 중심으로 계사의 범언어적 용법들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4〉 범언어적 계사구문의 의미 기능 유형

저자	유형	예문
Curnow(1999)	a.동등(identity)	That man is my father.
	b.분류(classification)	That man is a teacher.
Pustet(2003)	a.동등(identificational)	This is sally.
	b.귀속(ascriptive)	He is a teacher.
	c.존재(existential)	There is coffee in the kitchen.
	d.수량(quantificational)	There are three.
	e.부사적(adverbials)	The key is here.
	f.시간(time specification)	It is eight o’ clock.
박진호(2005)	a.귀속(ascriptive)	그는 학생이다.
	b.동등/확인(identificational)	이 사람이 내 동생이다.
	c.존재(existential)	산 위엔 온통 눈이다.
	d.제시(presentational)	앗, 비다.
	e.수량(quantificational)	우리 일행은 전부 셋이다.
	f.시간(temporal)	아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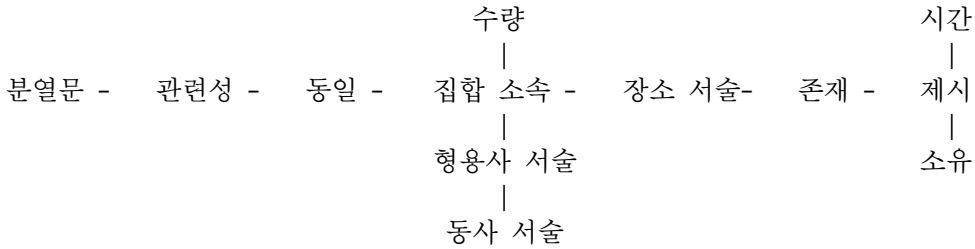
	g.비 논리적(illogical)	나는 짜장면이다.
	h.부사적	나는 부산이다.
	i.소유(possessional)	나는 아들 셋이다.
	j.분열문(cleft sentence)	그를 죽인 것은 철수이다.
	k.술어 명사 구문	나는 그 의견에 반대이다.
홍재성(2010)	a.부류귀속(class-membership)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b.속성(property)	그의 눈은 푸른색이다.
	c.소재	기영이는 아직도 사무실이래.
	d.관용 표현	이게 웬 떡이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사구문의 유형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동등'과 '귀속'의 두 가지 유형은 위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Stassen(1997:76-77)은 문장의 주어와 술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부가적인 형태가 계사의 기원이라고 주장했다. 주어와 술어를 식별하는 것은 명제의 대상과 설명 부분을 구분하는 일이다. 대상과 설명을 명제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논리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연유로 대부분의 언어에서 동등과 귀속을 계사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으로 간주한다. 동등과 귀속을 나타내는 구문을 원형 구문으로 보고, 이때 결합 성분에 따라서 의미적으로 부가된 개념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장 구문으로 본다. 박진호(2005)의 분류 체계는 다른 학자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폭넓다.

이러한 계사구문의 의미 및 기능 유형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관련되어 있다. 계사와 계사구문의 의미 및 기능을 더욱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 박진호(2009)는 계사의 개념 공간을 만들었다.[34]

34) 개념 공간과 의미지도(semantic map model)모형은 Haspelmath(2003)가 소개한 '다기능 문법 형식'의 유형론적 분석 방법이다. 郭锐(2012)는 "모종의 문법표지가 만약 다의적이고 그 의미들이 기타 언어 혹은 방언에서도 같은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면 이러한 의미 간의 관련성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이는 인간 언어의 개념공간(concept space) 상의 보편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의미지도모형이론에 의하면 의미지도를 그리는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하나의 문법 형식이 어떤 의미 기능 또는 용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 중에 '기능항목(功能项)', 즉 의미지도에서 나타나는 노드(node)를 뽑아내야 한다. 개념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박진호(2009)의 연구를 참조하면 된다.



〈그림 2-3〉 계사의 개념 공간(박진호2009)

위의 도식은 박진호(2009)가 한국어 계사 '이다'와 세계 많은 언어의 계사 용법을 대조하고 분석하여 도식화한 계사의 개념 공간이다. 이 개념 공간에서 제시한 계사구문의 의미유형은 한 가지 언어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언어에서 구현되는 의미유형에 대해서는 해당 언어의 의미지도로 도식화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계사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는 '是'이다. '是'는 '的', '了'에 이어 세 번째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이다.[35] 그러나 '是'는 여전히 그 성격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고 용법 또한 복잡하다. '是'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복잡성은 '是'로 연결된 성분의 복잡성, 특히 후행 성분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是'의 후행 성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5〉 '是'의 후행 성분

통사구조	예시
S+是+NP	①他最佩服的人是你。②鲸鱼是哺乳动物。
S+是+VP/AP	①我们的任务是守卫大桥。②这是鲁莽，不是勇敢。
S+是+PP	①我最后一次见到她是在上海。
S+是+X的	①这条鱼是新鲜的。②这本书是去年出版社。③他是昨天走的。
S+是+절	①这是我第一次来中国。
是+절	①是我们解决了这个难题。②是学生都应该学习。
기타	①X是X：他瘦是瘦，可从来不生病。

35) 『现代汉语频率词典』(1985) 참조.

‘是’의 의미 기능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 ‘是’ 구문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是’의 일반적인 기능은 두 개체를 연결하는 것이며 어휘적 의미가 없다. 구문문법의 각도에서 보면 ‘是’는 다른 일반 동사처럼 내용어적 의미 자질을 활용해 선행성분과 후속성분의 역할을 규정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是’로 연결된 선행성분과 후속성분의 관계에 의해서 구문의 의미유형 및 내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36]

비록 ‘是’는 VP와 AP 앞에도 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용법은 ‘是’가 두 개의 명사성 성분을 연결하여 그 두 실체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긍정, 판단하는 것이다. 吕叔湘(1999[1980]:496)은 ‘是’는 긍정과 연결의 기능을 함으로써 다양한 의미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是’가 두 명사성 성분을 연결할 때, 동등, 귀속, 시간, 존재, 소유, 기타 등 여섯 가지 의미관계를 나타낸다. 刘月华(2001)에서도 비슷한 의미관계 유형을 제시하였다.

吕叔湘(1999[1980]), 刘月华(2001) 등의 분류를 종합해보면 명사술어와 관련이 있는 ‘是’ 구문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6〉 중국어 ‘S+是+NP’ 구문의 의미유형

유형	의미	용례
원형 구문	귀속관계를 나타낸다.	鲸鱼是哺乳动物。 我是北京大学的学生。
	동등관계를 나타낸다.	那个人是我弟弟。 ≪阿Q正传≫的作者是鲁迅。
확장 구문	시간관계를 나타낸다.	火车从北京开出的时间是早上五点。 今天是星期二。
	비유관계를 나타낸다.	人是铁，饭是钢。 时间就是金钱。
	존재관계를 나타낸다.	靠墙是一排书架。 山上全是雪。
	사람과 사물의 속성을 나타낸다.	성격, 특성: 老王是慢性子，你可得常催着他点儿。 옷차림: 他夏天总是一件破布衫。 외모적 특징: 那个小孩是黄头发。 사물의 재료: 那两套茶具都是唐山瓷。

36) 송민용(2006) 참조.

	소유관계를 나타낸다.	这张桌子是三条腿。 我们是一个儿子，两个女儿。
	수량관계를 나타낸다.	一份客饭是五块钱。 我们是三个人。
	상황적 관계[37]를 나타낸다.	我是炸酱面。 (角色就这么定吧)你是大春，她是喜儿。 (我们两个村子)一个是河东，一个是河西。 (我们俩买的书不一样) 他是英文课本，我是科技常识。

원형적인 '是' 구문의 의미 기능은 주어 NP와 술어 NP의 동등, 귀속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是' 구문을 전통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단문이라고 하는데, 王力(1957)은 '판단문은 주어가 술어와 동일한 것을 지시하는지 판단하거나 주어가 지시하는 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张和友(2012:22)는 전형적인 '是'자 구조의 의미 형식은 '실체/사물+是+실체/사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범언어적 계사구문의 기능적 의미유형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두 개체 사이의 '동등관계' 또는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은 원형적 '是' 구문 즉, 전형적인 '是' 구문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유형의 '是' 구문은 'NP1+是+NP2'의 구성 형식에 따른 의미 확장이면서 비정형 '是' 구문으로서 의미유형도 NP1과 NP2 또는 NP1과 NP2 사이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은 일반적으로 주어가 시간명사이다. 따라서 시간관계 구문은 동등관계 '是' 구문과 매우 가깝다. 비유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은 비유를 통해 두 실체의 동등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며 역시 동등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네 가지 유형의 '是' 구문의 주어, 술어 NP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명사이거나 'N1・N2' 수식 구조이다. 존재관계를 나타내는 구문, 사람과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문,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구문 등의 술어 부분은 단순히 명사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며 수량사, 형용사, 부사 등 수식 성분도 같이 출현한다.

37) 앞, 뒤 문맥이 없으면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 형식들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쓰인다.

제3장 판단성 명사술어문

3.1 판단을 나타내는 범언어적 수단

판단(Judgment)은 원래 논리학의 개념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로서 어떤 사물의 존재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하거나 그 사물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는 사고 과정이다.[38] 현대 논리학에서 판단이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서 주어진 명제에 대한 판단자의 인지 즉,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 판단에 대한 언어학적 관점이 논리학적 관점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판단'이란 일반적으로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및 사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통사구조와 직접 연관하여 발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반영한다. 판단문은 판단을 구현하는 언어적 통사구조이며 긍정 형식과 부정 형식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중국어학 연구에서 문장은 그 의미와 기능에 따라 서술문(叙述句), 묘사문(描写句) 그리고 판단문(判断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가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서술문은 주로 사건에 대하여 서술하는 문장으로서 사건문(事件句)이라고도 하며 문장 자체의 객관성이 높다. 묘사문은 주관적, 객관적 근거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술한다. 판단문은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물의 관계나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판단문 자체는 부정, 의문 등의 형태를 가진다. 묘사문과 판단문은 모두 비사건 문장에 속한다.

판단 표현에 반영된 관계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대상이 포함되어, 하나는 판단의 대상이자 표현의 논리적 출발점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내용이자 표현의 논리적 종점이다.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의 의미관계 그리고 판단을 이루는 통사적 형태에 대한 연구는 기존학자에 의해 많이 다루어졌지만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어 문법사를 통해 볼 때, 판단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며, 형식적

38) 이 정의의 출처는『现代汉语词典(제6판)』이다.

기준에 중점을 둔 정의도 있고 의미적 기준에 중점을 둔 정의도 있으며, 형식과 의미를 모두 고려한 정의도 있다. 王力(1943, 1985)은 의미적 기준에서 '판단문은 주어와 술어가 같은 사물을 가리키거나 주어가 가리키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하나의 특정 성질 혹은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판단문은 술어로 기능하는 명사 또는 명사구를 사용하여 판단을 표현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다. 郭锡良(1981)은 "판단문은 어떤 사물이 무엇인지 아닌지, 어떤 사물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나타낸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정의 역시 의미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张世禄(2000)은 "판단문은 판단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고대중국어 판단문의 술어는 종종 명사성 성분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판단문은 대부분 명사술어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판단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비록 정의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판단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충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이를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두뇌와 객관적인 세계가 상호작용에 의해 사물을 분류하는 과정, 즉 범주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지는 사물의 범주를 형성하고, 동작과 행위의 인지는 행위와 사건의 범주를 형성한다. 범주는 등급이 나뉘며, 중간 등급을 기본범주라고 할 때, 그 이상의 범주를 상위범주 그리고 그 이하의 범주를 하위범주라고 한다. 범주는 모호성과 비이산성(非离散性)을 지니며, 범주와 범주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범주 내의 구성원은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에 의해 서로 묶임으로써 전형과 비전형으로 구분된다. 전형적인 구성원은 비전형 구성원보다 더 많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며 범주의 중심에 위치하여 원형(prototype)이라 불린다. 비전형적인 구성원은 비교적 적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며 공통적인 속성이 적을수록 중심에서 더 많이 벗어나고 범주의 가장자리로 몰려 심지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 즉, 범주 내의 구성원은 원형을 중심으로 연속체를 형성하고, 범주와 범주 사이에는 단지 모호한 경계만 존재한다. 판단문의 범주에도 전형적인 구성원과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판단문 역시 전형적인 판단문과 비전형적 판단문으로 구분되며, 이들 판단문의 구성원은 원형의 조합을 공동으로 둘러싸고 있다. 판단문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술어가 가리키는 것이 주어가 가리키는

것을 단정', '명사성 술어', '주어와 술어 사이의 동등 또는 귀속의 의미관계 형성' 등의 속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명사성 성분이 술어가 되는 동시에 동등 또는 귀속의 의미관계를 형성하는 문장이 가장 대표적인 판단문이며 또한 판단문 원형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단의 대상은 정해져 있고 판단내용의 범위는 비교적 넓다. 张军(2005:17)은 "범언어적 관점에서 볼 때, 동등 또는 귀속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판단문은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2절에서 계사구문을 검토하면서 동등 또는 귀속관계가 계사구문의 전형적인 의미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의 통사 표현형식의 차이로 인해 동등과 귀속관계는 다른 의미관계로 도출될 수 있는데, 张军(2005:16)의 연구를 근거로 예를 들면, 현대중국어에서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의 의미관계는 주로 동등, 귀속, 속성, 존재 및 비유관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각 의미관계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a. 北京是中国的首都。(동등관계)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다.
b. 他是北京大学的学生。(귀속관계)
그는 베이징대학 학생이다.
c. 这房子是旧的。(속성관계)
이 집은 오래되었다.
d. 桌子上是一本书。(존재관계)
탁자 위에 책 한 권이 있다.
e. 青年是祖国的希望。(비유관계)
청년은 조국의 희망이다.

비록 张军(2005)은 예문(1c)를 속성관계로 구분하였지만, '旧的'는 명사화한 구조로서 '旧的房子'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c)도 귀속관계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예문(1d)는 '桌子上的东西是一本书(탁자 위의 물건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관계는 또한 동등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1e)도 동등 또는 귀속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동등과 귀속관계가 판단문의 원형으로서 전형적인 의미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판단문은 인간의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표현 수단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Curnow(2000)는 그의 연구를 통해 세계의 언어는 동사, 불변화사(particles), 굴절(inflectional), 병렬과 같은 네 가지 수단으로 판단의 개념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张军(2015:39-40)은 범언어적으로 판단문은 아래 몇 가지 수단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수단(2-가). 판단대상+판단내용(SVO, SOV언어)
판단내용+판단대상(VOS, VSO언어)
수단(2-나). 판단대상+화제/초점표지+판단내용
수단(2-다). 판단대상+계사+판단내용(SVO언어)
판단대상+판단내용+계사(SOV언어)

수단(2-가)는 다른 보조 성분 없이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을 병렬시키는 방식이며 영계사 언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계사가 있는 언어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채택한다. 판단 표현은 화용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원시적인 화제구조로서 문장의 주어, 즉 판단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명확하며, 대화의 출발점이 되고, 화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판단내용이 곧 판단대상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언어에서 화제화 또는 초점화 방법을 통하여 더 명확한 화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수단 (2-나)와 같은 형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수단(2-다)는 계사언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어순에 따라서 연결 기능을 하는 계사의 위치는 변화될 수 있다. 영어와 중국어 같은 SVO 언어에서는 계사가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의 사이에 나오지만, 한국어와 같은 SOV 언어에서는 계사가 문장 끝에 출현한다.

예문(1a-e)는 모두 '是'에 의하여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이 연결된 문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계사 '是'가 생겨난 이후, 판단문은 대부분 '是' 구문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판단문과 '是' 구문은 완전히 동등한 범주가 아니

다. 판단문은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와 기능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是' 구문은 문장의 구조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장이 '是'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是' 구문은 판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만, '是'의 의미 기능이 확장됨으로 인하여 일부 '是' 구문은 판단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 또한 중국어 판단문은 '是' 구문을 채용한 것 외에도, 수단(2-가)와 (2-나) 형식의 판단문도 존재한다.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을 직접 병렬시키는 수단(2-가)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판단성 명사술어문이라고 하며, 이는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명사술어문 중 하나의 유형이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是' 구문과 서로 경쟁하면서 특수한 문맥에서 특수한 기능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 喂, 老王在家吗？我老李啊！
여보세요, 왕씨는 집에 있습니까? 저는 이씨입니다.

(4) 鲁迅, 浙江绍兴人, 中国现代伟大的文学家、思想家和革命家。
노신은 저장성 사오싱 사람으로 현대 중국의 위대한 문학가이며 사상가이자 혁명가이다.

예문(3)에서 '我'와 '老李'는 동일한 사람으로, 명사술어문 '我老李啊'는 '我'와 '老李'가 동등관계임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구어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예문(4)에서 주어 '鲁迅'이 지시하는 사람은 술어 '浙江绍兴人', '中国现代伟大的文学家、思想家和革命家'가 지시하는 집합의 구성원임을 나타낸다. 즉, 판단대상이 되는 '鲁迅'이 바로 이 집합에 속해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 형식은 주로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용된다. 형식상 예문(3)의 '老李'는 고유명사이며 예문(4)의 '浙江绍兴人', '中国现代伟大的文学家、思想家和革命家'는 'N1・N2' 구조의 명사구이다. 다른 형식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용례는 아래 예문(5-9)와 같다.

(5) 她, 学生。
그녀는 학생이다.

(6) 今天星期一，下午有写作课。
오늘은 월요일인데 오후에 작문 수업이 있다.

(7) 下一站北京南站，我在那儿下车。
다음 역은 베이징난역으로 나는 거기서 내린다.

(8) 刚才过去的那人谁啊？
방금 지나간 그 사람은 누구니?

(9) 小人姓王名五，城里卖菜的。
소인의 성은 왕이고 이름은 오로서 읍내에서 야채를 파는 사람이다.

위의 예문에서 '学生', '星期一', '北京南站', '谁', '城里卖菜的'는 각각 맨명사(bare noun), 시간명사, 장소명사, 의문대명사 그리고 'X的' 구조이며 술어의 위치에 단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를 고찰해보면, 위의 예문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면서 주어와 술어 사이에 '是'를 사용하는 문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예문(3'-9')처럼 주어와 술어 사이에 '是'를 사용한 사례도 실제로 자주 보인다.

(3') 喂，老王在家吗？我是老李啊！

(4') 鲁迅是浙江绍兴人，是中国现代伟大的文学家、思想家和革命家。

(5') 她是学生。

(6') 今天是星期一，下午有写作课。

(7') 下一站是北京南站，我在那儿下车。

(8') 刚才过去的那人是谁啊？

(9') 小人姓王名五，是城里卖菜的。

형식주의문법은 일반적으로 예문(3-9)를 예문(3'-9')의 생략 형식으로 간주하지만[39] 기능주의문법의 관점에서 두 가지 구문은 서로 다른 문장이며 문장 형식이 다르면 그 의미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의미적 차이일 수도 있고 화용적 차이일 수도 있다.

39)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로는 邓思颖(2002), 石定栩(2011), 李晓奇(2016) 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명사성 성분이 직접 판단성 명사술어문에서 술어로 기능할 수 있을까? 계사 없이 술어로 기능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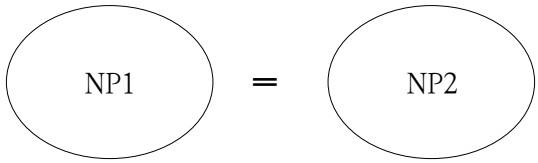
3.2 명사술어의 구조와 의미 특징

3.2.1 'N1・N2' 형식의 명사구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10) a. 北京, 中国的首都。 (周同燕2011)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다.
b. 她, 小王的妻子。 (刘顺2001)
그녀는 샤오왕의 아내이다.
c. 广州, 中国改革开放的南大门。
광저우는 중국 개혁개방의 남대문이다.

예문(10a)에서 고유명사 '北京'은 판단대상이고 '中国的首都'는 판단내용이며 두 성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전체 문장은 주어와 술어 간의 동등관계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다. 예문(10b)에서 지시대명사 '她'와 명사구 '小王的妻子'는 같은 사람을 지시하여 동등관계를 나타낸다. 예문(10c)에서는 비유의 방식을 통해 '广州'와 '中国改革开放的南大门' 간에 동등관계가 존재함을 판단하고 있다. 소위 '동등관계'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과 명사술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외연적으로 같은 실체인 것을 의미한다. 그림으로 나타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1〉 주어와 명사술어 간의 동등관계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은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예문(10)의 문장을 아래와 같이 한 번 전환해보자.

(10') a. ?中国的首都, 北京。
b. ?小王的妻子, 她。
c. ?中国改革开放的南大门, 广州。

예문(10')를 통해서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을 치환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시적 성분인 '北京', '她', '广州' 등의 한정성이 '中国的首都', '小王的妻子', '中国改革开放的南大门'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명사의 가장 전형적인 화용 기능은 지시이며, 지시는 언어와 외부세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陈平(1987)에 따르면 명사성 성분의 표현 대상이 담화 속의 어떤 실체(entity)라면 이 명사성 성분이 지시적(referential)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지시적(nonreferential)이라고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 a. 去年八月, 他在新雅餐厅当临时工时, 结识了一位顾客。
작년 8월, 그는 신아레스토랑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때, 한 손님을 알게 되었다.
b. 张三是一名菜农。
장삼은 채소 농사꾼이다.

(11a)에는 문두의 시간명사를 제외한 4개의 명사성 성분 '他', '新雅餐厅', '临时工', '一位顾客'이 있다. '他'와 '新雅餐厅'은 각각 문맥 속 발화자와 수신자가

모두 알고 있는 실체를 대표한다. '一位顾客'은 여기서도 문맥 속 하나의 실체를 나타내며, 비록 이 실체를 문맥 속 어떤 구체적인 사람과 연결할 수 없지만, 발화자가 이 사람이 문맥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세 성분은 모두 지시적이다. '临时工'이라는 명사 성분은 다른 세 성분과 달리 여기에서 하나의 신분을 나타내며, 실체가 아니다. 이 명사를 문맥 속의 어떤 구체적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발화자가 '临时工'이라는 명사를 언급할 때, 그 명사의 추상적인 속성이지 문맥에 그런 속성을 가진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临时工'은 여기에서 비지시적이다. 같은 분석 방식으로 (11b)의 '张三'은 지시적이고 '一名菜农'은 비지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陈平(1987)에 의하면 명사성 성분이 지시적인지, 비지시적인지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지시적 성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지시(anaphoric reference)할 수 있지만, 비지시적 성분은 재지시할 수 없다. (11a) '新雅餐厅' 뒤에는 '那家餐厅'으로, '一位顾客'은 '他' 혹은 '那位顾客'으로 재지시할 수 있지만, '临时工'과 (11b)의 '一名菜农'은 '他' 혹은 '那个临时工', '那个菜农'으로 재지시할 수 없다.

지시는 다시 한정과 비한정으로 나뉠 수 있다. 만약 발화자가 어떤 명사성 성분을 사용할 때, 수신자가 이 성분이 가리키는 대상을 문맥에 있는 특정 사물과 동일시하고, 같은 문맥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유사한 실체와 구별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 이 명사성 성분을 한정성 성분이라고 한다. 반대로, 발화자가 어떤 명사성 성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수신자가 이 성분이 가리키는 대상을 문맥상의 다른 비슷한 성분과 구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를 비한정 성분이라고 한다. (11a)의 '他'와 '新雅餐厅'은 모두 한정성 성분이고 '一位顾客'은 비한정 성분이다.

지시, 비지시, 한정, 비한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명사성 성분의 어휘적 형식과 그 성분이 갖는 문장에서의 통사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 陈平(1987)에서는 지시, 비지시, 한정과 비한정을 표현하는 어휘적 형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40]

---

40) D조의 맨명사는 수사, 양사, 지시사, 형용사 등의 수식을 받지 않는 명사 성분을 가리킨다. 명사로 쓰인 '的'자 구조도 포함된다. E조에서의 수사는 정수를 나타내는 '一', '二'와 개수를 나타내는 '几' 등 수사를 포함한다. F조에서의 '一'은 허화된 수

〈표 3-1〉 지시와 비지시 성분의 어휘적 표현형식

		지시	비지시
A조	인칭대명사	+	
B조	고유명사	+	
C조	“这/那” + (양사) + 명사	+	
D조	맨명사(bare noun)	+	+
E조	수사 + (양사) + 명사	+	+
F조	“一” + (양사) + 명사	+	+
G조	양사 + 명사	+	+

〈표 3-2〉 한정과 비한정 성분의 어휘적 표현형식

		한정	비한정
A조	인칭대명사	+	
B조	고유명사	+	
C조	“这/那” + (양사) + 명사	+	
D조	맨명사(bare noun)	(+)	(+)
E조	수사 + (양사) + 명사	(+)	(+)
F조	“一” + (양사) + 명사		+
G조	양사 + 명사		+

〈표 3-1〉과 〈표 3-2〉를 보면 인칭대명사, 고유명사와 ‘这/那’에 의해 수식된 성분은 반드시 지시성이 있고 반드시 한정성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맨명사와 수량구의 수식을 받는 명사성분의 지시성과 한정성은 어휘 형식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성분의 통사적 분포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상술한 기준을 가지고 ‘北京’, ‘她’, ‘广州’가 주어로 쓰이고, 명사술어로 쓰인 ‘中国的首都’, ‘小王的妻子’, ‘中国改革开放的南大门’과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예문(10)에서 눈에 띄게 뚜렷한 특징은 주어, 술어 사이에 긴 휴지를 두었다는 것이다. 같은 실체를 지시하는 두 개의 명사구를 휴지 없이 병렬로 배치하면 이를 주술구조로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격구조로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한정성이 강한 판단대상을 뒤에 배치하면 주술문장으로 인지하기 보

사이며 E조의 정식 수사와 비교하면 그것의 수량 지시기능은 따져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약하다. 이러한 ‘一’은 문장에서 항상 약하게 읽히고 문장 강세와 논리적 자연 강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생략되어도 문장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는 동격구조로 인지하기 쉽다. 아래 예를 보자.

(12) a. 北京, 中国的首都。(주술문)
a'. 中国的首都北京(很美丽。) (동격구조)
b. 她, 小王的妻子。 (주술문)
b'. 小王的妻子她(早就知道了。) (동격구조)
c. 广州, 中国改革开放的南大门。 (주술문)
c'. 中国改革开放的南大门广州(发展特别快。) (동격구조)

(12a)는 비록 주술관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위치가 바뀌면 사람들은 이를 예문(12a')와 같은 동격구조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郑友阶(2013)는 그의 연구에서 동격구조는 암묵적으로 '是'로 표현하는 주술구조의 전형적인 구문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동격구조의 두 성분 사이에 '是'를 삽입하면, 전체 구조는 주술구조 또는 '주-술-목' 구조가 되는 것이다.

예문(10)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예문(13)처럼 '是' 구문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이때 긴 휴지는 사라지게 된다.

(13) a. 北京是中国的首都。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다.
b. 她是小王的妻子。
그녀는 샤오왕의 아내이다.
c. 广州是中国改革开放的南大门。
광저우는 중국 개혁개방의 남대문이다.

또한 '是'로 연결된 동등관계 구문은 예문(14)처럼 주어와 술어의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

(14) a. 中国的首都是北京。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다.

b. 小王的妻子是她。
샤오왕의 아내는 그녀이다.
c. 中国改革开放的南大门是广州。
중국 개혁개방의 남대문은 광저우이다.

다음 예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한다.

(15) a. 玛丽，美国人。 (丁雪欢1994)
메리는 미국 사람이다.
b. 小李，大学老师。 (王成东2013)
샤오리는 대학교 선생님이다.
c. 茅盾，现代作家，浙江人。
마오둔은 현대 작가이며 저장성 사람이다.
d. 鲸鱼，哺乳动物。 (周国光・赵月琳2011)
고래는 포유류 동물이다.

예문(15)에서 술어로 기능하는 '美国人，大学老师，现代作家，浙江人，哺乳动物'는 모두 'N1・N2' 형식으로 구성된 명사구이며 각각 사람의 국적, 직업, 직업과 본적, 동물의 부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명사술어를 구성하는 두 명사는 비교적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중심어 명사는 상위 개념이고 수식어 자리에 있는 명사는 상위 개념을 분류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중심어 명사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예컨대, '美国人'은 '人'을 나라별로 분류한 결과이고 '大学老师'는 '老师'라는 직업을 학급별로 분류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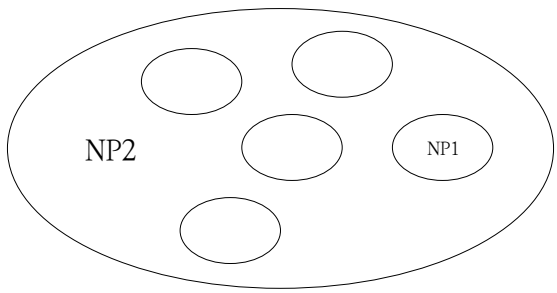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주어는 한정적이고 명사성 술어도 지시적이다. 그러나 (15)에서 술어로 쓰인 '美国人，大学老师，现代作家，浙江人，哺乳动物'은 지시적 명사구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어의 모종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장에서 명사술어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식어 자리에 쓰인 명사는 속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식 성분은 문장의 성립에 꼭 필요한 성분이며 예문(16)처럼 삭제된다

면 문장은 곧 비문이 된다.

(16) a. *玛丽人。
b. 小李, 老师[41]。
샤오리는 선생님이다.
c. *茅盾, 作家, 人。
d. *鲸鱼, 动物。

王珏(2005)에 의하면 명사성 성분이 어떤 속성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 더 이상 개체를 지시하지 않고 외연 의미(denotatum)보다 내연 의미(implication)가 더 현저해진다. 따라서 (15)와 같은 판단문에서 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명사성 성분은 비지시적이다. 근거는 그것들이 모두 후속 성분에 의해 재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玛丽'와 '美国人', '小李'와 '大学老师', '茅盾'과 '现代作家, 浙江人', '鲸鱼'와 '哺乳动物'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 간의 관계는 구성원(成员)과 집합(类)의 관계이다. 즉 주어는 N1이라는 속성을 가지는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2〉 주어와 명사술어 간의 귀속관계

위의 그림에서 작은 원 NP1은 주어가 가리키는 판단대상이며 큰 원 NP2는

41) 직업을 나타내는 문장은 조금 예외적이다. 이에 대해서 맨명사가 술어로 기능하는 부분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명사술어가 가리키는 판단내용이다. 보다시피 NP2는 NP1을 포함하고 있으며 NP1 외에도 NP2에 속하는 다른 구성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현상과 같이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15a-d)에는 주어와 술어 사이에 긴 휴지를 두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예문들은 대부분이 단문이며, 주어와 'N1・N2' 술어 사이에 올 수 있는 비교적 긴 휴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전체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명제적 의미를 고려할 때,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사람의 국적, 본적 및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다. BCC 코퍼스에서 인물 소개와 관련된 예문을 검색해 보면, 예문(15a)와 같은 구조의 명사술어문은 일반적으로 구어적 대화 또는 구어의 단독 서술에서만 출현하고, 예문(17)과 같은 대부분의 예문은 주어 뒤에 하나의 긴 휴지를 두며, 'N1・N2' 술어가 주어에 대한 다양한 의미 판단을 내리는 데 사용되며, 예문(18)과 같이 앞뒤에 다른 형식의 명사술어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17) 许子东: 也有人说第一次到伦敦碰到大雾，找不到了嘛，旁边就有个普通话的声音说，迷路啦？是啊。你要去哪里我带你。转，转到了以后，哎呀，你本地人吗？怎么这么熟？不是，北京人。

허자동: 어떤 사람이 런던에 처음 와서 짙은 안개를 만났는데, 길을 못 찾았다고 누가 옆에서 표준어로 말했다. 길을 잃었나요? 맞아요. 어디 가시나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도착한 후, 아이고, 당신은 현지 사람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익숙하세요? 아닙니다, 베이징 사람입니다.

(18) a. 包括我跟你说，我的朋友生孩子在香港雇了一个月嫂，北京人，北京郊区的农民。

내가 당신께 말한 것을 포함해서, 내 친구는 홍콩에서 아이를 낳고 한 달 동안 가정부, 베이징 사람, 베이징 교외의 농민을 고용했다.

b. 迟琬珺，24岁，北京人，毕业于中央戏曲学院戏剧文学系，爱好设计、摄影、阅读。

츠완쥔은 24세의 베이징 출신으로 중앙희곡학원 연극문학과를 졸업했고 취미는 디자인, 촬영, 독서이다.

예문(17)은 토크쇼에 게스트로 출연한 许子东이라는 사람의 자술로서 내용 중에 등장한 '你本地人吗？(당신은 본토 사람입니까?)'라는 문장은 실제 대화 중에 출현한 명사술어문의 한 용례이다. 뒤에는 '不是'라는 부정적인 대답과 함께 '北京人'이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예문(18)의 a, b 두 개 문장 중, 하나는 앞에서 생략된 주어 '月嫂'에 대한 소개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공 '迟琬珺'에 대한 소개이다. 예문(18a)에는 '北京人', '北京郊区的农民'처럼 두 개의 'N1・N2' 구조가 나오고, (18b)의 '北京人' 앞에는 나이를 설명하는 수량구조 '24岁'가 사용되었다. 두 문장의 공통점은 주어와 술어 사이에 긴 휴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문(15)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是' 구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19) a. 玛丽是美国人。
메리는 미국 사람이다.
b. 小李是大学老师。
샤오리는 대학 교수이다.
c. 茅盾是现代作家, 是浙江人。
마오둔은 현대 작가이며 저장성 사람이다.
d. 鲸鱼是哺乳动物。
고래는 포유류 동물이다.

보다시피 '是'를 사용하면 예문(19a-d)에서 주어와 술어 사이에 존재했던 휴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예문(15)와 예문(19)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차이에 대해서는 명사술어문의 형식을 모두 살펴본 후, 6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3.2.2 맨명사(bare noun)

맨명사를 직접 술어로 사용한 문장의 사례는 비교적 희소하고, 일부 학자들은 맨명사는 술어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일부 학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 a. 下一位参赛者, 王伟。 (王成东2013)
다음 참가자는 왕위이다.
b. 张艺谋, 导演。 (周同燕2011)
장이모는 감독이다.
c. 王小明, 博士；他弟弟, 硕士。 (刘顺2003)
왕샤오밍은 박사이고 그의 동생은 석사이다.

예문(20a)의 판단대상인 '下一位参赛者'와 판단의 내용인 '王伟'는 동등관계이며 예문(20b)와 예문(20c)는 모두 주어의 직업을 판단하는 문장으로 귀속관계의 유형에 속한다. '王伟'는 고유명사이어서 지시적이고 '导演', '博士', '硕士'는 주어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비지시적이다. (20b-c)를 통해 누군가의 직업이나 신분을 소개할 때, 맨명사가 더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술어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통사구조 측면에서 볼 때 세 문장의 공통점은 주어 뒤에 모두 휴지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법으로 미루어 주어와 술어 사이에 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격구조 혹은 수식구조로 이해될 가능성이 더 크다.

(20') a. 下一位参赛者王伟(是一位来自黑龙江的选手。)
b. 张艺谋导演(打算下一部电影在苏州进行拍摄)。
c. 王小明博士, 他弟弟硕士。

후속하는 성분이 없으면 예문(20'a-b)는 단순한 명사구일 뿐이며 주술문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예문(20'c)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나열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문장이 주술문으로 이루어졌음을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马庆株(1991)는 명사가 순서의 의미를 가질 때만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美国人'이나 '导演'과 같은 명사는 순서의 의미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사술어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순서의 의미를 갖는 명사는 더 쉽게 술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이며, '已经', '都', '才' 등과 같은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문장 끝에는 '了'가 항상 같이 출현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1) a. 工作这么多年，人家老杨都教授了，你才讲师！
수년간 근무한 후에 라오양은 이미 교수가 되었는데, 너는 여전히 강사이구나!
b. 张奇已经博士了。
장치는 이미 박사이다.

중국 사회에서 대학교의 교사는 '강사, 부교수, 교수'의 순서로 승진의 절차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승진 순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예문(21a)는 명사 '教授'가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직접 술어로 사용되었다. '博士'도 마찬가지로 '학부생, 석사'와 함께 잠재적인 순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나열형식으로 되어 있다.

예문(20-21)의 문장은 예문(22)와 같이 '是' 구문으로 변환될 수도 있다.

(22) a. 下一位参赛者是王伟。
b. 张艺谋是导演。
c. 王小明是博士，他弟弟是硕士。
d. 工作这么多年，人家老杨都是教授了，你才是讲师！
e. 张奇已经是博士了。

상술한 용례 이외에 맨명사가 직접 술어로 사용된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3) a. 中文系的张晓明你认识吗？我和他同乡。
너는 중문과 장샤오밍을 알고 있니? 나와 그는 같은 고향 사람이다.
b. 他们俩，夫妻。
그 둘은 부부이다.

예문(23)에서 주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판단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판단내용은 두 개의 판단대상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또한 귀속관계의 유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3.2.3 시간명사

술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시간명사는 주로 날짜, 요일, 시점, 명절, 절기 등과 같은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4) 今天八月二十六号。
오늘은 8월 26일이다.

(25) 今天初一。
오늘은 초하루이다.

(26) 明天星期一。
내일은 월요일이다.

(27) 现在五点。
지금은 다섯 시이다.

(28) 后天国庆节。
모레는 국경일이다.

(29) 这周六冬至。
이번 주 토요일은 동지이다.

예문(24-29)는 술어뿐만 아니라 주어 역시 시간명사로 구성된 문장으로서 전체 구문이 '시간명사1+시간명사2'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명사술어문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던 유형이다. 위의 예문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구조상 모두 '시간명사+시간명사' 형식이다. 주어는 한정성이 강한 '今天', '明天', '现在'가 많이 쓰인다. 둘째, 술어는 马庆株(1991)가 제시한 순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 및 변화에 따른 특정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예문들의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시간부사 '已经, 都, 才'가 사용될 수 있고, 문장의 끝에는 모두 변화를 나타내는 '了'를 사용할 수 있다.

(24') 今天都八月二十六号了。

(25') 今天都初一了。

(26') 明天都星期一了。

(27') 现在都五点了。

(28') 后天都国庆节了。

(29') 这周六都冬至了。

马庆株(1991), 邓思颖(2002)에 의하면 시간명사는 순서 의미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순서 시간명사'와 '비순서 시간명사'로 나눌 수 있다. '순서 시간명사'는 항상 일정한 순서의 계열에 속하는 시간명사를 의미하며, 예로는 '昨天, 今天, 明天, 后天', '星期一, 星期二, 星期三' 등이 있다. '비순서 시간명사'는 어휘 자체에 순서 의미가 없는 시간명사이며 예로는 '生日, 此时, 那会儿' 등이 있다. '순서 시간명사'는 다시 상대 시간명사와 절대 시간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상대 시간명사가 가리키는 시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동되지만, 절대 시간명사가 가리키는 시간은 고정적이고 순환적이며 세월의 흐름과는 연관성이 없다. 이러한 시간명사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3〉 시간명사의 세부 분류

유형	예시	
비순서 시간명사	生日, 此时, 那会儿……	
순서 시간명사	상대 시간명사	昨天, 今天, 明天, 后天 / 今年, 明年
	절대 시간명사	星期一, 星期二…/ 一月, 二月, 三月…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예문(24-29)의 주어는 모두 순서 의미가 존재하는 상대 시간명사이며 술어는 모두 순서 의미가 존재하는 절대 시간명사이다. 술어로 쓰인 절대 시간명사보다 주어로 쓰인 상대 시간명사가 더 직시적이고 한정적이다. 게다가 상대 시간명사는 단일한 시간을 가리키지만 절대 시간명사는 순환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집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은 동등관계의 큰

의미 분류에 귀납시킬 수 있다.

马庆株(1991)는 순서 의미가 존재하는 시간명사만이 술어로 사용될 수 있고 '상대 시간명사+절대 시간명사'의 순서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예문(24-29)에서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바꾸면 아래 예문(30-35)와 같이 비문이 된다.

(30) *八月二十六号今天。
(31) *初一今天。
(32) *星期一明天。
(33) *五点现在。
(34) ?国庆节后天。
(35) ?冬至这周六。

예문(30-35)가 성립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명사를 사용하는 명사술어문도 '구정보-신정보'라는 정보구조이론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今天, 明天, 这周六'과 같이 직시적인 성분은 자연초점인 문말의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을 주로 예문(24-29)와 같은 단문만 제시하였으며 담화의 맥락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타나는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36) A: 明天几月几号？ 내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B: (明天)2月23号。 2월 23일입니다.
A: (明天)星期几？ 무슨 요일입니까?
B: (明天)星期三。 수요일입니다.
(37) 许先生, 今天星期日, 图书室不开门的。阅览室要下午开呢。
허 선생님, 오늘은 일요일이라 도서실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열람실은 오후에 열어야 해요.

(38) 简佳跟她说过晚上要和男朋友去吃饭，今天情人节。

젠지아는 그녀에게 저녁에 남자친구와 식사하러 간다고 말했다. 오늘은 밸런타인데이다.

(39) 明天圣诞节，提前祝大家圣诞快乐！

내일은 크리스마스이다, 여러분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시간을 표현하는 명사술어문은 예문(36)과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때 주어는 생략될 수 있다. 일반적인 서사문일 경우, 시간을 표현하는 명사술어문은 사건의 앞에 시간적인 배경으로 등장하거나, 특정 행위를 수반하게 된 시간적인 이유를 설명하거나, 사건의 뒤에 등장하여 특정 행위를 유발하게 된 시간적 이유를 보완할 수 있다.

3.2.4 장소명사

장소명사는 '在, 到, 往'의 목적어가 될 수 있고 '哪儿'로 질문할 수 있으며 '这儿, 那儿'로 대체하여 지시할 수 있는 어휘를 말한다.[42] 대표적인 장소명사로는 지명과 기관명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中国, 亚洲, 北京, 长安街, 学校, 公园, 邮局, 图书馆' 등이 있다. '上头, 前边' 등과 같은 방위사도 광의의 장소명사로 볼 수 있다. 장소명사가 직접 술어로 쓰이는 현상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0) a. 下一站，五道口。请从列车前进方向的右门下车。

다음 정거장은 우다오코우입니다. 기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 문으로 내리십시오.

b. 旅行还算顺利，下一站洛阳，再下一站西安。

여행은 그런대로 순조로웠고, 다음 역은 뤄양, 그 다음 역은 시안이다.

(41) a. 路北夏旦大学。

북로는 복단대학이다.

42) 朱德熙(1982:42) 참조.

b. 前面马家沟。
앞쪽은 마지아고우이다.

예문(40)은 주어가 명사이고 술어는 지명인 경우이고 예문(41)은 주어가 방위사이고 술어가 지명인 경우이다. 명사술어는 모두 지시적이다. 예문(40)은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음 역이 무슨 역인지에 대해 긍정 판단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下一站'과 '五道口, 洛阳, 西安' 간에는 동등관계를 형성한다. 예문(40)의 두 문장은 모두 판단성 '是'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42) a. 下一站是五道口。请从列车前进方向的右门下车。
다음 정거장은 우다오코우입니다. 기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 문으로 내리십시오.
b. 旅行还算顺利, 下一站是洛阳, 再下一站是西安。
여행은 그런대로 순조로웠고, 다음 역은 뤄양, 그 다음 역은 시안이다.

예문(41a)는 도로의 북쪽에 복단대학교가 있다는 의미이며 (41b)는 이동하는 도중 전방에 마지아고우(马家沟)라는 장소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 두 명사술어문의 술어 부분은 모두 지명이기 때문에 예문(41)을 '有'자문으로는 전환할 수 없고, '是' 구문으로만 전환할 수 있다. '是'를 사용하면 판단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43) a. *路北有夏旦大学。
路北是夏旦大学。
북로는 복단대학이다.
b. *前面有马家沟。
前面是马家沟。
앞쪽은 마지아고우이다.

3.2.5 의문대명사

의문대명사가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은 주로 대화문에서 나타난다. 이때 주어는 2인칭 또는 3인칭 대명사이다.

(44) Q: 你谁啊？ 너는 누구니？
　　您哪位？ 당신은 누구십니까？
　A: 我北京大学，找李明同学有事。
　　나는 베이징대학인데 볼 일이 있어 리밍 학우를 찾는다.

예문(44)는 전화 통화를 할 때의 대화 내용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의 신분을 묻고자 간단한 의문대명사 '谁'와 '哪+양사' 형식을 사용하였고, 전화를 건 사람은 '我北京大学啊'라는 명사술어문을 사용하여 대답했다. 비록 '是' 구문도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지만 대화에서 사람들은 더욱 간결한 표현 방식을 선호한다. 자세히 보면 주어인 '你'와 '您'은 모두 상대방 한 사람을 가리키고 술어인 '谁'와 '哪位' 역시 어떤 한 사람을 지시한다. 따라서 주어, 술어 간의 관계는 동등관계로 볼 수 있다.

3.2.6 'X的' 구조

명사, 형용사, 동사, 대명사는 '的'과 함께 쓰여 명사성 'X的' 구조를 형성하며, 'X的' 구조는 술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N的' 형식은 예문(45)처럼 재료나 속성, 사람과 사물의 소속을 나타내며 술어로 기능한다.

(45) a. 我们的楼梯木头的。
　　우리의 계단은 나무로 만들었다.
　b. 这台电视彩色的。
　　이 TV는 컬러TV이다.

c. 他北大的，特别聪明。
그는 베이징대학에 재학 중인데, 매우 총명하다.
d. 这本书图书馆的。
이 책은 도서관 소유이다.

'A的' 형식은 예문(46)처럼 주로 사물의 속성, 상태를 나타내며 'V的' 형식은 예문(47)처럼 사람의 직업, 사물의 출처와 용도를 나타내고 'P的'[43]형식은 예문(48)처럼 사물의 소유주를 나타내며 술어 위치에 출현한다.

(46) a. 这张纸红的。
이 종이는 붉은색이다.
b. 这杯茶热的，你喝吧。
이 차는 따뜻하니, 드세요.
(47) a. 他开饭馆的。
그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 这十块钱捡的。
이 10위안은 주운 것이다.
c. 这把刀削铅笔的。
이 칼은 연필을 깎는 것이다.
(48) a. 这本书他的。
이 책은 그의 것이다.
b. 这个房间我的，你无权使用。
이 방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사용할 권리가 없다.

朱德熙(1983:17)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의 통사 측면에서 명사화의 주요 수단은 체언성과 용언성 성분의 뒤에 '的'을 추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된 명사성 구조는 영어에서 'that'을 사용하여 조성한 명사구와 같이 전환지시(转指)[44]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红的'는 '红颜色的东西'를 전환지시할

43) P는 '대명사(pronoun)'를 말한다.

수 있고, '吃的'는 음식과 그것을 먹은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으로 예문(45-48)을 보면, 술어 위치에 나온 'X的' 구조는 'X的N'구조에서 중심어 명사가 생략된 구조로 볼 수 있으며 X의 특성을 가진 하나의 사물로 전환지시될 수 있다. 주어는 한정적 성분으로서 'X的' 구조와 귀속관계를 형성한다.

판단을 명확히 나타낸 '是'가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상술한 명사술어문의 판단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고, 주어와 술어 간의 귀속관계도 역시 두드러지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张军(2015)은 '这房子是旧的', '我是教书的'과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는 속성관계로서 담화의 대상이 갖는 특징 또는 속성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X的' 구조를 주어가 갖는 특정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대상-속성'의 의미적 관계가 형성된다.

(45-48)에서 주어와 'X的' 구조 중간에 '是'가 들어갈 수 있다. 코퍼스에서의 실례를 찾아보면 'S+是+X的' 구문보다 'S+X的' 구문의 사용 빈도가 훨씬 낮다. (45-48)과 같은 문장들은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며 서면어에는 (49)와 같이 주어 뒤에 휴지가 있어야 한다.

(49) a. 后来，有一班毕业生凑钱买了一口小铜钟，送给母校留纪念，他就从摇铃改为打钟。一口很好看的钟，黄铜的，亮晶晶的。
후에 한 반의 졸업생들은 돈을 모아 한 개의 동종을 사서 기념으로 모교에 보냈다. 그는 종을 흔드는 것에서 타종으로 바꿨다. 이 종은 보기에도 매우 예쁘고 황동이라서 반짝반짝했다.

b. 他的名字叫于明，外交部的。
그의 이름은 위밍으로 외교부 사람이다.

요약하면,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술어의 구성과 표현되는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때 하위 유형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위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구조와 의미유형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4) '전환지시'라는 용어는 이은경(2013)을 참조하였다.

〈표 3-4〉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하위 분류

	구조 유형	주술 간의 의미유형	명사술어의 지시성
1	S+'N1・N2'	동등관계 귀속관계	지시적 비지시적
2	S+맨명사	동등관계 귀속관계	지시적 비지시적
3	S+시간명사	동등관계	지시적
4	S+장소명사	동등관계	지시적
5	S+의문대명사	동등관계	지시적
6	S+'X的' 구조	귀속관계	비지시적

〈표 3-4〉를 통해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의미적 측면에서는 크게 주어와 술어 간의 동등과 귀속관계의 두 가지 의미관계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등관계를 나타낼 때는 명사술어가 지시적이고 귀속관계를 나타낼 때는 명사술어가 비지시적이다.

3.3 구문의 형성과 인지적 기제

3.3.1 경제성 원칙

인류언어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언어 의사소통이 항상 두 가지 원칙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원칙은 경제성 원칙(The Principle of Least Effort)과 명확성 원칙이다.[45] 화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순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심적인 부담을 덜고, 청자의 입장에서는 화자가 최대한 상세한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로 하여금 추론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언어 의사소통 중에 이 두 가지 원칙이 항상 일종의 동태적 균형을 이룬다면 화자와 청자는 모두 자신의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지 명사만 사용해도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어의 명사구

45) 张凤(2016) 참조.

가 그러하다.

(50) 蛇！ 뱀이다! / 뱀 조심해!

(51) 谁？——我！ 누구?--나!

예문(50)과 (51)은 일상대화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명사구로서 언어형식은 비록 단순하지만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화자는 당시 언어 상황에서 청자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것을 전달한다.

邓思颖(2002)은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는 '도출적 경제성(economy of derivation)'과 '표시적 경제성(economy of representation)'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는 주로 언어가 파생 과정에서 구현한 간결한 조작에 관한 것으로, 예컨대, 이동의 동기는 도출적 경제성을 준수한다. 후자는 주로 언어 표현의 중복 요소 및 복잡한 구조의 결여 등에 대한 단순성과 관련이 있다. 邓思颖(2002)은 후자를 '구조 경제원리'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통사구조를 피해야 하고,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통사구조는 매우 간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Stassen(1997)의 범언어적 고찰과 张军(2005)의 중국 내 소수민족 언어분석을 통해 영계사 언어이든 계사 언어이든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두 개 명사구의 직접 병치는 모두 명사가 판단을 표현하기 위한 술어로 사용되는 가장 단순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52) 柏昀生: 你好, 我叫柏昀生。
안녕, 나는 바이윈성이야.
郑素年: ⓐ郑素年, 北京人, 你呢？
정쑤니엔, 베이징 사람, 너는?
柏昀生: ⓑ我苏州人。
난 수저우 사람이야.
……
裴 书: 那个, 正式自我介绍一下呗。ⓒ我叫裴书, 设计院的。你们呢？

저기,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할게. 나는 페이수이고, 디자인대학 소속이야. 너희는?

郑素年: ⓓ郑素年, 国画。
정쑤니엔, 국화.

柏昀生: ⓔ柏昀生, 首饰设计。
바이윈성, 액세서리 디자인.

예문(52)는 같은 기숙사에 사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으로, 짧은 대화에서 모두 다섯 번의 명사술어문을 사용하였는데, ⓐ, ⓑ, ⓔ에는 'N1・N2' 구조가 술어로 직접 사용되었으며, ⓒ의 명사술어는 'X的' 구조이며, ⓓ는 가장 단순한 한 개의 맨명사로 비록 통사구조가 가장 간단하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물론 예문(52')와 같은 구조의 '是' 구문도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지만, 덜 간결하고 장황한 느낌을 주게 된다.

(52') 柏昀生: 你好, 我叫柏昀生。
郑素年: ⓐ郑素年, 我是北京人, 你呢？
柏昀生: ⓑ我是苏州人。
.....
裴 书: 那个, 正式自我介绍一下呗。ⓒ我叫裴书, (我)是设计院的学生。你们呢？
郑素年: ⓓ郑素年, 我是国画专业的学生。
柏昀生: ⓔ柏昀生, 我是首饰设计专业的学生。

그러나 앞선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판단을 표현하는 명사술어문의 사용빈도는 일반적으로 '是' 구문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언어 표현의 '경제적 원칙'도 중요하지만 문장의 명확성도 중요하다. 비록 구조는 간단하지만 충분한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자는 반복 전략을 채택하거나 처음부터 명확하지만 비교적 복잡한 언어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是'는 내용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화제와 평언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화제와 평언이 모두 복

잡한 경우에는 '是'의 출현이 거의 필수적이다. 이 점이 邓思颖(2002)이 언급했던 '특별한 요구가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53) a. 民盟主席罗隆基是当时目空一切的人物。[46]
민맹 주석 뤄룽지는 그 당시 안하무인인 인물이었다.
b. *民盟主席罗隆基当时目空一切的人物。
c. ?民盟主席罗隆基, 当时目空一切的人物。
(54) a. 我今天要介绍的这部电影是周杰伦的≪不能说的秘密≫。
내가 오늘 소개할 이 영화는 저우지에룬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다.
b. *我今天要介绍的这部电影周杰伦的≪不能说的秘密≫。
c. ?我今天要介绍的这部电影, 周杰伦的≪不能说的秘密≫。

예문(53a)는 귀속판단을 표현한 문장으로 주어와 술어 형태가 비교적 복잡하여, 만일 화자가 예문(53b)와 같은 명사술어문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청자는 주어가 어떤 단어까지 표현되는지를 빨리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비교적 긴 휴지를 사용하더라도, 문장은 여전히 충분히 자연스럽지 않으며, 이는 '是'가 두 명사성 성분을 주술구조로 구성하는 능력이 휴지를 두는 방식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동등관계를 표현하는 예문(54a)에서는 주어와 명사술어가 모두 복잡한 통사구조로 실현되었고 '是'는 필수적으로 출현해야 한다. 명사술어문 형식의 (54b)는 비문이고 주어와 명사술어 사이에 휴지가 있는 (54c)도 부자연스럽다.

3.3.2 구문으로 인해 생성된 의미관계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주로 판단대상과 판단내용 간의 동등, 귀속관계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관계적 의미는 전체 구문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이며 구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자의 언어 지식에서 이러한 관계적 의미는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없고, 고정되지도 않는다. 술어명사를 관계성 성분으로 분

46) 王红旗(2017)에서 인용.

석하는 방법은 구문문법에 선례가 있다. Langacker(1991:64-71)는 영어의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가 문장의 보충어(complement)를 충당하는 경우를 분석하면서, 명사가 영 파생의 형식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념적 조직화를 통해 상태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아래와 같은 문장을 고찰하였다.

(55) Alice is a mouser. Alice는 쥐를 잘 잡는 고양이다.
(56) Alice is hungry. Alice는 배가 고프다.
(57) Alice is on the counter. Alice는 카운터 위에 있다.

Langacker는 예문(55-57)과 같은 문장들에서 명사, 형용사 및 전치사구는 형식적으로 유사하고 또한 의미적으로 평행하며 다 같이 주어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는 먼저 위 문장에 있는 계사 'be'에 대하여 선행 분석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가지 견해는 여기서 계사가 단순히 문법적 목적을 위해 특정 문맥에 삽입된 무의미한 성분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어떤 언어적 형식이건(실사이든 허사이든)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구문문법 이론에 어긋난다. 또 다른 견해는 계사가 동일성 관계(즉, 두 실체가 동등함) 또는 귀속관계(즉, 한 실체는 한 특정 범주의 구성원임)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로는 계사가 없는 많은 구조가 여전히 두 가지 의미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

(58) John is the person most qualified for the job.
존은 그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59) We voted John the person most qualified for the job.
우리는 존을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뽑았다.
(60) Mary is psychiatrist.
메리는 정신과 의사이다.
(61) Mary a psychiatrist? You must be joking.
메리가 정신과 의사라고? 당신 지금 농담해요.

예문(58)과 (60)에는 계사가 있는 반면 예문(59)와 (61)에는 계사가 없지만 각각 동등관계와 귀속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관계가 계사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Goldberg(1995:43)는 동사의 참여자 역할(participant roles of verbs)과 구문의 논항 역할(argument role of construction)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사의 참여자 역할은 구체적인 의미 역할로서 구문의 논항 역할의 실례(token)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Goldberg의 주장은 구문 자체가 독립적인 의미와 의미 역할, 즉 논항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의미 역할은 동사의 의미 역할, 즉 참여자 역할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동사에 불필요한 의미 역할을 부여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의미까지 설정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진다. 동사가 어휘적으로 어떠한 참여자 역할이 부각되는지를 규정해 주는 것처럼 구문도 구성적으로 어떠한 논항 역할이 부각되는지를 규정해준다. 사례(2018)의 연구에 의하면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이다'구문에서 주어(SUBJ)는 대상이고 보어(COMP)는 등가물이다.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이다'구문에서 주어(SUBJ)는 대상이고 보어(COMP)는 속성이다. 상술에서 분석한 동등과 귀속관계를 표현하는 명사술어문은 마찬가지로 대상과 등가물, 대상과 속성 두 가지 논항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논항 역할은 충분히 구문을 형성할 수 있고 계사의 출현은 결여될 수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Sem	동등관계	〈대상	등가물〉
	| R	|	|
R: instance	PRED	〈관련자	피관련자〉
	↓	↓	↓
Syn	-[47]	SUBJ	PRED

〈그림 3-3〉 동등관계를 나타낼 때 명사술어문의 구문적 특징

47) 동사 부분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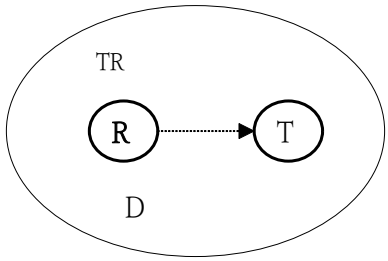
Sem	귀속관계	〈대상	속성〉
	∣R	∣	∣
R: instance	PRED	〈관련자	피관련자〉
	↓	↓	↓
Syn	-	SUBJ	PRED

〈그림 3-4〉 귀속관계를 나타낼 때 명사술어문의 구문적 특징

또한 언어 행동 참여자의 언어 지식에는 '대상-등가물(동등관계)', '구성원-집합(귀속관계)'의 의미관계가 공유되며, 둘 사이의 개념적 거리는 가깝다. 언어 도상성 원칙에 근거하여, 둘은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다. 화자는 경제성이 있는 언어형식을 선택하고, 청자는 주어에 대한 명사술어의 서술을 해석하기 위해 두뇌에서 관련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의미관계는 더욱더 심층적인 인지적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Langacker(1987;2008)는 백과지식 관점을 채용하여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는 서로 다른 측면의 지식은 서로 다른 인지영역(domain)을 형성한다고 보았는데, 이때 사람을 가리키는 주어가 '서로 다른 측면'에 의해 형성되는 인지영역에는 '국적, 출신지, 직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지영역 의미에 대응하는 언어적 형식이 바로 의미의 구체화라고 하였다. 김종도(2002:171)는 우리가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개체들이 동일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모든 개체들이 같은 현저성을 지닌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개체는 내재적 속성 때문에 혹은 우리가 부여한 감정이입(empathy) 때문에 다른 개체보다 더 현저하다고 인지된다. 그러므로 현저한 개체는 우리가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개체는 다른 더 현저한 개체를 참조해서 위치를 포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더 현저한 개체를 참조하여 덜 현저한 개체의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참조점 모형(reference point model)으로 이해할 수 있다.[48] 다음은 Langacker(1999[2001]:265)가 그의 연구에서 제시한 참조점 모형이다.

48) 김홍실(2018) 참조.



〈그림 3-5〉 참조점 모형
(R=참조점, T=목표, D=영향권)

화자는 어떤 개체(R)를 참조점으로 삼고 참조점 영향권 내에 있는 다른 어떤 개체(T)와 심리적 접촉을 가짐으로써 위치를 포착할 수 있다. 화자가 어떤 개체의 위치를 포착한다는 것은 화자가 참조점(R)을 통하여 목표(T)를 식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D는 화자가 영향권(dominion)이라고 부르는 추상적 개체를 나타낸다. 영향권은 특정 참조점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개념적 지역(또는 개체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굵은 선의 원은 전 처리시간 동안의 참조점과 목표의 지속적인 현저성을 나타낸다. 참조점은 본래 내재적이거나 맥락적으로 결정되는 어떠한 인지적 현저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떤 개체가 가장 먼저 참조점으로 선택되는가는 바로 현저성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개념이 참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활성화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체로 확립되어야 한다. 인지문법은 현저성이 참조점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므로 어떤 개체라도 주위의 다른 개체들보다 더 현저하면 참조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감정이입 현상은 '전체 〉 부분', '구체적 물체 〉 추상적 물체, 인간 〉 물체'와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룬다. 이 계층 구조에서 선행 개체는 후행 개체보다 더 현저하기 때문에 참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Langacker(1991)는 소유 동사(have), 소유 표현, 그리고 은유나 환유까지도 참조점 모형에 관련지어서 분석되어야 하고, 주어와 화제도 결국은 참조점 세우기와 관련지어야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앞에서 논술했듯이 판단성 명사술어문에는 판단대상은 화제이며 판단내용은 화제에 대한 평언이다. 동등관계에서의 판단대상은 일반적으로 확정된 실체이며, 귀속관계에서의 판단대상은 한정성이 강한 집합 구성원이어서 두 성분은 모

두 후행하는 개체보다 더 현저하기 때문에 참조점이 된다. 참조점의 영향권은 참조점과 이웃했거나 참조점을 통해 위치 포착이 가능한 물체들의 집합이다. 판단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사람에 대한 백과지식은 모두 영향권 안에 속하고 그 중 일부는 인지 목표가 되어서 판단내용으로 쓰이게 된다.

명사성 주어와 명사성 술어 사이의 의미관계가 언어 행위 참가자의 언어 지식(구성원 및 집합, 전체 및 부분, 공지시)에 의해 공유되는 경우, 화자는 이러한 경제성 언어형식을 선택하고 청자는 또한 화제에 대한 명사술어로 서술을 해석하기 위해 두뇌에서 관련 지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명사성 주어와 명사성 술어 사이의 의미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즉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임시로 형성된 의미 연결이라면, 청자는 두 가지 명사성 성분의 관계를 해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 화자는 유표적 언어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언어 표현의 명확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판단문의 원형 형식인데, 판단문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나 개념이 존재하여 반드시 이들 사이의 관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두 개의 개체 또는 개념을 함께 비교하는 것으로, 이는 두 개의 판단대상인 개체 또는 개념을 서로 인접하게 배치하고 두 항목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판단을 진행하고 이를 언어에 반영하는 것이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정보처리 초기 단계에서의 언어의 실제 모습, 즉 사유 과정에서 인간 두뇌의 인지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다른 많은 언어와 달리 중국어는 통사구조보다 의미가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대량의 담화 상황에 의해 표현된 명사술어문이 존재한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이 문장들은 계사도 없고, 다른 동사도 없고,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명사성 성분이 단순히 나열된 것이기 때문에 판단성 명사술어문과 같은 표층 형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관계는 청자가 언어 환경에 따라서 인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62) a. 小张吉他, 小李萨克斯。

샤오장은 기타, 샤오리는 색소폰이다.

b. Q: 听说小张和小李最近在学乐器, 都学的什么啊？

듣자니 샤오장과 샤오리는 최근에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모두 뭘 배우고 있어?

A: 小张吉他, 小李萨克斯。

샤오장은 기타, 샤오리는 색소폰이다.

(63) a. *我也冷面。

b. Q: 你们吃什么？

너희들 뭐 먹을래?

A: 我冷面/我嘛, 冷面。你呢？

나는 냉면, 너는?

B: 那我也冷面。

그럼 나도 냉면.

예문(62-63)은 모두 구어의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러한 유형의 명사술어문의 특징은 위 예문처럼 'S1+NP1, S2+NP2'와 같은 열거형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절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술어로 사용되는 명사들은 반드시 같은 부류의 명사에 속해야 한다. 만약 'S+NP' 형식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면 예문(63)처럼 문맥이 필요하다. 문맥의 역할은 '사건의 틀'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의 틀에서만이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다. 주어 명사와 술어 명사는 단지 담화의 맥락에서 일시적으로 의미관계를 형성한다. 임시로 형성된 의미관계는 청자가 해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어는 인지 참조점이며 주어의 여러 측면에 의해 형성된 인지 영역에는 명사술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화자는 청자가 해석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휴지를 사용하거나 표지가 있는 문장 형식을 선택해서 더욱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표지가 바로 '是'이다. (62b)를 (64)와 같이 변형시킬 수 있다.

(64) a. 小张是吉他, 小李是萨克斯。

샤오장은 기타, 샤오리는 색소폰이다.

b. Q: 听说小张和小李最近在学乐器, 都学的什么啊？
듣자니 샤오장과 샤오리는 최근에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모두 뭘 배우고 있어?
A: 小张(学的)是吉他, 小李(学的)是萨克斯。
샤오장은 기타, 샤오리는 색소폰이다.

(64a)에서 '小张', '小李'는 사람이고 '吉他', '萨克斯'는 악기이며 두 성분 간에 동등관계와 귀속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나 (64b)와 같은 구체적인 담화 환경에서 '小张是吉他', '小李是萨克斯'는 잘 해석될 수 있다. 즉 '小张是吉他'는 '小张学的是吉他'의 경제성 표현 방식이다. 이때 질문에서 언급된 동사 '学'는 대답에서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용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65) a. 我是炸酱面, 他是炒饭。
나는 자장면이고 그는 볶음밥이다.
b. 종업원 손님에게
(对A先生) 先生, 您(点的)是扬州炒饭。
(A씨에게) 선생님, 당신은 양저우 볶음밥입니다.
(对B先生) 您(点的)是桂林米粉。
(B씨에게) 당신은 계림 쌀국수입니다.
(对C先生) 您(点的)是火腿蛋饭。
(C씨에게) 당신은 햄계란밥입니다.

(66) 출장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장면
a. 我是北京, 李明是上海。
나는 베이징이고 리밍은 상하이입니다.
b. 我(去的)是北京, 李明(去的)是上海。
나는 베이징이고 리밍은 상하이입니다.

상술 예문에서 주어, 술어 사이에는 어떠한 '상황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하는 것이다. 소위 '상황적 관계'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술어가 나타내는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됨을 나타낸다.[49] 사례(2014)에 의하면 '상황적 관계'는 문장을 축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맥을 함께 고려해야 문장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화의 상황으로 그러한 맥락이 없으면 문장은 모두 비문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명사술어문을 '상황적 명사술어문'이라고 일컫는다. (64-66)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적 명사술어문은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하위 부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청자는 담화 맥락에서 추론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

3.4 소결

언어학에서 말하는 '판단'이란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및 사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판단문이란 이러한 판단을 구현한 통사구조이다. 판단문의 구성 요소는 '술어가 가리키는 것이 주어가 가리키는 것을 단정', '명사성 술어', '주어와 술어 사이의 동등 또는 귀속의 의미관계 형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가장 원형적인 판단문은 명사성 성분이 술어가 되는 구조 유형을 취함과 동시에 동등 및 귀속관계의 의미유형을 형성하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이고, 본장에서는 여섯 가지 구조 유형에 대한 각각의 의미유형을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대표적인 구조 유형은 여섯 가지로 각각 'S+N1·N2', 'S+맨명사', 'S+시간명사', 'S+장소명사', 'S+의문대명사', 'S+X的' 등이 있다.

둘째,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각 구조 유형에서 주어와 술어 간의 의미유형은 동등과 귀속관계의 두 가지 의미관계로 표현된다.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명사술어는 주어의 등가물이며 지시적이다.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명사술어는 주어의 속성이며 비지시적이다.

정리하자면,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구문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판단문의 원형이다.

49) 박진호(2009) 참조.

아울러 본 장에서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형성과 인지적 기제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경제성 원리에 기초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았다. 즉, 판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두 개의 개체 또는 개념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두 개의 판단대상인 개체 또는 개념을 서로 인접하게 배치하고 인접한 두 항목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판단을 진행하고 이를 언어에 반영하면 이것이 바로 판단성 명사술어문이 된다. 이러한 형성 원리에 기초하여 중국어에서 두 개 명사구의 직접 병치는 판단을 표현하는 술어 중 가장 단순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묘사성 명사술어문

현대중국어에서 형용사는 주로 명사 또는 대명사를 묘사하거나 수식하는 데 쓰인다. 형용사의 주요 두 가지 통사적 기능은 술어로서 주어를 묘사, 서술하거나 관형어로서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A·N'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주어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계사 '是'나 다른 동사의 도움이 없이 직접 술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문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1) a. 我哥大眼睛, 高鼻梁。
우리 형은 큰 눈에 콧날이 오뚝하다.
b. *우리 형은 큰 눈, 오뚝한 콧날.
c. *My brother big eyes and high nose.

예문(1)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는 중국어와 달리 모두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성 성분이 직접 술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계속 살펴보자.

(2) a. 我哥是大眼睛, 高鼻梁。
b. 우리 형은 눈이 크고 콧날이 오뚝하다.
c. My brother has big eyes and a high nose.

예문(2a)에는 주어인 '我哥'와 명사술어인 '大眼睛, 高鼻梁' 사이에 '是'를 삽입하였는데, 예문(1a)와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어는 이중주어문으로 변환해야만 하고, 영어는 동사 'have'를 사용해야만 한다. 다음의 예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자.

(3) a. 그녀의 눈은 크다.
a'. 她的眼睛很大。
b. 그녀는 눈이 크다.
b'. 她眼睛很大。
c. 그녀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c'. 她有一对大眼睛。
她是大眼睛。
她大眼睛。

예문(3)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형용사술어문과 이중주어문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어의 동사술어문은 중국어의 동사술어, 계사술어 및 명사술어의 세 가지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예문(4)와 같이, 형용사를 중첩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구조가 술어로 사용될 때는 '是'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4) a. 这个孩子大大的眼睛, 高高的鼻梁。
이 아이는 눈이 크고 콧날이 오뚝하다.
a'. *这个孩子是大大的眼睛, 高高的鼻梁。

그렇다면 모든 'A·N' 성분은 술어가 될 수 있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A·N' 성분이 직접 술어가 될 수 있을까? 그들과 주어 사이에는 또 어떠한 의미관계가 존재할까?

지금까지는 위에 언급한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과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4.1 명사술어의 구조와 의미 특징

'A·N' 형식의 술어를 포함한 구문은 'S+A·N'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용례 및 BCC의 예문을 통해 주어와 'A·N' 술어의 구조적,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朱德熙(1982:73)는 형용사를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성질형용사는 일음절 형용사(大, 红, 快, 好 등)와 일반적인 이음절 형용사(大方, 干净, 规矩, 伟大 등)를 포함하고, 상태형용사는 아래 다섯 가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 일음절 형용사 중첩식: 小小儿的。

ⓑ 이음절 형용사 중첩식: 干干净净(的)

ⓒ '煞白、冰凉、通红、喷香、粉碎、稀烂、精光' 등. 이러한 형용사는 일반적인 이음절 형용사와 다르다. 일반적인 이음절 형용사의 중첩형식은 AABB이고, 이러한 형용사의 중첩형식은 ABAB이다.

ⓓ ABB 형식(예, '黑乎乎、绿油油、慢腾腾、硬邦邦'), A里BC 형식(예, '脏里呱唧'), A不BC 형식(如'灰不溜秋、白不呲咧'), 이음절 형용사가 접미사를 가진 형식(예, '可怜巴巴, 老实巴焦').

ⓔ '부사+형용사+的' 형식의 합성어: 挺好的, 很小的, 怪可怜的

朱德熙(1982)의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의 분류에는 의미론적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상태형용사의 범위에 대한 주 선생의 주장은 여전히 논의할 만한 점이 있다. 崔永华(1990)는 "ⓐ와 ⓑ류가 모두 형용사의 중첩형식으로 형용사의 변형 형식이며, 이들을 상태형용사로 인정하면 형용사가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류는 '정도부사+A+的'의 형식으로 단어가 아니고 구이고, ⓒ와 ⓓ류만이 단어의 형태이다. 이들 5개 언어 단위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정도적 의미'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张国宪(2000, 2007)는 朱德熙(1982)의 형용사 분류는 주로 단어의 외부 형식에 근거하지만, 단어의 외부 형식은 확률적 의미의 식별표지일 뿐 엄격한 정의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행 연구의 관점을 종합해보면, 본고는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를 구분할 때 다음 몇 가지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의미적으로 성질형용사는 사람과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A$_{성질}$+的' 구조는 실체를 지시할 수 있고 명사성 성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高的'은 '高的人', '高的楼' 등을 지시하면서 '我喜欢高的', '高的好' 등처럼 목적어와 주어 위치에서 출현할 수 있다. 상태형용사는 사람과 사물의 상태와 상황을 나타내고 'A$_{상태}$+的' 구조는 실체를 지시할 수 없고 명사성 성분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冰凉的'은 사람과 사물을 모두 지시할 수 없고 '我喜欢冰凉的'은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다.

둘째, 성질형용사는 정도에 경계가 없으며 '最/很/比较/稍[50]'로 수식될 수 있다. '大'와 같은 일음절 형용사는 전형적인 성질형용사이다. 상태형용사는 정도에 경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最/很/比较/稍'로 수식될 수 없다. '煞白, 冰凉, 绿油油'와 같은 형용사는 전형적인 상태형용사이다. 형용사의 중첩형식도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상태형용사로 볼 수 있다.

셋째, 일부 이음절 형용사는 성질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고 일부 이음절 형용사는 상태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이 형용사의 의미와 통사 기능을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朱德熙(1982)가 '挺好的, 很小的, 怪可怜的'을 상태형용사로 분류한 것은 그 자체로 정도적 의미가 있고, 여기에 있는 '的'을 접미사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挺好的/很小的/怪可怜的+N' 구조 안에 있는 '的'이 구조조사라고 생각하며, '挺好的, 很小的, 怪可怜的'은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구로 본다.

다음에서는 먼저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가 명사와 결합되어 직접 술어가 되는 양상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4.1.1 성질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먼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던 예문을 살펴보자.

(6) 这个老外高鼻梁。 (温锁林1995)
이 외국인은 콧날이 오뚝하다.

(7) 这个孩子黄头发, 大眼睛。 (陈满华2008)
이 아이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크다.

(8) 张华圆脸, 四十多岁。 (冯嘉成1997)
장화는 둥근 얼굴에 40대이다.

50) '{最/很/比较/稍}+___'는 张国宪(2007)이 제시한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의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이다.

(9) 黄文龙, 大个子, 四方脸。 (班吉庆2001)
황원룡은 키가 크고, 사각형 얼굴이다.

(10) 我听说那个姑娘红头发。 (班吉庆2001)
그 여자아이는 빨간 머리라고 들었다.

(11) 小白兔短尾巴。 (温锁林1995)
토끼는 꼬리가 짧다.

일음절 성질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구조조사 '的'은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吕叔湘(1965)은 1,400개 형용사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일음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的'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음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的'이 있는 경우가 많고, '的'이 없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한 예문의 형용사 부분은 모두 일음절 성질형용사인데, 이들은 뒤에 온 명사와 긴밀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두 성분 사이에 구조조사 '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위의 예문(6), (11)의 'A・N' 성분은 단독으로 술어 기능을 하고, 예문(7), (9)에서는 두 개의 'A・N' 성분이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예문(9)에서 주어와 'A・N' 술어의 사이에 비교적 긴 휴지 부분은 콤마로 구분하였다. 예문(8)에서 'A・N' 구조는 수량 구조와 같이 술어로 쓰였다. 예문(10)은 명사술어문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의미적 측면에서 볼 때, 위 문장의 주어는 모두 유정성(animacy)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고 술어는 사람의 외모, 동물의 외형을 표현하는 어휘이다.

温锁林・郝蕾(1995)는 '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 구조는 예문(6)과 예문(11)에서처럼 단독으로 술어 기능을 하며, 유정성 주어에 대해 서술한다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고는 CCL 코퍼스에서 '高鼻梁', '短尾巴'가 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을 전수 조사하였다. '高鼻梁'이 술어로 기능한 문장은 모두 38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7건은 예문(12), (13)과 같이 다른 'A・N' 구조와 함께 나타난다. 오직 1건만이 단독 술어로, 예문(14)와 같이 등장인물의 생김새 설명에 관한 것이고, 형용사술어문과 같이 사용된다. 그리고 술어로 '短尾巴'를 사용한 문장은

코퍼스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12) 租界里还有许多外国人，他们高鼻梁，深眼窝，金黄色的卷头发，叽哩咕哝，不知说的是什么。

조계지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높은 콧대와 움푹 들어간 눈, 곱슬곱슬한 금발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13) 那时他才四十二三岁，黑红色的脸膛，高鼻梁，一头拳曲的乌发。一切方面都让人嫉妒。

그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마흔두, 세 살이었고 검붉은 얼굴에 높은 코,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를 가졌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14) 他高鼻梁，颧骨有些外凸，下颌长满经过修剪过的黑灰色胡须。

그는 높은 코, 약간 볼록한 광대뼈에, 아래턱에는 다듬어진 검회색 턱수염이 가득했다.

朱德熙(1982)는 일찍이 성질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술어로 기능할 때, 형용사와 명사 중간에는 '的'을 추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张敏(1998)은 인지언어학의 각도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圆球', '圆的球', '脏水', '脏的水'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일음절 성질형용사가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예문(6-11)과 같이 일반적으로 '的'이 없다. 예문(15)처럼 '일음절 성질형용사+的+명사' 구조가 술어 역할을 하는 소수의 용례는 문학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 但他接着又看见伙计提着风雨灯，灯光中照出后面跟着的皮鞋，上面的微明里是一个高大的人，白脸孔，黑的络腮胡子。

그러나 그때 그는 바람막이 손등을 들고 있는 점원을 보았고 등불은 그의 뒤를 따르고 있는 가죽 신발을 비추었는데 위쪽 희미한 불빛 속에는 키가 큰 사람이 흰 얼굴에 검은 구레나룻을 하고 있었다.

일음절 성질형용사가 직접 명사를 수식하는 술어의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주로 관용어적(idiomatic) 성격을 가지면서 사람의 성격 또는 행위의 특징을 설

명하는 문장에 쓰인다.

(16) 这个人好本领。 (冯嘉成1997)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다.

(17) 他厚脸皮。 (朱德熙1982)
그는 뻔뻔하다.

(18) 车主急性子, 平时就这么开快车, 不管不顾, 说白了就是素质太差。
차 주인은 성격이 급하고 평소에 차를 이렇게 빨리 운전하고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으니 솔직히 말해 소양이 너무 부족하다.

(19) 邬老四说当初是师长跟参谋来看的这个房, 所以不见别人, 乡下人死心眼！
우라오쓰는 예전에 사단장과 참모가 와서 이 방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골 사람은 너무 완고해!

(20) 上海人说英语也大舌头, 所以阿Sir就变成了阿三。
상하이 사람이 영어를 말할 때는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Sir은 아산이 된다.

통사구조의 측면에서 예문(16-20)의 'A·N'은 예문(6-11)과 다르며,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서 'A·N' 술어 부분은 일음절 성질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형식이지만, 전체 구조의 의미는 성분 간의 단순 의미 결합이 아닌 특수한 함의를 갖는다. 예를 들면, '死心眼儿', '厚脸皮', '大舌头' 등이 관용어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형용사적 용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첫 번째 유형의 'A·N' 구조와 다른 점은 이러한 유형의 'A·N' 구조 앞에 '才, 真, 太' 등 부사성 성분의 삽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1) a. 你才小心眼！
너야말로 옹졸하구나!

b. 他那个人真厚脸皮。
그 사람은 정말 뻔뻔하다.

이상의 두 유형 이외에 사람의 질병을 나타내는 'A·N' 구조가 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22) a. 爸爸高血压。
아빠는 고혈압이다.
b. 酒是不行, 我高血压, 肝儿也不好, 医生不让多喝。
술은 안 됩니다. 저는 고혈압이고 간도 좋지 않아서 의사가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22)에서 '高血压'은 하나의 질병 이름으로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수식 위치에 있는 '高'를 '低'로 바꿔 쓸 수 있다. 따라서 '高血压'도 일음절 성질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4.1.2 상태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3) 这是个帅气的英俊少年, 十三岁, 足有一米七高。英气的剑眉, 秀挺的鼻梁, 两手老揣在牛仔裤兜里, 内向, 文静。
이 멋지고 잘생긴 소년은 13세로 신장이 무려 1m 70cm이다. 검같이 날카롭고 빼어난 눈썹, 수려한 콧날, 양손은 늘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고, 내성적이며 조용하다.
(24) 慢慢的, 她转过头来, 僵硬的正视着面前那个男人, 他高大的身材, 微褐色的皮肤, 一对炯炯有神的眸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앞에 있는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옅은 갈색 피부 그리고 빛나고 생기 넘치는 한 쌍의 눈을 가졌다.
(25) 这位老大娘, 花白的头发, 饱受风霜的脸, 粗糙的双手。 (王成东2013)
이 노부인은 꽃처럼 흰 백발에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얼굴 그리고 거친 두 손을 가졌다.

예문(6-11)과 마찬가지로 예문(23-25)의 밑줄 친 부분도 명사술어로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英气', '秀挺', '高大', '花白', '粗糙'는 모두 상태형용사인데 그 판단 기준은 '英气的', '秀挺的', '高大的', '花白的', '粗糙的'이 명사화 구조로 사용될 수 없는 점이다. 예컨대, '我喜欢英气的'은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런 형식의 문장은 '이음절 상태형용사+的+명사' 구조 하나로는 문장이 성립되기 어렵고, 후속 절이 필요하다. 또한 술어 부분은 주어 뒤에 바로 올 수 있고 문장 중간에 위치하며 주어 뒤에 긴 휴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음절 상태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고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외에 소수의 ABB 구조의 상태형용사도 이런 용법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6) 一对年轻的男女骑着双人自行车驶过。姑娘打头，金色头发，粉嘟嘟的脸，苗条的身材。
한 쌍의 젊은 남녀가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여자는 앞에 탔는데 금발머리, 통통한 얼굴에 날씬한 몸매였다.

(27) 俊俊是个可爱的小男孩，甜甜的脸，水汪汪的大眼睛，一笑两个小酒窝。
쥔쥔은 사랑스러운 남자아이인데 귀여운 얼굴에 초롱초롱하고 커다란 눈을 가졌으며, 웃으면 두 개의 보조개가 보인다.

예문(26)에서 ABB형식의 '粉嘟嘟'는 '脸'을 수식하여 '金黄色头发', '苗条的身材'와 같이 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모두 주어 '姑娘'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 예문(27)에서 ABB형식의 '水汪汪'은 '大眼睛'을 수식하며 '甜甜的脸'과 병렬하여 술어의 위치에 출현하였다.

이어서 형용사 중첩형식의 상태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을 살펴보자.

(28) 他，矮矮的身材。 (冯嘉成1997)
그는 체격이 왜소하다.

(29) 这姑娘圆圆的脸蛋，大大的眼睛。 (班吉庆2001)
이 아가씨는 둥근 얼굴과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다.

(30) 这个俘虏, 长长的身材, 长方脸, 四十五岁的年纪。 (班吉庆2001)
이 포로는 길쭉한 몸매와 길고 네모난 얼굴을 가졌으며 나이는 45세이다.

(28-30)에서 '矮矮', '圆圆', '大大', '长长'은 모두 일음절 성질형용사의 중첩형식이며 '的'과 같이 새로운 상태형용사를 형성한다. 4.1.1과 4.1.2에서 제시한 예문처럼 'AA的+N' 구조는 주로 사람의 외모에 대해 묘사에 쓰인다. 冯嘉成(1997)에서는 예문(28)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이러한 문장의 자립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형용사의 중첩형식이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단독으로 술어 역할을 하는 많은 사례는 예문(29-30)과 같이 유사한 구조가 나열되거나 기타 형식의 명사술어문과 같이 연용된 경우가 많다.

어떠한 중첩형식의 상태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여 술어가 되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고찰하기 위하여, 본고는『现代汉语八百词』부록의 '형용사 생동형식표(形容词生动形式表)'에 정리된 115개의 'AA的' 형식에 대하여 BCC 코퍼스에서 관련 검색을 진행하였다. 고찰한 결과로 〈표 4-1〉에 정리된 'AA的' 형식들이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술어 역할을 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 술어로 사용된 'AA的+N'

A	AA的	수식하는 명사
1.矮	矮矮的	个子
2.白	白白的	皮肤, 脸, 雪, 雾(地上白白的雪, 天上白白的雾)
3.薄	薄薄的	肩膀, 嘴
4.扁	扁扁的	身子, 鼻子, 脸
5.长	长长的	睫毛, 胡须, 头发, 脖子, 金发, 脸(鹅蛋脸), 腿, 个头
6.大	大大的	太阳, 眼睛, 嘴
7.短	短短的	身材, 平头, 剪发, 秀发
8.方	方方的	脸
9.高	高高的	个儿, 个子, 个头, 鼻梁, 鼻子, 身材, 颧骨, 额头
10.光	光光的	脑袋
11.黑	黑黑的	脸庞, 脸膛, 皮肤, 短发, 发辫, 头发, 眼睛

12.红	红红的	眼眶, 脸, 面孔
13.厚	厚厚的	头发
14.黄	黄黄的	脑袋, 脸
15.尖	尖尖的	脸, 下巴
16.宽	宽宽的	肩膀, 肩, 胸脯, 嘴,
17.乱	乱乱的	胡子, 头发
18.胖	胖胖的	身材
19.瘦	瘦瘦的	身材
20.甜	甜甜的	笑容, 笑靥
21.弯	弯弯的	眉, 眼
22.细	细细的	腰, 眉毛
23.小	小小的	个儿, 脸蛋
24.硬	硬硬的	头发, 胡子
25.圆	圆圆的	身体, 脑袋, 肚子, 面孔, 脸盘, 脸, 脸蛋, 脸庞, 眼睛, 嘴, 嘴巴, 肩头, 腰, 鼻子
26.窄	窄窄的	肩膀

〈표 4-1〉의 통계를 통해 115개의 'AA的' 상태형용사 중에서 단지 26개만이 직접 술어가 되었는데 22.6%의 높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식을 받는 명사의 개별적인 특수 용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신체 부위 명사이다. 26개 'AA的' 중첩형식이 사용된 'S+AA的·N' 구문은 총 93개가 검색되었다. 이 중 64개의 문장은 'AA的·N' 구조를 단독 술어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해당 문장에서는 같은 형식의 다른 성분이나 앞서 언급했던 첫 번째 유형의 구조와 같이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31) 一个阿拉伯人, 他高高的个子, 白白的皮肤, 从我身旁走过去。
키가 크고 피부가 흰 한 명의 아랍인이 내 옆을 지나갔다.

(32) 这个人长得并不算很好看, 小小的眼睛, 大大的嘴, 扁扁的鼻子, 圆圆的脸, 一笑起来眼睛就看不见了, 可是样子却不讨人厌。
이 사람은 작은 눈, 큰 입, 납작한 코, 동그란 얼굴로 그다지 잘생기지

않았고 웃을 때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외모가 밉상은 아니다.

(33) 记忆中的継父瘦小的身材, 国字脸, 浓眉大眼, 高高的鼻梁, 光洁的额头, 稀疏的发际中夹杂着些许白发, 声音洪亮, 爱说笑。

내 기억에 계부는 마른 체격에 각진 얼굴, 짙은 눈썹과 큰 눈, 높은 콧대, 매끈한 이마에 약간의 흰머리가 있는 듬성듬성한 머리와 큰 목소리를 가지셨고 농담하기를 좋아했다.

예문(31-32)는 두 개 이상의 'AA的・N'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동일하게 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예이다. 예문(33)에서는 'AA的・N' 구조의 '高高的鼻梁'이 다른 형식의 '瘦小的身材, 国字脸, 浓眉大眼' 등의 구조와 같이 섞여서 쓰이고 있다.

수집된 93개 용례 중에서 27개는 'AA的・N' 구조가 단독으로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그 앞과 뒤에 동사술어문 또는 형용사술어문이 같이 출현하고 있다. 다음 예를 보자.

(34) 这人头戴金冠, 身上穿着件织金锦袍, 腰上围着根黄金带, 腰带上也插着柄黄金弯刀, 白白的脸, 圆如满月。

이 사람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몸에는 금 비단옷을 입고, 허리에는 황금 허리띠를 감고, 허리띠에는 금완도를 찼는데, 얼굴이 매우 희고 보름달처럼 둥글었다.

(35) 这个姑娘平常得很, 方方的脸, 五官并不怎么清秀。既然她把一头金发编成长辫子, 说明她还没超过十六岁。

이 소녀는 매우 평범하고 정사각형 얼굴에 용모가 그다지 빼어나지는 않다. 그녀는 금발 머리를 길게 땋았는데 이는 그녀가 아직 열여섯을 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예문(34)에서는 '白白的脸' 앞에 여러 동사술어문이 주어 '这人'의 외모를 서술하고 있으며 '白白的脸'은 단독으로 출현했다. 예문(35)에는 '方方的脸' 앞과 뒤에 형용사 구조 '平常得很', '五官并不怎么清秀'가 쓰였기 때문에 '方方的脸'이 단독으로 출현했다.

4.1.3 'Adv+A' 구조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앞의 두 가지 유형과 비교하면 이 유형의 용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부사는 '挺'과 '好'에 국한된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36) a. 这个人挺高的个子。 (刘顺2003)
이 사람은 키가 매우 크다.
b. 太太叫你瞧孩子去, 挺大的个儿, 又白又胖的一个小小子。
부인이 네게 아이를 보러 가라고 했는데, 매우 큰 키에 희고 통통한 꼬마 녀석이다.
c. 疼爱的外孙没来, 姥姥挺失望的样子。
사랑하는 외손자가 오지 않자 외할머니는 매우 실망한 모양이다.

(37) a. 这人好大的胆子！竟敢穿着全白的袍子, 这是王族才能穿的颜色。
이 사람은 담이 크다! 감히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b. 这姑娘好大的脾气, 一开门就开始骂。
이 아가씨는 성깔이 대단해서 문을 열자마자 욕하기 시작했다.
c. 她好大的面子, 竟让大科学家亲自登门拜访。
그녀는 체면치레가 대단한데, 뜻밖에도 큰 과학자가 친히 찾아오게 하였다.

예문(36-37)은 'Adv+A' 구조가 명사를 수식하여 술어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 상술한 두 유형과 비슷하게 사람의 외모, 표정, 행위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사는 반드시 출현해야 하고, 만약 '挺'과 '好'를 삭제하면 문장은 (36'), (37')처럼 성립될 수 없다.

(36') *他高的个子。
(37') *这人大的胆子！竟敢穿着全白的袍子, 这是王族才能穿的颜色。

더 흥미로운 현상은 비록 '他个子挺高(的)'라고 말할 수 있지만, '他个子很高'라는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한다. 만약 예문(36a)에서 '挺'을 '很'으로 바꿔서 '他很高的个子'로 표현하면 문장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진일보한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성질형용사, 상태형용사, 'Adv+A' 구조가 명사를 수식하는 NP가 직접 술어 역할을 하는 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A·N' 술어에서 명사는 사람의 외형, 성격, 행위 특징과 관련이 있는 성분이며 'S+A·N' 구문의 쓰임은 의미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4.2 'S+A·N'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4.2.1 전체-부분 관계

본 절에서는 먼저 'S+A·N' 구문의 구조에서 주어 부분의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주어의 특징은 그다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근래에 비로소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시도가 있었다. 'S+A·N' 구문의 주어로는 대개 아래의 몇 가지 유형이 있다.

ⓐ 인칭대명사: 他, 你 등
ⓑ 일반명사: 小姑娘, 小白兔 등
ⓒ 지시대명사+명사: 这个人, 这人, 这个孩子, 这个老外 등
ⓓ 고유명사: 주로 인명 위주

김희곤(2004:15-18)은 의미의 각도에서 명사술어문의 주어가 대상, 장소 또는 방위, 시간, 관계, 단계, 사건, 주체, 단위를 표현한다는 것을 밝혔다. 의미 차원에서 볼 때, 'S+A·N' 구문의 주어는 모두 술어의 서술 대상이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에 명사를 더한 성분이나 인명 등의 성분들은 모두 매우 강한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명사인 '小姑娘', '小白兔' 앞에는 규정되지 않는 '一+양사' 등의 성분이 올 수 없으며 'S+A·N' 구문의 주어는 반드시 구정보, 즉 화제이어야 하고 술어 부분은 전체 문장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주어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38) A: *谁大眼睛, 高鼻梁？
B: 他大眼睛, 高鼻梁。
(39) A: *谁高高的个子, 长长的头发？
B: 她高高的个子, 长长的头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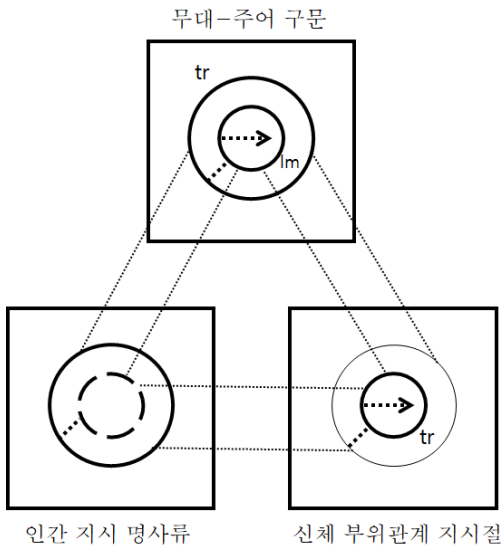
대부분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술어의 의미 특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단순히 술어 부분의 의미유형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기만 할 뿐 어떤 'A·N' 성분을 술어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袁毓林(1994:241-242)은 현대중국어의 일부 명사는 의미상 그것과 관계가 있는 명사의 공기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명사는 일가명사(一价名词)라고 하였다. 일가명사의 주요 유형은 총 세 가지인데 친족관계 또는 사회관계를 표시하는 명사(예, 爸爸, 妻子 등),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예, 脾气, 弹性 등) 그리고 전체의 일부분에 예속됨을 나타내는 명사(예, 胳膊, 尾巴 등)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일가명사의 통사적 특징은 통합관계에서 또 다른 하나의 명사가 요구되어 결합성분과 같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4.1에서 밝혔듯이 'S+A·N' 구문에서 N은 주로 신체부위와 사람의 행위 특징을 표현하는 명사들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일가명사이다.

사람을 놓고 볼 때, 신체부위와 속성은 모두 가장 전형적인 인간의 일부이며 전체-부분 관계에 속한다. 언어보편성과 언어유형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찍이 소유관계를 '가양도(alienable)'와 '불가양도(inalienable)'로 나누었다. Haiman(1985)은 '불가양도성'은 '신체부위＞친족관계＞일반사물'의 연속 위계를 제시하였고, 신체부위가 가장 원형적인 불가양도 관계를 대표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는 신체부위와 전체의 불가분리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4.1의 논의를 통해 'A·N' 술어 구조 중의 중심어 명사의 절대다수가 사람의 신체부위 명사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즉 'S+A·N' 구문에서 S와 N은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전체-부분' 관계는 왜 명확한 주술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정보구조 이론과 인지언어학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주어의 특징을 논술했을 때도 강조한 바 있는데, 정보구조이론의 측면에

서 볼 때, S와 'A·N' 간의 주술관계는 일종의 '화제-초점(술어초점)'관계이다. 문장에서 전체와 부분을 의미하는 문법 성분만 출현하면 전체는 주로 화제, 부분은 주로 초점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Langacker(1987)의 인지모형을 통해 인지적 측면에서 설명해보자.



〈그림 4-1〉 전체와 부분의 무대-참여자 모형

〈그림 4-1〉에서 보듯이 규범적 사건 모형에서 주어와 목적어 명사류는 개념적으로는 자립적이며 절 구조에서는 중심적이다. 주어는 절 머리어의 탄도체(trajectory)로, 목적어를 제일 지표(landmark)로 정교화할 수 있다. 무대-참여자 모형에서 볼 때, 'I have a stomachache(나는 배가 아프다)'처럼 사람이나 동물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과정을 무대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他大眼睛(He has big eyes,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이라는 문장에서 명사성분인 '他'와 '大眼睛'은 겉으로 보기에 주어 지위를 모두 가질 수 있지만 〈그림 4-1〉이 보여주듯이 사람과 사물의 전체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큰 내재적 현저성을 보인다. 절 성분으로부터 합성구조는 신체부위에 관련된 과정 개념을 물려받는다. 명사류 성분에서 물려받는 것은 사람 전체에 부여되는 특별한 현저성이다. 사람 전체는 절 조직의 상위층에서 탄도체 기능을 한다. 즉, 주어 역할을 한다.

반대로, 신체부위는 지표 기능을 하며, 즉 목적어 역할을 한다. 명사술어문에서는 동사가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부위는 목적어를 포함하는 술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과 신체부위의 '전체-부분' 관계 외에 동물과 동물 신체의 일부, 식물과 식물의 일부, 일반 사물, 추상 사물과 그 구성 부분 역시 '전체-부분' 관계를 이룬다. 그렇다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동물, 식물, 사물)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상황에서 직접 술어가 될 수 있을까? 우선 동물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小白兔短尾巴'라는 예문을 인용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아래의 예문은 성립할 수 있을까?

(40) a. 大象长鼻子, 短腿。
코끼리는 긴 코와 짧은 다리를 가졌다.
b. 大象长长的鼻子, 短短的腿, 真的还蛮可爱的。
코끼리는 긴 코와 짧은 다리를 가져 정말로 귀엽다.
c. ?大象灵巧的鼻子,
d. 非洲的狐狸大耳朵。
아프리카의 여우는 큰 귀를 가지고 있다.
e. ?长颈鹿长脖子。

코끼리가 외형상 코가 길고 다리가 짧다는 현저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大象长鼻子, 短腿'라고 말하면 이 문장은 받아들여지지만, 민첩한 것과 코끼리의 코는 직접적인 특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大象灵巧的鼻子(민첩한 코끼리 코)'라고 말하면 애매한 느낌을 받는다. 이는 바로 동물과 동물의 어떤 신체 부분이 '전체-부분'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단, 이러한 동물의 '전체-부분' 관계는 전형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에만 비로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长颈鹿长脖子(기린은 긴 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N' 술어 구조의 주어는 구정보, 화제이어야 하고 술어는 초점, 새로운 정보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술어 부분은 마땅히 충분한 정보량을 갖고 있

어야 문장 의미를 비로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长脖子(긴 목)'로 '长颈鹿(기린)'을 설명할 때는 많은 정보량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언제 이 문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된다. 계속해서 식물과 사물의 예를 살펴보자.

(41) a. *这棵树绿叶子。
b. *这种树高树干。
c. ?这种树(居然)蓝叶子。
(42) a. 这本书红封面。
이 책의 표지는 빨간색이다.
b. *这本书深奥的内容。
c. *那个国家好风景。
d. *那个国家美丽的风景。

예문(41)의 (a-b)와 예문(42)의 (b-d)는 성립할 수 없는데 이는 문장에서 'A·N' 성분이 주어와의 구별 또는 현저한 특징을 구성하지 못하였고, 정보의 양이 매우 적어서 독립적으로 술어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형용사가 부분 또는 속성을 나타내는 일가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일정한 정보량을 갖고 있는 'A·N' 성분이어야만 직접적으로 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4.2.2 형용사의 서술성

중국어의 형용사가 영어와 구별되는 것은 영어의 형용사는 주로 수식기능을 하고, 중국어의 형용사는 직접 술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郭锐(2002)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어 99.47%의 형용사는 술어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중국어의 형용사는 매우 강한 서술기능을 갖고 있다. 'A·N' 수식구조는 비록 동심구조로서 명사 중심어를 갖지만 의미의 핵심은 형용사에 있기 때문에 'A·N' 성분은 잠재적인 서술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만일 형용사를 삭제하면 앞에서

제시한 여러 유형의 'S+A·N' 구문은 모두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문장 내에서 형용사의 출현은 원래 지시성이 있는 명사성분으로 하여금 비전형적인 서술기능을 갖게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43) A: 听说你昨天去相亲了, 那人怎么样?
너 어제 선을 봤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 어땠어?
B1: 还不错, 眼睛(很)大, 鼻梁(很)高, 挺帅的。
괜찮았어. 눈이 크고 콧날이 오뚝하고 아주 잘 생겼어.
B2: 还不错。(他)大眼睛, 高鼻梁, 挺帅的。 (自省)
괜찮았어. 그는 눈이 크고 콧날이 오뚝하고 아주 잘 생겼어.

예문(43)에서 A는 B에게 선 본 사람이 어땠는지 묻는다. 대부분의 경우 B1과 같은 대답, 즉 형용사술어문을 사용하여 대답하지만 답변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외모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B2와 같은 답변 방법을 선택해도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A·N' 성분이 술어의 위치에 출현한 경우, 하나의 형용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51]

그러나 앞 절에서 언급한 여러 유형의 'A·N' 술어의 서술성의 강약은 서로 다르며, 이로 인해 'S+A·N' 구문을 기타 문형으로 전환할 때 영향을 끼친다.

张国宪(2000:447)은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는 동일한 연속체의 하위 범주이며 문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大'와 같은 일음절 형용사는 전형적인 성질형용사이고, '绿油油'는 전형적인 상태형용사이다. 이음절 형용사는 일부는 성질형용사에 가깝지만, 일부는 상태형용사에 가깝다. 성질형용사, 특히 일음절 성질형용사의 주된 의사소통 기능은 구별에 있으며, 구별은 분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가령 '高个子'는 키를 분류 기준으로 만든 'A·N' 구조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大眼睛-小眼睛', '白皮肤-黑皮肤', '急性子-慢性子' 등이 있다. 상태형용사의 주요 의사소통 기능은 묘사이며 묘사는 사물의 속성과 부류를 제한하는 것

51) 冯凭(1986)은 'A·N' 구에서 성분 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형용사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张志公(1957)은 술어 중 명사가 지시하는 사물은 주어가 가리키는 사물의 일부분이어서, 이러한 명사의 조합은 형용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아니라 특정 사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별은 속성을 강조하고 묘사는 정도를 강조한다.

张敏(1998:232)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성질형용사+명사' 구조는 지시성, 분류성을 지니고 있지만 서술성이 없고, 반대로 '상태형용사+명사' 구조는 지시성, 분류성은 없지만 서술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4-2〉 'A · N' 구조 내부 의미 기능 차이(张敏1998)

	지시성(指称性)	분류성(分类性)	서술성(述谓性)
성질형용사+N	+	+	-
상태형용사+的+N	-	(+)	+
상태형용사+N	-	-	+

결론적으로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를 갖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성질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속성을 나타내고 그 뒤에 나오는 명사성분은 제한적인 분류의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个子'의 앞에 '高'를 붙여 '高个子'라는 작은 분류를 형성함으로써 '矮个子'와 대비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반면에 상태형용사는 일종의 양적인 개념이나 화자의 주관적인 가치평가를 묘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水汪汪的眼睛', '高挑的个子'는 모두 분류의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고 묘사하고 있는 사물의 상태 또는 상황을 서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간혹 형용사가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복합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원래 맨명사는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될 수 없고, '是'의 도움을 받아 술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어 안에는 형용사 형태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44) a. 他傻子/傻瓜/傻帽儿。
그는 바보다.

b. 嘿, 你这个人笨蛋！
야, 너 이 바보야!
c. 你神经病!
너는 정신병자다!

(44)에서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맨명사 '傻子/傻瓜/傻帽儿', '笨蛋', '神经病' 등은 모두 술어로 기능하면서 주어 '你'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용례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보면 해당 문장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예문은 모두 '是'를 포함하는 문장형식을 동시에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是'를 사용하지 않은 예문과 '是'를 사용한 예문과의 차이 또한 설명할 필요가 있다.

冯凭(1980)은 '他傻瓜' 같은 문장에서 술어 '傻瓜'는 주어의 특징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傻瓜'는 진정한 명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문장 '他傻瓜'는 형용사술어문 '她漂亮'과 같은 유형의 문장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他是傻瓜', '他是一个傻瓜', '他是个傻瓜'는 성립하지만 '她是漂亮'[52]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문장 '他傻瓜'는 형용사술어문과 같은 유형의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沈家煊(1998)은 예문(45)에서 성질형용사와 명사로 구성된 수식구조의 일반명사의 명사 부분은 함유하고 있는 정보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생략되더라도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아래 예문에서 보다시피 두 성분은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가 아닌 단어처럼 쓰인다. 영어에서도 예문(46)과 같이 비슷한 용례가 존재한다.

52) 선행 연구에서는 형용사술어 앞에 '是'가 출현하는 현상을 언급한 바 있다. 이때 '是'를 가볍게 발음하면 '是'로 인하여 문장은 대조의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是'를 강하게 발음하면 이때 '是'는 부사 '的确, 确实(확실히, 분명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인증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A: 你见过郑爽吗？她很漂亮。
B: 她是漂亮, 不过就是脾气不太好。

(45) 这个人好人。 = 这个人好。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좋다.

(46) The man is a nice guy. = The man is nice.

이렇게 보면 단어 '傻子/傻瓜/傻帽儿', '笨蛋', '神经病'은 모두 형용사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뒤의 명사는 단어의 의미에 낮은 정보량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한 것처럼 문장 '明天晴天'은 문장 '明天晴'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문장 '他傻子/傻瓜/傻帽儿'는 '他傻'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문장 '你笨蛋'은 '你笨'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晴天'과 '傻子/傻瓜/傻帽儿', '笨蛋'은 명사이지만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과 의미는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다.

(47) 听天气预报说, 明天晴天。= 听天气预报说, 明天晴。
일기예보를 듣자니 내일은 맑은 날이다. = 일기예보를 듣자니, 내일 맑다.

(48) a. 他傻子/傻瓜/傻帽儿。 = 他傻。
그는 바보다. = 그는 멍청하다.
b. 嘿, 你这个人笨蛋！ = 嘿, 你这个人笨！
야, 너 이 바보야! = 야, 너 이 멍청아!
c. 你神经病！ = 你神经！
너는 정신병자다! = 너 정신병이야!

어떤 맨명사가 'AN'식으로 구성되었으면 그 명사 형태소는 일반적으로 비지시적이며 형용사 형태소가 더 현저화된다. '阴天', '穷光蛋'도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예이다. 하지만 표층 형식을 볼 때 '傻子/傻瓜/傻帽', '笨蛋' 등은 여전히 명사이기 때문에 예문(49)처럼 계사 '是'가 앞에 출현하여 판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50)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傻子/傻瓜/傻帽儿', '笨蛋'을 형용사로 간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49) a. 他是傻子/傻瓜/傻帽儿。
그는 바보다.
b. 嘿, 你这个人是笨蛋！
야, 너 이 바보야!
c. 你是神经病!
너는 정신병자다!
(50) 这个人是好人。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다음으로 'S+A·N' 형식의 명사술어문의 생성은 화용적으로 화제-평언 구조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어에서 의미범주 상의 문법화 정도는 영어만큼 높지 않고, 언어성분 간의 관계도 강제성을 띠는 기준으로 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의 명사성 성분, 즉 NP1과 NP2가 서로 병렬관계로 사용될 경우, 그들 간의 관계는 수식, 동격 그리고 주술 세 가지 가능성을 갖는다. 만일 수식 관계라면 대부분 '的'으로 NP1과 NP2를 연결해야 하고, 동격 관계라면 NP1과 NP2가 가리키는 것은 마땅히 같은 사물일 것이다. 그리고 주술 관계는 수식 및 동격 관계와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주어와 술어 사이에 종종 비교적 긴 휴지가 존재하고, 이를 콤마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주어 뒤에는 '啊, 呢, 吧, 嘛' 등과 같은 어기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어가 화제부각언어이고 赵元任(1968)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화제와 평언 사이의 관계가 매우 느슨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식, 동격 관계의 NP1과 NP2 사이에는 휴지가 없다. 아래에 몇 가지 예를 보자.

(51) 小王这个人(啊、呢、吧、嘛), 急性子, 脾气还不好。
샤오왕 이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성격 또한 나쁘다.
(52) 他(啊、呢、吧、嘛), 最近高血压, 高血糖, 差点进了医院。
그는 최근 고혈압, 고혈당으로 입원할 뻔했다.
(53) 说话的是位华服老者, (他啊、他呢、他吧、他嘛), 乡巴佬模样, 胖胖的身子, 矮矮的个子, 圆圆的肚子。秃头, 前额宽大, 五官紧凑。

말하고 있는 사람은 중국식 의복을 입고 있는 노인으로 시골뜨기 몰골에 뚱뚱하고 왜소하며 배불뚝이이다. 대머리에 이마가 넓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다.

(51-53)에서의 휴지나 주어 뒤에 붙은 어기사는 담화에서 청자가 주술 관계를 추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준다.

결론적으로 'S+A·N' 구문에서 S와 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명사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며 S와 'A·N' 구조는 쉽게 주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A·N' 술어는 형식적으로 명사성 성분이지만 속성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A·N' 구조도 주어의 모종의 속성[53]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A·N' 구문의 상술한 특징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Sem	전체-부분 관계	〈대상	속성〉
	| R	|	|
R: instance	PRED	〈관련자	피관련자〉
	↓	↓	↓
Syn	-	SUBJ	PRED

〈그림 4-2〉 'S+A·N'의 구문적 특징

4.3 'S+A·N' 구문의 화용적 기능

앞서 밝혔듯이 일음절 성질형용사뿐만 아니라 상태형용사의 경우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비슷한 성분과 나열되고 연용되어야 한다. 박정구(2007)는 '의미적으로는 대상-속성, 전체-부분 관계라서 주술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만 통사적으로는 명사적 성분이므로 술어와 공기하지 않고 단독으로 술어를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임.'라고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이것이 바로 'S+A·N' 구문이 통사적으로 받는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구문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화용적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S+A·N' 구문은 묘사의 기능을 갖는다. 그 근거로 'S+A·N' 구문이 모두 이

53)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보다 넓은 의미로 성질과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주어문(主谓谓语句)이나 형용사술어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54) 这个孩子黄头发, 大眼睛。 → 这个孩子头发黄, 眼睛大。
这个孩子的头发很黄, 眼睛很大。

(55) 他这个人死心眼儿。 → 他这个人心眼儿死。
他这个人的心眼儿死。

(56) 爸爸高血压。 → 爸爸血压高。
爸爸的血压有点儿高。

(57) 她高挑的个子, 一袭红色职业女装。 → 她个子高挑, 一袭红色职业女装。
她的个子高挑。

(58) 这姑娘圆圆的脸蛋, 大大的眼睛。 → 这姑娘脸蛋圆圆的, 眼睛大大的。
这姑娘的脸蛋圆圆的, 眼睛大大的。

4.2.1에서 본고는 'S+A·N' 구문의 주어와 술어 간의 '전체-부분' 관계에 대해 논의했는데, 술어는 양도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 전형적인 '신체부위' 유형이고, 이때 'S+A·N' 구문은 이중주어문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체'가 큰 주어로 쓰이고 '신체부위'는 작은 주어로 쓰여 대표적인 이중주어문의 유형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도 신체부위와 결합함으로써 'N1+N2'의 형태인 소유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원래 속성 위치에 있던 형용사는 술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S+A·N' 구문은 형용사술어문으로 변환될 수 있다. 상태형용사는 표지 없이 술어로 기능할 수 있지만, 성질형용사는 표지가 있어야 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S+A·N' 구문이 형용사술어문으로 전환될 때는 형용사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전체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S+A·N' 구문은 이중주어문이나 형용사술어문으로 변환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S+A·N' 구문이 이중주어문이나 형용사술어문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중주어문과 형용사술어문은 'S+A·N' 구문으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59)와 (60)은 변환한 예이며 4.1에서 분석한 통사 및 의미 기능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59) 今天天气很好。 → *今天好天气。

(60) 他成绩很好。 → *他好成绩。

명사술어문은 화용적인 면에서 특수표현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중주어문, 형용사술어문과 서로 다른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된다. 3.3.1에서 논의했듯이 사람들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의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 대개 간결한 문장을 선택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중국어는 명확한 형태 표지가 없기 때문에 문장의 다양한 변화 형식을 통해서만 화자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으며, 또한 화자로 하여금 표현의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 장에서 제시한 예문을 갖고 말하자면, 한 사람의 외모에 관하여 화자가 동사술어문 또는 형용사술어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주어문 또는 명사술어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표〈4-3〉에서 제시한 예문과 같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세 가지 유형의 표현이 모두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화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다른 표현 효과를 갖는 것일까?

〈표 4-3〉 명사술어, 동사술어, 주술술어, 형용사술어의 예

명사술어문	동사술어문	이중주어문/형용사술어문
他高鼻梁，大胡子。	他留着大胡子，长着高鼻梁。	他鼻梁很高。/ 他的鼻梁很高。
这个人好脾气。	这个人有好脾气。	这个人脾气很好。 这个人的脾气很好。
爸爸高血压。	爸爸有高血压，行动不便。	爸爸血压有点儿高。 爸爸的血压有点儿高。
他挺高的个子。		他个子挺高的。 他的个子挺高的。
你好大的胆子！	各位大爷也是好大的胆子，想要寻她开心。	你胆子好大！ 你的胆子好大！
小姑娘圆圆的脸蛋，大大的眼睛，长得挺可爱的。	女孩儿只有十七八岁的样子，长着圆圆的脸蛋儿，大大的眼睛。	小姑娘脸蛋圆圆的，眼睛大大的，长得挺可爱的。

먼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사술어를 사용하는 문장은 동사술어문보다 간결하고 생동적이라는 점이다. 동사술어문은 서술성과 객관성이 강하고 명사술어문은 묘사성이 강하여 강렬한 주관적 색채를 가지며 어떤 경우에는 '这个人好脾气'처럼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이중주어문이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소주어(小主语)는 잠재적인 대비의 의미를 갖거나 형용사 앞에 '很'과 같은 부사성분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동사술어문, 이중주어문, 형용사술어문에 쓰인 신체부위 명사는 모두 지시적이지만 'S+A·N' 구문에서 쓰인 신체부위 명사는 비지시적이며 모두 주어의 속성을 나타낸다.

상술한 'S+A·N' 구문은 양도불가능한 사람과 사물의 구성 성분이 어떠한 속성을 함의하고 주어에 대해 묘사 및 설명하는 것이며 속성은 형용사를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일부 명사는 다른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중심어 명사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61) 她瓜子脸。 (박정구2005)
그녀는 갸름한 얼굴형이다.

(62) 他东北口音，可能是东北人。 (刘月华2001)
그의 동북 지방 말씨로 보아 아마도 동북 사람일 것이다.

(63) 这个人榆木脑袋。 (张帅旗1992)
이 사람은 돌머리다.

(64) 小王O型血。 (周同燕2011)
샤오왕의 혈액형은 O형이다.

예문(61-64)에서 주어와 술어 핵심 명사 사이의 의미관계는 소유관계이며 구체적으로 전체-부분 관계 유형에 속한다. 예문(61)의 '瓜子', 예문(62)의 '东北', 예문(63)의 '榆木', 예문(64)의 'O型'은 모두 명사로서 그 뒤에 온 명사의 한 가지 속성을 표시 및 한정하고 있다. 张敏(1998), 刘顺(2003)에 따르면, 'N1+N2'의 수식구조는 속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 N1은 N2의 스타일, 출처, 유형 및 재료를 나타낸다. '갸름한 얼굴(瓜子脸)'은 일종의 얼굴 형태이고 '사각형 얼굴(国字脸)', '계란형 얼굴(鹅蛋脸)' 등과 대조되며 사람 얼굴 모양의 항구적 속

성이다. '东北'은 사람의 출신 지역을 나타내고 또한 사람의 억양의 기원을 설명할 수도 있다. 'O型'은 혈액형의 한 유형이다. A형, B형, AB형 등 기타 혈액형과 대조를 보일 수 있다. '榆木(느릅나무)'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부족을 묘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수식어 위치에서의 N1은 속성을 나타내므로 더 이상 명사의 전형적인 특징인 공간성을 갖지 않으며 또한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령 '一粒瓜子脸', '一棵榆木脑袋' 등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 표현이다.

중심어 명사 N2만 놓고 보면 서술성이 없지만 'N1・N2' 구조로 사용될 때는 서술성이 생겨난다. 이러한 용례는 역시 'S+A・N'처럼 사람의 외모 또는 행위 특징 등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술어로 사용된 'N1・N2' 구조는 두 명사가 긴밀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른 수식 또는 한정성 성분이 더 이상 삽입될 수 없다.

코퍼스를 검색해 보면 예문(61-64)의 의미를 동사술어문으로 표현하는 문장도 종종 사용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65) 她长了一张瓜子儿脸。
그녀는 갸름한 얼굴형을 가졌다.

(66) 他操着一口东北口音, 可能是东北人。
그는 동북 억양으로 말하는 것이 아마도 동북 사람일 것이다.

(67) 这个人长了一张榆木脑袋。
이 사람은 돌머리다.

예문(61-63)과 예문(65-67)을 비교해 보면 의미는 거의 같지만 예문(65-67)의 동사술어문보다 예문(61-63)의 명사술어문이 훨씬 간결하고 언어 사용의 경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사술어문 (65-67)에서 'N1・N2'성분 앞에는 개체를 나타내는 수량구가 출현하여 '瓜子脸', '东北口音', '榆木脑袋'가 모두 지시적인 성분인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명사술어문 (61-63)에서의 '瓜子脸', '东北口音', '榆木脑袋'는 단순히 사람의 속성을 표현하여 비지시적이다.

사람의 외모나 행위의 특징 외에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용례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 있다.

(68) 新买的餐桌大理石台面, 看着挺上档次。
새로 산 식탁의 대리석 표면이 매우 고급스러워 보인다.

(69) 他的车手动挡, 不好开。
그의 차는 수동 변속기로 운전하기 어렵다.

(70) a. 这件大衣皮领子。
이 외투의 깃은 가죽이다.
b. 这双鞋塑料底儿。
이 신발의 밑창은 플라스틱이다.
c. 这间屋子洋灰地。 (朱德熙1982)
이 방의 바닥은 석회이다.

예문(68)에서의 '台面'은 '餐桌'의 구성 부분이고 예문(69)에서의 '挡'은 '车'의 구성 부분이며 예문(70)에서의 '领子', '鞋底儿', '地面'도 역시 주어의 구성 부분이다. 수식어 위치의 '대리석'은 '식탁'의 재질이며 '수동'은 '자동차 변속기'의 유형이다. 또한 '가죽'은 '깃'의 재질이고 '플라스틱'은 '밑창'의 재질이며 '시멘트'는 방바닥의 재질로서 예문(68-70)에서 N1은 모두 중심어 명사 N2의 항구적 속성을 나타내면서 중심어 명사와 함께 주어를 서술하고 있다.

4.4 소결

본장에서는 주로 구조, 의미, 화용적 측면에서 묘사성이 있는 'S+A・N' 구문의 특징을 분석하고 구문 형성의 인지적 기제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초적인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술어 부분의 형용사는 주로 성질과 상태 두 가지 유형인데 전자는 일음절 성질형용사 후자는 주로 이음절 상태형용사, 형용사의 중첩형식이다. 'A・N' 구조가 술어로 기능할 때, 대부분은 같은 구조의 다른 성분과 나열하여 연용되어야 한다. 단독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앞과 뒤에는 다른 동사술

어문, 형용사술어문이 같이 출현해야 한다. 술어부분의 피수식 성분의 명사는 주로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을 한정하는 일가명사이다.

둘째, 의미적 측면에서 'A·N' 술어는 주로 주어의 속성을 설명, 평가하거나 상태를 묘사한다. 이러한 의미관계는 주로 주어와 술어 간의 '전체-부분'의 관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A·N' 구조는 주어의 차별화된 특징을 표명하고, 충분한 정보량을 가져야 하며 피수식 명사는 일반적으로 일가명사이다.

셋째, 'S+A·N' 구문의 형성, 즉 'A·N' 성분이 직접적으로 술어가 되는 현상은 주어와 술어 간의 의미관계, 형용사의 서술성 등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S+A·N' 구문에서 N은 주로 사람의 신체부위이거나 사물의 구성 부분이며 S와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한다. 인지적으로 '전체-부분' 관계는 주술관계도 해석될 경향이 강하다. 또한 현대중국어의 형용사는 주로 서술 기능을 하여'A·N' 구조도 잠재적 서술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S+A·N' 구문에서 A는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넷째, 화용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장은 주로 구어 혹은 구어적 표현이 많은 소설이나 신문 등의 문장에서 출현하고 동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 이중주어문과 비교했을 때 더욱 간단명료하고 화자의 주관적 색채를 비교적 강하게 띠고 있다. 또한 동사술어문, 이중주어문, 형용사술어문에 쓰인 신체부위 명사는 모두 지시적이지만 'S+A·N' 구문에서 쓰인 신체부위 명사는 비지시적이며 모두 주어의 속성을 나타낸다.

제5장 수량성 명사술어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명사, 동사, 형용사는 각각 지시, 서술, 수식의 화용적 기능을 갖고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명사가 갖는 가장 현저한 문법적 특징은 '两本书, 五名学生, 一头白发, 一阵啼哭声' 등과 같이 수사와 양사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큰 명사성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레너드 블룸필드(Leonard Bloomfield)의 구조주의 이론에 따르면,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는 구조적으로는 동심 구조가 되고, 통사 기능적으로는 명사와 같은 중심어 기능을 하며, '我昨天买了两本书', '今年我们系只招了五名学生'[54], '李教授才五十岁, 已经长了一头白发', '房间里传来了一阵啼哭声' 등의 문장에서와 같이 목적어 또는 주어가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어사용의 실례를 고찰해 보면, 'Num・CL・N' 명사구와 맨명사는 통사 기능적 측면에서 서로 구별되며, 아래 예문(1-6)처럼 어떤 'Num・CL・N' 명사구는 동사의 도움 없이도 직접 술어의 위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他今年二十岁。
그는 올해 스무 살이다.

(2) 这张桌子三条腿。
이 탁자는 3개의 다리가 있다.

(3) 中间神堂, 两边四排廊路, 周围三十七间龛堂, 像另自成个世界。
중앙에는 신당, 양쪽에는 네 갈래의 복도, 주위에는 37개의 감당이 있어, 마치 다른 세상인 것 같다.

(4) 两天以后, 卫葑才知道老沈来到了昆明, 何曼安排他们在植物所后山见面。
山上一片松林, 阵阵松涛吹过头顶。
이틀 후, 웨이펑은 라오선이 쿤밍에 왔다는 것을 알았고, 허만은 그들이 식물원 뒷산에서 만나도록 안배했다. 산 위에는 소나무 숲이 있고, 이따

54)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는 대부분이 비한정 성분이며, 주어로 사용되는 상황은 비교적 드물다. '两本书我昨天看了'와 '五名学生今天没来上课' 등과 같은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금 소나무 물결 바람이 머리 위로 불어왔다.

(5) 他们并排坐了一会儿，黑暗的大厅里一片寂静，演员们等了约两分钟，每个人都疲惫不堪，好象刚刚干了一件繁重的活儿。

그들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고, 어두운 홀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배우들은 약 2분을 기다렸는데, 마치 힘든 일을 막 마친 것처럼 매우 지쳐있었다.

(6) 神父一头白发，戴着白领子，他问: “你们要去哪儿？”

신부는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었고 흰 칼라를 했는데, “너희들 어딜 가려고 하니?”라고 물었다.

예문(1)에서 ‘二十岁’는 수량구가 직접 술어가 되는 예로, 이를 ‘S+Num・CL’으로 도식화할 수 있고, 예문(2)의 ‘三条腿’는 ‘Num・CL・N’ 구조가 술어가 되는 예로, 이를 ‘S+Num・CL・N’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리고 예문(3)의 ‘四排廊路，三十七间龛堂’, 예문(4)의 ‘一片松林’, 예문(5)의 ‘一片寂静’은 ‘Num・CL・N’ 구조가 직접 술어 기능을 하며 주어가 장소이기 때문에 이를 ‘$S_{장소}$+Num・CL・N’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예문(6)의 ‘一头白发’는 ‘一・임시양사・명’ 구조로서 술어로 기능하였는데 이를 ‘S+一・Ncl・N’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Pustet(2003)는 범언어적인 고찰을 통해서 명사성 성분이 술어로 기능할 때는 계사가 필요하며, 동사성 성분이 술어로 기능할 때는 계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형용사는 이때 명사와 동사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들은 ‘명사⊃형용사⊃동사’와 같은 위계를 형성한다고 정리하였다. 중국어의 계사 ‘是’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계를 따른다. 동사와 형용사가 술어로 쓰일 때는 ‘是’가 필요하지 않고, 명사가 술어로 쓰일 때는 대부분 ‘是’가 필요하다. 그러나 Pustet(2003)는 수량구가 술어로 기능할 경우에서의 계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Num・CL・N’ 구조는 모두 명사처럼 강한 지시성을 갖고 있지만 예문(2-6)에서 보듯이 이러한 구조는 계사의 도움 없이도 직접 술어의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현상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은 이미 ‘Num・CL’ 구조, ‘Num・CL・N’ 구조, 그리고 신체부위 임시양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다루었던 예문을 일부 인용하고자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S+Num・CL’, ‘S+Num・CL・N’, ‘$S_{장소}$+Num・CL・N’ 및 ‘S+一・Ncl・N’ 구문은 모두 일종의 특수한 구문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네 가지 구문은 술어 부분에 모두 수량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한 범주로 묶어서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상술한 네 가지 구문의 문장 구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고, 내면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기제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구문의 화용 기능이 계사나 동사를 사용하는 다른 유사한 문장과 바교하여 보이는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룬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하다.

5.1 ‘S+Num・CL’ 구문

5.1.1 ‘Num・CL’ 술어의 구조 및 의미 특징

수량구조에는 ‘양을 나타내는 기능’, ‘지시 기능’, ‘문장 완결 기능’,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 외에 ‘서술의 기능’도 있다. 도량형 양사는 사람과 사물이 갖는 어떤 속성의 단위로 사용되는데 수사와 함께 구성된 수량구조로 쓰였을 경우에는 술어로 직접 사용될 수 있다. 중국어 문법 관련 서적이나 교재에서 가장 많이 예로 드는 표현은 나이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먼저 예문(7)을 살펴보자.

(7) 我今年二十岁。
나는 올해 스무 살이다.

예문(7)에서 ‘岁’는 나이를 나타내는 양사이고 수량구조 ‘二十岁’는 주어인 ‘我’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사람의 나이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술어가 되는 수량구조인 ‘수사+岁’는 예문(8-9)의 경우와 같이 그 앞에 시간부사 ‘已经’과 ‘都’[55],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才’와 ‘仅(仅)’ 등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다는 점은 수량구조가 어느 정도 술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부사는 일반적으

55) 이때 문장의 끝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了2’가 동시에 출현한다.

로 동사 및 형용사 같은 용언 성분을 수식할 수 있지만 체언과 체언 구조는 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8) a. 汤姆已经二十岁了, 已经长大成人, 我们用不着再去干涉他。
톰은 이미 스무 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이상 그를 간섭할 필요가 없다.
b. 汤姆都二十岁了, 已经长大成人, 我们用不着再去干涉他。
톰은 이미 스무 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이상 그를 간섭할 필요가 없다.

(9) 宋神宗即位的时候才/仅/仅仅二十岁, 是个比较有作为的青年。
송나라 신종이 즉위할 때는 비록 스무 살이었지만, 능력 있는 청년이었다.

부사 '已经', '都', '才', '仅(仅)'을 사용한 문장은 모두 주관적 색채를 띠게 된다. 예문(8)은 화자가 톰의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문(9)는 송나라 신종이 즉위할 때는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표현하였다.

'수사+岁'가 술어로 기능할 때, 주어와 술어 사이에 휴지를 두지 않아도 문장은 자연스럽지만 휴지를 두어도 무방하다. 이때 '수사+岁' 뒤에 다른 형식의 명사술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0) a. 韩楚风, 39岁, 北京人, 柏林洪堡大学工商管理学博士, 现任正天集团正天商业大厦总经理。
한추펑(39세, 베이징 사람)은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정다그룹 정다상업빌딩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b. 蒋经国, 四十岁, 中等个子, 不壮不瘦, 脸盘子据说很像他的生母毛氏。
장징궈는 40세로 중간키의 보통 체격이며 얼굴은 친어머니인 마오씨를 매우 닮았다.

예문(10a-b)는 모두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며 '수사+岁' 술어와 주어 사이에

는 음성적 휴지를 두고 있다. 예문(10a)에서는 사람의 본적과 신분에 대한 판단성 명사술어가 '수사+岁' 뒤에 나왔고, 예문(10b)에서는 사람의 생김새에 대한 서술과 관련된 'A·N'의 술어가 '수사+岁' 구조 뒤에 나왔다. 예문(10)과 같은 형식은 인물을 소개하는 문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이다.

나이 외에 예문(11-12)과 같이 신체와 관련된 몸무게와 신장을 표현할 때도 역시 수량구조가 술어가 되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리고 수량구조 앞에는 부사가 출현할 수 있다.

(11) a. 张三五十公斤。
장산은 50Kg이다.
b. 张三刚好五十公斤。
장산은 딱 50Kg이다.
(12) a. 李四一米七五。
리쓰는 1미터 75이다.
b. 李四大概一米七五。
리쓰는 대략 1미터 75이다.

주어가 사물인 경우, 사물 자체의 가격, 크기, 길이 및 깊이 등의 속성을 표현하는 수량구조는 직접 술어가 될 수 있다. 예문(13b-15b)와 같이 수량구조 앞에도 일부 부사를 사용할 수 있다.

(13) a. 这本书八块。
이 책은 8위안이다.
b. 这本书才八块。
이 책은 겨우 8위안이다.
(14) a. 那套房子六十平米。
그 집은 60제곱미터이다.
b. 那套房子仅仅六十平米。
그 집은 겨우 60제곱미터이다.

(15) a. 这条鱼五斤。
이 생선은 5근이다.
b. 这条鱼竟然五斤。
이 생선은 의외로 5근이나 된다.

BCC 코퍼스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예는 '수사+岁'가 직접 술어가 되는 문장이다. 그 밖에도 수사가 도량사 '斤, 公斤, 克, 块(가격에 사용), 尺, 寸, 里, 米, 公分, 公里, 英尺, 海里, 光年, 亩, 升' 등과 같이 결합한 '수사+도량사' 구조가 술어가 되는 예문은 매우 많다. 더불어 많은 양의 개체양사와 일정한 동량사를 보유한 것은 중국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수사+개체양사/동량사' 구조가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양상은 어떠한가?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16) 我五本。
(17) 我五本, 他十本。
(18) 他俩三次, 我一次。

구조적 측면에서 예문(16-18)의 '五本, 十本, 三次, 一次'는 모두 주어를 서술하는 데 사용되지만, 구체적인 문맥이 없으면 이 세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예문(16)은 '나는 5권(책)을 샀다.', '나는 5권(책)을 읽었다.', '나는 5권(소설)을 썼다.'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문(17-18)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서만이 정확한 의미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6') 班长: 老师让组织大家给贫困山区的孩子捐赠图书, 大家看看自己要捐几本？
반장: 선생님은 여러분을 동원하여 가난한 산간 지역의 아이들에게 도서를 기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권의 책을 기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学生: 我(捐)五本。
학생: 나는 5권을 기증할 것입니다.

(17') 班长: 老师让组织大家给贫困山区的孩子捐赠图书, 大家看看自己要捐几本？

반장: 선생님은 여러분을 동원하여 가난한 산간 지역의 아이들에게 도서를 기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권의 책을 기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学生: 我五本, 他十本。

학생: 나는 5권, 애는 10권이요.

(18') 老师: 大家去过北京吗？

선생님: 여러분은 베이징에 가 보았습니까?

学生: 去过。

학생: 가봤습니다.

老师: 去过几次啊？

선생님: 몇 번 가 보았습니까?

学生A: 他俩三次, 我一次。

학생A: 그들 둘은 세 번, 저는 한 번이요.

예문(16'-17')에서는 반에서 책을 기부하는 맥락을 설정했는데, 반장이 몇 권의 책을 기부할 것인지 물으면 학생들은 '我五本'과 같은 문장으로 직접 대답할 수 있다. 예문(18')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베이징에 가 보았는지 또 몇 번 가 보았는지를 묻는 상황으로 '我一次'라는 대답은 매우 자연스럽고, 이러한 대답은 대화 중에서 언어의 경제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문(16-18)은 특정 상황에서 동사가 생략된 문장으로서 앞서 논의했던 '我二十岁'와 같은 명사술어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5.1.2 'S+Num・CL'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朱德熙(1982:52)는 "수량사는 체언이지만 동시에 술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어, 목적어, 관형어의 기능 외에도 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56], "복잡한 수사도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57], "수량사 및 수량・명 구조는 체언 성분이

56) 예를 들면, '这个孩子五岁了', '体温三十八度了', '每人一个', '我就一本' 등이 있다.

며, 동시에 술어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자유롭게 술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冯凭(1986)은 "문법적 의미에서 수량구조는 동사, 형용사와 비슷하여 독립적으로 계사의 도움 없이도 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张帅旗(1992)도 수량구조가 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수량구조가 문법적 특성 면에서 술어에 가깝고 주어에 대해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법적 범주는 가변성과 역변성을 띠고 있으며, 그 내재적 의미는 시간, 정도, 수에 따라 변화를 허용하므로 수량구조는 서술성을 갖고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사실, 좀 더 이른 연구 문헌을 다시 살펴보면, 龙果夫(1958:169-171)가 중국어 수량사의 기능이 술어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일찍이 지적했음을 알 수 있다. 石毓智(2000), 张茜(2017) 등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수사, 수량사 그리고 'Num・CL・N' 구조가 왜 술어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만일 이러한 구문이 술어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반대로 서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술어가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청자로 하여금 순환논증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든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수량구조가 서술성을 갖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며, 다른 각도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자 한다.

박정구(2007)는 나이, 신장, 길이, 폭, 무게, 깊이 등을 나타내는 수량구조가 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술어 중심어의 형용사 생략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我今年二十岁'라는 문장은 형용사술어구문인 '我今年二十岁大'의 형용사술어 '大'가 생략된 결과이고, 생략된 이유는 언어의 경제성 원칙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수량구조가 술어 역할을 하는 현상에 대하여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다. 예문(19-21)처럼 대화가 아닌 경우에 만일 수량이 무엇을 묘사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중심어인 형용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57) 예를 들면, '他十五了', '他们一百, 我们七十' 등이 있다.

(19) a. 我已经结婚了，还有一个八岁大的儿子。
나는 이미 결혼했고 여덟 살 된 아들이 하나 있다.
b. *我已经结婚了，还有一个八岁的儿子。

(20) a. 为了不拖累家人，他爬到15米高的高压线塔上，准备跳下去一了百了。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는 15m 높이의 고압선탑에 올라가 모든 것을 끝내려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b. *为了不拖累家人，他爬到15米的高压线塔上，准备跳下去一了百了。

(21) a. 六十斤重的一箱茶，一人一天起码要扛三四百次。
60근 중량의 차 한 상자는 한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3~4백 번 짊어져야 한다.
b. *六十斤的一箱茶，一人一天起码要扛三四百次。

예문(19-21)에서 수량구는 수식어 위치에서 출현하여 뒤에 형용사가 같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 형용사가 삭제되면 문장은 곧 비문이 되거나 부자연스럽게 된다.

Jesperson(1929), Leech(1974)에 따르면 명사 중심어의 수식, 한정의 위치에 출현하는 성분은 '강등 술어(degraded predicate)' 구조이다. 이러한 성분은 의미등급 체계에서 위치가 낮고 주로 '특징'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예문(19-21)에서의 '八岁大，15米高，六十斤重'은 모두 서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성분은 아래와 같이 다시 술어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19') 我已经结婚了，还有一个儿子八岁大。
나는 이미 결혼했고, 또한 여덟 살 된 아들이 한 명 있다.

(20') 高压线塔15米高，为了不拖累家人，他爬到了上面，准备跳下去一了百了。
고압선탑은 15미터 높이이다.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는 올라가 모든 것을 끝내려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21') 一箱茶六十斤重，一人一天起码要扛三四百次。
차 한 상자의 무게는 60근이다. 한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3~4백 번 짊어져야 한다.

만약 예문(19'-21')가 대화의 상황 중에 '多大, 多高, 多重'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형용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22) A: 你多重？/多高？
너는 몸무게가 얼마나 되니? / 너는 키가 얼마나 되니?
B: 我五十公斤。/ 我一米八。
나는 50Kg이다. / 나는 1미터 80이다.

(23) A: 那套房子多大？
그 집은 면적이 얼마죠?
B: (那套房子)六十平米。
그 집은 60제곱미터입니다.

(24) A: 这口井多深？
이 우물은 얼마나 깊죠?
B: 据说这口井1400多米。
이 우물의 깊이는 1,400m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문(22-24)에서의 수량구조는 사람의 신장, 몸무게 그리고 사물의 크기, 깊이, 중량, 길이 등을 표현함으로써 사람과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속성은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통해 표현된다. 비록 예문(22B-24B)에서는 형용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질문 문장인 예문(22A, 23A, 24A)에서는 모두 형용사술어문 형식인 '多+형용사'로 된 의문형식을 사용하였으며 답변 역시 원래의 형용사술어문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경제성의 원칙을 추구한다. 만일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청자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형용사술어문처럼 형용사를 생략할 수 있다.[58] 다음 대화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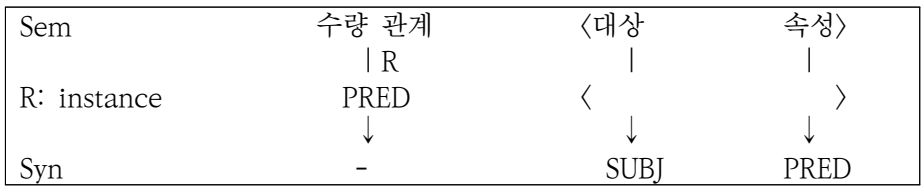
(25) A1: 那套房子怎么样？
그 집은 어때?

58) 박정구(2007) 참조.

B1: 不大。
　　크지 않아.
A2: 多大？
　　얼마나 크지?
B2: 六十平米(大)。
　　60제곱미터이다.

예문(25)의 대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집은 어때?'라고 질문하면 예문(25B1)과 같이 형용사술어를 사용하여 답하지만, 구체적으로 면적에 대해 질문하면 예문(25B2)와 같이 수량구조를 사용하여 답변을 하게 된다. 대화 상황에는 당연히 문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용사 '大'는 완전히 생략될 수 있다. 구어에서 'S+Num・CL'의 구조는 'S+Num・CL+A'의 구조보다 분명히 더 간결하고 경제적이며, 이렇게 간결해진 구조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두뇌에 개념적 구조로 굳어지게 되고 새로운 'S+Num・CL' 도식이 생겨난다. 구문문법의 사용-기반 모델에 따르면, 사람의 지식으로 저장되는 도식은 비록 그것이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청자는 이러한 유형의 문장의미를 여전히 파악할 수 있다.

수량구조 술어는 주어의 어떠한 양적 속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S+Num・CL' 구문은 앞서 논의한 'S+A・N' 구문과 같이 모두 '대상', '속성'이라는 논항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S+Num・CL' 구문에서 주어와 술어는 전체-부분이 아닌 수량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5-1〉 'S+Num・CL'의 구문적 특징

5.1.3 'S+Num・CL' 구문의 화용적 기능

의미론적으로 명사는 사물을 상징한다. 전형적인 사물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며, 특정 사물의 유형에 따라 크기, 수량, 높이, 굵기, 집합과 분산, 이산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사물을 범주화시키는 명사도 자연스럽게 공간성을 가지며 크기, 수량, 높이, 굵기, 집합과 분산, 이산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S+Num・CL' 구문의 주어는 주로 사람과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대명사이며 외연적 의미는 객관 세계의 특정한 실체를 지시하지만 함축적 의미에는 위의 속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속성에는 나이, 신장, 무게 등이 포함되며 수량구조는 이러한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묘사이므로 'S+Num・CL' 구문의 화용적 기능은 주어 명사가 가리키는 개체를 수량의 측면에서 범주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문을 통해 청자는 주어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어에 대한 인지 상태를 확립하게 된다.

정보구조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S+Num・CL' 구문은 일반적으로 '화제-평언'의 정보모형으로 제시된다. 수량 부분은 문장의 초점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수사 부분이 초점이다. 일반적으로 수량 부분을 놓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화제인 주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다. 다음의 예를 보자.

(26) 那套房子多少平米？
　　저 집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27) *哪套房子六十平米？

집의 크기를 놓고 '얼마나 크니?'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예문(26)처럼 구체적으로 수량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수량구조를 전제로 하고, 예문(27)과 유사하게 주어에 대해 질문할 경우에는 문장이 성립될 수 없고 실제 의사소통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S+Num・CL' 구문은 일반적인 긍정 형식뿐만 아니라 의문문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8) a. 你今年二十岁吗？

당신은 올해 스무 살입니까?

b. 张三五十公斤吗？

장산은 50Kg입니까?

c. 李四一米七五吗？

리쓰는 175cm입니까?

(29) 这本书八块吗？这么便宜！

이 책은 8위안입니까? 이렇게 싸다니!

(30) 那套房子才六十平米吗？

그 집은 겨우 60제곱미터입니까?

(31) 这条鱼五斤吗?

이 물고기는 5근입니까?

많은 경우에 명사술어문은 긍정적인 서술문으로 제한되어 사용되지만, 예문(28-31)을 통해 'S+Num・CL' 구문을 일반적인 의문문에 사용하더라도 문장이 매우 자연스럽고 추가적인 동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2 'S+Num・CL・N' 구문

계속해서 'Num・CL・N' 구조가 술어로 사용되는 상황을 알아보자. 'S+Num・CL・N' 구문은 주어의 의미에 따라 다시 주어가 사람과 사물인 경우, 주어가 장소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5.2.1 주어가 사람과 사물인 경우

5.2.1.1 'Num・CL・N' 술어의 구조 및 의미 특징

사용 빈도가 높은 구문이 관습화되는 과정에서 구문 구성요소 사이의 의미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문문법은 인지언어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원칙을 따르며, 본질적으로 Fillmore가 주장한 '틀 의미론(Frame Semantics)'과 연관되어 있다. 틀 의미론은 언어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존재하게 된 배경과 사용하게 된 동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념적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적 구조가 바로 의미틀(semantic frame)이다.[59]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 분석과 인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언어 사용 과정에서 관습화된 개념은 인지 경험의 성장을 동반하면서 개념과 개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고정화된 연관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비교적 양식화된 인지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양식화된 틀의 사용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도는 높아진다. 인지의 틀은 경험적 지식과 언어 구조를 결합해준다. 하나의 의미틀은 언어 규칙을 통하여 어휘 항목에 연결된 일련의 도식적 추론 구조이다. 각 틀은 도식화된 상황의 개념적 역할을 나타낸다. 인지적 의미틀은 단어와 의미의 연결을 통해 단어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표현하여 다양한 인지적 의미틀을 형성한다. 인지적 의미틀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인지적 의미틀에 이르기까지 개방되어 있다. 의미틀은 인간 인지의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에 유형론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 아래 예문을 보자.

(32) a. 这张桌子三条腿。
b. 이 탁자는 3개의 다리가 있다.
c. This table has three legs.
d. 这张桌子有三条腿。
e. 这张桌子是三条腿。

예문(32a)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수식 구조 '这张桌子的三条腿'가 아니다. 여기서 '三条腿'는 술어로 쓰여, '这张桌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관계의 해석은 '桌子'와 '腿'가 형성하고 있는 의미관계에서 기인한다. 이 문장은 바로 'S+Num・CL・N' 형식의 명사술어문이다. 중국어에서는 예문(32a)와 같은 용법이 존재하지만 예문(32b-c)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로 표현하면 동사 '있다'

59) 潘艳艳(2003:15) 참조.

와 'have'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어인 '这张桌子'와 술어 부분의 핵심 명사인 '腿'가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어에도 구체적으로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인 '有'가 있으므로 예문(32d)의 의미는 예문(32a)와 동일하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중국어에는 예문(32e)처럼 계사 '是'로 주어와 술어가 연결된 문장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어에서 소유를 표현할 때, 동사 '有'가 유일하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 아님을 보여준다.

董秀芳(2009:435)은 현실 세계에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보편적인 관계이며 인지과정에서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Cruse(1986:157-160)는 '부분'과 '단편'의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전체-부분 관계에서 부분은 전체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며 이때 부분은 특정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Cruse(2004:151-163)는 전체-부분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전체-부분 관계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두 개의 사물을 포함하고 부분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와 대립하는, 특정한 크기, 규모 및 특정 기능을 갖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马慧丽(2019)에 의하면 전체-부분 관계는 실체-부분, 집합체-구성원, 물질-부분, 원료-개체, 지역-장소, 활동-특징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체-부분은 가장 전형적인 전체-부분 관계이며, 나머지는 비전형적인 예이다. 현실 세계에서 유정성(animacy)을 가진 실체는 주로 인간, 동물, 식물이며 이들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구성 요소 간에는 가장 일반적인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신체부위, 동물과 동물의 신체부위, 식물과 식물의 부분을 가리킬 수 있다. 무생명 실체는 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인조물을 말하며, 그 구성요소와 함께 전체-부분의 의미적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공간-존재하는 사물'은 공간 영역의 '전체-부분' 의미 틀로 볼 수 있다. 이때 공간은 전체이고 사물이 공간의 특정 부분 또는 전체를 차지한다.

전체-부분 의미관계는 중국어 어휘 체계에서 매우 두드러지며 형태와 통사에서 모두 현저하게 코딩될 수 있다. 중국어의 많은 수식구조의 합성어는 '手指(손가락), 衣领(옷깃), 房门(방문), 瓶盖(병 뚜껑), 船头(뱃머리)' 등과 같이 전체-부분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통사적 형태로 반영하면, 전체-부분 관계는 예문(33)에서와 같이 분열 변형 화제문을 형성하거나 예문(34)에서와 같이 이중주어문을 형성할 수 있다. 존재구문은 예문(35)와 같이 '공간-존재하는 사물'의 인지적 기

반 위에서 형성되는 전형적인 문형이다.

(33) a. 那把椅子折了一条腿。
그 의자는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b. 他把枯子剥了皮。
그는 귤의 껍질을 벗겼다.
(34) a. 大象鼻子长。
코끼리는 코가 길다.
b. 这棵树叶子大。
이 나무는 잎이 크다.
(35) a. 墙上挂着一幅画。
벽에 그림 한 폭이 걸려 있다.
b. 衣柜里都是衣服。
옷장 안이 온통 옷뿐이다.

중국어의 통사적 측면에서 부분은 전체 또는 전체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부분과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비교적 두드러진 통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가 주어로 사용되고 부분이 목적어 또는 술어로 사용되거나 전체가 부분의 수식어로 사용된다. 많은 명사술어문 구조의 관습화는 '전체-부분'의 인지적 의미틀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她大眼睛(그녀는 큰 눈을 가졌다.)', '桌子上一台电脑(탁자 위에 컴퓨터 한 대가 있다.)'가 바로 그렇게 형성된 명사술어문이다.

叶婧婷(2020)은 전체-부분 관계도 소유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소유범주가 인류의 언어가 공유하는 범주이며 거의 모든 언어가 소유의 의미를 인코딩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구조는 명사성 소유구조, 용언성 소유구조 및 외부 소유구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6) a. 裘芳芳的帽子[60] (명사성 소유구조)
치우팡팡의 모자
b. 李浩有两套西装。 (용언성 소유구조)
리하오는 두 벌의 양복이 있다.
c. 王辰断了一条胳膊。 (외부 소유구조)
왕전은 한쪽 팔이 부러졌다.

본고는 용언성 소유구조와 외부 소유구조는 모두 명사성 소유구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는 명사성 소유구조의 일부를 구문에 사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예문(36b)는 '李浩的两套西装(이호의 양복 두 벌)', 예문(36c)는 '王辰的胳膊(왕진의 팔)'과 같이 모두 기본적으로 명사성 소유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명사성 소유구조가 인류의 인지에서 보편성을 갖는가?

沈阳(1995)은 중국어 소유구조의 의미유형을 10가지로 분류하였고, Dixon(2010)은 영어에는 명사성 소유구조 의미유형이 7개 존재한다고 보았다. Koptjevskaja-Tamm(2002)과 Haspelmath(2017)는 명사성 소유구조의 세 가지 기본 의미는 친족 관계, 신체부위 소유 및 재산 소유라고 지적했다. 叶婧婷(2020)은 범언어적 언어자료의 조사를 기반으로 명사성 소유구조의 의미유형을 〈표 5-1〉과 같이 9개의 대표적인 범주로 분류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중국-티베트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Austro-Asiatic), 알타이어족(Altaic), 오스트로네시아어족(Austronesian)의 91개 언어와 더불어 방언을 고찰하여 명사성 소유범주의 의미지도를 개략적으로 그려내었다. 그 중 '재산 소유'와 '친족 관계'는 개념 공간의 핵심이며, 나머지는 이 두 의미로 귀결된다.

〈표 5-1〉 명사성 소유범주의 의미유형(叶婧婷2020)

	의미유형	중국어의 예시
1	친족관계(亲属关系)	我的儿子
2	신체부위(身体部位)	她的眼睛
3	전체-부분(整体-部分)	榕树的叶子

60) 예문(36)은 叶婧婷(2020)에서 인용.

4	재산 소유(财产领有)	我的书
5	기관-구성원(机构-成员)	学校的老师
6	구성원-기관(成员-机构)	我们学校
7	시간 소유(时间领有)	今年的收成
8	공간 소유(空间领有)	中国的长城
9	방위 관계(方位关系)	桌子上

Langacker(1995:61)는 소유범주를 참조점 구조로 간주하며 소유자(possessor)는 탄도체(tr) 기능을 하고 피소유자(possesse)는 지표(lm)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사구조에 투사하면 일반적으로 탄도체는 주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지표는 목적어의 위치를 차지하며 그 중간이 소유동사로 연결된다. 〈표 5-1〉의 9가지 명사성 소유구조에서 '위치 관계', '구성원-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유형은 해당 용언성 소유구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친족관계: 我有一个儿子。나는 한 명의 아들이 있다.
나. 신체부위: 小姑娘长了一对水汪汪的大眼睛。
어린 소녀는 한 쌍의 초롱초롱한 큰 눈을 가지고 있다.
다. 전체-부분: 这棵榕树只剩下几片叶子了。
이 용수(榕树)는 잎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 재산 소유: 我有十本书。나는 10권의 책이 있다.
마. 기구-구성원: 我们学校有五百多位教师。
우리 학교에는 500여 명의 교사가 있다.
바. 시간 소유: 明朝有十六位皇帝。명나라에는 16명의 황제가 있었다.
사. 공간 소유: 中国有四个直辖市: 北京、上海、天津、重庆。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4개의 직할시가 있다.

그렇다면 〈표 5-1〉과 같이 叶婧婷(2020)이 제시한 9가지 소유범주에 대한 코딩 방식에서 'S+Num・CL・N'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7) 친족관계 소유

a. 张书记家四个儿子。

장서기 집에는 네 명의 아들이 있다.

b. 张书记家一共四个儿子。

장서기 집에는 총 네 명의 아들이 있다.

c. 我一个姐姐, 俩妹妹。

나에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 두 명이 있다.

d. 丁家就这么一个女儿。

딩씨네는 딸 하나뿐이다.

e. 丁家六个女儿, 依序排列分别叫: 丁美女、丁仙女、丁嫦娥、丁如花、丁西施、丁芙蓉。

딩씨네는 여섯 명의 딸이 있다. 순서대로 딩메이뉘, 딩시엔뉘, 딩창어, 딩루화, 딩시스, 딩푸롱이라고 부른다.

예문(37)의 문장들은 모두 친족관계의 소유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비록 문장에 '有'라는 동사는 나오지 않지만, 문장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一共, 就'와 같은 부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예를 계속 살펴보자.

(38) 신체부위 소유

a. 一只螃蟹几条腿？

게 한 마리에 다리가 몇 개 있지?

b. 杨过就一条胳膊。

양꿔는 팔이 하나이다.

(39) 전체-부분 소유

a. 这种飞机两个发动机。

이 비행기 기종은 엔진이 두 개이다.

b. 这种飞机竟然两个发动机。

이 유형의 비행기에는 엔진이 두 개나 있다.

(40) 재산 소유

a. 我们家三台车, 你们家呢？

우리 집은 세 대의 차가 있는데, 너희 집은?

b. 小张北京一套房, 上海一套房, 条件好着呢。

샤오장은 집이 베이징에 한 채, 상하이에 한 채 있는데 조건이 매우 좋다.

(41) 기구-구성원 소유

a. 这家公司两万名员工。

이 회사에는 2만 명의 직원이 있다.

b. 我们家就三口人。

우리 집은 세 식구뿐이다.

(42) 시간 소유

明朝一共十六位皇帝。

명나라에는 총 16명의 황제가 있었다.

(43) 공간 소유

中国二十三个省, 四个直辖市, 五个自治区, 两个特别行政区。

중국에는 23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두 개의 특별행정구가 있다.

상기 예문을 통해 친족관계 외에 동사가 없는 명사술어문의 형태로 신체 일부 소유, 전체-부분 소유, 재산 소유, 기관-구성원 소유, 시간 소유, 공간 소유 등이 코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어떤 소유범주이든 상관없이 피소유 부분 앞에는 수량사 수식어가 필수 구성요소로 출현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일 수량사 수식어를 삭제하면 문장은 성립하지 않고, 그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수식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소유주와 피소유물 사이에는 소유 표지 '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문(37')부터 예문(43')까지의 문장은 소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 '有'를 사용한 것이다.

(37') 친족관계 소유

a. 张书记家有四个儿子。

b. 张书记家一共有四个儿子。

c. 我有一个姐姐, 俩妹妹。

d. 丁家就有这么一个女儿。

e. 丁家有六个女儿, 依序排列分别叫: 丁美女、丁仙女、丁嫦娥、丁如花、丁西施、丁芙蓉。

(38') 신체부위 소유

a. 一只螃蟹有几条腿？

b. 杨过只有一条胳膊。

(39') 전체-부분 소유

a. 这种飞机有两个发动机。

b. 这种飞机竟然有两个发动机。

(40') 재산 소유

a. 我们家有三台车, 你们家呢？

b. 小张北京有一套房, 上海有一套房, 条件好着呢。

(41') 기구-구성원 소유

a. 这家公司有两万名员工。

b. 我们家只有三口人。

(42') 시간 소유

明朝一共有十六位皇帝。

(43') 공간 소유

中国有二十三个省, 四个直辖市, 五个自治区, 两个特别行政区。

청자의 입장에서는 'S+Num・CL・N' 구조로 표현된 문장이 소유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표현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언어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동사 '有'를 사용하게 되면 의미관계는 곧 명시적이게 되어 청자는 의미 파악에 대한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소유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명사술어문의 유형들은 '有' 구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다음 유형의 'S+Num・CL・N' 구문은 동사

'有'를 전혀 삽입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4) a. 那男人白白胖胖, 一副和气相。
그 남자는 희고 통통하며 매우 온화한 인상이다.
b. 徐翠摘下口罩, 却不说话, 一副可怜兮兮的样子。
쉬추이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쓰러운 모습이다.
c. 孙队长讲的陈恳而直率, 一副替我抱不平的热心肠。
쑨대장의 진솔하고 솔직한 말은 나의 울분을 달래주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45) a. 你一派胡言, 我怎么可能说那样的话!
너는 온통 허튼소리만 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b. 沈缦云经常出入官场, 一派绅士风度。
선만윈은 자주 관청을 드나들고 신사다운 풍모를 하고 있다.
c. 这里背靠黎山, 濒临大海, 山青水秀, 一派迷人的热带风光。
이곳은 여산을 등지고 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산수가 빼어난 아름다운 열대 풍광을 하고 있다.

먼저 위와 같은 구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Num・CL・N' 구조에서 명사는 추상명사이고, 수사는 '一'로 제한되며, 양사는 주로 추상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副', '派' 등으로 국한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문(44)는 추상적인 'Num・CL・N' 구조를 통해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특성을 묘사하였고, 예문(45)는 추상적인 'Num・CL・N' 구조를 통해 환경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런 유형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Num・CL・N' 구조와 주어 사이에 긴 휴지가 존재하고, 배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간에 관련된 묘사와 설명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자는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없어도 의미 전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술한 용례에서 주어와 'Num・CL・N' 술어의 핵심 명사 사이에는 추상적인 소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有' 구문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44') a. *那男人白白胖胖, 有一副和气相。
b. *徐翠摘下口罩, 却不说话, 有一副可怜兮兮的样子。
c. *孙队长讲的陈恳而直率, 有一副替我抱不平的热心肠。
(45') a. *你有一派胡言, 我怎么可能说那样的话 !
b. *沈缦云经常出入官场, 有一派绅士风度。
c. *这里背靠黎山, 濒临大海, 山青水秀, 有一派迷人的热带风光。

예문(44'-45')와 같은 유형의 문장은 묘사성과 주관성이 강하고 추상적인 'Num・CL・N' 구조의 표현 기능이 형용사의 표현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객관적인 소유의미를 나타내는 '有'와 공존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예문(44'a) 문장의 의미는 '那男人白白胖胖, 非常和气(그 남자는 희고 뚱뚱하고 매우 온화하다.)'이고 형용사술어문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사로 인해 '지시대명사・양사・명사' 구조가 직접 술어로 쓰인 현상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6) a. 他那种脾气
그의 그런 성격
b. 他就那种脾气。
그는 그냥 그런 성격이다.

예문(46a)는 '그의 그런 성격'을 의미하는 수식구조이지만 명사구 '那种脾气' 앞에 어기부사 '就'를 사용하면 '就那种脾气(그냥 그런 성격)'이라는 구를 형성하여 앞의 주어를 서술함으로써 주술 문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중국어에서의 부사 강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부사는 원래 술어를 수식하지만 명사가 그 뒤에 출현하면 지시성은 약해지고 서술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명사술어문의 문장 성립 조건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부사 '就'의 어휘 강요로 인해 '지시대명사・양사・명사' 구조가 직접 술어로 기능하게 된 사례는 아래와 같이 더 나열할 수 있다.

(47) a. 别说抱他了, 有时候我看他徐良一家三口一眼, 我都会, 哎哟, 就那种感觉。
그를 안는 것은 고사하고, 가끔 내가 쉬량의 가족 세 명을 보면, 나는 매번, 에휴, 그런 느낌이 든다.
b. 三九胃泰就那么一个品种, 搞到那么大的产值, 那么大的效益, 值得研究一下。
산지우웨이타이는 겨우 한 품종인데도 생산액이 그렇게 크고 이익도 그렇게 크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5.2.1.2 'S+Num・CL・N'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형식주의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체언 성분이 직접 술어로 사용된 구문은 문장에서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这张桌子三条腿'라는 문장은 동사 '有'가 생략된 문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구문이라는 것은 '형식과 의미 또는 기능의 쌍'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문문법의 관점에서 볼 때, 각 형식 자체는 독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구문형식이 다르면 의미와 기능도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S+Num・CL・N' 구문을 'S+有+Num・CL・N' 구문의 생략 형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龙果夫(1958)에 의하면 '这张桌子三条腿'라는 문장은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这张桌子有三条腿'라는 문장은 과거에는 네 개의 다리가 있었지만 후에 1개가 고장 나서 현재는 세 개만 남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这张桌子三条腿'라는 문장이 '这张桌子有三条腿'라는 문장에서 동사 '有'를 생략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다소 견강부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은 동일한 문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8) a. 我就一台电脑, 不能借给你用。
나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너한테 빌려줄 수 없다.
b. 小李家五口人。
샤오리 가족은 다섯 식구이다.
c. 统计了一下, 图书室现在一共两千八百本书。
통계를 내보니 도서실에는 현재 총 2천8백 권의 책이 있다.

예문(48a)에서 사람들은 주어 '我'와 'Num・CL・N' 구조의 '一台电脑'를 일차적으로 소유주와 피소유물로 인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소유의 의미 개념은 범언어적 보편성을 띠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개념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법적 범주로서 특정 언어에서 소유의 표현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언어마다 소유관계를 표현하는 구조 역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국어에서 '有'는 동사이기는 하지만 행위나 동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체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有'의 본래 의미는 소유이다.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형태적 변화가 없다. 따라서 동사 '有'는 영어 'have'와 같이 시제, 상 측면의 변화를 갖지 않는다. 동사 '有'의 의미 기능이 'S+Num・CL・N' 전체 구문과 동일할 때, '有'의 사용은 더이상 필수적이지 않게 되고 선택적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소유를 나타내는 구문은 소유주와 피소유물 두 가지 논항 역할을 가지고 있고 소유동사 '有'는 정태적인 소유 의미를 띠고 있으며 소유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Sem	소유 관계	〈소유주	피소유물〉
	| R	|	|
R: instance	PRED	〈관련자	피관련자 〉
	↓	↓	↓
Syn	-	SUBJ	PRED

〈그림 5-2〉 'S+Num・CL・N'의 구문적 특징

5.2.1.3 'S+Num・CL・N' 구문의 화용적 기능

'Num・CL・N' 구조가 직접 술어 역할을 하는 문장은 어떤 특별한 화용적인 기능이 있을까? 우선, 언어의 사용은 경제성 원칙을 추구하는데 의미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동사술어를 사용한 문장과 비교할 때, 'Num・CL・N' 구조가 직접 술어로 사용된 문장이 더 간결해 보인다.

화용론 측면에서 볼 때, 발화자는 경제성 원칙을 준수하여 간결한 언어 형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S+NP'가 바로 이러한 형식이다. 실제 의사소통에

서 화자는 참여자로서 발화 상황에 맞게 자신이 사용할 언어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가 구체적일수록 청자의 추론 범위가 더 제한되고 정신적인 노력은 줄어든다. 화자가 청자의 추론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동일한 발화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 패턴은 관례에 의해 고정되고 문법 구조로 발전한다. 구어 의사소통에서 청자는 담화 맥락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추론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되며 이때 화자는 매우 간단한 언어 형식을 사용해도 된다. 서면 의사소통에서 청자가 텍스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청자는 S와 NP의 관계를 추론할 때 인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화자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언어의 형태로 인코딩해야 한다. 아래 두 가지 예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49) 我一个儿子, 一个女儿。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50) 我有一个儿子, 一个女儿。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

예문(49)는 여러 사람끼리 자신의 자녀 상황에 대한 발화로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다른 사람에게 '你们结婚了吗？有孩子吗？'라고 물으면, B는 '我一个儿子, 一个女儿'라고 대답할 수 있다. 예문(50)은 동사 '有'를 사용하여 명확한 소유관계를 나타내므로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고 다른 문맥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화용적 차이는 아래의 표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

〈표 5-2〉 'S+Num・CL・N' 구문의 화용적 특징

언어 형식	화용 효과	문체 특징
S+Num・CL・N	경제성	구어
S+有+Num・CL・N	정확성	구어/서면어

둘째로, 董秀芳(2009)은 "술어의 위치는 목적어의 위치보다 더 중요하다."라

고 하였다.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Num・CL・N' 구조가 중요한 술어 위치를 차지하면 주어의 속성을 묘사, 설명하는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문(49)에서 '一个儿子, 一个女儿' 전체는 새로운 정보가 되어 주어에 대해 서술한다. 예문(50)에서는 동사 '有'와 목적어인 '一个儿子, 一个女儿'이 함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Num・CL・N' 구조의 지위가 예문(49)보다 약하다.

5.2.2 주어가 장소인 경우

주어가 장소이고 술어가 'Num・CL・N' 구조인 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초기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구문이 동사(예: '有', '是')를 생략했다고 주장하였다. 후에, 杜瑞银(1982)과 宋玉柱(1982, 1988) 등은 이러한 구조를 독립적인 구문형식으로 간주하여 존재구문의 작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명사술어문을 주로 연구하는 陈满华(2008)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수식구조가 술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에 대해 '$S_{장소}$+Num・CL・N' 구문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앞에서 다룬 'S+Num・CL・N' 구문과 같은 잣대로 해석이 가능한지를 판가름해 볼 필요가 있다.

5.2.2.1 'Num・CL・N' 술어의 구조 및 의미 특징

존현문은 중국어의 특수한 구문 유형으로서 존재 술어의 유형과 의미에 따라 존재문과 은현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절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S_{장소}$+Num・CL・N' 구문은 주로 존재문을 가리키며 은현문은 다루지 않는다. 王勇・徐杰(2010)은 "존재문은 일종의 구문으로, 원형 의미는 '어떤 장소에 누가 또는 무엇이 존재한다.'이고, 화용적 의미는 '누구 또는 무엇'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존재문의 기본 구조는 '장소+존재동사+존재물(존재 주체)'이다. 존재문에서 '有', 'V着' 및 '是'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존재동사이며, 존재물은 맨명사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Num・CL・N' 구조로 나타난다. 정보구조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어 부분의 존재물은 모두 존재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실체이며 문장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

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51) 桌子上有电脑和书。
책상에는 컴퓨터와 책이 있다.

(52) 桌子上有两本书、几支笔, 还有一杯喝了一半的咖啡。
책상 위에 두 권의 책, 몇 자루의 펜과 반 정도 마신 커피 한 잔이 있다.

(53) 墙上挂着五把古筝, 它们可都是王老师的宝贝。
벽에는 5개의 고쟁이 걸려 있고, 그것들은 모두 왕 선생님의 보물이다.

(54) 教室里都是用过的旧桌子、旧椅子。
교실 안은 온통 사용했던 낡은 책상과 낡은 의자뿐이다.

예문(51-52)는 '有'를 사용하는 존재문이고, 예문(53)은 '挂着'와 같이 'V着' 동사 형태를 통해 존재하는 주체의 정태적 존재 방식을 나타내고, 예문(54)는 '是'를 사용하는 존재문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제시한 예문(3-4)를 통해 'Num・CL・N' 구조 역시 존재동사의 도움 없이도 장소명사 바로 뒤에 위치하여 전체 문장의 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술어 부분은 구체적인 사물 외에 추상적인 사물도 사용할 수 있다.

통사구조와 의미 측면에서, '$S_{장소}$+Num・CL・N' 구문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이 있으며, 이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주어가 방위사구, 장소명사, 방위대명사나 방위사이고 술어에서의 수사는 임의의 숫자 또는 불특정 수량 표현인 '好多, 好些, 几' 등이며, 양사는 대부분 개체양사 유형이다. 술어가 가리키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이다.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예문(59)처럼 종종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인 '就, 只'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5) 涎着脸没完没了地问着爱爱: "你们是哪里人？"
爱爱说: "黄泛区的。"
"你家里几口人？"
"四口人。"

뻔뻔하게 아이아이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라고 물었다. 아이아이는 ‘황판취’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당신 가족은 몇 명입니까?”

“4명이요.”

(56) 因为我的理智告诉我，买这栋房子太疯狂了。这里距离亲朋好友太远，而且也很贵，楼上两间小房，楼下两间小房。

내 이성이 이 집을 사는 것은 미쳤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고 위층에 작은 방 두 개와 아래층에 작은 방 두 개가 있는 것 치고는 너무 비싸다.

(57) 结果您只能停留在图画和书本中的水平上：眼睛蒙上布条，人捆绑在木柱上，远处几个兵士。

결국 당신은 그림과 책 사이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눈은 천 조각으로 덮여 있고 사람은 나무 기둥에 묶여 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는 몇 명의 병사가 있다.

(58) 窗前一棵海棠树，树下一张小圆桌。 (陈满华2008)

창 앞에는 한 그루 해당화 나무가 있고, 나무 아래에는 작은 원탁이 있다.

(59) 书架上就那么几本书。 (吕叔湘1999[1980])

책장에는 겨우 몇 권의 책밖에 없다.

인지언어학의 관점에 따르면, 동사성 성분은 시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명사성 성분은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는 곧 위치를 의미하며 모든 사물은 반드시 어떠한 공간 즉, 특정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예에서 ‘家里’, ‘楼上/楼下’, ‘远处’, ‘窗前’, ‘树下’, ‘书架上’은 모두 현실 세계의 물리적 공간이며, 방위의미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언어 형식이자 방위 성분의 원형 구현 형식이다.

둘째, 주어가 방위사구, 장소명사, 방위대명사, 방위사 등이고, 구체적인 사물이 존재물이 되며, 수사는 ‘一’만 사용하고, 양사는 예문(60-62)와 같이 주로 집합양사 또는 ‘片’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60) a. 上面一群成双成对的蜜蜂。 (李晓奇2016)
위에는 한 무리의 꿀벌 떼가 있다.
b. *上面两群成双成对的蜜蜂。

(61) a. 南边的天上一团红雾。 (杜瑞银1982)
남쪽 하늘에는 붉은 안개가 끼었다.
b. *南边的天上两团红雾。

(62) a. 琴读完信，抬起头来，两手托着腮痴痴地望着窗外。窗外一片阳光，一群蜜蜂在盛开的桃花周围飞舞。
琴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어 양손으로 턱을 고이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한 무리 꿀벌이 만개한 복숭아꽃 주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b. *窗外几片月光。

셋째, 방위사구, 장소명사, 방위대명사, 방위사 등이 주어가 되고, 추상적인 사물이 존재물이 되며, 사용된 양사는 추상적인 사물과 고정적인 결합 관계를 이루어 중첩이 가능하며, 수사는 '一'에 국한되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예문(63-65)와 같다.

(63) 里面一股暖烘烘的草药味。 (杜瑞银1982)
안에는 따뜻한 약초 냄새가 물씬 풍겼다.

(64) 他的头上一阵剧痛，像被蝎子蜇了一样。
전갈에 쏘인 것처럼 그는 머리에 한 차례 심한 통증을 느꼈다.

(65) 院内一阵阵孩子的啼哭声。 (朴正九2005)
안뜰에서 여러 차례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넷째, 방위사구, 장소명사, 방위대명사, 방위사 등이 주어가 되고, 존재물은 형용사가 변화된 임시명사이며, 수사가 '一片'과 '一阵'에 국한된 형식이다. 예문(66-69)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66) 殡葬全部结束后，他蹲在这个小土包旁边，又抽起了旱烟，雪花悄无声息地降落着，天地间一片寂静。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이 작은 흙 주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또 잎담배를 피웠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적막만이 흘렀다.

(67) 我回到家，周瑾已经上班走了。室内一片凌乱，毛巾被皱巴巴散在床上，匆忙脱下的睡衣扔在外屋的沙发上。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우진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방안은 매우 지저분했고, 수건은 구겨져 침대에 흩어져 있었고, 급히 벗어놓은 잠옷은 바깥방의 소파에 던져져 있었다.

(68) 会场上一阵沉默，好久好久没有人说一句话。

회의장에는 침묵이 흘렀고 오랫동안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69) 楼梯上一阵混乱，传来无忧无虑的嬉笑声，姑娘活泼的嗓音，夹杂着护花使者的浑厚音调。

계단 위에서 한바탕 소란이 끝난 후, 평온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소녀의 활기찬 목소리와 그녀들을 보호하는 남자들의 중후한 음색이 섞여 있었다.

전형적인 존재의 주체(존재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람 또는 사물이다. 사람들은 사물을 인지할 때, '구체→추상'의 인지모델을 따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물에서 시작하여 은유를 통해 확장함으로써 추상적인 사물도 객관적인 사물로 간주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특정 위치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의 예문은 맛, 감각 및 소리를 다루었는데, 이는 첫째와 둘째 유형의 구체적인 사물보다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넷째 유형의 '적막(寂静)', '침묵(沉默)', '혼란(混乱)'은 탈범주화되어 보다 더 추상적인 사물로 인식될 수 있다.

5.2.2.2 'S장소+Num・CL・N'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학자들은 'S장소+Num・CL・N' 구문은 존재동사가 생략되었다고 주장한다. 吕叔湘(1979)은 생략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했으며, 『汉语语法分析问题』에서 생략의 조건을 제시했다. 만일 문장이 문맥이나 텍스트 환경

에서 벗어나고 의미가 불명확해지면 일정한 어휘로 채워야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채워진 단어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朱德熙(1982)는 생략에 대해서 “생략이란 구조상 반드시 나타날 성분이 어떠한 통사적 조건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략설은 남용하면 안 되고, 특히 한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어떤 성분이 생략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진일보한 의견을 제시했다. 范开泰(1990)는 또한 “통사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출현하지 않는 것만이 생략이고, 생략된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 통사구조는 불완전하여, 비록 문장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더이상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생략은 통사구조 성분의 생략이므로 환원적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상응하는 ‘완전한 형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생략형과 상응하는 완전한 형식은 의미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논술을 바탕으로 본고는 통사 성분이 생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통사구조의 필수 성분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생략으로 본다.

둘째, 생략된 성분은 통사적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환원할 때 첨부되는 문장 성분은 단 하나이다.

셋째, 생략 형식에 대응하는 완전한 형식이 있으면, 이 둘의 의미는 동일하다.

상술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근거로, 본고는 ‘$S_{장소}$+Num・CL・N’ 구문이 존재동사를 생략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러한 구문에서의 동사는 통사적으로 더이상 문장 성립의 필수 성분이 아니며 문장이 성립하는 조건은 다른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구문은 동사를 첨부하여 동사술어문으로 복원시킬 경우 종종 하나 이상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예문(70)과 같이, ‘一棵海棠树’와 ‘一张小圆桌’ 앞에 ‘有’, ‘是’, ‘种着’, ‘摆着/放着’ 등의 동사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럼 예문(70)의 a구문, b구문, c구문 중 어떤 것이 예문(58)의 완전한 형식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예문(59)는 부사 ‘就’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예문(71a-b)는 성립될 수 있지만, 예문(71c)는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부사 ‘就’가 화자의 강한 주관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는 객관적으로 어딘가에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是’의 의미와 충돌한다.

(70) a. 窗前有一棵海棠树, 树下有一张小圆桌。
b. 窗前是一棵海棠树, 树下是一张小圆桌。
c. 窗前种着一棵海棠树, 树下放着/摆着一张小圆桌。
(71) a. 书架上就有那么几本书。
b. 书架上就摆着/放着那么几本书。
c. ?书架上就是那么几本书。

아래에서 존재하는 사물이 비교적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예문(64), (65)를 예문(72), (73)처럼 전환해보자.

(72) a. ?他的头上有一阵剧痛, 像被蝎子蜇了一样。
b. 他的头上出现了一阵剧痛, 像被蝎子蜇了一样。
(73) a. ?院内有一阵阵孩子的啼哭声。
b. 院内传来/传出一阵阵孩子的啼哭声。

예문(64-65)의 'Num・CL・N' 술어 앞에 동사 '有'를 더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오직 '出现', '传来', '传出'과 같은 동사가 와야 문장이 성립한다. 그러나 예문(64)와 예문(72), 예문(65)와 예문(73)은 모두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의 생략 형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존현동사가 생략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S_{장소}$+Num・CL・N' 구문과 '$S_{장소}$+有/V/V着+Num・CL・N' 구문이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龙果夫(1958)는 "장소 부사어가 출발점 및 보고의 주제로 사용될 때, 어떠한 '수사+명사' 구조도 모두 독립적인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龙果夫는 문장 시작 부분의 장소는 부사어로 간주되며 동시에 이 성분이 화제의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um・CL・N' 구조가 독립적으로 술어 기능을 하는 현상에는 주목하였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박정구(2005)는 이러한 현상이 문학작품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했는데,

동사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술어 부분에 수량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장소+존재물' 구조를 '전체+부분'의 인지모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전체-부분' 관계는 중국어의 형태, 통사에서 현저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戴浩一(2007)은 중국어의 공간관계 역시 '전체-부분' 관계의 기본모형에 기초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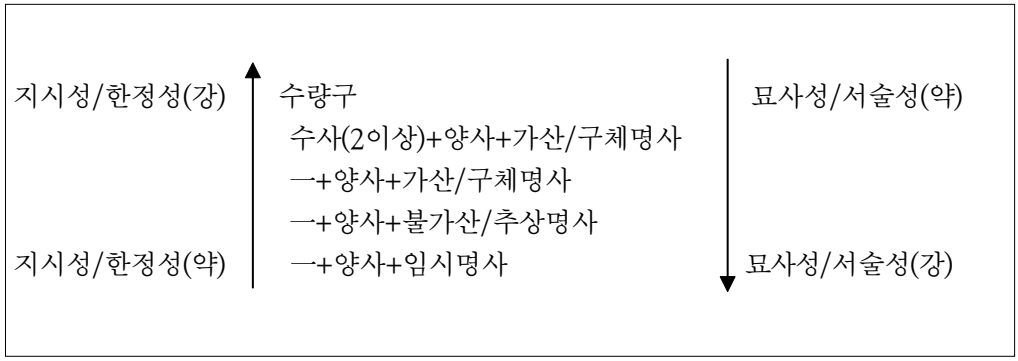
(74) 那本书在图书馆七楼, 西文部第十二号书架上。
그 책은 도서관 7층 서양문화부 열두 번째 서가에 있다.

(75) That book is on the 12th shelf in the Western Language Section on the 7th floor in the library.
그 책은 도서관 7층 서양문화부 열두 번째 서가에 있다.

예문(74)와 예문(75)의 차이로부터, 중국어의 공간관계는 큰 것에서 작은 것, 즉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순서를 따르는 반면, 영어는 이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적 크기에서 볼 때, '장소'는 '존재물'이 차지하는 공간보다 커야 한다. 많은 경우, 같은 공간에 여러 존재물이 분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장소'를 전체로 '존재물'을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 전체만이 화제(topic)가 될 수 있기에 주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는 존재동사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장소가 앞에 그리고 존재물이 뒤에 위치하는 문장이 많이 존재한다.

앞의 논술을 통해 수량구조가 서술성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수량구조가 어떤 특정한 구문에 들어가게 되면, 구문 강요 원리로 인하여 지시성은 약화되고 서술성은 강화되는데, 이때 전체 구문은 존재물의 존재를 통해 장소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李晓奇(2016)의 연구에 따르면, 존재구문 동사의 뒤에 오는 명사성분은 반드시 비한정 성분이라는 것은 범언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의 존재구문과 같이 영어의 존재구문도 예외는 아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라고 한다. 중국어에는 영어의 정관사 'the'나 부정관사 'a'와 같이 한정과 비한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수단이 없으며, 다만 중국어 학계에서는 'Num・CL・N' 구조를 전형적인 비한정 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李晓奇(2016)는 이외에 동일한 비한정 성분은 지시성과 서술성 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강한 한정성을

가진 성분은 지시성이 강한 반면에 서술성이 약하고, 약한 한정성을 가진 성분은 지시성이 약한 반면 서술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그녀는 중국어 수량구조의 이러한 지시성과 서술성의 차이를 아래와 같은 위계로 제시하였다.



〈그림 5-3〉 비한정 수량구조 내부의 지시성과 서술성 위계(李晓奇2016)

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비한정 수량구조는 각각 본고의 5.1에서 언급한 유형에 해당하며, 첫째와 둘째 유형의 'Num・CL・N' 구조는 비교적 구체적인 '수+양+가산/구체 명사' 구조에 속하여 지시성은 강하나 서술성은 약하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의 장소주어와 'Num・CL・N' 술어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동사 '有'를 삽입할 수 있다. 셋째와 넷째 유형에서 수사는 중국어에서 가장 허화된 수사인 '一'로 제한되며 이때 명사는 추상적인 사물로서, 지시성은 약하고 서술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소주어와 'Num・CL・N' 술어 사이에 동사 '有'와 '是'를 삽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王勇・徐杰(2010)은 존재문이 나타내는 구문 의미는 각각의 구성 성분의 원형적 의미가 통합된 것으로, 일단 의미가 형성되면 반대로 각종 구성 성분을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문은 구성 성분이 나타내는 의미 외에 전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만일 구문의 논항구조와 동사의 참여 역할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동사의 의미는 구문에 있어 잉여적이게 되고, 부가할 경우 추가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존재문의 논항인 장소주어와 또 다른 논항인 'Num・CL・N' 술어는 존재 의미의 틀을 형성할 수 있다. 동사 '有'는 전형적인 존재동사로서, 존

재문에 사용될 때, 그 역할은 '어딘가에 무엇이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역할은 '$S_{장소}$+Num・CL・N' 구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有'는 구문 의미를 볼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성분이 된다. 통시적인 측면에서, 일단 존재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S_{장소}$+Num・CL・N' 용법이 출현하게 되면, 관성강요(Inertia Coercion)의 영향과 언어의 경제성 원칙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계속해서 '$S_{장소}$+Num・M・N' 구문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존재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소위 '관성강요'는 물리적 관성과 유사하다. 사람들이 '$S_{장소}$+Num・CL・N' 구문을 정상적인 조합으로 간주하게 되면, 인지적 관습화가 형성된다. 이는 곧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유관성'으로 굳어지면서 언어 표현을 제한하게 된다. '$S_{장소}$+Num・CL・N' 구문의 구문적 특징은 다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Sem	존재관계	〈장소	존재물〉
	| R	|	|
R: instance	PRED	〈관련자	피관련자 〉
	↓	↓	↓
Syn	-	SUBJ	PRED

〈그림 5-4〉 '$S_{장소}$+Num・CL・N'의 구문적 특징

5.2.2.3 '$S_{장소}$+Num・CL・N' 구문의 화용적 기능

'有, 是'와 'V着' 등과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문은 화용적으로는 비한정 'Num・CL・N' 구조로서 새로운 실체를 담화에 끌어들이는 기능이 있다. 이때 'Num・CL・N' 성분은 문장의 초점이자 이어지는 담화 내용의 화제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76) 沙发上有一堆衣服, 这些衣服都是要洗的。
소파 위에 한 무더기의 옷이 있는데, 모두 빨아야 하는 것들이다.

예문(76)에서는 '有'자 존재구문을 사용하여 '一堆衣服'을 담화에 새롭게 도입시켰다. '一堆衣服'이 가리키는 실체는 이어지는 후속 절에서 한정 형식 '这些衣服'으로 표현되었으며 후속 절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5.2.2.2에서 예를 든 문장들은 대부분이 강한 묘사성을 갖고 있으며 'Num・CL・N'으로 표현된 실체를 담화에 끌어들이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이들 성분은 담화에서 한 번만 나타나고 사라지며 이어지는 담화 내용의 화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一+양+형' 술어는 주어에 대한 묘사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S_{장소}$+Num・CL・N' 구문에 존재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은 단순히 정태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제 사실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장들은 주로 문학작품에서 쓰이고 강한 묘사 기능을 갖고 있다.

5.2.2.1과 5.2.2.2의 분석을 통해서 본고는 '$S_{장소}$+Num・CL・N' 구문이 중국어에 존재하는 구문이며, '$S_{장소}$+有+Num・CL・N' 구문과 공존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서는 전자를 A구문이라 하고, 후자를 B구문이라 하기로 한다.

우선, A구문의 주어는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방위사구, 장소명사, 방위대명사, 방위사 등에 국한되지만, B구문의 주어는 시간명사로 표현될 수도 있다. 예문(77)을 보자.

(77) a. 前面/从前有一座山。
앞에/이전에 산이 있다/있었다.
b. 前面/从前有座山。
앞에/이전에 산이 있다/있었다.
c. 前面一座山。
앞에 산이 있다.
d. *从前一座山。
e. *前面座山。

예문(77)에서 A구문과 B구문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수사가 '一'인 경우, B구문의 '一'은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지만, A구문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비슷한 예문을 더 보자.

(78) a. 桌上有一台电脑。
책상에 컴퓨터 한 대가 있다.
b. 桌上有台电脑。
책상에 컴퓨터 한 대가 있다.
c. 桌上一台电脑。
책상에 컴퓨터 한 대가 있다.
d. *桌上台电脑。

예문(78a)에서 '一'은 예문(78b)처럼 생략될 수 있지만, 예문(78c)에서 수사 '一'을 생략하면, 예문(78d)는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존재동사가 출현할 때, 문장의 정보 초점이 '존재동사+존재물'에 있고, 존재물 앞에는 수량 수식성분이 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桌上有电脑', '桌上放着电脑'라고 말할 수 있고, '桌上有两台电脑, 不是一台'처럼 숫자를 부각해서 표현할 때는 반드시 수사가 출현한다. 그러나 A구문에서 문장의 초점은 존재하는 사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물의 수량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와 양사는 모두 필수 구성 성분이다.

수량 수식성분은 A구문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량성분의 수식이 없으면 '$S_{장소}$+N' 구문은 성립할 수 없다. 하지만 B구문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예문(79)에서와 같이 명사 앞에 수량 단어가 없어도 된다.

(79) a. 沙发上有衣服。
소파 위에 옷이 있다.
b. *沙发上衣服。
c. 沙发上一堆衣服。
소파 위에 한 무더기 옷이 있다.

위에 언급된 몇 가지 차이점에서 보듯이, B구문과 비교하면 A구문은 통사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구문의 주어와 술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모두 전체 구문의 제약을 받으며 B구문과는 다르게 무한한 확

장의 가능성은 없다.

두 번째 요점은 화용적 측면에서, 구어 또는 서면어에서 B구문에 대한 용례는 매우 많지만, A구문은 사용 빈도 면에서 B구문보다 훨씬 적게 사용된다. B구문은 주로 묘사 표현을 많이 쓰는 문학작품에서 출현하며 구어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차이점은 존재동사를 사용한 B구문은 부정형식을 갖지만, A구문은 일반적으로 긍정형식만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沙发上没有衣服啊', '沙发上没放衣服啊'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沙发上没有一堆衣服'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네 번째 차이는 존재동사를 사용한 B구문은 독립성이 강하여 스스로 문장을 이룰 수 있지만, A구문은 많은 경우에 문장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위에 제시한 예문과 같이 열거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S_{장소}$+Num・CL・N' 구문은 장면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존재물을 사용하여 장소를 묘사한다. 이러한 구문은 묘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형용사술어문에 근접했다. 특히, '天地间一片寂静'과 같은 예는 형용사술어문인 '天地间十分寂静'과 거의 비슷한 표현 효과를 가지며, 둘 다 매우 높은 수준의 정적 상태를 나타낸다.

5.3 'S+一・Ncl・N' 구문

5.3.1 '一・Ncl・N' 술어의 구조 및 의미 특징

중국어의 양사는 명량사와 동량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 명량사와 일반 동량사 외에도 많은 임시 명량사와 임시 동량사가 있다.[61] 郭锐(2002)는 일반 명량사를 제외하고 일부 명사는 양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형우

61) 문법 학자에 의한 양사의 분류는 대동소이하며, 양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사는 명량사와 동량사이며, 각 양사는 다시 개체양사, 집합양사, 도량사, 부정양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각 학자들의 임시 명량사에 대한 설명은 다르며 각각의 용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책략(优先同型策略)의 기준에 따라서 명사로 취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어는 주로 수용의 기능을 갖는 사물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양사적 특성을 나타낼 때는 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80) 첫 번째 유형

一桶水, 两桶水, ……十桶水

一碗饭, 两碗饭, ……十碗饭

一车煤, 两车煤, ……几百车煤

一瓶子酱油, 两瓶子酱油, ……

一书架书, 两书架书, ……

두 번째 유형

一头白发, 满头白发, *两头白发

一脸汗, 满脸汗, *两脸汗

一地血, 满地血, *两地血

一院子人, 满院子人, *三院子人

一桌子灰, 满桌子灰, *两桌子灰

본고에서는 두 번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임의의 수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은 단지 수사 '一'과만 결합이 가능하며, '一'의 의미는 '满(가득, 온통)'과 같다. 두 번째 유형의 임시양사는 신체부위를 차용한 것과 용기를 차용한 것이 있는데, 그 중 신체부위를 차용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소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부위 '脑子, 脑袋, 脑门子, 头, 脸, 口, 嘴, 嘴巴, 眼, 鼻子, 耳朵, 手, 掌, 巴掌, 拳, 拳头, 指头, 腔, 身, 肚子, 腿, 屁股, 脚'

학자	양사	구분
赵元任(1979)	임시양사	身(子), 头, 脸, 鼻子, 嘴, 肚子, 手
吕叔湘(1980)	임시양사	身, 头, 脸, 手, 脚
朱德熙(1982)	임시양사	脚一脸汗, 一脚泥
张志公(1982)	명량사(임시양사)	身, 头, 脸, 脚, 手
刘月华(2001)	명량사(임시양사)	身
何杰(2001)	명량사(임시양사)	脸, 嘴, 身, 肚子, 头, 脑袋, 口, 鼻子, 腔, 眼

등은 임시양사로 차용할 수 있고, 그중 '脸, 脑子, 肚子, 身, 腔, 嘴巴, 脑袋, 脑门子, 头, 口, 嘴, 鼻子, 手, 腿, 屁股, 脚' 등 16개는 임시로 차용된 명량사로서 명사 앞에 출현한다. 앞에서 '一头白发'이 직접 술어가 되는 예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의 신체부위가 임시 명량사로 명사를 수식할 때, 술어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위의 16개 신체부위 명사 앞에 수사 '一'을 붙인 후, 이것을 BCC 코퍼스에서 검색해 본 결과, 해당 신체부위를 차용한 명량사는 기본적으로 '一·Ncl·N' 구조를 형성한 후, 술어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용례는 〈표 5-3〉에 정리하였다.

〈표 5-3〉 '一·Ncl·N' 구조 술어로 기능한 용례

	신체부위 임시양사	용례			
		명사	형용사	동사	기타
1	脑子	空白、拜金主义、浆糊	茫然		
2	脑袋	幻想、原罪思想、想法、黑硬头发、红头发、黄毛、白毛、脏土			男尊女卑
3	脑门子	官司、冷汗	别扭		
4	头	黑发、金发、卷发、秀发、雾水	高兴		
5	脸	雀斑/麻子、泪痕、皱纹、横肉、血、汗水/大汗、愁容/倦容、恼羞/阴云、苦行僧相、福相/囧相、怒气/怒火、笑意/睡意、凶气/傲气、喜色、醉态、泥土	胡子拉碴、无辜、傲慢、严肃、尴尬、茫然、苦涩、正经、困惑、惊喜、疲倦、安详、恐惧、疲惫、苍白、忧郁、迷惑、无奈、兴奋、憔悴、天真、冷静、深沉、沮丧、平静、愉快、得意古怪、轻松、和气、绝望、烦躁、沉痛	讶异、羞愧、不屑、不解、冷笑、憨笑、鄙夷、苦笑、狂怒、陶醉、震惊	
6	口	京腔			
7	嘴	胡子、血、白沫儿、银			

		牙齿、假牙、北京土话、酒气			
8	腔	怒气、怒火、顾虑	绝望		
9	身	绫罗绸缎、燕尾服/和服、戎装/盛装/素装/军装、灰土、泥、油烟、雪、大汗/冷汗、才能、肥肉、黑色/白色、正气、孩子气、酒气	新、黑、轻、素净、白、萎靡、逍遥、肮脏、疲惫		
10	肚子	文章、气/怨气、学问、心事、绝技、诡计、坏水/苦水、火/怒火、冤屈、诗词、鬼胎	忧愁、高兴、古怪、不满	怨恨、憋屈	

〈표 5-3〉의 통계를 통해 본고는 신체부위를 차용한 명량사 16개 중에서 10개가 '一・Ncl・N'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62] 또한 이 10개 중에서 '脑袋, 脸, 身, 肚子'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一脸' 뒤에 온 '泪痕, 泥土', '一身' 뒤에 온 '油烟, 雪, 大汗' 등과 같이 신체 특정 부위에 묻어있는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愁容, 笑意, 醉态', '孩子气, 酒气, 才能', '怒火, 学问, 诡计' 등과 같이 신체부위에 나타나는 표정, 자세 또는 환유를 통해 표현된 사람의 성격과 같은 추상적인 명사도 있다. 아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81) 家务事是由一个裹着深棕色头巾的老太婆料理, 她一脸皱纹, 为人吝啬。
집안 일은 짙은 갈색 스카프를 쓴 할머니가 도맡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고 성격은 인색했다.

62) 나머지 6개 '嘴巴, 鼻子, 手, 腿, 屁股, 脚'은 CCL 코퍼스에서 소수의 용례가 발견되었다.
① 我认得他, 矮矮胖胖的, 一嘴巴的湖南丫子。
② 妈妈已经被扶着坐在一把铺丝绒垫子的椅子里, 餐桌上摆得满满当当, 一鼻子的食物暖香。
③ 如果没有后来的转机, 我不也同他们一样照样种田？也一腿肚子泥巴。
④ 你以为现代的天才还是潦倒寒酸不善理财的梦想者, 一头长发、一屁股债么？
⑤ 工地日日夜夜、月月年年, 加上不文明施工, 生活在周围的人们晴天一身土、雨天一脚泥, 还有打桩机、搅拌机、焊接机的昼夜轰鸣……

(82) 里昂站在酒柜边, 一身军装, 更见身材高大。

리앙은 와인 캐비닛 옆에 서 있었는데 군복을 입어서 그런지 키가 훨씬 더 커 보였다.

(83) 红裙子女人一口京腔, 不同凡响, 金菊如聆仙乐, 赞叹那女人长得好, 话也说得好。

붉은 치마를 입은 여자는 베이징 억양이 매우 특별했고, 진쥐는 마치 신선의 노래를 들은 것처럼, 그녀의 외모와 언변에 감탄했다.

(84) 他一腔怒气, 对着壁炉站起来；带着一种决定将这件故事看作本人问题的男人愤慨神气。

이 일을 본인 자신의 문제로 보기로 결정한 남자는 분개한 마음을 품고 분노로 가득 차 벽난로를 마주 보며 일어섰다.

(85) 老张学识渊博, 一肚子文章, 不论什么时候总是能出口成章。 (自省)

라오장은 학식이 매우 풍부하며 수려한 문장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언제나 입만 열면 훌륭한 문장이 줄줄 나왔다.

예문(81-85)는 'S+一・Ncl・N' 구문이 실제 문학작품에서 쓰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一・Ncl・N' 형식의 술어는 예문(81, 83, 84)처럼 주어 뒤에 바로 나타날 수 있고, 예문(82, 85)처럼 주어와 긴 휴지를 두고 사용될 수도 있다.

학계의 견해에 의하면 양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다. '一脑子, 一脑门子, 一头, 一脸, 一腔, 一身, 一肚子' 뒤에 출현하는 형용사는 품사는 형용사이지만 실제로 명사성을 띤다. 실제 용례에서 이러한 형용사 뒤에는 대부분 뚜렷한 명사성 성분인 '的样子'를 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양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一脸, 一肚子' 뒤에 결합한 동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一脑袋' 뒤의 '男尊女卑'를 쓰면 이는 '一脑袋男尊女卑的思想'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은유의 인지적 관점에서도 상술한 '一・Ncl・V/A' 결합을 설명할 수 있다. 은유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한 가지 수단이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추상적인 방향으로 물질세계에 대한 표현 개념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양사는 사물을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그리고 무형에서 공간으로 은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양사 범주에서 용기류 양사는 대부분이 용기은유(container metaphor)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예컨대, '脸'은 원래 명사로서 사람의 얼굴을 가리키며 신체부위이기 때문에 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단어가 양사 역할을 할 때도 여전히 공간적 의미를 유지한다. 형용사 '幸福', '忧郁'는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추상적이고 비공간적인 단어이다. 그러나 '一脸幸福', '一脸忧郁'와 같이 표현하면 '一脸XX'와 같은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추상적인 형용사를 형태가 있고 양화가 가능한 실체로 만들어 준다. 이것이 바로 용기은유 방식이다.

刘顺(2003)은 '一·Ncl·N'을 주술구조로 취급하고, '一·Ncl'을 주어로, 후행하는 명사를 술어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런 유형의 구조는 '무언가가 어디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응하는 존현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86) 一脸泥。 → 一脸都是泥。
얼굴이 온통 진흙. → 얼굴이 온통 진흙이다.
(87) 王教授一肚子学问。 → 王教授一肚子都是学问。
왕교수는 학구파. → 왕교수는 진정한 학구파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신체부위를 차용한 명량사와 개체 명량사 사이의 커다란 차이점으로 신체부위를 차용한 명량사와 명사 사이에는 구조조사 '的'을 삽입할 수 있지만, 개체 명량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88) 够？哼，我一肚子的委屈，一肚子的火，我没个够！
충분하다고? 흥, 나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서 충분하지 않아!

예문(81-85)에서 '一脸皱纹，一身军装，一口京腔，一腔怒气，一肚子文章'은 모두 예문(88)의 '一肚子的委屈，一肚子的火'와 같이 '一·Ncl'과 뒤의 명사 사이에 '的'을 삽입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구조조사 '的'은 수식표지이다. 이는 '一·

Ncl' 구조가 바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를 주술관계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말해 준다.

둘째, '一脸泥'와 같은 구문은 거의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종종 더 큰 구조 속에 들어가 사용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89) a. 你看你那一脸(的)皱纹, 还不赶快保养保养。
네 얼굴에 가득한 주름을 보고 아직도 신속히 관리하지 않는단 말이냐.

(90) a. 她一脸(的)皱纹, 为人吝啬。
그녀는 얼굴 전체에 주름이 있고, 성격은 인색했다.

b. 她, 一脸(的)皱纹, 为人吝啬。
그녀는 얼굴 전체에 주름이 있고, 성격은 인색했다.

c. *她, 一脸, 皱纹, 为人吝啬。

예문(89)에서 '一脸皱纹'은 문장에서 동사 '看'의 목적어로 사용되었고, 예문(90a)의 '一脸皱纹'은 전체 문장의 술어로 사용되어 예문(90b)처럼 주어 '她'와 '一脸皱纹' 사이에 긴 휴지를 둘 수 있다. 이때 '一脸皱纹'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전체 구조가 주어 '她'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一脸'을 소주어로 간주하면 예문(90c)와 같이 '一脸'과 '皱纹'은 쉼표로 분리할 수 없게 되므로 본고는 '一・Ncl・N' 구조에서 '一・Ncl' 부분이 후속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간주하여 '一・Ncl・N' 구조가 전체 문장의 술어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중국어의 문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신체부위를 차용한 명량사 외에도 임시 명량사로 차용될 수 있는 용기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다.

(91) 一屋子人 / 一屋子的人 / 满屋子人
一桌子菜/ 一桌子的菜 / 满桌子的菜
一地水 / 一地的水 / 满地水
一院子落叶 / 一院子的落叶 / 满院子落叶
一房顶雪 / 一房顶的雪 / 满房顶雪

위의 예문(91)에서 '屋子', '桌子', '地', '院子', '房顶' 등은 원래 모두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인데, 수사 '一'과 기타 명사 사이에 출현하면 임시양사로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들 임시양사 뒤에는 '的'을 삽입할 수 있고 '一'을 '满'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满纳义)를 표현하기 위한 수사 '一'과만 결합하는 이러한 유형의 임시 용기양사는 많지 않으며, BCC 코퍼스에서도 '一+地+N'이 직접 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례만 검색되었다. 예문(92-93)은 대표적인 예이다.

(92) 罗汉堂外面, 有两棵很大的白果树, 有几百年了。夏天, 一地浓荫。冬天, 满阶黄叶。

뤄한탕 밖에는 수백 년 된 두 그루의 큰 은행나무가 있다. 여름에는 그늘이 땅에 짙게 드리우고, 겨울에는 노란 단풍이 계단을 가득 덮는다.

(93) 她起身走到窗前, 撩开窗帘, 楼下弄里一地月光, 并没有一个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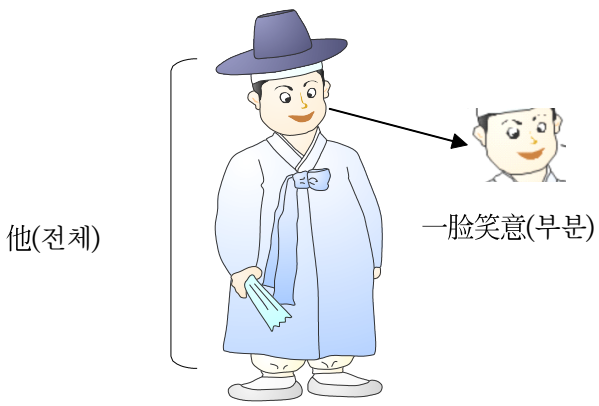
그녀가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서 커튼을 열어보니, 건물 아래 골목 땅바닥은 달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형식적으로 '一头白发'과 '一地月光'은 모두 '一', 임시 명량사와 명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구조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구조에서 '一'은 '满, 全, 整个(온)'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一'은 다른 수사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체부위든 용기(容器)든 모두 [+공간]의 특징을 갖고 있고 전체 구조는 명사로 표현된 사물이 신체부위 또는 용기의 전체 공간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또한 '一・Ncl'과 명사 사이에는 '的'을 삽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는 왜 동사를 쓰지 않고도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가? '他一头白发'과 같은 문장은 특별한 화용적인 기능이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5.3.2 'S+一・Ncl・N' 구문의 형성 및 인지적 기제

임시 명량사로 사용된 신체부위는 원래 모두 명사이고 공간적 특징이 있다. 5.3.1의 예문에서 '一・Ncl・N'이 직접 술어로 사용될 때 주어는 기본적으로 모

두 사람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또는 대명사[63]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주어와 술어 부분의 임시 명량사는 전체와 부분 관계를 형성한다. 5.1과 5.2에서는 이미 전체와 부분 관계가 중국어에서 전형적인 주어-술어 관계임을 논의한 바 있다. 비록 '一·Ncl·N' 구조의 핵심은 수식을 받는 명사 부분이지만 이러한 명사가 지시하는 사물은 신체부위에 수용되어 있거나, 신체부위의 표면에 붙어 있다. 수사 '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은 신체부위가 나타내는 전체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명사는 '一·Ncl'과 결합된 후에도 주어와 여전히 '전체-부분' 관계를 유지한다. 〈그림 5-5〉를 보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5〉 '他一脸笑意'의 이미지

이 외에 인지언어학의 '전경(foreground)-배경(background)' 이론[64]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는 웃음 띤 얼굴의 새로운 정보를 청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전체로서의 '他'는 배경이 되고 '一脸笑意'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전체-부분' 의미 틀의 인지 분석 과정을 통해, 화자가 신

63) '一+地+N'가 술어로 기능하는 예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一+地+N' 술어의 주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용례는 매우 드물다.

64) Langacker(2008)에 따르면 관측자는 특정 영상을 관찰할 때 종종 관찰점을 이용해야 하며, 일단 관찰점이 확정되면 관찰된 영상이 강제로 전경과 배경의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고, 전경의 부분은 관찰자에게 더 가깝고, 배경의 부분보다 더 두드러지고, 더 쉽게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속 전경에 있는 물체는 도형(figer)으로 주목의 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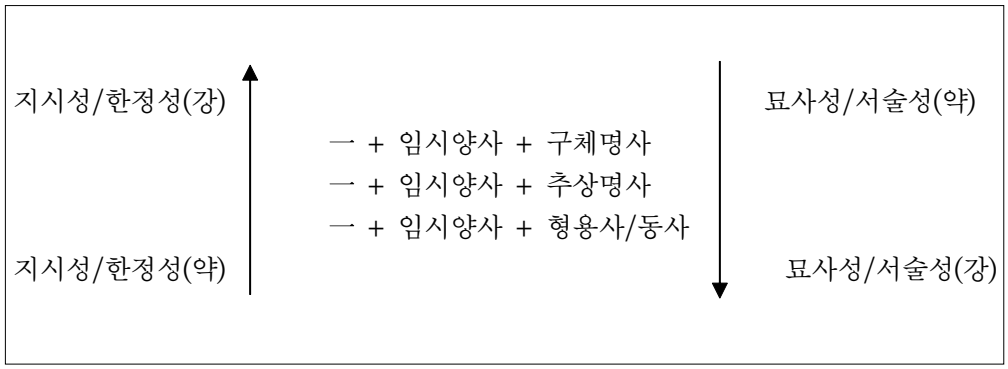
체부위의 어떤 특징을 이용하여 주어가 지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묘사와 설명을 진행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러한 인지과정을 쉽게 구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동사를 사용할 경우 문장의 동적인 느낌이 강해지고, 대부분의 경우 '一・Ncl・N'에서 동사와 명사는 고정된 조합으로 출현한다. 예를 들면 '他出了一脑门子冷汗'과 같은 예문에서 '汗'과 자주 짝을 이뤄 사용되는 동사 '出'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은 최대한 경제성 원칙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사가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姜渝(2007)는 "일부 신체부위 명량사 구조는 '一鼻子灰(쌀쌀하게 취급당하다)', '一头雾水' 등과 같이 관용어적인 색채를 갖고 있으며, 『汉语惯用词词典』에는 이미 '一肚子坏水', '一肚子鬼(온통 나쁜 생각)' 등과 같은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94) 一头雾水: 形容摸不着头发, 糊里糊涂。(百度百科)
머리카락을 만질 수 없음을 형용하는 말로 흐리멍텅하다는 뜻.
一肚子坏水: 指人心肠很坏。(百度百科)
사람의 고약한 심보를 의미함.

바이두 백과(百度百科)의 '一头雾水', '一肚子坏水'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해당 신체부위 명량사 구조가 관용어적 색채를 가질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형용사에 근접하고,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외에 '一・Ncl' 뒤에는 형용사와 동사가 출현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표 5-3〉 참조)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구・박은석(2015)의 연구에서는 '一脸・A/V' 구조에서의 '一脸'이 강조어(intensifier)(즉,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정도부사)의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도부사+형용사/동사'는 중국어에서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만일 '一・Ncl・구체적N'이 여전히 지시성을 갖고 있고 그 앞에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면, '一・Ncl・추상적N/A/V' 구조의 지시성은 매우 약해지고 서술성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관계는 〈그림 5-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5-6〉 '一・Ncl・N' 구조의 서술성 위계

마지막으로, 신체부위 임시 명량사 외에, 용기 임시 명량사 '一地'도 명사를 수식하는 술어 역할을 하는데, 이는 동일한 형성 및 인지적 기제 작용의 결과이다. 'S+一・Ncl・N' 구문의 특징은 〈그림 5-7〉로 나타낼 수 있다.

Sem	전체-부분 관계	〈대상	속성〉
	| R	|	|
R: instance	PRED	〈관련자	피관련자〉
	↓	↓	↓
Syn	-	SUBJ	PRED

〈그림 5-7〉 'S+一・Ncl・N'의 구문적 특징

5.3.3 'S+一・Ncl・N' 구문의 화용적 기능

'S+一・Ncl・N' 구문은 어떤 화용적 기능이 있을까? 이 구문이 실제 언어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언어 표현에 있어서 경제성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구문에서 숫자 '一'과 신체부위 임시명량사 그리고 의미가 구체적인 명사들이 결합하여 술어로 기능하면 해당 문장은 동사술어문보다 간결해진다.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95) 他一头黑发, 长着一双灰褐色的眼睛, 约摸四十七八岁, 表情严肃、冷漠。
그는 검은 머리에 회갈색 눈을 가졌고 대략 47-78세의 나이로 표정이

엄숙하고 차가웠다.

(96) a. 他留一头黑发, 声音总是那样柔和, 眼光里充满笑容。

그는 검은 머리에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고 눈빛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b. 一个男孩子站在门口, 他长了一头黑发, 面色红扑扑的, 有一双美丽的蓝眼睛。

한 남자아이가 입구에 서 있는데, 그는 검은 머리에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졌다.

(97) 这张小脸的周围还围着一圈黑发, 发上插着一些白色的簪子。

작은 얼굴 주위에는 검은 머리칼이 둘러져 있고 머리에는 하얀 비녀들이 꽂혀 있다.

예문(95-97)은 모두 주어인 사람의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서술 및 설명을 한 표현이다. 의미는 모두 같지만 예문(95)가 가장 간결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예문(95)와 예문(96)은 모두 '一头黑发'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문(96)의 두 문장에서는 '一头黑发'이 모두 목적어로 사용되었고, 그 자체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술어로 기능하는 예문(95)보다 적다. 정보구조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수록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다. 또한, 새로운 화제 도입 여부의 관점에서 볼 때 '一·Ncl' 뒤에 오는 구체적인 명사는 한 번만 출현하는 구성요소로서 새로운 화제 전환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문(97)은 '一·Ncl'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명량사 '圈'을 사용하였고 '黑发'은 후속 절에서 새로운 화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수사 '一', 신체부위 임시 명량사와 의미가 추상적인 명사가 결합한 구조가 술어로 기능할 때, 문장은 간단명료해진다. 그리고 때로는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동사술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다음 예문을 보자.

(98) 今天的杨坤一脸笑意, 还不时和大家开个玩笑, 心情正好。

오늘 양쿤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수시로 여러 사람과 농담을 나누는 것이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인다.

(99) 谢建华刚正不阿, 一身正气 。
시에지엔화는 강직하고 아첨을 모르며, 온몸에 기풍이 넘쳐흐른다.

예문(98)에서 '一脸笑意'는 주어 '杨坤'의 표정을 서술 및 묘사하고 있다. 만일 동사술어문을 사용하여 '一脸笑意'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게 되면 대략 '今天的杨坤脸上挂着一丝笑意'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가 전자보다 구조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반면 예문(99)의 '一身正气'는 고도의 융합 구조로서 사자성어와 같은 표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사술어문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 '一', 신체부위 임시명량사 그리고 형용사와 동사를 결합하여 술어로 사용할 경우, '一・Ncl'은 정도부사의 기능과 비슷하지만 표현 효과는 확연히 다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00)a. 不服审判结束, 老埃对司法机构一肚子不满。
심판 결과에 불복해서 라오아이는 사법기관에 불만이 가득하다.
b. 不服审判结束, 老埃对司法机构很/非常不满。
심판 결과에 불복해서 라오아이는 사법기관에 매우 불만이다.

(101)a. 不一会儿, 门开了, 是天炜来应门。隔着铁门, 天炜一脸震惊。
오래지 않아, 문이 열렸고, 톈웨이가 연 것이다. 철문을 사이에 두고, 톈웨이는 놀란 얼굴이었다.
b. 不一会儿, 门开了, 是天炜来应门。隔着铁门, 天炜很/非常震惊。
오래지 않아, 문이 열렸고, 톈웨이가 연 것이다. 철문을 사이에 두고, 톈웨이는 매우 놀랐다.

위의 용례에서 예문(100a, 101a)는 예문(100b, 101b)보다 과장의 색채가 짙고 종종 주관적 대량(主观大量) 의미를 지닌다. '一'은 중국어 모든 수사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화용 기능의 확장범위가 가장 넓은 단어이다. 초팽염(2014)은 '一桌子(的)菜'와 같은 'Num・CL・N' 구조에서 '一'은 '满'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一'과 '满'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满'은 형용사로서

하나 또는 여러 사물이 어떤 지정된 공간에서 높은 밀도에 도달하여 거의 100%에 이르렀음을 묘사하지만, 그 자체가 수량을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一'은 '二, 三, ……, 百' 등과 같이 개체 수를 나타낼 수 있고 전체수를 나타낼 수도 있다. 즉, '一桌子(的)菜'에서 '一桌子'는 '一'로 인하여 경계와 범위가 있는 전체로 양화가 되었고 경계가 없었던 '菜'를 경계가 있는 '菜'로 변화시켜 '菜'의 양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여기서의 양은 주관적 대량이다. 본고는 초팽염(2014)의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一' 자체는 수사로 구체적인 개체의 적은 수량을 나타냄과 동시에 전체적인 수량을 표현하는 주관적 대량의 의미도 갖고 있다.

또한 문체의 각도에서 볼 때, 이러한 유형의 구문은 주로 묘사적 색채가 강한 문학, 신문, 잡지 장르에서 나타나고, 구어적 색채가 강하며, 표현력이 강하고 동사가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동작의 과정보다는 동작의 결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즉, 신체부위에 수용되거나 신체부위에 부착된 물질을 활용하여 주어인 인물을 묘사함으로써 더 직관적이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5.4 소결

본 장에서는 'Num・CL' 구조, 'Num・CL・N' 구조와 '一・Ncl・N' 구조가 직접 술어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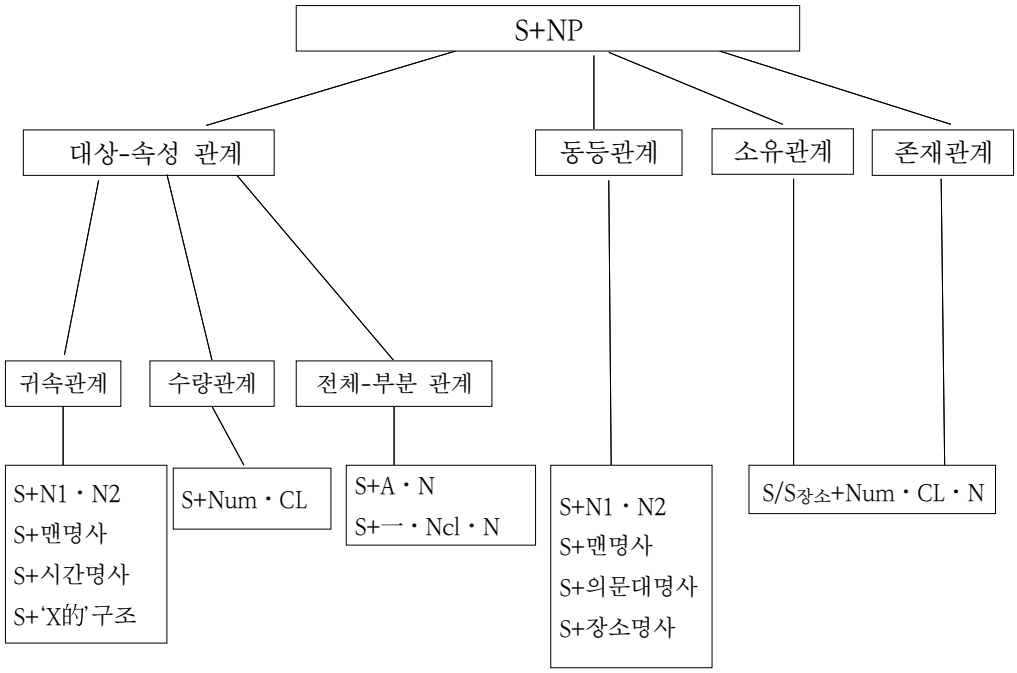
첫째, 수량 자체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일련의 변화가 있으며, 시간성은 서술성의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이기 때문에 'Num・CL' 구조, 'Num・CL・N' 구조는 모두 어느 정도의 서술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문장의 술어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화제인 주어에 대하여 설명 및 묘사를 진행한다. 의미적 특징을 보면, 'Num・CL' 구조는 주어의 양적 속성을 설명하고, 'Num・CL・N' 구조로 나타나는 소유물, 존재물은 유정성 주어, 장소주어의 정태적인 특징을 묘사한다. '一・Ncl・N' 구조도 사람 주어의 정태적인 특징을 묘사한다.

둘째, 인지언어학 이론에서는 인간의 인지 활동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물에 이르는 과정(由己及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기본적 영상도식은 모두 신체적 경험을 그 인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체-부분' 도식은 Langacker가

제시한 영상도식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전체가 부분보다 두드러지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분이 전체보다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여기서 두드러진 부분은 새로운 정보로서 청자에게 전달되고, '화제—평언' 정보 순서에서 '평언' 부분에 해당하며, 문장형식으로 구현될 때는 전체 문장의 술어로 기능하게 된다. 사람의 나이, 신장, 체중 등의 성분과 장소 존재물 그리고 신체부위 수량 구조는 속해 있는 전체에서 두드러진 부분이며 전체의 특징을 나타낸다.

셋째, 'S+Num・CL', 'S+Num・CL・N', '$S_{장소}$+Num・CL・N' 그리고 'S+一・Ncl・N' 구조를 모두 일종의 특수한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구문 자체의 강요를 받아 형식과 의미의 쌍을 이루며, 의미가 비슷한 동사를 사용한 구문들과는 화용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본장에서 분석한 세 가지 형식의 수량성 명사술어문과 3장에서 논의한 판단성 명사술어문, 4장에서 논의한 묘사성 명사술어문은 모두 명사술어문의 하위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명사술어문의 형태를 'S+NP'로 도식화하였지만, NP의 차이에 따라 3장, 4장, 5장에서 다시 이 구문을 하위 도식으로 세분화하였다. 3장에서 다룬 판단성 명사술어구문, 4장에서 다룬 묘사성 'S+A・N' 구문, 5장에서 다룬 수량성 'S+Num・CL' 구문, 'S+Num・CL・N' 구문, '$S_{장소}$+Num・CL・N' 구문, 'S+一・Ncl・N' 구문은 동등관계, 귀속관계, 전체-부분 관계, 수량관계, 소유관계, 존재관계 등의 의미관계를 나타냄을 밝힌 바 있다. 2.1.3에서 언급했듯이 Goldberg는 어휘적 다의성이 있듯이 구문도 다의성을 가져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는 의미들로 이루어지는 한 가족'을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S+NP' 구문은 하위 구문 형태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달라지며 'S+NP' 구문의 다의성 연결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 중에 동등관계가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원형적 또는 중심적 의미가 된다. 나머지 관계들은 동등관계로부터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8〉 명사술어문 하위 구문 간의 계층적 관계도

제6장 '是'의 부가와 명사술어문

6.1 명사술어문의 '是'의 부가

이상의 3, 4, 5장에서는 각 유형의 명사술어문을 분석하면서 '是'의 부가 여부를 언급한 바 있지만, 자세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이 장에서는 '是'의 부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 간의 차이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명사술어문에 부가되는 '是'의 유형론적 특징을 밝힐 것이다.

6.1.1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是'의 부가

3장에서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을 형식별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의미관계 측면에서는 판단대상과 판단내용이 주로 동등관계와 귀속관계를 형성한다는 부분도 확인하였다. 2.2절에서는 계사구문을 검토하면서 동등 및 귀속관계가 계사구문의 전형적인 의미관계라는 점도 논의한 바 있다. 张军(2015)은 판단을 나타내는 범언어적인 수단으로 '판단대상+계사+판단내용/판단대상+판단내용+계사' 형식이 가장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 제시한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예들은 모두 '是' 구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판단대상과 판단내용 사이에 '是'가 부가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6-1〉과 같다.

〈표 6-1〉 각 유형 판단성 명사술어문에 '是'의 부가 양상

	명사성 술어의 구조 유형	명사성 술어의 의미유형	'是'의 부가 여부
동등 관계	맨명사(谁啊？—我张三。)	주어의 등가물	+
	N1+(的)+N2 北京，中国的首都，政治文化中心。	주어의 등가물	+

	시간명사: 现在五点。 国庆节十月一号。	주어의 등가물	+
	장소명사: 下一站, 人民广场。	주어의 등가물	+
	의문대명사: 你谁啊？	주어의 등가물	+
귀속 관계	맨명사: 张艺谋, 导演。	주어가 속하는 집합	+
	N1+(的)+N2: 茅盾, 现代作家, 浙江人。 他, 北京大学中文系的学生。	주어가 속하는 집합	+
	‘X的’ 구조: 他叫于明, 外交部的。 我朋友开饭馆的。	주어가 속하는 집합	+
	의문대명사 구조: 你哪儿人？	주어가 속하는 집합	+

선행 연구에서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에 ‘是’를 부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동일한 명제 의미를 표현하는 두 구문에 대해 포괄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시실 이 두 구문은 구조와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화용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본장에서는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의 구조적 확장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확장은 문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확장은 구조 유형만 변경하여 단어를 문장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때 문장의 문법적 기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확장은 구문 유형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에서는 명사성 술어 성분이 고도로 융합된 성분이기 때문에 구문이 구조적으로 간단하며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사술어구문은 다양한 형태로의 확장이 거의 불가능 하지만 ‘是’ 구문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 a. 这个人, 我。
이 사람은 나야.
b. ？照片上这个穿着红皮鞋、戴着一副眼镜的人, 我。
c. *照片上这个穿着红皮鞋、戴着一副眼镜的人就我。

(2) a. 这个人是我。
이 사람이 나다.
b. 照片上这个穿着红皮鞋、戴着一副眼镜的人是我。
사진 속 빨간 구두를 신고 안경을 쓴 사람이 나다.
c. 照片上这个穿着红皮鞋、戴着一副眼镜的人就是我。
사진 속 빨간 구두를 신고 안경을 쓴 사람이 바로 나다.

(3) a. 他, 我的二弟。
그는 나의 둘째 동생이다.
b. ？他, 我那出生不久就被人拐走了的二弟。
c. *他就我那出生不久就被人拐走了的二弟。

(4) a. 他是我的二弟。
그는 나의 둘째 동생이다.
b. 他是我那出生不久就被人拐走了的二弟。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치된 나의 둘째 동생이다.
c. 他就是我那出生不久就被人拐走了的二弟。
그가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치된 나의 둘째 동생이다.

대화 상황에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을 하거나 같은 구조를 나열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예문(1a), 예문(3a)와 같은 문장이 모두 성립될 수 있다. 이때 주어와 명사성 술어는 동등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구조적 측면에서 모두 간단한 형식을 취하게 된다. 예문(1b-c)는 주어가 구조적으로 확장된 경우이며, 예문(3b-c)는 명사술어가 구조적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때 주어나 술어가 너무 길어지면 문장의 수용도는 낮아지고, 특히 주어와 술어 사이에 부사 '就'를 삽입하면 문장은 성립될 수 없게 된다. 예문(1), (3)과는 대조적으로 예문(2a), (4a)는 특별한 맥락이 없더라도 자율성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예문(1), (3)과 더 큰 차이는 바로 '是' 구문은 구조적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是'자가 주어와 술어 사이에 삽입됨으로써 그들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주어와 술어가 확장되어 길어지더라도 청자가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래 예문을 계속 살펴보자.

(5) a. 他中国人。
그는 중국인이다.
b. 他地地道道的中国人。
그는 완전히 중국인이다.
c. *他一个中国人。
d. *他一个地地道道的中国人。
e. *他肯定中国人。

(6) a. 他是中国人。
그는 중국 사람이다.
b. 他是地地道道的中国人。
그는 완전히 중국인이다.
c. 他是一个中国人。
그는 중국 사람이다.
d. 他是一个地地道道的中国人。
그는 완전히 중국인이다.
e. 他肯定是中国人。
그는 틀림없이 중국인이다.

예문(5a)와 예문(6a)는 모두 '그는 중국인이다.'라는 귀속 의미를 표현하는데 명사술어문인 (5a)는 (5b)처럼 명사술어 '中国人' 앞에 형용사 수식어가 사용될 수 있지만, 예문(5c-e)는 명사술어 앞에 수량사 '一个' 또는 양태부사 '肯定'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만일 수량사 '一个'의 수식을 받게 되면, 명사구 '中国人'은 개체화되기 때문에 '他一个中国人'은 더이상 주술구조로 인식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동일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양태부사는 문법적으로 직접 명사 앞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문(6b-e)가 보여주듯이 '是' 구문은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필요하면 주어와 술어를 모두 확장시킬 수 있고 문장의 성립 여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위의 예문(1-6)의 문장이 명사술어문이든 '是' 구문이든 이들은 모두 주절이며 구조의 확장 또한 문장 내부로의 확장이다. 그러나 만일 두 구문이 종속절로 사

용되면 문장은 외부로 확장하게 되며 차이도 분명해진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7) a. *如果我美国人, 打篮球就只为自己、为家庭或者为朋友。
b. 如果我是美国人, 打篮球就只为自己、为家庭或者为朋友。
내가 미국인이라면 나 자신만을 위해, 가족만을 위해, 또는 친구만을 위해 농구를 했을 것이다.

(8) a. *辞退米勒的目的是为了公司的发展, 而绝不仅仅因为他美国人。
b. 辞退米勒的目的是为了公司的发展, 而绝不仅仅因为他是美国人。
밀러를 해고하는 목적은 그가 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예문(7)은 가정(假定)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이고, 예문(8)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이다. 비교를 통해 사람의 국적을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은 복문의 종속절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문(7a-8a)는 비문이며, 예문(7b-8b)와 같이 '是' 구문만이 종속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가 있는 복문에서도 명사술어문을 종속절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더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시간을 표현하는 명사술어문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예문(9)를 보자.

(9) a. ?虽然今天星期日, 但我们的活动很丰富, 完全沉浸在中阿友谊的气氛之中。
b. 虽然今天是星期日, 但我们的活动很丰富, 完全沉浸在中阿友谊的气氛之中。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우리의 활동은 매우 풍부하고 중국-아랍 우정의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

시간명사는 맨명사, 'N·N' 구조, 'X的' 구조보다 더 자주 술어로 쓰이며 사용 빈도 역시 매우 높다. 그렇지만 전환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예문(9a)에서 종속절 '今天星期日'의 전체 문장에 대한 수용도는 분명히 예문(9b)만큼 좋지는 않다.

Tang(2001)은 '张三学生'이라는 문장이 자연적으로 명사술어문이 될 수는 없지만 예문(10b)처럼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더 큰 문장에 포함될 때는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a. ??张三学生。
b. 我当[张三学生]。
나는 장삼이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도의 변화는 인식 양태 문장에서만 존재하며, 예문(10b) 또한 '我当他是学生'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때문에 전체 문장이 특정 사실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是'자를 사용해야 한다. 예문(11)을 살펴보자.

(11) a. *我知道[张三学生]。
b. 我知道[张三是学生]。
나는 장삼이 학생이라는 것을 안다.

'알다(知道)'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서술이다. '张三学生'이라는 문장은 더 큰 문장에 포함되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是'자를 사용해야만 문장은 비로소 문법에 부합하게 된다.

다음으로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의 차이를 분석해보자. 판단성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이 나타내는 명제적 의미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화용적 의미는 다르다. 아래 예문을 비교해 보자.

(12) a. 今天星期六。
오늘은 토요일이다.
b. 今天是星期六。
오늘은 토요일이다.
c. 今天不是星期六。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다.

예문(12a)는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지만 그 판단 관계는 구문으로 인해 형성되었고 청자가 인지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이다. 예문(12b)는 시간에 대한 판단 외에 '是'자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문장은 긍정과 대조의 의미를 더하게 되

며, 여기서 '是'자는 판단 관계를 명시하기 때문에 청자의 인지과정은 보다 간단하게 일어나게 된다. 王红旗(2017:236)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是'자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주어와 술어 간의 의미관계에만 의존하여 판단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是'자 자체가 판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사술어문에 '是'자를 부가하는 이유는 화용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是'자의 화용 기능은 주어와 술어 간의 서술 관계에 대한 화자의 긍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王力(2017:239)은 '是'의 긍정 기능은 지시대명사의 문법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가로 지적한 바 있다. 고대 중국어에서 선행하는 성분을 조응할 때 사용되는 지시대명사 '是'는 지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시대명사가 개체를 나타낼 때는 다른 개체와 구별되기 때문에 실체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 '是'는 지시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긍정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계사로 문법화되면서 그 지시기능은 사라지고 긍정 기능만 남게 된 것이다. 예문(12b)의 문장이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예문(12c)에서와 같이 부정 판단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是'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정부사로서 명사술어를 직접 수식할 수 없다는 이유 이외에도 부정 판단에는 반드시 긍정의 전제가 있어야 하고 부정 판단에 해당하는 긍정의 전제는 바로 '是'자 판단문이 나타내는 화용적 의미인 것이다.

판단성 명사술어문과 판단을 나타내는 '是' 구문에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차이도 존재한다.

(13) a. 大堰河，我的保姆。
따옌허는 나의 보모이다.
b. 大堰河是我的保姆。
따옌허는 나의 보모이다.
c. 解放军，最可爱的人。
해방군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d. 解放军是最可爱的人。 (陈满华2008)
해방군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명사술어문 형식인 예문(13a)는 화자의 강한 감정을 나타내며 주관성이 매우 강한 반면에 예문(13b)는 비교적 객관적인 서술이다. (13c)는 보다 강한 평가 효과가 있는데, (13d)는 객관적인 서술이다. '是' 구문은 동사술어문으로 간주되어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이룬다. 하지만 동사가 없을 때는 주어와 술어가 일종의 개방성과 발산 효과를 갖게 되면서 청자와 독자의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이 전달하는 사회적인 거리감도 다를 수 있다. 전자는 사회적 거리감이 낮고 친근한 반면, 후자는 사회적 거리감이 높고 친근함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래 예문을 다시 비교해 보자.

(14) a. 지인에게 제3자를 소개할 때
这李梅老师。
b. 초면인 사람에게 제3자를 소개할 때
这是李梅老师。

예문(14a-b)는 모두 타인에게 제3자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다. 두 문장의 명제적 의미는 차이가 없으나, 우리가 만일 지인에게 제3자를 소개할 경우에는 당연히 친근감이 있는 표현인 예문(14a)를 사용할 것이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비교적 정중하고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是' 구문을 채용한다.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은 화용적 기능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두 가지 구문이 나타내는 초점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자고 한다.

Lambrecht(1994:213)는 "초점은 단언이 전제와 구별되게 하는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 부분이며 문장이 어떤 전제도 유발하지 못하면 초점과 단언이 일치한다는 것을 함축한다."라고 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초점의 유형으로는 술어초점(predicate focus), 논항초점(argument focus) 그리고 문장초점(sentence focus) 세 가지가 있다. 같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명제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담화의 문맥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My car broke down.' 이라는 문장은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맥적 상황이 존재한다.

(15) a. What happened to your car?
네 차에 무슨 일 있어?
你的车怎么了?
b. My car/It broke DOWN.
(내 차가) 고장났어.
(我的车)坏了。

(16) a.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네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며?
听说你的摩托车坏了?
b.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고장났어.
我的车坏了。

(17) a.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怎么了? 发生什么事了?
b.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고장났어.
我的车坏了。

상기 문장들에서 문장(b)는 모두 동일한 명제이지만, 문장의 화용적 기능은 다르다. 예문(15b)에서 술어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나의 차(My car)'라는 화제에 대한 평언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때 '차(车)'는 화제이며 초점영역은 술어인 'broke down'이다. 문장의 강세는 'DOWN'에 있다. 예문(15b)는 술어 초점 구조에 해당한다. 예문(16b)는 무엇이 고장 난 것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즉, 문장의 목적은 명제에서 공백 논항을 확인하는 데 있으며, 이때 문장의 초점영역은 명사구인 'My CAR'이고 강세 역시 'My CAR'에 있다. 예문(16b)는 논항초점 구조에 해당한다. 예문(15b-16b)는 모두 어떤 화용적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유형이지만, 예문(17b)는 어떤 화용적 전제도 유발하지 않고 화자는 전체 문장을 하나의 새로운 사건으로서 청자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초점

영역은 전체 문장이다. 이 세 가지 초점 유형들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 상황에 사용되고, 범언어적으로 상이한 형식 범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분열구조(cleft sentence), 운율적인 강세 등의 수단이 있다.

方梅(1995), Gundel&Fretheim(2004)에 의하면 초점은 정보 초점(information focus)과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으로 분류할 수 있다. 方梅는 문장의 정보 배열이 종종 구정보에서 신정보까지의 원칙을 따르고 문장의 뒷부분에 가까울수록 정보 내용이 더 새롭다고 지적했다. 문장의 술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정보 초점을 수행하며 정보 초점은 문장에 규칙적인 강세가 있는 곳이다. 정보 초점을 일반 초점 또는 자연 초점이라고도 일컫는다. 반대로 화자는 청자가 '어떤 것을 B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A이어야 한다.'라고 가정하고 문장을 사용한다면 이때 이 문장의 목적은 'B 대신 A이다.'가 되고, 초점 성분은 대조적이게 된다. 대조 초점을 구현하는 문장성분에는 필수적으로 대조 강세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음성적인 수단 이외에 중국어에서 대조 초점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초점표지 '是'를 사용하는 것이다. 문장을 둘로 분할하였을 때, 정보 초점은 두 부분이 형성한 화용론적 관계에 새로움을 부여하는 반면에 대조 초점은 문장에 구현된 통사 형식과 그를 대신하여 올 수 있는 선택항, 즉 대안집합(alternative set)과의 관계 속에서 대조를 나타낸다. Lambrecht(1994)가 제시한 술어초점은 일종의 정보 초점이고, 논항초점은 대조 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예문(16b)의 '我的车'는 (16a)의 '你的摩托车'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술어초점이 대조 초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때 술어는 보통 일반 강세보다 더 두드러지는 특별한 강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A가 '今天怎么没开车, 你的车坏了吗?(오늘은 왜 운전을 안 했어, 차가 고장 났어?)'라고 질문했을 때, B가 '我的车卖了(내 차 팔았어)'라고 대답하면, 이때 '卖了'는 특별한 강세를 갖게 되고 대조 초점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상술한 초점 유형의 분류에 근거하여 우선 시간을 나타내는 판단성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의 초점 유형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을 비교해보자.

(18) A. 明天什么节日？这么多人买花！
내일 무슨 기념일이야? 꽃을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B. 明天情人节。

내일은 밸런타인데이야.

(19) A. 明天是什么节日？这么多人买花！

내일 무슨 기념일이야? 꽃을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B. 明天是情人节。

내일은 밸런타인데이야.

예문(18B)와 (19B)의 주어는 직시적인 시간명사 '明天'이며 활성화가 잘 되어 문장의 화제로 쓰였다. 두 대화는 모두 '내일은 무슨 기념일이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었으며 '情人节'가 바로 초점이다. 다만 예문(19B)에서 '是'는 초점영역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예문(18B)와 예문(22B)는 모두 술어초점 구조이다. (18B)와 (19B)의 '明天'은 예문(20)과 같이 논항초점이 될 수 있고 또한 예문(21)처럼 두 문장은 모두 문장초점도 될 수 있다.

(20) A. 明天情人节啊，我还以为后天呢。

내일이 밸런타인데이이군요, 나는 모레인 줄 알았어요.

B. 明天是情人节啊，我还以为后天呢。

내일이 밸런타인데이이군요, 나는 모레인 줄 알았어요.

(21) A. 怎么了？为什么这么多人买花？

왜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지요?

B. 明天情人节。/ 明天是情人节。

내일이 밸런타인데이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은 모두 술어초점, 논항초점, 문장초점 유형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용 빈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CCL 코퍼스 자료를 분석해보면 '시간명사+是+시간명사' 구문의 사용 빈도는 '시간명사+시간명사' 구문의 사용 빈도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주어가 '今天, 明天'과 달리 상용성이 낮은 경우와 술어의 시간명사가 긴 수식어의 수식을 받는 등 비교적 복잡한 형식일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사용 빈도에 대한 조사 결

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65]

〈표 6-2〉 'S+시간명사'와 'S+是+시간명사'의 사용 빈도 대조

	시간명사	是의 사용	주어				
			今天	明天	这天	那天	Num月 Num日
술어의 의미 유형	날짜	+是	68	6	8	22	
		-是	9	1	0	0	
	요일	+是	97	11	27	37	52
		-是	29	11	0	2	1
	명절	+是	363	200	22	38	13
		-是	115	71	0	1	0
	절기	+是	12	5	1	1	3
		-是	7	3	1	0	1
			现在	这时	那时	…的时候	
	시점	+是	43	5	8	6	
		-是	62	0	2	1	

다음으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예문(22-25)를 살펴보자.

(22) Q: 张三哪里人？
장산은 어디 사람이지?
A: 张三广东人。
장산은 광둥 사람이다.

(23) Q: 张三是哪里人？
장산은 어디 사람이지?
A: 张三是广东人。
장산은 광둥 사람이다.

65) CCL 코퍼스를 사용하여 빈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24) A: 我听说张三是上海人。
　　듣자 하니 장산은 상하이 사람이다.
　　B: 不, 张三是广东人。
　　아니. 장산은 광둥 사람이다.
(25) A: ？我听说张三上海人。
　　B: 张三广东人。

예문(22A)와 예문(23A)의 주어는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 고유명사 '张三'이며 문장의 화제로 쓰였다. 두 대화는 모두 '장삼은 어디 사람이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广东人'이 초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2A)와 (23A)는 모두 술어초점 구조이다. 다만 예문(23A)와 같이 '是'를 사용하면 '广东人'은 대조 초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예문(24A-B)의 대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화자는 장삼이 상하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장삼은 광둥 사람인데, (24B)의 청자는 화자에게 '장삼은 광둥 사람이지 상하이 사람이 아니다(张三是广东人而不是上海人)'라고 말하기 위해 이 문장을 사용했다. 이때 '广东人'은 '上海人'과 대조되며, '广东人'은 대조 초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명사술어문을 사용하여 대답한 예문(25A-B)는 문장이 부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문을 계속 보자.

(26) Q: ?谁广东人？
　　A: 张三广东人。
(27) Q: 谁是广东人？
　　누가 광둥 사람이지?
　　A: 张三是广东人。
　　장산은 광둥 사람이다.

예문(27)의 대화가 일어난 상황을 상상해 보자. 화자가 광둥어를 할 수 있는 사람 X를 찾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예문(27Q)와 같이 질문을 했다. 이에 대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장삼이 광둥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X는 장삼이다.'와 같이 단언하게 된다. 따라서 예문(27A)에서 '张三'은 논항초점이며 전체 문장은 논항초점 구조이다. 이때 '张三'은 그 대신 올 수 있는 선택항과 함축적 대조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명사술어문 형식을 사용한 예문 (26Q)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렇다면 '张三广东人'과 '张三是广东人'은 문장초점 구조가 될 수 있을까?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6') Q: 怎么了？发生什么事了？
A: *你不知道吗？张三广东人。
(27') Q: 怎么了？发生什么事了？
A: ?你不知道吗？张三是广东人。

전혀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문(26'Q)와 같이 질문했을 때, 예문(26A)와 같이 대답할 수는 없지만 (27'A)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广东人'을 청자의 입장에서 맥락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꿔 쓰면 문장은 예문(28A)와 같이 더욱 자연스러워진다.

(28) Q: 怎么了？发生什么事了？
왜요? 무슨 일 있나요?
A: 你不知道吗？那个人是杀人犯。
너 몰랐어? 저 사람은 살인범이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명사술어문은 전형적인 화제-평언, 즉 화제-서술 구조이며 대부분 상황에서 술어초점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是' 구문은 술어초점뿐만 아니라 논항초점, 문장초점도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단성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의 문체적 차이를 살펴보자. 전자는 주로 대화와 같은 구어체에서 쓰이지만 '是' 구문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구어체와 서면어체에서 모두 쓰일 수 있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구어체가 강한 소설, 우언, 만담 등의 이야기에서 많이 쓰이지만 과학, 정론과 같은 서면어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서면어체에서 명사술어문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적지 않게 쓰인다. 특히, 전화 통화, 시간과 날씨 말하기, 인물 소개와 같은 상황에서 명사술어문이 자주 출현한다. 아래 예문을 비교해보자.

(29) 喂, 你北大中文系吗？我语言学院哪, 我找黄伟通知听电话, 嗯……嗯……你哪一位呀？你黄伟吗? 我邱振东啊。明儿星期天, 我们家四口人都上你家里去, 你有空吗？嗯, 好, 好, 明天见。 (陈建民1986)

여보세요, 베이징대학 중문학과입니까? 여기는 어언학원입니다. 저는 황웨이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음…음…당신은 누구십니까? 황웨이이니? 나 치우쩐똥이야. 내일 일요일인데 우리 가족 넷이서 너희 집에 갈까 하는데 시간 있니? 응, 어, 어, 내일 봐.

(30) 一个人在不同的场合具有不同的角色, 在教室时是学生, 在阅览室是读者, 在商店是顾客。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갖는다. 교실에 있으면 학생이고, 독서실에 있으면 독자, 상점에 있으면 고객이 된다.

예문(29)는 전화 통화 상황으로 전형적인 구어체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화문은 대부분 명사술어문이고 아주 자연스럽다. 이는 구어체가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문(30)은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에 관한 노트로서,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과학적인 서술에서는 명사술어문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是' 구문이 더 자주 사용된다.

6.1.2 묘사성 'S+A・N' 구문의 '是'의 부가

주어와 '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 술어 사이에는 '是'를 삽입할 수 있지만, 주어와 '이음절 상태형용사+명사', '중첩형식의 상태형용사+명사' 술어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是'를 삽입할 수 없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명사술어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高个子', '高挑的个子', '高高的个子'를 예로 들어 분석해보겠다. 다음 예문(31), (32), (33)을 비교해 보자.

(31) a. 两人都是典型的北方人, 二哥哥高个子, 有红似白的长脸。

두 사람은 모두 전형적인 북방 사람으로, 둘째 형은 키가 크고 붉고 하얀 긴 얼굴을 하고 있다.

b. 两人都是典型的北方人, 二哥哥是高个子, 有红似白的长脸。

두 사람은 모두 전형적인 북방 사람으로, 둘째 형은 키다리이고 붉고 하얀 긴 얼굴을 하고 있다.

c. 两人都是典型的北方人, 二哥哥是(一)个高个子, 有红似白的长脸。

두 사람은 모두 전형적인 북방 사람으로, 둘째 형은 (한 명의) 키다리이고 붉고 하얀 긴 얼굴을 하고 있다.

d. 车过正义路时, 老王看见对面马路上从“面的”下来两个高个子, 边走边打开手中的黑包在翻找什么。

차가 쩡이루를 지날 때, 왕씨는 맞은편 길에서 두 명의 키다리가 마주보며 내려오는데 걸으면서 손에 든 검은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았다.

(32) a. 她高挑的个子, 一袭红色职业女装, 既不妖艳, 也无丝毫的珠光宝气, 一派简洁、干练的风格。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붉은색 유니폼을 입었는데 요사하지 않고 조금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간결하고 세련된 스타일이다.

b. *她是高挑的个子, 一袭红色职业女装, 既不妖艳, 也无丝毫的珠光宝气, 一派简洁、干练的风格。

c. *她是个高挑的个子, 一袭红色职业女装, 既不妖艳, 也无丝毫的珠光宝气, 一派简洁、干练的风格。

d. *车过正义路时, 老王看见对面马路上从“面的”下来两个高挑的个子, 边走边打开手中的黑包在翻找什么。

(33) a. 她高高的个子, 宽宽的肩膀, 窄窄的臀部, 长长的双腿, 样子像个运动员。

그녀는 큰 키에 넓은 어깨, 좁은 엉덩이, 긴 다리를 가졌는데 마치 운동선수처럼 생겼다.

b. *她是高高的个子, 宽宽的肩膀, 窄窄的臀部, 长长的双腿, 样子像个运动员。

b. *她是个高高的个子, 宽宽的肩膀, 窄窄的臀部, 长长的双腿, 样子像个运动员。

d. *车过正义路时, 老王看见对面马路上从“面的”下来两个高高的个子, 边

走边打开手中的黑包在翻找什么。

예문(31a-33a)는 각각 '高个子', '高挑的个子', '高高的个子'가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상황이다. 이는 세 가지 구조가 모두 술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31a)는 (31b)로 변환될 수 있다. 즉, '高个子'와 주어 '二哥哥' 사이에 '是'를 삽입할 수 있다. 예문(31b)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是'를 단순히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성분으로 간주하여 대조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예문(31b)와 예문(31a)는 의미가 비슷하고 '高个子'는 여전히 서술성이 있는 술어이다. 또 다른 하나는 환유[66]가 일어나서 '高个子'는 '高个子的人(키다리)'을 의미하고 여기서 '是'는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高个子'는 지시어이므로 예문(31b)는 예문(31c)로 변환될 수 있다. 즉, '高个子' 앞에 개체를 나타내는 수량구조 '一个'를 삽입할 수 있다. '高个子'가 환유를 통해 키다리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증거는 '高个子'는 예문(31d)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31d)에서 '两个高个子'는 동사 '下来'의 목적어로 '키 큰 두 남자'를 가리키며, 이는 지시성이 있는 비한정 성분에 속한다. 예문(31)과 달리 예문(32)의 '高挑的个子'와 예문(33)의 '高高的个子'는 지시성이 없고 서술적이며 고도로 묘사적이다. 그들은 또한 환유 기제로 '키 큰 사람'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是'나 대조를 이루는 '是'는 모두 삽입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 구조가 환유를 통해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CC 코퍼스 조

66) 이성하(1998:231)에 의하면 환유란 '어떤 방식으로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이용해 그 연속성 있는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쓰는 수사법의 일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환유는 그것과 '연속성'을 가진 대상을 지시하는데 쓰이는 언어전략이다. Traugott and König(1991)에서는 연속성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었다.
a. 사회-물리적, 사회-문화적 경험상의 연속성
b. 제유 즉, 부분-전체 관계의 연속성
c. 병치 관계, 즉 발화 상의 연속성
부분-전체 관계는 보편적으로 물리적인 면에서의 부분-전체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장 흔한 예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말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사에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急性子', '慢性子', '死心眼'도 환유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견됐다. 그 대표적인 예는 (34), (35), (36)과 같다.

(34) 我是一个急性子, 脾气暴躁, 有时一听到别人说我的不是, 常常不能克制自己。
나는 성미가 급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라서 때때로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자주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다.

(35) 老公是一个慢性子, 做事、说话总是慢条斯理的, 有时会让人着急上火。
남편은 느릿느릿한 성격이라,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언제나 태연자약해서 때로는 사람을 애태워 화나게 한다.

(36) 有的时候自己就是一个死心眼, 很难接受自己不喜欢的事物和人。
때때로 나는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CCL 코퍼스에서 'S+高个子/急性子/死心眼'과 'S+是+高个子/急性子/死心眼'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통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3〉 'S+A · N', 'S+是+A · N' 일부 용례의 사용 빈도

	횟수	비율	추가 설명
S+高个子	38	84.4%	
S+是+高个子	7	15.6%	'是' 앞에 부사 '都'가 쓰인 횟수는 4번
S+急性子	6	27.2%	
S+是+急性子	16	72.8%	'是' 앞에 부사 '都', '就' 등이 쓰인 횟수는 7번
S+死心眼	28	77.8%	
S+是+死心眼	8	22.2%	'是' 앞에 부사 '全', '真' 등이 쓰인 횟수는 7번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高个子'와 '死心眼'이 술어로 기능한 비율이 '急性子'보다 높으며, 이 두 구조와 주어 사이에 '是'를 사용한 것은 부사의 수식을 받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急性子'는 환유되어 '성미가 급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져 '是' 구문으로 쓰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보자.

(37) a. 俄罗斯姑娘长得漂亮, 高个子, 大眼睛。

러시아 아가씨는 예쁘고 키가 크고 눈이 크다.

b. 大多数马凡氏综合证患者是高个子, 但高个并不都是该病患者。

대부분의 마르판 종합증 환자는 키다리이지만 키가 크다고 모두 이 병의 환자는 아니다.

c. 前者是高个子, 黄头发, 说话和看人的样子都很狂妄。后者矮胖, 一头黑鬈发, 行动却十分灵活。

전자는 큰 키에 금발인데 말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모두 매우 오만하다. 후자는 작고 뚱뚱하며 검은 곱슬머리인데 행동이 매우 민첩하다.

d. 两个审官都是高个子, 一个的头是尖的, 另一个的头发平。

두 심사위원은 모두 키가 큰데, 한 명은 뾰족한 머리를, 다른 한 명은 납작한 머리를 하고 있다.

(38) a. 彭莉是急性子, 她想马上知道情况。

펑리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 상황을 빨리 알고 싶어 한다.

b. 有的学生思维敏捷, 理解力强, 有的理解力差, 接受得较慢 ; 有的是急性子, 有的慢性子。

어떤 학생은 사고가 민첩하고 이해력이 좋으며, 어떤 학생은 이해력이 낮고 수용력이 조금 느리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다.

c. 东京人都是急性子, 瞧, 已经开始滑雪啦。

도쿄 사람들은 모두 성질이 급해, 봐, 벌써 스키를 타기 시작했잖아.

(39) a. 杨部长, 张学海是死心眼儿。

양부장과 장쉐하이는 고집불통이다.

b. 你们这些丫头真是死心眼儿, 我跟你们说, 童姥早就给她师妹李秋水杀死了。

너희 계집애들은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잘 들어, 통라오는 일찍이 그녀의 사매 리치우쉐이를 죽였어.

예문(37a)에서 '高个子'는 같은 구조 유형의 '大眼睛'과 같이 주어 '俄罗斯姑娘'의 외모를 묘사하는 술어로 사용되었다. 예문(37b)에서는 주요 술어 '高个子'

와 주어 사이가 '是'로 연결되어있고 후속하는 같은 구조의 명사술어는 없다. '是'에는 긍정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는 '대부분의 환자는 키가 작지 않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예문(37c)의 '是高个子'는 후속 문장의 '后者矮胖'과 문맥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高个子'는 술어로 직접 사용될 수 있지만 여전히 명사성 성분이며 정도부사에 의해 직접 수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예문(37d)에서 부사 '都'와 '高个子' 사이에는 반드시 동사 기능을 하는 '是'가 출현해야 한다. 예문(38)의 '急性子'와 예문(39)의 '死心眼'은 의미 융합도가 높고, 기능이 형용사에 가깝기 때문에 '是'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문장 역시 대조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高个子'를 제외하고 사람의 외모 특징을 나타내는 다른 '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 구조로는 기본적으로 환유를 통해 특정 외모 특징을 가진 사람을 직접 지시할 수는 없다. 그들과 주어 사이에는 '是'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대조 의미가 있는 문맥이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이다. '高鼻梁'을 예로 들면, 이 구조가 직접 술어로 사용된 38건 중 37건은 '是'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 1건만이 '是'를 사용하였고 '是' 앞에 부사 '都'가 출현하였다. 예문(40-43)과 같이 '高鼻梁, 大眼睛, 黄头发, 白皮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40) 尽管兄弟俩都是高鼻梁, 长方脸, 身高肩阔, 说话声音洪亮, 中气挺足, 只是在肤色上稍有不同。

비록 두 형제는 모두 높은 콧대, 길고 네모진 얼굴, 큰 키와 넓은 어깨, 우렁찬 목소리, 왕성한 기력을 가지고 있지만 피부색이 약간 다르다.

(41) 你照照镜子看看你, 你再看看我, 咱们能是母女俩吗？你是小眼睛, 我是大眼睛；你的眉毛那么疏, 我的眉毛又黑又密；

거울에 비친 너를 보고 다시 나를 봐봐, 우리가 과연 모녀라고 할 수 있을까? 너는 눈이 작고 나는 눈이 커, 그리고 네 눈썹은 그렇게 옅지만 내 눈썹은 검고 빽빽하다.

(42) 乔尼看到了他们。共四人: 其中两个是黑头发, 黑眼睛；第三个是黄头发, 蓝眼睛, 比其他人要高。

조니는 그들을 보았다. 모두 4명이 있었는데, 그중 2명은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가졌고, 세 번째는 노란 머리와 파란 눈을 가졌는데 다른 사

람보다 키가 컸다.

(43) 走在平遥的街道上，到处可见挂相机的人，他们中有的年老、有的年轻，有的是黄皮肤、有的是白皮肤，有的拿着普通相机，有的拿着数码相机。

평탄한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에 카메라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늙고, 일부는 젊고, 일부는 피부가 노랗고, 일부는 피부가 희며, 일부는 일반 카메라를 들고, 일부는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있다.

이상의 예문을 분석해본 결과 'S+상태형용사·명사', 'S+이음절 상태형용사·명사' 구문에는 '是'를 부가할 수 없고, 'S+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 구문에는 '是'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是'가 부가되는 이유는 문장이 대조 의미의 문맥으로 쓰였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S+A·N' 술어문의 초점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44) 술어초점

Q: 那个人长得怎么样？什么特征？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A1: 他高个子，黄头发，还戴了一副眼镜。

그는 키가 크고 노란 머리에 안경까지 썼습니다.

A2: 他是高个子，黄头发，还戴了一副眼镜。

그는 키다리인데 노란 머리에 안경까지 썼습니다.

A3: 他高挑的个子，焦黄的头发，还戴了一副眼镜。

그는 키가 크고 갈색 머리에 안경까지 썼습니다.

A4: 他高高的个子，黄黄的头发，还戴了一副眼镜。

그는 큰 키에 노란 머리에 안경까지 썼습니다.

(45) 논항초점

Q1: *谁高个子，黄头发，还戴了一副眼镜?

A1: 他高个子，黄头发，还戴了一副眼镜。

그는 키가 크고 노란 머리에 안경까지 썼다.

Q2: *谁是高个子, 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A2: 他是高个子, 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그는 키다리인데 노란 머리에 안경까지 썼습니다.

Q3: *谁高挑的个子, 焦黄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A3: 他高挑的个子, 焦黄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그는 키가 크고 갈색 머리에 안경까지 썼습니다.

Q4: *谁高高的个子, 黄黄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A4: 他高高的个子, 黄黄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그는 큰 키에 노란 머리에 안경까지 썼습니다.

(46) 문장초점

Q: 怎么了？发生什么事了？

왜? 무슨 일이야?

A1: *他高个子, 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A2: *他是高个子, 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A3: *他高挑的个子, 焦黄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A4: *他高高的个子, 黄黄的头发, 还戴了一副眼镜。

예문(44Q)에서 '那个人'은 화자와 청자의 인식에서 모두 활성화되어 문장의 화제가 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인 예문(44A1-A4)에서 '他'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他'의 외모적 특징을 나타내는 초점이다. 따라서 'S+A·N' 술어문은 술어초점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문(45-46)이 보여주듯이 'S+A·N' 술어문은 논항초점 구조나 문장초점 구조로 표현할 수 없다.

6.1.3 수량성 'S+Num·CL' 구문의 '是'의 부가

5.1의 분석에서 밝혔듯이 수량사가 술어로 쓰일 때는 주로 사람의 나이, 신장, 무게 또는 사물의 크기, 길이, 면적, 가격 등을 나타낸다. 영어와 한국어는 모두 이러한 속성을 표현할 때, 예문(47a-b), (48a-b)와 같이 계사를 사용해야 한다.

(47) a. I'm 20 (years old).
b. 나는 스무 살이다.
c. 我二十岁。
d. 我是二十岁。

(48) a. This dress is 300 bucks.
b. 이 옷은 300위안이다.
c. 这件衣服300块。
d. 这件衣服是300块。

그러나 중국어에서 예문(47c-48c)처럼 수량사가 술어로 사용될 때는 '是'가 필요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문(47d-48d)처럼 'S+Num・CL' 구문에는 '是'를 부가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예문(47d-48d)에 사용된 '是'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을까? 2.3에서 논술했듯이 계사로 쓰이고 전후 성분 간의 동등, 귀속관계를 나타내려면 '我是学生', '北京是中国的首都'처럼 NP1, NP2는 동질(同质)적인 성분이어야 하는데 예문(47d-48d)에서 주어로 쓰인 '我'와 '这件衣服'는 사람과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고 술어로 쓰인 '二十岁', '300块'는 수량을 나타내는 성분이므로 동질적인 성분으로 볼 수 없다.

박정구(2007)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나이, 신장, 길이 등을 나타내는 수량사가 술어로 사용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是'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 '是'를 사용하게 되면 모두 대조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67] 박정구(2005)에서도 수량구조가 술어로 기능할 때, 앞에 '是'를 넣으면 술어 부분을 강조하여 읽어야 하며, 문장은 확인과 대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고 '是'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어와 술어 사이에 의도적으로 휴지 부분을 둘 필요가 없으며, 청자 역시 쉽게 주어와 술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구조가 술어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지적하였으며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실제 사용 빈도를 조사해보면,

67) 박정구(2007)의 코퍼스 통계에 따르면, '我+수사+岁'와 '我+是+수사+岁'의 사용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용례	비율(%)
'是'를 사용한 경우	4	2.3
'是'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68	97.7

예상대로 '是'를 사용하는 'S+是+Num・CL' 구문보다 'S+Num・CL' 구문의 용례가 훨씬 많았다.[68] 나이를 표현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BCC 코퍼스에서 'S+수사+岁' 구문의 사용 빈도는 5,608회이며 'S+是+수사+岁' 구문의 사용 빈도는 161회이다. 다음 두 예문을 보자.

(49) a. 我那时是二十一岁, 大许和我同岁, 小红才二十岁。

그 당시 나는 21세였고, 따쉬는 나와 동갑이었는데, 샤오홍은 겨우 20세였다.

b. 小丛回答她说: "我是二十六岁, 不是十六岁。"

샤오총은 "나는 26세이지 16세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50) 谈到这些项目的主持人, 王选教授如数家珍: 阳振坤、汤炽、车达志都是29岁, 周秉锋、蒋旺恒是31岁, 肖建国38岁, 陈晓鸥32岁, 卢金鑫28岁, 李旭阳仅26岁。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언급할 때 왕쉬엔 교수는 "양쩐쿤, 탕츠, 처따즈는 모두 29세, 저우빙펑, 쟝왕헝은 31세, 샤오찌엔궈는 38세, 천샤오오우는 32세, 루진신은 28세, 리쉬양은 겨우 26세"라고 막힘없이 말했다.

예문(49a)는 주어 '我'와 '小红'의 나이를 대조했을 뿐만 아니라 '我'의 뒤에 시간명사 '那时'를 사용하여 자신의 당시 나이와 현재의 나이를 대조하는 의미 역시 포함하고 있다. 예문(49b)는 긍정 상황과 부정 상황을 병렬하였다. 예문(50)은 여러 사람의 나이를 나열하고 있는 상황인데 'S+是+Num+岁' 구조와 'S+Num+岁' 구조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 부정 상황, 부사의 수식을 제외하고는 예문(49)와 예문(50)에서의 '是'는 아래 예문(49'), (50')와 같이 모두 생략할 수 있다.

68) 본고의 몇 가지 예에 대한 빈도 조사는 다음과 같다.

	'S+Num・CL'	'S+是+Num・CL'
사람의 나이	5608	161
사람의 신장	61	5
사람의 몸무게	88	6
사물의 면적 크기	55	2

(49') a. 我那时二十一岁，大许和我同岁，小红才二十岁。

그 당시 나는 21세였고, 따쉬는 나와 동갑이었는데, 샤오홍은 겨우 20세였다.

b. 小丛回答她说: "我二十六岁，不是十六岁。"

샤오총은 "나는 26세이지 16세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50') 谈到这些项目的主持人，王选教授如数家珍: 阳振坤、汤炽、车达志都是29岁，周秉锋、蒋旺恒31岁，肖建国38岁，陈晓鸥32岁，卢金鑫28岁，李旭阳仅26岁。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언급할 때 왕쉬엔교수는 "양쩐쿤, 탕츠, 처따즈는 모두 29세, 저우빙펑, 쟝왕헝은 31세, 샤오찌엔궈는 38세, 천샤오오우는 32세, 루진신은 28세, 리쉬양은 겨우 26세"라고 막힘없이 말했다.

이로써 나이를 표현할 때, 'S+Num+岁' 구조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으며 이것이 가장 무표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S+是+Num+岁' 구조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유표적인 표현이며, '是'는 수사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대조의 기능을 야기하게 됨을 알 수 있다. '是'가 부가되면 대조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래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51) A1: 听说你买新房了，怎么样？房子多大啊？

새집을 샀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집이 얼마나 큽니까?

B1: 八十四平米。

84제곱미터입니다.

*是八十四平米。

A2: 我听说那个小区的房子是一百一十平米。

저는 그 단지의 집이 110제곱미터라고 들었습니다.

B2: 你说的那是建筑面积，我说的是实际使用面积。

당신이 말한 것은 건축면적이고 제가 말한 것은 실제 사용면적입니다.

예문(51)에서 집의 면적을 물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多+A'의 구조를 사

용하고, 청자가 대답할 때는 '是+八十四平米' 대신 '八十四平米'와 같은 구조를 사용한다. 이는 대비가 되는 수량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문(51B1)에서는 이미 수량을 언급했기 때문에 예문(51A2)에서 '是+Num・CL' 구조가 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S+Num・CL' 구문, 'S+是+Num・CL' 구문의 초점 유형을 살펴보자.

(52) 술어초점

Q: 小明多大？

A: 他25岁。

대조 초점

Q: 小明今年20岁了。

B: 他不是20岁，是19岁。

(53) 논항초점

Q: *谁25岁？

A: 他25岁。

Q: *谁是25岁？

B: 他是25岁。

(54) 문장초점

Q: 怎么了？发生什么事了？

A: *他25岁。/ *他是25岁。

질문 형식의 예문(52-54)에서 'S+Num・CL' 구조의 수량 부분은 술어초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他是25岁'의 '是'는 주로 술어인 '25岁'를 부각시키는 데 사용되므로 '他是25岁'는 (52B)처럼 대조 초점 구조로 사용된다. '他25岁'와 '他是25岁'는 모두 논항초점, 문장초점이 될 수 없다.

6.1.4 수량성 'S+Num・CL・N' 구문의 '是'의 부가

5.2.1에서 주어가 사람과 사물인 경우 '소유-피소유'의 의미 틀에서 'Num・

CL·N' 구조는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유관계를 코딩하는 중국어의 표상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 동사 '有'가 쓰이는데, 그렇다면 계사 '是'는 이러한 구문에 부가될 수 있을까?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55) a. 我一个儿子, 一个女儿。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이다.
b. 我有一个儿子, 一个女儿。
나는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다.
c. 我是一个儿子, 一个女儿。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이다.

(56) a. 杨过就一条胳膊。
양꿔는 한쪽 팔만 있다.
b. 杨过只有一条胳膊。
양꿔는 단지 한쪽 팔만 있다.
c. 正常人都是两条胳膊, 而杨过是一条胳膊。
정상인은 모두 양팔이지만 양꿔는 외팔이다.

(57) a. 这张桌子三条腿。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이다.
b. 这张桌子有三条腿。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 있다.
c. 这张桌子是三条腿。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이다.

(58) a. 我们家三台宝马。
우리 집에는 BMW가 3대이다.
b. 我们家有三台宝马。
우리 집에는 BMW가 3대 있다.
c. 我们家是三台宝马, 一台奥迪。
우리 집에는 BMW 3대와 아우디 1대가 있다.

(59) a. 我们家四口人。
우리 가족은 네 식구이다.
b. 我们家有四口人。
우리 가족은 네 명이 있다.
c. 我们家是四口人。
우리 가족은 네 식구이다.

(60) a. 中国四个直辖市。
중국은 네 개 직할시이다.
b. 中国有四个直辖市。
중국은 네 개 직할시가 있다.
c. 中国是四个直辖市。
중국은 네 개 직할시이다.

예문(55-60)은 각각 친족관계 소유, 신체부위 소유, 전체-부분 소유, 재산 소유, 기관-구성원 소유 및 공간 소유를 나타낸 문장이다. 예문(55a-60a)는 모두 특정 문맥을 필요로 하는 명사술어문이며, 예문(55a-60a)가 수식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예문(55b-60b)와 같이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有'자를 사용하는 구문이 더 흔히 사용된다. 여기서 '有'는 '是'로 대체될 수 있으며 문장의 명제 의미는 변화가 없으나 화용적인 의미와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다음 대화를 통해 그 차이를 검토해보자.

(61) A: 听说你们都结婚了，有孩子吗？
당신들은 모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있습니까?
B: 我有一个女儿。/ 我一个女儿。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 저는 딸이 하나입니다.
*我是一个女儿。
C: 我是两个儿子。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친족 관계 소유는 다른 소유관계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 예문(61)과 같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로 대답한 사람 B는 '有'자 구문을 사용하거나 더 간결한 명사술어문을 선택하여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是' 구문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로 대답한 사람 C는 예문(61C)와 같이 '是' 구문을 사용하여 자녀가 있을 뿐만 아니라 B와는 대조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是'는 소유문에 출현할 수 있지만 소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청자로 하여금 주어와 'Num・CL・N' 술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是'를 쓰게 되면 그 뒤에 오는 성분, 특히 수량성분은 부각되고 문장 전체는 대조의미를 띠게 된다.

'这张桌子三条腿'와 '这张桌子是三条腿' 두 표현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장에 사용된 초점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62) 술어초점

Q: 这张桌子怎么样？

이 테이블은 어때요?

A1: 哎, 这张桌子三条腿。

아,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네요.

A2: 哎, (别的桌子都是四条腿,) 这张桌子怎么是三条腿?

아, 이 테이블은 왜 다리가 세 개입니까?

(63) 논항초점

Q: 这里什么东西三条腿？

여기 어떤 물건이 다리가 세 개이죠?

A1: 这张桌子三条腿。

이 테이블이 다리가 세 개입니다.

A2: *这张桌子是三条腿。

(64) 문장초점

Q: 怎么了？发生什么事了？

왜 그래? 무슨 일이야?

A1: 这张桌子三条腿。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입니다.

A2: 这张桌子是三条腿。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입니다.

예문(62-64)로부터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일 때 'Num・CL・N' 술어문은 술어초점, 논항초점, 문장초점의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是' 구문은 논항초점 구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주어가 장소이고 술어가 'Num・CL・N' 구조의 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5.2.2.1의 분석에 따르면 의미적 특성과 수사의 선택에 따라 술어 위치에 있는 'Num・CL・N'을 〈표 6-4〉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4〉 'S장소+Num・CL・N'의 세부 유형과 '是'의 부가

	수사	양사	'Num・CL・N'의 의미 특징	예시	'是'의 부가
첫 번째 유형	임의 숫자	개체 양사	구체적인 사물	①远处几个兵士。 ②窗前一棵海棠书，树下一张小圆桌。	+
두 번째 유형	수사 '一'	집합 양사 片，团 등	구체적인 사물	③南边的天上一团红雾。 ④窗外一片阳光，一群蜜蜂在飞舞。	+
세 번째 유형	수사 '一'	股，阵 등	추상적인 사물	⑤里面一股暖烘烘的草药味。	+
				⑥他的头上一阵剧痛，像被蛰了一样。	+
네 번째 유형	수사 '一'	片，阵	명，형 겸류사	⑦雪花悄无声息地降落着，天地间一片寂静。 ⑧会场上一阵沉默，没有人说一句话。	+

〈표 6-4〉에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존재관계를 나타내는 'S장소+Num・CL・N' 구문의 의미가 '어디에 어떤 구체적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원형의 의미에서 은유를 거쳐 '어디에 어떤 추상적인 기상, 모습, 느낌이 존재한다.'로 확장되었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어떤 상태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문장에는 모두 '是'를 부가할 수 있지만 '是'의 화용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吕叔湘(1999[1980]), 刘月华(2001) 등은 계사 '是'의 의미 기능 중 하나가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존재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존재관계는 전체 구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소주어와 'Num・CL・N' 술어의 의미적 관계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是'가 다른 화용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계사 '是'의 가장 원형적인 기능은 긍정을 표현하고 두 개체 간의 동등 또는 귀속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是'의 의미 기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긍정의 기능이 어느 정도 보존됨을 추론할 수 있다. 〈표 6-4〉의 예시①과 예시②는 원래 '어딘가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했지만, '是'를 부가한 후에는 존재물이 다른 곳이 아닌 특정한 곳에 존재함을 구체화해준다. 따라서 문장은 '远处是几个兵士, 不是我们以为的树木' 등과 같이 '$S_{장소}$+是+NP1, 不是NP2' 구조로 더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확장은 추상적 존재관계를 표현하는 예시③~⑧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표현은 모두 부자연스럽다.

(65) *窗外是一片阳光, 不是(一片)乌云。
(66) *他的头上是一阵剧痛, 不是(一阵)瘙痒。
(67) *会场上是一阵沉默, 不是(一阵)安静。

이는 추상적인 존재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是'를 부가하면 '是'가 갖는 긍정판단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해당 문장에서 술어는 장소 주어의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술어문의 기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된 '是'의 주요 기능은 주어와 술어의 경계를 구별해 주고 주어와 술어 사이의 운율적 휴지 기능을 하며, 'Num・CL・N' 술어의 초점 기능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예문(68)과 같이 술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지만 예문(69)와 같이 주어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다. 이는 추상적 존재관계를 표현할 때 전체 문장은 논항초점 구조가 아닌 술어초점 구조임을 보여준다.

(68) Q1: 窗外是什么景象？
창밖은 어떤 경관입니까?
A1: 窗外是一片阳光。(술어초점)
창밖은 온통 햇빛입니다.
Q2: *哪儿是一片阳光？(논항초점)
어디가 온통 햇빛입니까?
A2: 窗外是一片阳光。
창밖은 온통 햇빛입니다.

(69) Q1: 当时会场上是什么情况？
당시 회의장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A1: 当时会场上是一片沉默，没人敢说话。(술어초점)
당시 회의장은 침묵으로 가득 차서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Q2: *哪儿是一片沉默？(논항초점)
어디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까?
A2: 会场上是一片沉默。
회의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6.1.5 수량성 'S+一・Ncl・N' 구문의 '是'의 부가

5.3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S+一・Ncl・N' 구문에서의 임시양사는 주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명사 '脑子, 脑袋, 脑门子, 头, 脸, 口, 嘴, 腔, 身, 肚子'에서 차용된 양사이며, 이 중에 '脸, 身, 肚子'와 결합하는 명사가 가장 많고 일부는 형용사, 동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형성된 'S+一・Ncl・N' 구문에 '是'를 부가할 수 있을까? 만일 가능하다면 '是'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 사용 빈도가 높은 '脸, 身, 肚子'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자.

(5-81) a. 家务事是由一个老太婆料理，她一脸皱纹，为人吝啬。
집안일은 한 노파가 맡아서 하는데, 그녀는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인색하다.

b. 家务事是由一个老太婆料理, 她是一脸皱纹, 为人吝啬。
집안일은 한 노파가 맡아서 하는데, 그녀는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인색하다.

(5-82) a. 里昂一身军装, 更见身材高大。
리앙은 군복 차림이라 몸집이 더욱 커 보인다.

b. 里昂是一身军装, 更见身材高大。
리앙은 군복 차림이라 몸집이 더욱 커 보인다.

(5-85) a. 老张一肚子文章, 总能出口成章。
장씨는 지식이 풍부하여 말만 하면 언제나 문장이 된다.

b. 老张是一肚子文章, 总能出口成章。
장씨는 지식이 풍부하여 말만 하면 언제나 문장이 된다.

예문(5-81a), (5-82a), (5-85a)는 모두 5.3에서 제시했던 'S+一・Ncl・N' 구문의 용례이며 예문(5-81b), (5-82b), (5-85b)와 같이 모두 '是'를 부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是'는 긍정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是'의 전형적인 계사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다. "一脸皱纹", "一身军装", "一肚子文章"은 모두 명사성 성분이지만,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의 면모를 표현할 때 사용되며, 기능적으로는 형용사술어문과 유사하다. 그래서 부가된 '是'는 주어와 술어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 외에 '一・Ncl・N' 술어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BCC 코퍼스의 조사를 통해 '一・Ncl・N' 구조와 주어 사이에 '是'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례 간에는 공통점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是' 앞에 다양한 부사 수식어가 쓰였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70) a. "没想到上海天气这么热, 受不了!"明明是对天气的抱怨, 蔡琳却是一脸笑意。
"상하이 날씨가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 참지 못하겠어!" 분명히 날씨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데 차이린은 얼굴에 온통 웃음꽃이 피었다.

b. 销售员介绍楼盘位置时, 很多人都是一脸茫然。
판매원이 매물의 위치를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c. 聂风, 亦是一脸期待, 期待一瞻这绝世英雄的风采！

니에펑, 역시 기대감 가득한 얼굴로 이 절세의 영웅의 풍모를 기대하고 있다!

(71) a. 事情过去已有半年, 现在旧事重提, 这位市民还是一肚子火。

일이 발생한 지 이미 반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옛일을 다시 꺼내니, 이 시민은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b. 那时我还没见到你, 对你仍是一肚子不满。

그때 나는 아직 너를 만나지 못했지만, 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다.

c. 昨天对你还是一肚子怨恨, 今天就满怀感激, 仅这一点就值得。

어제까지도 네게 원망이 가득했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72) a. 当枪声渐渐远去时, 所有人都是一身冷汗。

총소리가 점점 멀어졌을 때, 모든 사람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가득했다.

b. 他継续向上向上, 当他站在烟囱顶端时已是一身轻松。

그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고, 그가 굴뚝 꼭대기에 섰을 때는 이미 온몸이 홀가분했다.

예문(70)에서 '笑意', '茫然', '期待'는 각각 '一脸'과 가장 많이 결합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이다. '一脸+X'와 주어 사이에 부사 수식어가 있을 때는 어휘적인 의미는 없고 특정한 화용적 기능만 있는 '是'가 술어 동사의 위치를 채울 수 있다. 왜냐하면 '一脸+X'는 비록 서술적인 기능과 주어를 묘사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명사성 성분이며 대부분의 부사는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문(71-72)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S+一・Ncl・N' 구문과 'S+是+一・Ncl・N' 구문의 초점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73) Q1: 家务事由一个老太婆料理, 她怎么样？

A1: 她一脸皱纹, 为人吝啬。

她啊, 一脸皱纹, 为人吝啬。

Q2: *谁一脸皱纹, 为人吝啬？

A2: 她一脸皱纹, 为人吝啬。

(74) Q1: 家务事由一个老太婆料理, 她怎么样？

A1: 她是一脸皱纹, 为人吝啬。

Q2: *谁是一脸皱纹, 为人吝啬？

A2: 她是一脸皱纹, 为人吝啬。

(75) Q1: 怎么了？发生什么事了？

A1: *她一脸皱纹, 为人吝啬。

A2: *她是一脸皱纹, 为人吝啬。

예문(73-75)의 분석을 통해 'S+一・Ncl・N' 구문과 'S+是+一・Ncl・N' 구문은 논항초점 구조와 문장초점 구조가 아닌 술어초점 구조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2 명사술어문에 부가되는 '是'의 유형론적 특징

Heine&Kutewa(2002:108,96)는 'DEMANSTRATIVE(지시대명사) → COPULA(계사) → FOCUS(초점표지)'와 같은 문법화 과정이 인류 언어의 보편적인 규칙이라고 하였고 중국어의 '是'는 계사의 문법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상이며 이와 같은 문법화 과정을 겪었을 수 있다고 하였다. 2.2.1에서 언급했듯이 王力(1957), Li&Thompson(1977), 梁银峰(2012), 石毓智・李讷(2001) 등은 '지시대명사 是 → 계사 是'의 문법화 과정을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石毓智・徐杰(2001:455)는 중국어 언어학사에서 의문문 형식의 변화라는 각도에서 초점표지 '是'의 생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문대명사가 품사 중에서 특수한 부류이며, 그 자체의 의미에 초점 [+F]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한 문법적 수단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고중국어는 어순 변환 방법을 채택했으며, 중고중국어는 초점표지 '是'를 부가하였다.[69] 현대중국어에서 특수의문문에 쓰인 초점표지는 의문대명사 앞에만 놓이고[70] 민남어(闽南语)와 같은 일부 중국어

의 방언에서의 의문대명사 '谁'는 초점표지 '是'로 초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71]

현대중국어에서 '是'의 지시대명사 용법은 사라졌고 긍정 판단을 나타내는 계사 용법과 초점을 표기하는 초점표지 용법이 주요 기능으로 남게 되었다. 2.2에서 언급하였듯이, 박진호(2009)는 범언어적 관점에서 〈그림 2-3〉과 같이 계사의 개념 공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계사 기능과 초점표지 기능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石毓智(2005:43)는 '是'의 계사 기능과 초점표지 기능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고, 그러한 '是'의 용법을 형식과 의미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계사 '是'는 문장의 핵심 동사로서 주어와 목적어를 연결하고 동등, 분류, 존재, 적절성, 해석 등의 의미적 관계를 표현하는 판단표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초점표지로 사용된 '是'는 동사의 특성에서 많이 벗어났고, 문장의 주요 성분 또한 아니어서 생략된 후에도 문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그의 분석 결과는 〈표 6-5〉로 정리할 수 있다.

---

69) 관련 용례는 다음과 같다.
是谁教汝？(≪北齐书≫ 31)

70) A. 의문대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
是谁昨天用钳子把那张桌子修好了？
*谁是昨天用钳子把那张桌子修好了？
B. 의문대명사가 시간 부사어로 쓰일 때
小王是什么时候用钳子把那张桌子修好的？
*小王什么时候是用钳子把那张桌子修好的？(石毓智・徐杰2001:455)

71) 闽南 방언에서 '是谁在内面在唱歌?'와 같은 문장에서 '是'는 의문대명사 '谁'가 초점임을 부각시키고 절대 생략될 수 없다.

〈표 6-5〉 '是'의 계사, 초점표지 기능(石毓智 2005)

문법 기능	문법 범주	형식	의미유형	'是'의 隐现 여부
판단	핵심 동사 (계사)	NP1+是+NP2 (예: 老王是模范。) NP1+是+(VP/AP)的 (예:这辆车是新的。)	동등관계 분류 관계 존재 관계 적합(合适) 관계[72]	반드시 있음
		XNP/VP+是+VP S+这/那+是+Y	설명 관계[73]	
초점	초점표지 (동사성 약함)	X+是+Y+VP[74] NP1+是+Y(V+的+NP2)	어떠한 성분을 초점화	제거 후 문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石毓智(2005)가 진행했던 '是'의 계사 기능과 초점표지 기능 구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모든 문장에 주요 동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명사술어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고는 앞에서 이미 증명한 바 있다. 동등과 귀속을 나타내는 판단문과 구체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是'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한 의미와 화용적 조건 하에서는 '是'가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추상적 존재관계, 소유관계, 외적 특징, 양적 특징 등을 표현하는 문장은 '是'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 문장에 '是'를 추가할 수 있지만 추가된 '是'의 기능은 계사 기능과 확연히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추상적 존재관계, 소유관계, 외적 특징, 양적 특징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부가된 '是'가 초점표지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6.1.1에서 6.1.5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72) 주로 '这场雨下得是时候', '作为主编, 我心里很不是滋味'와 같은 현상을 말한다.

73) 해당 예문은 아래와 같다.
(1) 我们的任务是把这些书放在书架上。(주어가 NP인 경우)
(2) 外国人爱玩雕虫小技也是受咱们的传染。(주어가 VP인 경우)

74) (是)小王昨天在门口用钳子把自行车修好了。(행위자를 초점화)
小王(是)昨天在门口用钳子把自行车修好的。(시간을 초점화)
小王昨天(是)在门口用钳子把自行车修好的。(장소를 초점화)
小王昨天在门口(是)用钳子把自行车修好的。(도구를 초점화)
小王昨天在门口用钳子(是)把自行车修好的。(대상을 초점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결론을 증명할 것이다.

첫째, '是'의 계사 기능과 초점표지 기능을 둘로 나누지 않고 계사로부터 초점표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체로 간주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호한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75], '是'의 초점표지 기능은 실현과 비실현을 나타내는 문장 모두에 나타날 수 있지만, 공통점은 이들 문장이 모두 사건문[76]이고 '是'가 술어 동사 앞의 행위자, 수반자, 시간, 장소, 도구, '把'의 대상을 초점화하는 데 사용되며, 이러한 초점 성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Wh' 질문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있다. 문제는 동사의 대상, 즉 목적어를 초점화하는 방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았다.

石毓智(2005)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是'를 부가할 수 없고 목적어로 쓰인 명사 앞에는 초점표지 '是'를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NP1+V+NP2→(NP1+V+的)+是+NP2'로 구조적인 변화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예문(76)과 예문(77)은 그가 제시한 두 가지 예이다.

(76) a. 我们昨天看到了一只兔子。 → b. 我们昨天看到的是一只兔子。
우리는 어제 토끼 한 마리를 보았다. → 우리가 어제 본 것은 토끼 한 마리였다.

(77) a. 他们早上喝了牛奶。 → b. 他们早上喝的是牛奶。
그들은 아침에 우유를 마셨다. → 그들이 아침에 마신 것은 우유였다.

중립적인 발화 상황에서 예문(76)의 목적어 '一只兔子'와 예문(77)의 목적어 '牛奶'는 정보초점이며 초점표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만약 초점표지를 부가하게 되면 石毓智(2005)가 언급한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보다시

75) 方梅(1995), 龙海平(2007), 원춘옥(2015) 등이 있다.

76) 사건문(Bounded sentences)과 비사건문(Unbounded sentences)은 인지언어학의 개념으로, Comerie(1976)는 사건과 과정은 동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정은 동태상태의 내부구조를 의미하고, 사건은 전체 동태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사건은 완성의 각도에서 동태 상태를 본 것이므로, 인지언어학의 사건문은 동태의 변화과정이 존재하는 구문이라고 볼 수 있다.

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목적어를 초점화시키는 문장은 판단문, 즉 'NP1+是+NP2'와 같은 추상적인 형식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같은 형태가 되어 많은 경우에 '是'의 계사 용법과 초점표지 용법을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77] 汤廷池(1981), 玄玥(2004) 등은 목적어와 동사를 표기하는 초점표지의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조 강세나 문맥에 의존하지 않고는 초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목적어를 대조 초점으로 표기하는 전문적인 방법인 '준분열문(pseudo-cleft sentences)'이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준분열문'이란 술목구조 사이에 '的'를 삽입하여 동사 앞의 전체 성분을 명사화시킨 다음, '是'를 목적어 앞에 배치함으로써 목적어를 대조 초점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즉, 예문(76b)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제 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토끼였다.'라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더 살펴보자.

(78) 这本书是去年出版的。
이 책은 작년에 출판된 것이다.

(79) 他是去年出生的。
그는 작년에 태어났다.

(80) 我是坐飞机去北京的。
나는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갔다.

예문(78-80)은 모두 '是……的' 구문인데 문미에 사용된 '的'는 명사화 표지로 해석될 수 있고 시간조사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예문(78-80)은 모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78') a. 这本书是去年出版的(书)。
이 책은 작년에 출판된 책이다.

77) 张斌(2010:595-604)은 '是'에는 판단, 강조, 확인('정말' 의미)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가지 의미는 구체적인 문장에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의미는 '是'의 계사 용법이고 강조 의미는 초점표지 용법이다.

b. 这本书(是)去年出版的。(不是前年出版的)
이 책은 작년에 출판된 책이다. (재작년에 출판된 것이 아니다.)
这本书出版的时间是去年。('去年'이 초점임)
이 책이 출판된 시기는 작년이다.

(79') a. 他是2019出生的(孩子)。
그는 2019년에 출생한 아이다.

b. 他(是)2019年出生的。(不是2020年出生的)
그는 2019년에 출생했다. (2020년에 출생한 것이 아니다.)
他出生的时间是2019年。('2019'가 초점임)
그가 출생한 시기는 2019년이다.

(80') a. 我是坐火车去北京的(人)[78]。
나는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갔던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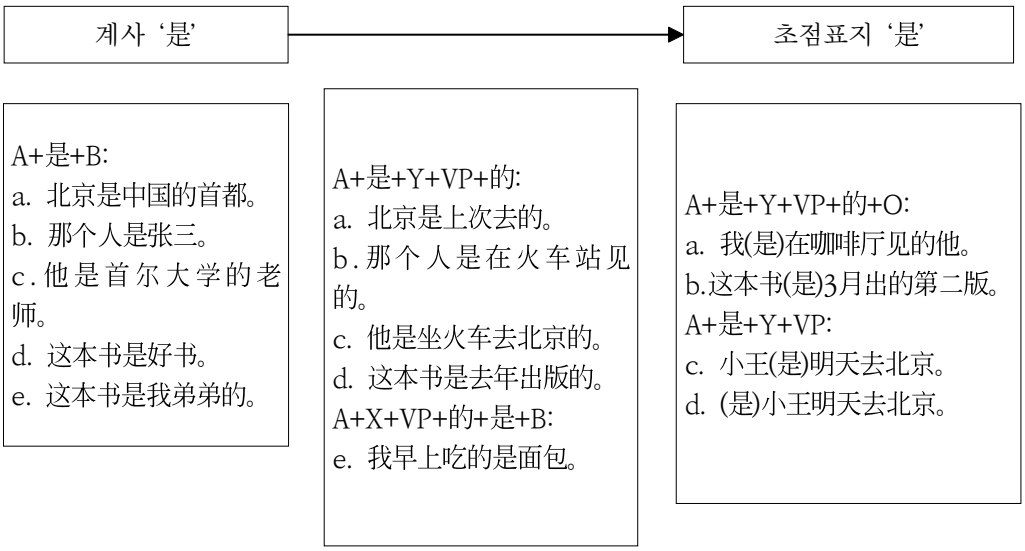
b. 我(是)坐火车去北京的。(不是坐飞机)
나는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갔다.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다.)
我去北京的交通方式是坐火车。('坐火车'가 초점임)
내가 베이징에 갈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기차다.

예문(78'a-80'a)에서 '是'는 긍정 판단을 나타내는 계사이며, 예문(78'b-80'b)의 '是'는 바로 뒤에 오는 성분을 초점으로 표기한 초점표지이다. 물론 예문(80)의 문미에 있던 '的'은 예문(81)에서와 같이 동사와 목적어 사이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是'는 초점표지 기능만 한다.

(81) 我是坐飞机去的北京。
나는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갔다.

78) 龙海平・肖小平(2011)은 '我是坐飞机去北京的'라는 문장을 제시하였는데 이런 문맥에서 문장은 '我是坐飞机去北京的人'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전체 예문은 다음과 같다. '单位组织去北京旅游, 一半坐火车, 一半坐飞机。坐火车的可以带家属, 坐飞机的只能一个人。我是坐火车去(北京)的, 所以准备顺带捎上爱人和孩子。'

위의 분석은 '是'의 계사에서 초점표지로의 문법화 과정에서 과도기 단계에 많은 용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점진적 과정은 〈그림 6-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1〉 계사에서 초점표지까지의 연속체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과도기 단계와 초점표지 단계에서 쓰인 예들은 모두 어휘적 의미를 갖는 동사가 출현한 사건문들이다. 그렇다면 비사건문, 즉 명사성 성분이 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에서 주어와 명사성 술어를 연결하는 '是'는 기존 연구에서 밝혔듯이 계사의 기능만 하는 것인가?

陈晓湘·罗琼鹏(2005)은 그들의 연구에서 판단문 '张三是老师'와 '李教授是加州大学的博士'에서 '是'는 모두 분열문(cleft-sentence)에서 초점표지로 쓰인 '是'의 초점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정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周国正(2008)은 상고중국어에서는 아직 계사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사구문이 나타내는 동등 또는 귀속관계는 계사를 사용하여 표현할 필요가 없었고, 계사 '是'의 사용이 처음부터 문법상의 필요 때문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화용적인 필요로 인하여 사용된 것이며, 병렬, 동격, 수식의 'NP1+NP2' 구조와 구분되어 표현상의 명료성을 증가시켜 주었으며 이때 '是'의 정체는 중국어의 '화제-서술' 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기 성분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판단문에서 서술을 표기하는 성분

인 '是'의 이러한 화용적 기능, 통사 기능(판단을 나타냄) 그리고 의미 기능(동등/유속을 나타냄)은 서로 융합되어 쉽게 구별하기 힘들며, 다만 강조를 나타내는 분열문에서는 동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是'의 초점표지 기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方梅(1995)는 구어에서 초점은 항상 강제성을 띤 강세를 수반하기 때문에 초점표지는 구어에서 항상 잉여 성분일 수밖에 없지만, 서면어에서는 강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표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점표지 자체는 실질적인 의미와 강세가 없지만, 초점으로 쓰인 성분은 항상 음성적으로 부각되는 성분이고, 초점표지는 문장의 통사구조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생략하여도 문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나타나며, 명사성 술어 부분은 강세를 주어 발음한다. 예를 들어, '谁啊？——我张三'이라는 대화에서 '张三'에는 보통 강세가 있지만, '是'가 부가되어 형성된 '是' 구문인 '我是张三' 중의 '张三'에는 특별히 강세를 주어 발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판단성 명사술어문에 '是'를 부가하여 만들어진 'S是NP' 판단문에서 NP는 문미에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발화 상황에서 NP는 문장의 정보초점이고, 초점표지가 필요 없으며, '是'의 계사 기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徐杰・李英哲(1993)은 현대중국어에 전문적인 초점표지로 표기된 성분 외에 해당 문장의 초점 성분이 되기 쉬운 문법 단위들이 있고, 이들 문법단위가 초점 성분이 될 확률은 각각 등급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82) 초점 선택 위계

'是'로 강조된 성분 → '连, 就, 才'로 강조된 성분 → 수량 성분 → '把'의 목적어 → 기타 수식 성분 → 중심어 성분 → 화제 성분

6.1.1에서 밝혔듯이 판단문으로 쓰인 'S+是+NP' 구문에서 '是NP'는 술어초점으로 사용될 수 있고 S는 논항초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계사구문은 술어초점 구조뿐만 아니라 논항초점 구조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6.1.2의 분석에 의하면 'S+是+A・N' 구문은 오직 술어초점 유형으로만 쓰이고, 중심어 명사 부분은 주로 신체부위이며, 일종의 잠재적 전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식 위치에 있는 형용사는 자연스럽게 문장의 새로운 정보가 되고 강세를 주어 발음하며 대조적인 언어 환경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

'S+是+Num・CL' 구문에 등장하는 수량 성분, 'S+是+Num・CL・N'으로 표현된 소유구문과 존재구문에서 나타나는 수량 수식어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초점이다. 따라서 이들 성분 앞에 오는 '是'는 초점표지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판단을 나타내는 구문과 마찬가지로 문장에는 기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출현하지 않고 '是'가 'SVO' 어순에서 V의 위치에 출현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是'를 계사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S+是+A・N', 'S+是+Num・CL', 'S+是+Num・CL・N', 'S+是+一・Ncl・N' 구문에서 '是'의 초점표지 기능이 비록 판단문에 나타난 '是'보다 강하지만, 분열문에서의 '是'의 초점표지 기능의 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둘째, '是'가 기타 초점민감연산자(focus-sensitive operator)와 같이 출현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刘林(2013)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是'가 전형적인 초점표지이고, '是' 외에 '就', '才', '只' 등 성분들도 초점에 민감하여 문장의 초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을 초점민감 연산자라고 보았다. 실제로 '是'가 부가된 각종 명사술어문에서 '是'가 다른 초점민감 연산자와 같이 출현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83) a. 那个人是小王的妻子。
저 사람은 샤오왕의 아내다.
b. 那个人就是小王的妻子。
저 사람이 바로 샤오왕의 아내다.
c. 那个人才是小王的妻子。
저 사람이야말로 샤오왕의 아내다.
d. 那个人只是小王的妻子。
저 사람은 단지 샤오왕의 아내일 뿐이다.

(84) a. 他是广东人。
그는 광둥 사람이다.

b. 他就是广东人。
그가 바로 광둥 사람이다.
c. 他才是广东人。
그야말로 광둥 사람이다.
d. 他只是广东人。
그는 단지 광둥 사람이다.

(85) a. 警察要找的人是高个子, 大眼睛。
경찰이 찾는 사람은 키가 크고 눈이 크다.
b. *警察要找的人就/才/只是高个子, 大眼睛。

(86) a. 小明今年是二十岁。
소명은 올해 스무 살이다.
b. *小明今年就/才/只是二十岁。

(87) a. 这张桌子是三条腿。
이 탁자는 다리가 세 개다.
b. *这张桌子就/才/只是三条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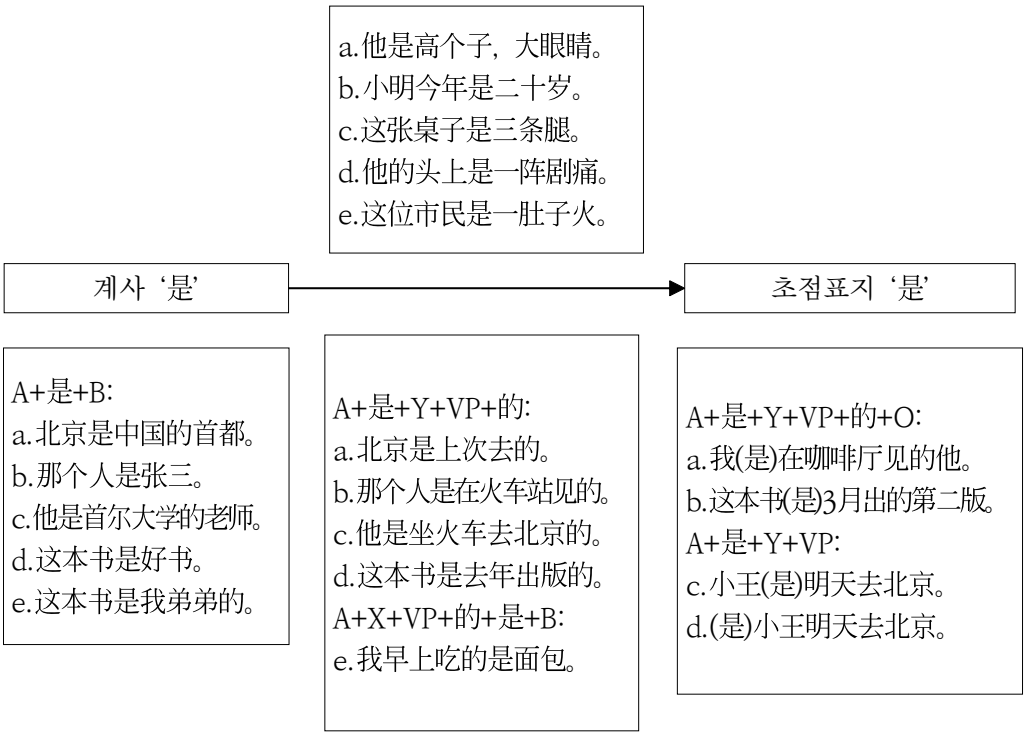
(88) a. 窗前是一棵海棠树, 树下是一张小圆桌。
창문 앞에는 해당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나무 아래에는 작은 원탁이 있다.
b. ？窗前就是一棵海棠树, 树下就是一张小圆桌。
c. 他的头上是一阵剧痛, 像被蛰了一样。
그의 머리는 마치 쏘인 것처럼 심한 통증을 겪었다.
d. *他的头上就/才/只是一阵剧痛, 像被蛰了一样。

(89) a. 这位市民是一肚子火, 根本不听工作人员的解释。
이 시민은 직원들의 설명을 전혀 듣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
b. *这位市民就/才/只是一肚子火, 根本不听工作人员的解释。

예문(83a-84a)는 각각 동등과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是' 구문으로 '是'는 계사이며 주로 긍정 판단의 기능을 하고 '就', '才', '只'는 '是' 앞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예문(85a-89a)에서 '是'는 뒤에 나오는 성분을 문장의 초점으로 표시하

는 기능을 하고 초점민감 연산자 '就', '才', '只'도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겹치게 되어서 공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판단성 명사술어문으로부터 전환된 '是' 구문의 '是'는 전형적인 계사이며, 아주 약한 초점표지 기능을 지니고 있고, 'S+是+A・N', 'S+是+Num・CL', 'S+是+Num・CL・N', 'S+是+一・Ncl・N' 구문에서의 '是'는 보다 강한 초점표지 기능을 하며 '我是昨天见的她'에서의 '是'는 전형적인 초점표지이다. 이러한 점진적 과정은 〈그림 6-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2〉 계사에서 초점표지까지의 연속체(추가됨)

6.3 소결

중국어 명사성 성분은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是'와 함께 쓰여 술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명사술어문에 '是'를 부가해

봄으로써 '是' 구문으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변환 후에 두 구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를 통해 다양한 명사성 술어에 붙는 '是'의 성질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에는 '是'를 부가할 수 있는데, 명사술어문에 비해 '是' 구문의 주술관계가 더 명확하고 주어와 술어는 구조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복문의 종속절에 사용할 수 있다. 명사술어문은 구조적 확장이 제한적이며 주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명사술어문은 판단만을 나타내는 반면 '是' 구문은 긍정과 확인의 의미가 명사술어문보다 더 강하다. 화용적 측면에서 볼 때, 명사술어문은 주로 술어초점의 유형을 표현하는 반면 '是' 구문은 논항초점과 문장초점의 유형도 나타낼 수 있다. 'S+A・N' 구문에 '是'를 부가할 수 있는지는 형식에 따라 내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 앞에는 '是'를 부가할 수 있지만, '이음절 상태형용사+명사'와 '중첩형식의 상태형용사+명사' 앞에는 '是'를 부가할 수 없다. 'S+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의 구문과 달리 'S+是+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 구문은 긍정과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두 구문은 모두 술어초점 유형을 표현할 수 있지만 논항초점 및 문장초점 유형을 표현할 수 없다. 술어로 기능한 'Num・CL' 성분과 'Num・CL・N' 성분 앞에는 '是'를 부가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是' 구문은 긍정과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S+Num・CL'구문은 술어초점과 논항초점 유형을 표현할 수 있고, 'S+是+Num・CL' 구문은 술어초점 유형에만 쓰인다. 두 구문은 모두 문장초점 유형을 나타낼 수 없다. 'S+Num・CL・N' 구문은 술어초점과 논항초점 유형을 표현할 수 있고, 'S+是+Num・CL・N' 구문은 술어초점 유형에만 쓰인다. 두 구문은 모두 문장초점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S+一・Ncl・N' 술어에도 '是'를 부가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명사성 술어 앞에 다른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S+一・Ncl・N' 구문과 'S+是+一・Ncl・N' 구문은 모두 술어초점 유형만 나타낼 수 있다.

둘째, 계사에서 초점표지로 문법화하는 것은 유형론적으로 보편적이며 현대중국어 '是'는 계사와 초점표지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판단성 명사술어에 부가된 '是'는 주로 주어와 술어의 동등과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는 전형적인 계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판단을 나타내는 '是' 구문에서 초점은 '是'의 뒤에 오는 성

분이며 이때는 계사의 기능이 강하여 '是'의 초점표지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상+속성' 명사술어문에 부가된 '是'는 뚜렷한 초점표지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대상+是+속성' 구문에서 '是'는 '就', '才', '只' 등과 같은 초점민감연산자와 같이 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是+속성' 구문에는 다른 주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是'는 계사 기능과 초점 표기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제7장 명사술어문의 통시적 변천

제3, 4, 5장에서 다루었던 각 유형의 명사술어문은 현대중국어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고대중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고의 논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통시적 고찰을 진행하였던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易花萍(2009)은 그의 연구에서 '수+량+명' 형식, '형+명' 형식, 단순한 명사, 'N·N' 형식, '부+명' 형식이 술어로 기능하는 명사술어문에 대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사용 비율이 어떻게 변천하였는지 통계를 내고 분석하였다.[79] 그의 통계는 주어와 명사술어를 모두 갖춘 문장뿐만 아니라 명사문, 즉 문장 이 하나의 명사 또는 명사구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했는데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고는 이러한 문장을 연구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이슬기(2018)는 명사술어문의 통시적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상고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은 뚜렷한 형태표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고 문헌에 등장한 명사술어문의 형식은 문미에 판단의미를 나타내는 '也'와 문중에 보조적 화용표지인 '者'가 출현하여 '주어者, 술어也'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고 시기에는 '是'의 계사 용법이 성숙되어 전형적인 판단구문인 '주어+是+술어' 형식이 정착되면서, 상고중국어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이 모두 '是'자 판단문으로 교체되었고 상고중국어의 판단성 명사술어문과 묘사성 명사술어문은 비로소 형태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상술한 두 가지 연구 외에도 周祖亮(2006)은 선진시기 명사술어문의 의미기능을 분석하였고, 马方英(2013)은『孟子』의 명사술어문을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명사술어문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상술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아래에서는 본고의 분류 기준을 근거로 시기별 대표적인 예문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명사술어문의 통시적 변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79) 선진, 즉 상고 시기의 자료 통계는 이 시기의 대표 자료인『诗经』,『尚书』,『左传』에서 수집하였고 중고 시기의 통계는『祖堂集』,『三国志』,『世说新语』에서 수집했고 근대의 통계는『金瓶梅』,『红楼梦』,『儿女英雄传』에서 수집했고, 현대와 당대의 통계는 주로『骆驼祥子』,『艳阳天』과『汪曾祺短篇小说』에 나온 자료를 대상으로 수집했다.

분석에 앞서 먼저 고대중국어의 시대구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王力(1958/1980), 潘允中(1982) 등에 의하면 상고중국어는 서한(西汉)까지의 중국어이다. 중고중국어의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王力(1958/1980)은 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부터 남송(南宋) 전반까지라고 주장했다. 潘允中(1982)은 서진(西晋)에서 수당(隋唐)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보았고, 高本汉(1940)은 육조(六朝)와 당(唐)나라가 중고시대라고 보았으며 蒋绍愚(2005)는 고대중국어과 근대중국어의 경계를 후당과 오대시기로 보았다. 본고는 명사술어문의 통시적 변천을 고찰할 때 시대에 대한 구분은 상술 구분 기준을 참고하면서 '是'의 탄생과 발전도 고려했다.

王力(1957:194)은 계사 '是'는 대략 서한(西汉) 말기에서 동한(东汉) 초기에 생겨났다고 하였다. 洪城(1957), 郭锡良(1990)은 서한(西汉) 초기라고 지적했다. 唐钰明(1993)은 전국(战国) 말기에 '是'가 벌써 계사로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梁银峰(2012)은 상술 학자들이 제시한 예문을 재검토하면서 서한(西汉) 이전에 '是'가 계사로 쓰인 현상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용례가 드물어서 계사의 태동시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是'가 계사로 쓰인 용례는『孟子』,『史记』에서 몇 개가 보이고, 동한(东汉) 王充의『论衡』에도 다소 출현하기는 했지만 수량이 많지 않다. 다음의 (1), (2), (3)이 바로 해당 예이다.

(1) 钧是人也, 或为大人, 或为小人, 何也? (『孟子・告子上』)
모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 襄子至桥, 马惊, 襄子曰: '此必是豫让也。'使人问之, 果豫让也。 (『史记・刺客列传』)
양자가 다리에 도착했을 때 말이 갑자기 놀라니, 양자는 그가 필시 예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과연 예양이었다.

(3) 夜梦见老人曰: '馀是所嫁妇人之父也。尔用先人之治命, 是以报汝。' (『论衡・死伪』)
밤에 어느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말하길 "나는 네가 결혼한 여인의 아버지이다. 네가 선친의 명에 따라 행하였으니 내가 이로써 네게 보답하

노라."라고 하였다.

예문(1-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기의 계사구문에서 계사 '是'는 문말어기사 '也'와 같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王力(1957:195)은 계사 '是'는 판단문에 자주 사용되었고 중고 시기에 상고 시기의 판단문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고 시기의 '是' 판단문은 아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가. 어기사 '也'는 더이상 출현하지 않고 '是'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다.

나. 계사 '是'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사 '是'의 앞에 부정부사 '不'가 출현하여 상고 시기의 '非'를 대체했다.

肖瑜(2003)에 의하면 '是'가 계사화된 과정은 태동 시기, 발전 시기 그리고 성숙 시기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와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1〉 '是'의 계사화 단계(肖瑜2003)

단계	해당 시기	특징
태동 시기	춘추(春秋)시기부터 서한(西汉)까지	통사구조의 영향 때문에 지시대명사에서 계사로 변화하는 맹아가 생겼다. 서한 시기의 『史记』에서 개별적인 사례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발전 시기	동한(东汉)부터 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까지	계사 용법은 공고히 발전했고 새로운 용법이 많이 나타났다. 예컨대, 문말 조사 '也'가 탈락되고, '是'를 수식하는 부사가 대폭 증가했고, '是'의 전후 성분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是'의 부정형 '非是'와 '不是'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성숙 시기	수당(隋唐), 오대(五代)시기	계사의 용법은 완전히 성숙해졌다. 문말 '也'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是'를 수식하는 부사가 고정되었다. '是' 구문의 판단 용법뿐만 아니라 다른 용법도 나타났다.

본고는 위와 같은 '是'의 통시적 계사화 과정을 고려해서 명사술어문이 쓰였던 상고, 중고, 근대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상고 시기는 서한까지이고

중고 시기는 동한부터 당(唐), 오대(五代)까지이고 근대 시기는 송(宋), 원(元), 명(明), 청(清)이다.

7.1 상고 시기의 명사술어문

먼저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이 시기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주로 다음과 같은 통사구조를 사용한다.

(4) 주어+者, 명사술어+也

a. 南冥者, 天池也。 (『庄子・逍遥游』)
남방의 바다는 천연의 큰 연못이다.

b. 追我者谁也？ (『孟子・离娄下』)
나를 추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c. 淮阴候韩信者, 淮阴人也。 (『史记・淮阴侯列传』)
회음후 한신은 회음 사람이다.

(5) 주어+者, 명사술어

a. 兵者, 不祥之器。 (『老子』)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다.

b. 虎者, 戾虫。人者, 甘饵也。 (『战国策・秦策二』)
호랑이는 포악한 짐승이고, 사람은 그것의 맛있는 먹이다.

(6) 주어, 명사술어+也

a. 公子州吁, 嬖人之子也。 (『左传・隐公三年』)
공자 주우는 위장공의 첩이 낳은 아들이다.

b. 董狐, 古之良史也。 (『左传・宣公二年』)
동호는 고대의 훌륭한 사관이었다.

(7) 중어+명사술어

a. 魏其言灌夫父死事, ……此天下壮士。 (『史记・魏其武安候列传』)
위기후는 관부의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죽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천하의 용사이다.

b. 足下中国人。 (『史记・陆贾传』)
귀하는 중국인입니다.

c. 荀卿, 赵人。 (『史记・孟子荀卿列传』)
순경은 조나라 사람이다.

(8) 주어+부사+명사술어

a. 朋友之馈, 虽车马, 非祭肉, 不拜。 (『论语・乡党』)
친구가 비록 수레와 말을 선물하더라도 그것이 제사용 고기가 아니라면 받을 때 절을 하지 않는다.

b. 梁父即楚将项燕。 (『史记・项羽本纪』)
항량의 아버지는 초나라 장군 항연이다.

이슬기(2018:30)에 의하면 (4-5)에서의 '者'는 어기사로서 휴지나 격어(隔语)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선행 성분이 주어임을 표시해주는 화제표지 및 후행 술어를 연결하는 연결사의 기능과 연계될 수 있다. '也'는 문미에 판단의미를 나타내는 주요 화용표지였다. 상고 시기에는 '주어者, 술어也'로 표현되는 명사술어문이 대부분이었다. '者'와 '也'는 (5)와 (6)처럼 하나만 사용될 수도 있다. 예문(7)은 명사술어가 직접 주어 뒤에 출현하고 주술 관계를 명시하는 형태표지가 없다. (8)은 명사성 성분이 부사의 수식을 받아서 술어로 기능하는 예이다. (4-6)의 형식은 중고 시기에 '是' 구문이 상고 시기의 명사술어문을 점점 대체하는 과정에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 현대중국어에서 사라진 표현 형식이다. 하지만 (7)과 (8)은 현대중국어에서 아직도 사용되는 형식이다. 주어와 술어 간의 의미관계를 보면 (4a), (4b), (6a), (8a-b)는 동등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4c), (5a-b), (6b), (7a-c)는 귀속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현대중국어에서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他, 有名的外科医生'과 같은 문장 그리고 사람의 고유한 신분을 확인하는 '小李, 老王的儿子'와 같은 문장이 상고중국어에서 이미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사술어는 맨명사, 'N1+N2' 구조, 인칭대명사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중국어처럼 담화 상황에 의해 동등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판단성 명사술어문도 상고중국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9) 尧之王天下也, 茅茨不翦, 采椽不斫; 粝粢之食, 藜藿之羹; 冬日麑裘, 夏日葛衣。 (『韩非子・五蠹』)

요가 천하를 통치할 때, 그의 집은 초라하여 초가집 지붕을 다듬지도 않았고, 상수리나무로 만든 서까래는 깎지도 않았으며, 거친 곡식을 먹고 나물을 끓인 국을 먹었으며, 겨울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었고, 여름에는 갈포로 만든 옷을 입었다.

(10) 夫战, 勇气也。一鼓作气, 再而衰, 三而竭。 (『左传・庄公十年』)

무릇 전투는 용기에 달려있다. 첫 번째 북은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두 번째 북은 용기를 떨어뜨리며 세 번째 북은 용기를 사라지게 한다.

예문(9)의 두 문장 '冬日麑裘, 夏日葛衣'는 수식구조가 아니며, '冬日的麑裘, 夏日的葛衣'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요(尧)의 통치 시기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전체의 맥락과 결합해 보면, '冬日麑裘, 夏日葛衣'의 의미는 마땅히 '冬天穿的是小鹿皮做的袍子, 夏天穿的是葛布做的衣服'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열구조이기 때문에 비록 관계절 '穿的(是)'가 출현하지는 않지만 전체 구조는 여전히 주술관계로 보아야 한다. 예문(10)은 비록 나열구조는 아니지만 주어의 발화사로 '夫'를 사용했고, 이어서 휴지를 두었기 때문에 '勇气也'가 주어인 '夫战'을 서술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둘이 판단관계인 것은 아니다. 언어적 환경에서 볼 때, 여기서 표현하고자 한 의미는 '战争靠的是勇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동사는 출현하지 않은 채로 구조적으로 주어-술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묘사성 명사술어문 'S+A・N' 구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현대중국어에서 'A・N' 구조는 주로 사람의 외모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데 상고중국어에서도 이러한 명사술어문이 존재했다.

(11) 东人之子, 职劳不来。西人之子, 粲粲衣服。 (『诗经』)

동쪽(제후국) 사람들은 힘들게 일했어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서쪽(수도)의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

(12) 厥土黑坟, 厥草惟繇, 厥木惟条。 (『尚书・禹贡』)

그곳의 토양은 검고 기름지며, 그곳의 풀은 무성하고, 그곳의 나무는 가

늘고 길다.

(13) 高祖为人, 隆准而龙颜, 美须髯。 (『史记・高祖本纪』)
고조의 용모는 코가 오똑하고 이마가 도드라지며, 아름다운 수염과 구레나룻이 있다.

(14) 是木也, 方茎而员叶, 黄华而毛, 其实如栵, 服之不忘。[80] (『山海经・中山经』)
이 나무는 줄기가 모나고 잎이 둥글며, 노란 꽃에 가는 털이 나 있다. 열매는 고려나무 같으며 먹으면 건망증이 낫는다.

예문(11)에서 '粲粲'은 '화려하다, 색깔이 밝다'라는 뜻이며 형용사로 '衣服'을 수식하므로 주어 '西人之子'의 복장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예문(12)에서 '黑坟'은 '비옥한 토양'의 뜻으로 역시 'A・N' 구조이다. 예문(13)과 예문(14)는 현대중국어에서 쓰인 'S+A・N' 구문과 아주 유사하다. 예문(13)은 주어인 사람의 외모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고, 예문(14)는 주어인 사물의 외형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수식의 기능을 하는 형용사는 모두 일음절 성질형용사이다. 그리고 하나의 'A・N' 구조가 홀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출현하였으며 중간에는 '而'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현대중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S+상태형용사・명사' 구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4장에서 논의했듯이 일부 'N1・N2' 구조가 'A・N' 구조처럼 N1이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고 'N1・N2'는 술어로 기능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5) 且是人也, 蜂目而豹声, 忍人也, 不可立也。[81] (『左传・文公元年』)
그자는 벌 같은 눈과 승냥이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으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으므로 황태자로 옹립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16) 英招, 其状马身而人面, 虎纹而鸟翼。 (『山海经・西次三经』)
영소는 말 같은 몸체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호랑이 무늬에 새의 날개를 지녔다.

80) 예문(14), (15)는 이슬기(2018: 52)에서 인용.
81) 이슬기(2018)에서 인용.

(17) 秦王为人, 蜂准, 长目, 挚鸟膺, 豺声, 少恩而虎狼心。 (『史记・秦始皇本纪』)
진왕은 높고 곧은 코와 큰 눈, 맹금 같은 가슴과 이리 같은 목소리를 지니며, 인애가 부족하고 포악한 심성을 가졌다.

예문(15)에서 '蜂目', '豹声'은 모두 'N1・N2' 구조이며 주어인 사람의 외모와 상태의 특징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예문(16-17)에서의 '马身而人面, 虎纹而鸟翼', '蜂准, 长目, 挚鸟膺, 豺声, 少恩而虎狼心'도 사람의 외모와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량성 명사술어문, 즉 수사, 'Num・CL' 구조, 'Num・CL・N' 구조가 주어의 수량적 속성을 설명 또는 평가하는 구문을 보기로 한다.

郑邵琳(2010:73)의 연구에 따르면 명사술어문은 갑골문에 이미 존재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양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단독으로 술어로 기능하였다. 갑골문 이후에는『诗经』,『左传』,『尚书』,『论语』,『孟子』,『荀子』 등에서 많은 명사술어문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자료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언급했던 예문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8) S+Num

a. 墨罚之属千, 劓罚之属千, 荆罚之属五百, 宫罚之属三百, 太辟之罚其属二百, 五刑之属三千。 (≪尚书・吕刑≫)
묵형이 1,000개 조항, 의형이 1,000개 조항, 비형이 500개 조항, 궁형이 300개 조항, 사형이 200개 조항이 있다. 다섯 가지 형벌에 대해 모두 3,000개 조항이 있다.

b. 周公相武王…灭国者五十, 驱虎、豹、犀、象而远之。 (『孟子・滕文公下』)
주공은 무왕을 도와 50개의 제후국을 멸망시켰고 호랑이, 표범, 코뿔소, 코끼리를 외딴 지역으로 몰아내었다.

(19) S+Num・N

a. 宋殇公立, 十年十一战, 民不堪命。 (『左传・桓公二年』)
송상공 즉위 후 10년 동안 열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 백성들은 부담이 커지고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었다.

b. 蟹六跪而二螯, 非蛇鳝之穴无可寄托者, 用心躁也。 (『荀子・劝学』)
게는 여섯 개의 다리와 두 개의 집게발이 있으며, 물뱀의 동굴에서 기생하여 항상 초조해한다.

(20) S+Num・CL

a. 堂高数仞, 榱题数尺, 我得志弗为也。 (『孟子・尽心下』)
전당의 높이는 몇 장으로 높고, 처마의 너비는 몇 척으로 넓으니,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어찌 도모하지 않겠는가.

b. 我二十五年矣, 又如是而嫁, 则就木焉, 请待子。 (『左传・僖公二十五年』)
나는 이미 스물다섯이고 다시 25년 후에야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관에 들어갈 때가 될 것이니,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전국시대 이전에는 전용 명량사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고 일부 도량형 양사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예문(18)과 같이 수사는 자유롭게 술어로 기능하여 주어의 수량을 명시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예문(19)처럼 수사가 직접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전국시대 후기, 도량형 양사가 예전보다 자주 등장하면서 'Num・CL' 구조가 술어로 기능하는 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예문(20)은 그러한 용례이다. 马方英((2013:32)에 의하면 『孟子』에는 'S+Num・CL' 형식의 명사술어문이 모두 33개가 등장하며 전체 명사술어문의 10.71%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 시기에는 전용 명량사가 아직 출현하지 않아서[82] 'Num・CL・N' 구조가 직접 술어로 기능하여 존재와 소유를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은 이 시기의 자료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고 시기에는 '是'가 아직 계사로 문법화되지 않았으며 판단을 나타낼 때 각종 명사성 성분이 자유롭게 술어로 기능했다. 'S+A・N' 형식의 묘사성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은 현대중국어와 매우 비슷하다. S와 N은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하고 'A・N' 술어는 주로 사람의 외모, 동물과 식물의 외형을 정태적으로 묘사한다. 수량성 명사술어문의 사용이 현대중국어와 구별되는 부분은 수사가 직접 명사를 수식하여 술어로 쓰이고 전용 명량사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와 존재관계를 표현하는 'S+Num・CL・

82) 장은영(2007)의 고찰에 의하면 전용 명량사는 선진시기에 이미 싹텄지만 진정한 발달은 한대(汉代) 이후이다.

N’ 구문과 ‘S장소+Num・CL・N’ 구문을 찾아볼 수 없다.

7.2 중고 시기의 명사술어문

먼저 판단성 명사술어문이 사용되는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한에서 위진남북조까지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 후대의 많은 문법 현상이 바로 이 시기에 태동되었거나 성숙되었고, 그 중에서 ‘是’로 나타내는 판단문의 성숙도 바로 이 시기의 중요한 문법적 현상이었다. 이른바 ‘판단문의 성숙’이란 계사 ‘是’를 사용한 구문이 판단문의 전형적인 형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상고중국어에 존재했던 다양한 형식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이 완전히 ‘是’ 판단문으로 대체되고 소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是’ 판단문의 사용 빈도가 계속 늘어나는 동시에 판단성 명사술어문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당시 계사 ‘是’를 사용하지 않고 기타 동사도 사용하지 않는 판단성 명사성술어문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을 사용했다.

① 주어+명사술어
② 주어+부사+명사술어
③ 주어+부사+명사술어+也
④ 주어, 명사술어+也
⑤ 주어+者, 명사술어+也
⑥ 주어+者, 명사술어

상술 여섯 가지 형식은 상고중국어에서 사용되었던 명사술어문의 형식이다. 대표적인 예를 ‘是’를 사용하는 예와 함께 아래에 제시한다.

(21) a. 萧中郎, 孙丞公妇父。 (『世说新语・赏誉』)
중랑 소조주(萧祖周)는 손승공(孙丞公)의 장인이다.

b. 一切诸法皆如来法也。 (『持人菩萨经』)
모든 법은 여래의 법이다.

c. 桓石虔, 司空豁之长孙也。 (『世说新语・豪爽』)
환석건(桓石虔)은 사공환활(司空桓豁)의 장손이다.

d. 陈婴者, 东阳人。 (『世说新语・贤媛』)
진영(陈婴)은 동양현(东阳县) 사람이다.

e. 余是所嫁妇人之父也。 (『论衡・死伪』)
나는 네가 장가간 부인의 아버지이다.

f. 我是老蝎也。 (『搜神记』)
나는 전갈이다.

(21a-d)와 (21e-f)를 비교해 보면 문장은 동등과 귀속관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사람의 신분을 판단함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판단성 명사술어문과 계사 판단문을 모두 사용하였다.

范妍南(2003:70)은 당 말기와 오대 시기 18편의 소설에서 사용된 판단문에 대해 통계를 내고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문어체 소설에서 계사가 없는 판단문, 즉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총 1,630개 문장으로 전체 판단문의 85%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여전히 이전 형식의 일부를 계승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2) a. 주어+명사술어
汝与环、剑, 吾之三宝。 (『陶岘』)
너와 반지 그리고 검은 나의 3가지 보물이다.

b. 주어+부사+명사술어
菩提本无树, 明镜亦非台。 (『坛经』)
道는 원래 보리수에 있지 않고, 명경 역시 경대에 있지 않다.

c. 주어, 명사술어+也
宣华夫人陈氏, 陈宣帝之女也。 (『隋书・列传第一』)
선화 부인 진씨는 진선제(陈宣帝)의 딸이다.

d. 주어+者, 명사술어+也
王仙客者, 建中中朝臣刘震之甥也。 (『无双传』)
왕선객(王仙客)은 당 건중 연간의 신하인 유진(刘震)의 조카이다.

e. 주어+者, 명사술어

张圆者, 韩弘旧吏。 (『韩公贼张圆』)
장원(张圆)은 한홍(韩弘)의 옛 관리이다.

예문(22a)에서 주어와 술어는 비유 동등관계이다. 예문(22b)는 부정판단을 나타내고, 명사성 술어 '台' 앞에 부정부사 '非'가 사용되었다. 예문 (22b, c, d, e)는 상고중국어 시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사용되어 온 의미관계로 명사성 술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어의 신분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당 말기와 오대 시기의 '是' 판단문의 사용 빈도는 동한, 위진남북조 시대보다 많아져, 중국어 판단문 형식의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특히 돈황변문(敦煌变文)으로 대표되는 구어체 소설 중에 많이 출현했다. 范妍南(2003:71)의 통계에 따르면 돈황변문에는 865개의 판단문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계사가 있는 판단문은 615개로 전체 판단문의 71%를 차지하였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23) a. 神人笑曰: "某缘是五道将军。" (敦煌变文『韩擒虎话本』)
신인이 웃으면서 "모연(某缘)은 오도장군이다."라고 말했다.
b. 你是王法罪人, 凤凰命我责问。 (敦煌变文『燕子赋』)
너는 왕법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봉황(凤凰)이 나에게 명하여 심문하게 하였다.

예문(23)을 보면 이 시기의 '是' 판단문은 문장 끝에 오는 어기사 '也'가 이미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돈황변문 중의 부정 판단문은 예문(24)와 같이 부정부사 '不'를 앞에 사용함으로써 부정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不是'가 사용된 부정 판단문은 이미 '是'의 계사 용법이 매우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24) 老人答曰: 某等不是别人, 是八大海龙王。 (敦煌变文『韩擒虎话本』)
노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다름 아닌 팔대 해룡왕이다."라고 말했다.

『祖堂集』은 오대 시기 선종(禅宗) 문헌으로, 당 말기와 오대 시기의 구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돈황변문의 사용 상황과 유사하게, 본 문헌의 판단

문은 주로 '是' 구문 위주이지만, 적지 않은 판단성 명사술어구문도 많이 등장했는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5) 第三十三祖惠能和尚, 即唐土六祖。俗姓卢, 新州人也。
제33대 조사 혜능 스님은 당토(唐土)의 여섯 번째 조사로서 속세의 성은 卢이고 신주 출신이다.

(26) 迦叶者, 禅宗初祖。
가엽(迦叶)은 선종의 초대 조사이다.

(27) 第二祖阿难尊者, 王舍城人也。
제2대 조사 아난존자(阿难尊者)는 왕사성(王舍城) 사람이다.

(25)와 (27)은 귀속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26)은 동등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是' 판단문이 당, 오대 시기에 우세했지만 구어체의 문헌에서 판단성 명사술어문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묘사성 명사술어문과 수량성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중고중국어에는 상고중국어에서 사용된 'S+A・N', 'S+Num', 'S+Num・N', 'S+Num・CL' 등 형식의 명사술어문이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며 이때부터 주어가 장소이며 술어가 'Num・CL・N' 구조인 명사술어문이 서서히 다양한 시가(诗歌) 작품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8) S+A・N

a. 一旦在位, 鲜冠利剑；一岁典职, 田宅并兼。 (『论衡・程材篇』)
일단 높은 자리에 오르면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날카로운 보검을 허리에 차고, 1년을 집권하면 땅과 집을 모두 갖게 된다.

b. 永州之野产异蛇, 黑质而白章。 (柳宗元『捕蛇者说』)
영주의 한 기이한 야생 뱀은 검은 몸에 하얀 무늬가 있다.

(29) S+Num

自天祐丙寅之间, 众上一千七百。 (『祖堂集』)
天祐丙寅 연간으로부터 제자는 천칠백 명이었다.

(30) S+Num・N

死者两千馀人。 (『三国志』)

사망자는 2천 명 이상이다.

(31) S+Num・CL

a. 人谓庾元规名士, 胸中柴棘三斗许。 (『世说新语』)

사람들은 유량(庾亮)을 명사라고 하는데, 그의 흉중에는 마른 장작과 가시가 족히 서 말이나 있다.

b. 父普, 母修, 产涣及晔。涣九岁, 晔七岁, 而母病困。 (『三国志』)

아버지 普와 어머니 修는 涣과 晔을 낳았다. 涣이 9세, 晔가 7세일 때, 어머니는 병마에 시달렸다.

(32) $S_{장소}$+Num・CL・N

a. 庭中两株桃, 夫妻各咒一株, 使相斗击。[83] (『神仙传・樊夫人』)

정원에 복숭아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부부가 나무에 주문을 걸어 서로 싸우게 하였다.

b. 花间一壶酒, 独酌无相亲。 (李白『月下独酌四首・其一』)

꽃들 사이에 술 한 병이 있는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기에 자작을 한다.

예문(28a)의 술어 위치에 나온 성분은 'A・N' 형식으로 의복의 특징을 나타내고, (28b)는 'A・N' 구조를 사용하여 '蛇(뱀)'과 같은 동물의 특정 기관이나 외형적인 특징을 설명했다. 예문(29-30)은 상고중국어 초기에 등장한 수사와 'Num・N' 구조가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이고. 예문(31a)의 술어는 '수사+도량형 양사'이며, (31b)는 '수사+岁'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연령을 표현한 사례이다. 비록 상고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중고 시기에 출현한 예문(32)와 같은 '$S_{장소}$+Num・CL・N' 구조의 명사술어문은 현대중국어의 용례와 동일하지만 주로 어떤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의미유형이다. 이 시기에는 '一・Ncl・N'의 구조를 술어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외에도 중고중국어 시기에는 구어체로 쓰인 문헌도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世说新语』이다. 『世说新语』는 남북조시대의 남조(南朝) 刘义庆이 쓴 전

83) 王建军(2003)에서 인용.

래소설로 위, 진, 남북조 시대의 구어가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 저명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유행했던 구어체로 쓰였지만 어휘와 문법 등 여러 방면에서 상고중국어를 계승 및 발전시켰으며, 일부 옛 문법 현상과 새로운 문법 현상이 동시에 출현하기도 했다. 王雪(2010:28)은 그의 연구에서『世说新语』에 사용된 명사술어문에 대해 통계 및 분석을 진행했다. 수량사가 술어로 사용된 경우가 75건인데, 60건은 사람의 나이를 표현했으며, 나머지는 도량형 수량을 나타냈다. 예문(33), (34), (35), (36)은 그중 일부 용례이다.

(33) 时荀子年三十。

당시 순자의 나이는 30세였다.

(34) a. 太傅时年七八岁。

태부는 그 당시에 7~8세였다.

b. 时孔融儿大者九岁, 小者八岁。

당시 공융의 큰아들은 아홉 살, 작은 아들은 여덟 살이었다.

c. 王戎七岁, 尝与诸小儿游。

왕융이 일곱 살 때,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35) a. 桓公北征经金城, 见前为琅邪时种柳, 皆已十围。

환공이 북벌을 위해 금성을 지나는데 이전에 낭야에서 재직했을 때 심었던 버드나무를 보니, 이미 자라서 굵기가 열 아름이나 되어 있었다.

b. 惠子其书五车, 何以无一言入玄？

혜자는 다섯 수레나 되는 책을 썼는데 왜 玄学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습니까?

c. 乃命左右悉取珊瑚树, 有三尺、四尺, 条干绝世, 光彩溢目者六七枚。

그래서 하인에게 집안의 모든 산호나무를 내놓으라고 하니, 3~4척이나 되는 줄기와 가지가 빼어나고, 광채가 눈부신 것이 6, 7그루나 되었다.

(36) 至期遣妻, 百姓号泣追呼者数万人。

아내를 보낼 때가 되자 백성들이 소리 내어 울면서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다.

그렇다면 중고시기에 계사 '是'의 뒤에 'A・N' 구조, 수사, 'Num・CL' 구조, 'Num・CL・N' 구조, 'N1・N2' 구조가 사용된 사례가 있을까?

安俊丽(2019)는『世说新语』에 등장한 총 262개의 '是' 구문을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 150개가 판단을 나타냈으며 '是' 뒤에 출현한 성분은 모두 명사구였다. 그러나 수량사를 포함한 명사 구조와 'A・N' 구조는 발견하지 못했다.『世说新语』의 자료에서 'Num・CL・N' 구조는 현대중국어처럼 동사 '有'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주어와는 소유관계를 형성한다. 아래의 예문(37)이 바로 이러한 사례이다.

(37) 孔文举有二子, 大者六岁, 小者五岁。
공문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6세, 작은아들은 5세였다.

이상으로 중고 시기 명사술어문의 사용 상황을 분석했다. 통사구조와 의미유형은 상고 시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是'의 계사 기능이 성숙됨에 따라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是' 판단문과 같이 사용되면서 빈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7.3 근대 시기의 명사술어문

현재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판단형 명사술어문의 각종 하위 유형들이 근대중국어 시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구체적인 예문을 보기로 한다.

먼저 맨명사와 'N1・N2' 구조가 술어 기능을 함으로써 주어와 동등 또는 귀속관계를 나타낸 사례이다.

(38) 学生贱名倪鹏, 字时远, 号桂岩。 (『金瓶梅』)
학생의 천명은 예붕, 자는 시원, 호는 계암입니다.

(39) a. 一个姓顾, 名萦, 号肯堂, 浙江绍兴人。 (『儿女英雄传』)
한 명의 성은 고이고, 이름은 영, 호는 긍당, 절강 소흥 사람이다.

b. 张先生道: “晚生粗鄙下士, 本知见浅陋。” (『红楼梦』)
장선생은 “후배는 누추한 하관으로 식견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다.

예문(38)에서 ‘学生贱名’과 고유명사 ‘倪鹏’은 동등관계를 형성한다. 예문(39a)에서의 ‘浙江绍兴人’은 주어의 본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39b)에서의 ‘粗鄙下士’는 주어의 행위 속성을 나타내며 두 문장은 모두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명사술어문이다.

두 번째는 시간명사가 술어로 사용되어 동등관계를 표현한 예이다. 비교를 하기 위해 시간명사가 술어로 사용된 경우, 계사 ‘是’가 들어간 구문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40) 前日四月二十六日, 我这里做遮天大王的圣诞, 人也来的少。 (『红楼梦』)
전날은 4월 26일이었는데 내가 있는 이곳은 遮天大王의 탄신일이어서 사람이 적게 왔다.

(41) a. 今日初八, 乃戊申之日, 猿猴献果, 正宜进贤纳事。 (『西游记』)
오늘은 초파일이면서 또한 무신일로, 손오공이 열매를 봉헌하니, 마침 그를 인재로 등용하여 일을 맡기기에 적합하였다.

b. 有一人云, 今日是初三。官历上写来。村里人道是初四。 (南宋『古尊宿语录』)
어떤 한 사람이 오늘은 초삼일이라고 했다. 관력에 그렇게 쓰려하니, 마을 사람이 초사일이라고 했다.

(42) a. 士隐笑道: “今夜中秋, 俗谓‘团圆之节’。想尊兄旅寄僧房, 不无寂寥之感, 故特具小酌, 邀兄到敝斋一饮。” (『红楼梦』)
사음이 웃으며 “오늘 추석 밤을 흔히 ‘단원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존형을 승방에 기숙하게 하고 싶었지만, 적막한 느낌이 들어 특별히 조촐한 연회를 갖추어 존형을 저의 집에 초대하여 한 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b. 明日是中秋佳节, 我撺掇孺人就完成了罢, 等甚么日子? (『二刻拍案惊奇』)
내일은 추석 명절인데, 내가 孺人을 부추기면 그만이지,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43) a. 小云道: “你不懂得, 明天冬至, 今天晚上叫‘冬至夜’。”
(『二十年目睹之怪现状』)
소운은 “당신은 몰라요, 내일은 동지라서, 오늘 밤을 ‘동지밤’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b. 此时十一月天气, 明天已是冬至。 (『二十年目睹之怪现状』)
지금은 11월의 날씨인데 내일이 벌써 동지이다.

예문(40)의 ‘前日四月二十六日’은 청대의 『红楼梦』에 나온 문장으로 날짜를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이다. 예문(41)도 날짜를 나타내는 문장인데 (41a)는 명사술어문을 사용하였고 (41b)는 ‘是’ 구문을 사용하였다. 예문(42a)는 명절을 표현한 명사술어문이고, 예문(42b)는 ‘是’를 사용하여 명절을 표현한 문장이다. 예문(43a)는 절기를 표현한 명사술어문이고, 예문(43b)는 같은 소설에서 ‘是’를 사용하여 절기를 표현한 예이다. 근대중국어 시기에는 ‘今天星期一’와 같이 요일을 표현한 사례는 없었다. CCL 코퍼스를 통해 검색해 보면 요일 표현의 사례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민국 시기임을 알 수 있다.[84] 예문(44)는 민국 시기의 한 소설 작품에 출현한 시간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是’가 출현하고, 어떤 때는 ‘是’가 출현하지 않는데, 특히 시간명사 술어 앞에 부사가 출현하면 반드시 ‘是’를 사용해야 한다.

(44) a. 我查日历, 前日便是星期五。 (民国『留东外史』)
내가 달력을 보니, 어제가 바로 금요일이었다.

b. 明日星期一, 他学校开课, 我只得于今日搬进去。 (民国『留东外史』)
내일은 월요일이라 그의 학교가 개강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사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의문대명사가 술어로 기능한 현상이다.

84) 민국 시기 이전에는 ‘요일’의 개념이 없었다.

(45) a. 问曰: “相者谁?”曰: “刘纲。” “侍者谁?” 曰: “茅盈。” (北宋『太平广记』)
“상관이 누구냐?”고 묻자 “유강”이라고 답했다. 그럼 “시종은 누구냐?”고 물으니, “모영”이라고 답했다.

b. 师问: “汝是谁?”对曰: “法昕。”师曰: “我不识汝。” (南宋『五灯会元』)
선생님이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묻자, “범흔”이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나는 당신을 모르오.”라고 말했다.

(46) a. 秦义龙遂出了禅堂, 站在角门里问道: “外面哪位?” (清『三侠剑』)
진의룡은 참선당을 나와 모퉁이 문에 서서 “밖에 누구십니까?”라고 물었다.

b. 刘云问道: “小姐, 你的义父是哪位?” (清『三侠剑』)
유운은 “아가씨, 당신 의부가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예문(46)은 의문대명사 ‘谁’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 ‘哪’로 구성된 ‘哪位’를 직접 술어로 사용함으로써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였고, 동시에 주어와 술어는 동등관계임을 나타냈다. 이 용법은 일반적으로 대화의 맥락에서 나타난다. 현대중국어와 마찬가지로 ‘谁’와 ‘哪位’ 앞에는 예문(45b-46b)처럼 계사 ‘是’가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X的’ 구조가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이다. 구조조사 ‘的’은 일찍이 ‘底’자로 쓰였는데, 韩昱(2011)의 통시적 조사에 따르면 ‘底’자가 구조조사로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는 당과 오대로 돈황변문에는 ‘V底’로 끝나는 문장이 등장했다.

(47) 善德！莫将浮贿施为, 非是菩萨行藏, 此是俗门作底。 (『维摩诘经讲经文(六)』)
선덕!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것은 보살의 행장이 아니라, 속가에서 하는 것이다.

예문(47)에서 ‘俗门作底’는 현대중국어의 ‘俗门做的’에 해당하는데, 이는 관계절 ‘俗门做’를 명사화한 구조이지만, ‘俗门作底’는 직접 문장의 술어가 되지 않고 ‘是’와 같이 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구조조사 ‘的’은 원(元)나라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훗날 점차 ‘底’를 대체했다. 명사화된 ‘X的’ 구조는 일반적으로 모두

계사 '是'의 뒤에 쓰이는데『朴通事』의 대화문에서 예문(48)과 같은 예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48) A: 叫将那剃头的来。你的刀子快也钝？
그 머리를 깎았던 사람을 불러주세요. 당신의 칼은 예리합니까 아니면 무딥니까?
B: 我剃头的, 管甚麽来刀子钝？ (元『朴通事』)
내가 머리를 깎은 사람인데 칼이 무딘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문(48)에서, '剃头的'은 'V的' 구조로 '从事剃头这个职业的人(머리를 깎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시한다. 여기서 문맥을 고려하면 '我剃头的'이라는 문장의 의미는 '我是剃头的(나는 머리를 깎는 사람이다.)', '我是一个剃头的'과 같은데 대화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계사 '是'가 출현하지 않더라고 청자가 '我'와 '剃头的' 사이의 주술 관계를 판단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대에는 '是……的' 구문이 많이 출현했지만 명사화된 'X的' 구조가 직접 술어로 사용된 사례는 오히려 드물다. 대화에서도 예문(49)와 같이 '是'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CCL 코퍼스에서는 예문(50)과 같은 사례만 발견되었다.

(49) 问说: "原是谁家小青梅？"回说: "是东门里头刘奶奶家的。"(『醒世姻缘传』)
"원래 어느 댁의 규수인가?"라고 물으니, "동문 안에 있는 류 할머니 댁의 규수"라고 대답했다.

(50) 禅师道: "唐状元, 你不要错认了, 那喜鹊是个定风旗儿, 木头刻的, 只有一拳之大, 岂可就容易连中三箭。" (明『三宝太监西洋记』)
선사는 "당장원, 오인하지 마시오. 그 까치는 풍향기인데 나무에 새긴 것으로 겨우 한주먹 크기밖에 안 되는데 어찌 쉽게 세 개 화살을 연속해서 맞출 수 있겠소."라고 말했다.

예문(50)에서 '木头刻的'은 주어인 '까치(喜鹊)'의 재료와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X的' 구조와 주어 사이에 긴 휴지가 있기 때문에 계사 '是'가 출현하지 않았다.

韩昱(2011)에 따르면 '是……的' 구문의 형성은 청대에 완성되었으며 용법과 기능은 현대중국어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판단을 나타내는 '是……的' 구문에서 '是'가 생략되는 경우는 여전히 많지 않다. 대화에서만 예문(51)과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51) 小子也有一句，请问大王，我放债的，刻薄了招怨生祸，损人利己；那借债的，不还行骗，可有罪过么？ (清『东度记』)

소인도 한 마디 대왕께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데 각박하여 남에게 원한을 사서 화를 부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 빚쟁이가 속이고 빚을 갚지 않는데 이게 죄가 됩니까?

구조조사 '的'이 출현한 원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의 코퍼스 자료를 관찰한 바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와 같이 'X的' 구조는 술어로 사용될 때 '是'를 생략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문장에서 '是'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는 앞선 대화에 이미 출현했거나 주어와 술어 사이에 긴 휴지가 있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묘사성 명사술어문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자.

(52) S+A・N

a. 王庆看那渔人，身材长大，浓眉毛，大眼睛，红脸皮。 (『水浒传』)

왕경이 그 어부를 보니 키가 크고 눈썹이 짙으며 눈이 크고 얼굴이 붉었다.

b. 姑娘好性儿！ (『红楼梦』)

아가씨는 성격이 좋다.

c. 那个老头儿年有六十多岁，赤红脸，花白的胡子，手中拿着有四串钱。 (『康熙侠义传』)

그 노인은 예순이 넘었는데, 얼굴이 붉고 수염이 희끗희끗하며 손에는 네 꿰미의 돈을 쥐고 있었다.

d. 他是园里南角子上夜的，白日里没什么事，所以姑娘不大相识。大大的

眼睛，最干净爽利的。 (『红楼梦』)

그는 정원 남쪽 모퉁이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낮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가씨가 잘 알지 못한다. 그는 눈이 크고 가장 깔끔한 사람이다.

e. 再看那福喜时，只见他黑漆漆的一头头发，水汪汪的一对眼睛，虽然姿貌平平，却还没有什么怪相。 (『九尾龟』)

다시 그 복희를 보았을 때, 그는 까만 머리칼과 물방울이 맺힌 두 눈을 갖고 있었다. 자태는 평범했지만, 별다른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f. 你这么个人，只这么大胆子儿。 (『红楼梦』)

너처럼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도 대담하지 못하다니.

(53) S+N1・N2

a. 第三个就是新娶的孟玉楼，约三十年纪，生得貌若梨花，腰如杨柳，长挑身材，瓜子脸儿，自是天然俏丽。 (『金瓶梅』)

셋째는 새로 부인으로 맞은 맹옥루인데, 약 30세 나이로 배꽃처럼 생겼고, 허리는 버드나무 같고, 늘씬한 몸매에 갸름한 얼굴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b. 小和尚道: “一个山东口音，一个好像苏州口音。” (清『七剑十三侠』)

동자승은 ‘한 명은 산둥 말씨, 또 한 명은 쑤저우 말씨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52a)에서 쓰인 ‘浓眉毛，大眼睛，红脸皮’와 (52b)에서 쓰인 ‘好性儿’은 모두 성질형용사가 일가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술어로 기능하고 주어의 외형적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52c, d, e)에서 쓰인 ‘花白的胡子’, ‘大大的眼睛’, ‘黑漆漆的一头头发，水汪汪的一对眼睛’은 각각 이음절 상태 형용사가 일가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중첩형식의 상태형용사가 일가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그리고 ABB 형식의 상태형용사가 일가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52f)에서 쓰인 ‘这么大胆子儿’은 부사와 성질형용사가 일가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다. (53)에서 쓰인 ‘瓜子脸儿’와 ‘山东口音，苏州口音’은 ‘N1・N2’ 구조인데 표현 기능은 ‘A・N’과 마찬가지다. 예문(52), (53)을 보면 현대중국어에서 쓰이는 여러 형식의 묘사성 명사술

어문이 근대 시기에도 모두 출현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량성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54) S+Num/Num・N

a. 我今年七十五了。 (『红楼梦』)

나는 올해 75세이다.

b. 大家约二十来人。 (『红楼梦』)

모두 대략 20여 명이다.

(55) S+Num・CL

a. 甄府中送来的礼单, 也令人咂舌, 上用的妆缎蟒缎十二匹, 上用杂色缎十二匹, 上用各色纱十二匹。 (『红楼梦』)

甄府에서 보내온 선물 목록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장단과 망단이 12필, 잡색 공단이 12필, 다양한 색상의 면사가 12필이었다.

b. 这宅子前后五十余间。 (『金瓶梅』)

그 집은 앞뒤로 50여 개 방이 있다.

c. 这些东西, 不过三千两(银子)。 (『红楼梦』)

이것들은 단지 삼천 량(은자)이다.

(56) S+Num・CL・N

a. 最讨人嫌的是杨树, 那么大树, 只一点子叶子。 (『红楼梦』)

가장 짜증나는 것은 백양나무인데, 그렇게 큰 나무가 잎이 조금밖에 없다.

b. 他家也只这一个女孩儿。 (『金瓶梅』)

그의 가족은 단 한 명의 딸뿐이다.

c. 老爷依然一副正经面孔。 (『儿女英雄传』)

노인은 여전히 진지한 얼굴이었다.

(57) S장소+Num・CL・N

a. 走了里许, 好容易看见路南头远远的一个小村落, 村外一个大场院, 堆着大高的粮食。 (『儿女英雄传』)

몇 리를 걷다 보니 남쪽 길모퉁이 멀리 작은 마을이 보이고 마을 밖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데 곡식이 높다랗게 쌓여 있었다.

b. 一时参了场, 台下一色十二个未留发的小丫头, 都是小厮打扮, 垂手伺候。 (『红楼梦』)

잠시 무대에 올라보니, 무대 아래에는 머리가 자라지 않은 12명의 여자 아이들이 하인으로 분장하고 손을 공손히 모으고 시중들고 있었다.

c. 况且这屋子里一股药香。反把这花香搅坏了。 (『红楼梦』)

게다가 이 집은 약 냄새로 가득했다. 도리어 이 꽃의 향기를 망가뜨렸다.

d. 脸上一团私欲愁闷气色。 (『红楼梦』)

얼굴에는 사리사욕에 침울한 기색이 역력했다.

(58) S+一・Ncl・N

a. 你道你是保定府人, 听你说话, 分明是京都口吻, 而且满面的诗礼家风, 一身的簪缨势派, 怎的说得到是保定府人? (『儿女英雄传』)

너는 네가 바오딩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북경 말투이고, 게다가 만면에는 시례가풍이, 온몸에는 귀인의 기품이 보이는데, 어찌 바오딩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b. 萧雅一脸麻子, 眼眶齿露, 好似飞天夜叉模样。 (『今古奇观』)

소아는 곰보가 가득한 얼굴에, 눈이 움푹 들어갔고 이빨이 튀어나온 것이 마치 하늘을 나는 야차 같다.

c. 陶氏娘子一肚子委曲, 自己将门倒着锁了, 奔向观音庵。 (『三侠剑』)

도씨 낭자는 온통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문을 거꾸로 잠그고 관음암으로 달려갔다.

(54), (55), (56)은 상고중국어부터 근대중국어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던 수량성 명사술어문이다. 상고중국어와 중고중국어의 관련 문헌에서 'S+Num・CL・N' 구조의 명사술어문이 사용되었던 사례를 찾을 수 없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근대중국어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문(56a)에서 'Num・CL・N' 구조 '一点叶子'의 주어는 선행하는 '大树'이고, 주어와 술어 사이에 범위부사 '只'가 출현한다. '叶子'는 '大树'의 부분이고, 둘 사이에는 소유관계가 성립하지만 별도

의 소유동사 '有'가 사용되지 않는다. 예문(56b)는 가족 구성원 소유 문장이며 역시 동사 '有'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현대중국어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예문(56c)와 같은 용법도 현대중국어에서 여전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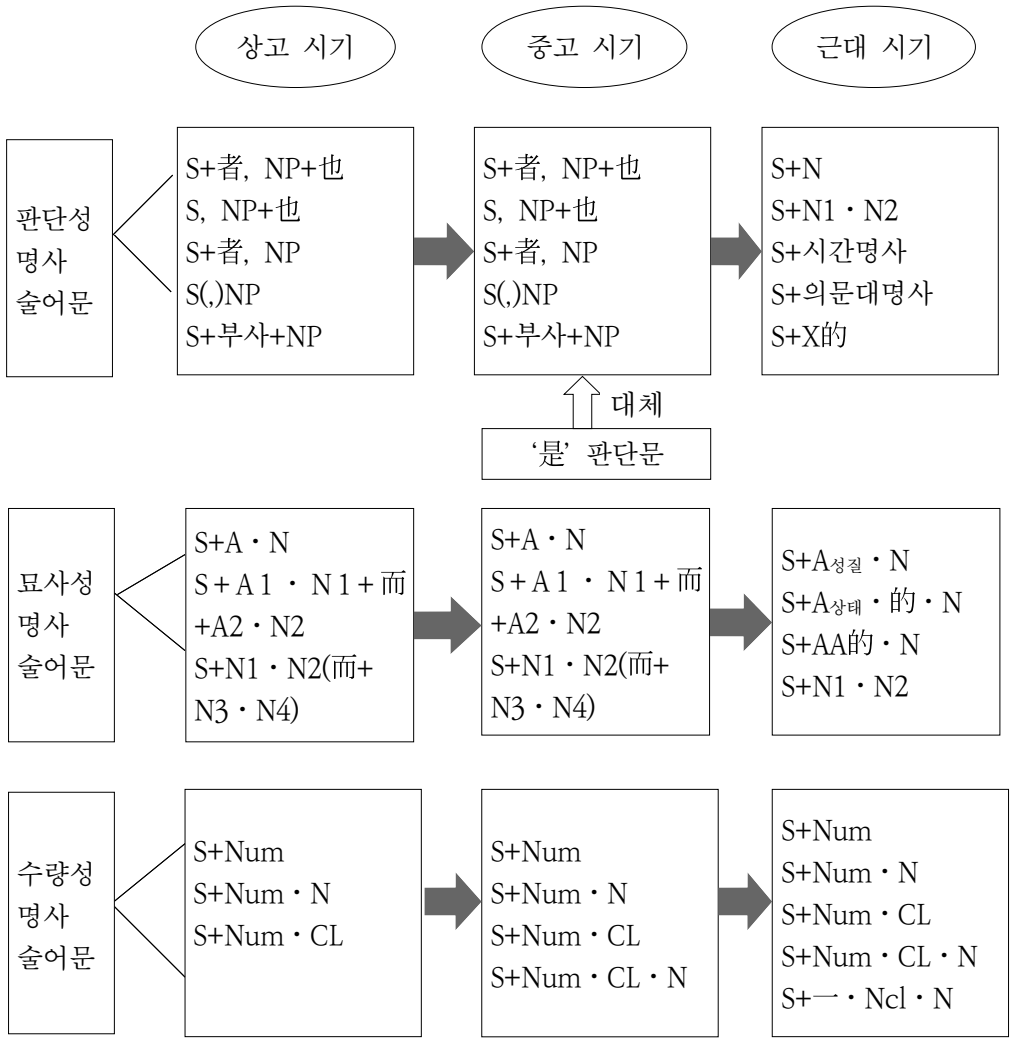
위에서 제시한 중고중국어 시기의 'S장소+Num・CL・N' 형식의 예문은 주로 시가 작품에 등장하였으며 용례가 비교적 적었지만, 근대중국어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유형의 명사술어문 용례는 현저하게 증가했다. '어떤 곳에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예문(57a-b)와 같은 사례 외에도 예문(57c-d)에서 제시한 '어떤 곳에 어떤 추상 사물이 존재한다.'와 같은 의미의 예문도 출현했다.

'S+一・Ncl・N' 구조의 명사술어문은 근대 시기에 처음으로 출현했다. 예문(58a)에서 '一身的簪缨势派'와 그 앞의 '满面的诗礼家风'은 병렬 형식을 이루어 모두 주어 '你'의 속성과 특징을 묘사 및 설명하고 있다. 예문(58b)는 주어 '萧雅'의 외모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一脸麻子'를 술어로 사용하였다. 예문(58c)의 '委曲'는 명사와 형용사의 추상적 겸어로서, '一肚子委曲'는 주어 '陶氏娘子'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CCL 코퍼스 근대 시기의 문헌에서 '一脑袋+N', '一头+N', '一嘴+N', '一嘴巴子+N', '一腔+N' 등이 직접 술어로 사용된 용례를 검색할 수 있었다.

蒋绍愚(2005:2)는 "현대중국어의 문법은 근대중국어의 문법이고 상용어휘 또한 근대중국어의 상용어휘로 근대중국어의 기초에서 발전된 것일 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근대중국어 시기의 다양한 명사술어문의 형식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와 의미유형이 모두 근대중국어에서 이미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판단성 명사술어문, 묘사성 명사술어문, 수량성 명사술어문이 시기별로 사용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고찰을 통해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이 갖는 구조와 의미 측면의 공시적 변이는 명사술어문의 통시적 변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대중국어에서 수량구는 비교적 자유롭게 술어로 기능하는 반면, 판단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은 사용 빈도가 낮고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했듯이 상고, 중고, 근대 각 시기의 명사술어문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상고 시기 명사술어문의 전형적인 유형이며 계사 '是'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是' 구문의 기능 확장으로 단순한 명사나 명사구가 술어로 쓰이는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

고 'Num・CL' 형식, ''Num・CL・N' 형식, 'A・N' 형식이 술어로 기능하는 비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졌다. 예컨대, 임시명량사가 탄생하였고 근대 시기에 '一・Ncl・N' 형식이 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된 명사술어문의 유형은 대부분 근대 시기에 이미 출현하였다. 이러한 통시적 변천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7-1〉 명사술어문의 통시적 변천

7.4 소결

이 장에서는 시대별로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동한(东汉), 즉 '是'가 계사로 문법화되기 이전에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주로 'NP者, NP也'의 형태를 사용하거나 두 명사성 성분을 직접 병치하거나 술어를 부사로 수식하여 주어와 술어를 구분했다. 상고중국어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이 표현하는 의미는 현대중국어보다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특히, 주어의 본적, 지위 등을 기술하기 위해 명사성 술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상고중국어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수사, 'Num・N' 구조, 'Num・CL' 구조는 모두 휴지 없이 바로 주어 뒤에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의 외모 특징을 표현하는 'A・N', 'N1・N2' 구조가 직접 술어로 쓰일 때는 같은 구조의 두 성분이 함께 사용되며 중간에 '而'로 연결이 되고 주어와 술어 사이에 휴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상고중국에서는 'Num・CL・N' 구조가 소유와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술어로 직접 사용되는 현상이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동한 시기부터 당과 오대에 이르기까지 '是' 구문이 점차 'NP者, NP也'의 판단 형식을 대체하였지만 'S+NP', 'S+부사+NP' 형태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여전히 사용되었고 'S+부사+NP' 판단 명사-술어 문장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A・N', 수사, 'Num・N' 구조, 'Num・CL' 구조가 술어로 기능하는 상황은 상고중국어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으며 'Num・CL・N' 구조가 존재문에서 사용되는 현상은 일부 시가 작품에서 발견되었다. 송나라에서 청나라까지의 근대중국어에서는 시간명사, 의문대명사와 '的' 구조가 술어로 사용되는 현상이 많이 관찰됐다. 또한 '他家也只这一个女孩儿'와 같이 'Num・CL・N' 구조가 소유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구조가 존재문에서 쓰이는 사례도 더이상 시가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기타 여러 소설 작품에도 등장했다. 무엇보다 '一・Ncl・N' 구조를 직접 술어로 활용한 사례도 이 시기에 처음 등장했다. 요컨대 상고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명사술어문의 유형은 단순히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해졌다.

제8장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유형론적 특성

8.1 명사술어문의 범언어적 사용 양상

WALS의 설명에 의하면 명사성 성분이 술어로 기능할 때는 계사가 없는 언어부터 계사를 반드시 사용하는 언어까지 연속체를 형성한다. 이 연속체의 한쪽은 타갈로그어(Tagalog), 신할라어(Sinhalese)와 같이 계사가 없고 명사성 성분이 술어로 기능할 때 영계사 방책을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에서 명사성 성분은 자유롭게 술어로 기능한다. 다른 한쪽은 영어, 핀란드어, 태국어처럼 영계사 방책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언어에는 명사술어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黃育妙(2017)에 의하면 영계사 언어인 타갈로그어에서는 '명사술어+(초점표지 ang)+주어' 형식의 명사술어문을 사용한다. 어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타갈로그어와 상고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은 거의 일치하고 주어와 명사술어 사이에 모두 화제표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1-3)이 대표적인 예이다.

(1) Huwebes ngayon. [85]
星期四 今天
今天星期四。
오늘은 목요일이다.

(2) Isanlibong yuan ang kanyang sweldo.
千 元 话题标记 他的 月薪
他每月的工资1000元。
그의 한 달 월급은 천 위안이다.

(3) Ltim ang buhok ng aking bunsong kapatid na babae.
黑 话题标记 头发 的 我的 妹妹
我妹妹的头发很黑。

85) 黃育妙(2017)에서 인용.

내 여동생의 머리카락은 검다.

예문(1-2)는 각각 판단성 명사술어문, 수량적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이다. 화제표지 'ang'은 출현할 수도 있고 (1)에서 보듯이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고중국어와 현대중국어에서는 'A・N' 구조가 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타갈로그어에서는 형용사술어문을 사용해야 한다.

영계사 언어에서 계사 언어까지의 연속체의 사이에 있는 언어는 계사를 사용하는 언어인데 계사가 특정 담화 상황에서 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언어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언어에서 명사술어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용된다.

Jespersen(1924:120-122), Pustet(2003:34-35)에 따르면 러시아어에서 명사술어문은 일반적으로 현재시제로만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시제는 계사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4) a. éto dom
这 房子
这是房子。
이것은 집이다.

b. éto by-l dom
this COP-3SG.MSU.PST house
这 系词-3人称.阳性.过去时 房子
这以前/曾经是房子。
이것은 집이었다.

예문(4)는 주어와 술어 간의 동등관계를 판단하는 문장으로 주어는 지시대명사이고 술어는 사물명사이다. (4a)는 현재시제이기 때문에 계사가 나오지 않고, 명사술어문의 형식을 사용했고, (4b)는 과거시제를 표현하기 때문에 계사가 강제로 출현했다. 중국어와 비교를 해보면, '대명사+명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这房子'와 같은 구조는 중국어에서 명사술어문이 될 수 없으며, 구로만 인식이 된다. 같은 의미를 중국어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표현하든 과거 상

황을 표현하든 모두 '是'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张凤(2016:60)도 현대러시아어는 현재시제에서 계사 есть를 사용하지 않고 서면어에서는 '——'로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계사 есть는 그 뒤에 나오는 성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문장을 보자.

(5) Моя сестра — учительница.
我的妹妹——老师
我的妹妹, 老师。
내 여동생은 선생님이다.

(6) Киты — млекопитающие.
鲸鱼——哺乳动物
鲸鱼, 哺乳动物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예문(5-6)은 주어와 명사술어의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명사술어문으로, 계사 대신 주어와 술어 사이에 부호 '——'를 사용하여 주어와 술어를 구분하면서 연결하였다. 이러한 기호는 중국어에서 주어와 술어 사이에 하나의 짧은 휴지를 두는 것과 비슷해서 주어와 술어를 분리하고 청자로 하여금 둘 사이의 관계를 판단할 시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귀속관계 외에도 술어가 주어의 신분을 설명하고, 주어와 동등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를 보자.

(7) Столица Франции — Париж.
首都 法国 — 巴黎
法国的首都, 巴黎。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다.

(8) Этот человек — Антон.
这 人 — 安东
这人, 安东。

이 사람은 안톤이다.

(7)과 (8)에서 주어로 쓰인 명사와 술어로 쓰인 명사는 화자에게 친숙한 개체이며, 전체 구조의 기능은 둘 사이의 동등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귀속 또는 동등관계를 판단하는 것 외에 러시아어에서는 수량구와 시간명사가 직접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9) Мой идеальный вес — 45 кг.
我的 理想的 重量 — 45kg
我的理想体重45公斤。
나의 이상적인 몸무게는 45kg이다.

(10) Сегодня воскресенье.
今天 星期天
今天星期天。
오늘은 일요일이다.

Hengeveld(1992:190-191)에 따르면 아시아-아프리카어족(Afro-Asiatic family)에 속하는 현대히브리어(Modern Hebrew)에서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시제에 따라 형태적 변화가 있다. 히브리어에는 대명사성 계사 'hu'와 동사성 계사 'h.y.y'가 동시에 존재한다. 대명사성 계사 'hu'는 논항의 수(number)와 성(gender)과 일치를 이루고 현재시제에서는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 Sara (hi) mora.
Sara (是) 老师
'Sara 她 老师.'
萨拉, 老师。
萨拉是老师。
사라는 선생님이다.

(12) Yossi ve Dan (hem) xaverim.
约西和丹 (是) 朋友
‘约西和丹 他们 朋友.’
约西和丹，朋友。
约西和丹是朋友。
요세와 단은 친구이다.

(13) Ata (hu) hexasud.
你 (是) 犯罪嫌疑人
‘你 他 犯罪嫌疑人.’
你，犯罪嫌疑人。
你是犯罪嫌疑人。
당신은 용의자이다.

(11)에서 주어는 3인칭 단수이며 이와 일치하는 계사의 형식인 ‘hi’가 사용되었고 (12)에서 주어는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이와 일치하는 ‘hem’이 사용되었으며 (13)에서 주어는 2인칭 단수이며 ‘hu’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11-13)은 모두 현재시제이기 때문에 대명사성 계사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중국어에서는 휴지가 있는 명사술어문 형식을 사용하거나 ‘是’ 구문을 사용한다.

동사성 계사 ‘h.y.y’의 사용도 시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 단어는 시제에 따라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과거와 미래시제에서는 ‘h.y.y’의 변형 형식인 ‘haya’가 쓰이고 현재시제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히브리어에서 명사술어문의 사용은 현재시제와 주어의 인칭(3인칭)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히브리어 외에 **헝가리어도 이러한 언어이다.**

헝가리어는 우랄어족(Uralic languages) 핀우그리아어파(Finno Ugric languages)에 속하는 교착어이고 과거시제에서 형용사나 명사가 술어로 기능할 때는 계사 ‘van’을 요한다. 그러나 현재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일 때는 계사가 출현하지 않는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14) a. ez egy szék volt[86)]
this IDF.SG chair COP.PST.IND
这 无定.单数 椅子 是.过去时.直叙法
这以前是一把椅子。
이것은 의자였다.

b. ez egy szék
this IDF.SG chair
这 无定.单数 椅子
这是一把椅子。
이것은 의자이다.

(14a)는 과거시제의 문장이며 계사 'van'의 과거 형식 'volt'는 문말에 나타난다. 반대로 (14b)는 현재시제의 문장이며 주어도 3인칭이고 계사 'van'은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14)에서 주어와 술어가 동등관계이며 주어가 지시대명사 '这'인 경우 현대중국어는 '是'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지시대명사가 직접 명사를 수식,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这一把椅子'는 주술 구조가 아닌 수식 구조일 수밖에 없어서이다. 다음 예문을 더 보기로 한다.

(15) Én tanár vagyok
I teacher be-lSG.PRES
我 老师 是-1人称.现在时
我, 老师。
我是老师。
나는 선생님이다.

(16) Ö diak
他 学生
他, 学生。
他是学生。

86) Pustet(2003)에서 인용.

그는 학생이다.

(15)와 (16)은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며 모두 현재시제이다. 그러나 (15)에서는 계사가 나타나고 (16)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5)의 주어가 1인칭 단수이고 (16)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다. 헝가리어의 명사술어문은 현재시제뿐만 아니라 3인칭 주어를 가진 문장으로도 제한된다.

알타이어족(Altaic languages) 튀르크어파에 속하는 터키어(Turkish)에는 자립형식의 계사가 없고 반드시 접미사 형태로 다른 명사에 붙어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 그리고 명사술어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형식인 문장에서만 사용된다. 아래의 (17)이 이러한 예이다.

(17) babası mühendis
她父亲 工程师
她父亲工程师。
그녀의 아버지는 엔지니어이다.

(17)은 터키어에서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이다. 문장은 현재시제이기 때문에 접미사 형식의 계사 성분 'dir'가 출현하지 않았다.

정리해 보면 계사가 있는 일부 언어에서 명사술어문은 현재시제와 주어가 3인칭일 때만 사용될 수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이러한 언어들이 대부분 굴절어나 교착어인데, 동사의 형태적 변화가 풍부하고, 동사성 계사는 과거나 미래시제에도 형태 변화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제와 인칭 외에 화제표지의 사용도 일부 언어에서 명사술어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계사를 사용하는 언어이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전용 화제표지가 있는 언어이다. 두 언어에서 NP는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계사와 같이 사용해야 하지만 구어에서는 화제표지만 쓰고 계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자.

(18) a. 彼氏 は フランス人 (です).
男朋友 话题标记 法国 人 (是)

男朋友(是)法国人。
남자친구는 프랑스사람(이다).

b. 아빠는 의사, 엄마는 교원(이다).
爸爸医生，妈妈教师。

예문(18a)는 일본어의 예이다. 'は(wa)'는 화제표지이며 구어에서 계사 'です(desu)'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문(18b)는 한국어의 예인데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은/는'도 화제표지이며 많은 구어 표현에서는 계사 '이다'가 생략될 수 있다.

何文勇(2010)과 潘武俊英(2010)은 베트남어(Vietnamese)에는 다양한 구조와 의미유형의 명사술어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潘武俊英(2010:76)은 베트남어의 판단동사(즉, 계사)는 'là'이고 두 사물 사이의 동등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동시에 화제표지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là'가 두 NP를 연결하고 계사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한 구조 및 의미조건에서는 출현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어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술어 부분은 현대중국어처럼 'N1・N2' 구조, 맨명사, 시간명사, 장소명사, 의문대명사로 충당할 수 있지만, 'X的' 구조는 예외이다. 비록 베트남어에는 중국어의 구조조사 '的'에 대응되는 'của'가 있지만, 중국어와 달리 이는 명사, 대명사, 동사 등과 함께 명사성 구조를 형성할 수 없으므로, '这本书我的', '那杯茶凉的', '她卖酒的'과 같은 명사술어문이 베트남어에서 성립되려면 반드시 동사술어문으로 변환해야 한다. 일례로 몇 가지 유형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9) Anh ta, giáo sư.
他　　教授
他，教授。
그는 교수다.

(20) Tiểu lý thay giáo trung học.
小李　　老师　　中学

小李中学老师。

샤오리는 중학교 선생님이다.

(21) Anh ta người Vũ Hán.

他 人 武汉

他武汉人。

그는 우한 사람이다.

(22) Tiếu Dũng, ban của tôi.

小勇 朋友 的 我

小勇, 我的朋友。

샤오용은 내 친구이다.

(23) Hôm nay chủ nhật.[87]

今天 星期天

今天星期天。

오늘은 일요일이다.

(24) Bây giờ (là) 10 giờ 20 phút.

现在 小时 10 小时 20 分钟

现在10点20分。

지금은 10시 20분이다.

(25) Ngày mai lê quốc khánh.

明天 节 国庆

明天国庆节。

내일은 국경절이다.

(26) Trạm kế tiếp Tân An.

站一下 新安

下一站新安。

다음 역은 신안이다.

87) 이 부분의 예문은 주로 何文勇(2010)에서 인용하였다.

(27) Bạn đang ở đâu nhi? Tôi Đại học Bắc Kinh.
你 哪里 啊？ 我 大学 北京
你哪里啊？我北京大学。
넌 어디니? 나는 북경대학이야.

다음은 수사와 'Num・CL' 구조가 직접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8) S+Num / S+Num・CL
a. Huyết áp của bạn 90-140, bình thường.
血压 的 你 90-140 正常
你的血压90-140, 正常。
너의 혈압은 90-140으로 정상이다.
b. Thầy giáo năm nay 30 tuổi.
老师 今年 30 岁
老师今年30岁。
선생님은 올해 서른 살이다.
c. Con heo này hơn 200 cân.
只猪 这 多 200 斤
这只猪200多斤。
이 돼지는 200여 근이다.
d. Áo len hơn 500 đồng một chiếc.
羊毛衫 多 500元 一件
一件羊毛衫500多元。
양모 셔츠 한 벌에 500여 위안이다.

베트남어의 수사와 양사가 술어로 사용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중국어와 동일하며, 예문(28a)는 수사 '90-140'이 직접 술어가 되었고, 예문(28b)는 수량사가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며, 예문(28c-d)는 각각의 수량사가 사물의 무게와 가

격을 나타내고 있다. 계속해서 'Num・CL・N' 구조가 소유와 존재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사용된 예를 살펴보자.

(29) S+Num・CL・N

a. Hai vợ chồng già một cậu đúa con.
两口 老 就一个 儿子
老两口就一个儿子。
노부부는 아들 하나밖에 없다.

b. lớp họ 40 Một học sinh.
班 他们 四十 名 学生
他们班四十名学生。
그들 반에는 40명의 학생이 있다.

(30) $S_{장소}$+Num・CL・N

a. Cạnh núi dưới đường một đám rừng đào.
边 山 下 路 一片 桃林
山下一片桃林。
산 아래는 복숭아 숲이 있다.

b. Tren mặt của anh ấy một năm khí trẻ con.
上脸 的 他 一团 气 孩子
他的脸上一团孩子气。
그의 얼굴에는 어린 티가 가득하다.

중국어의 'Num・CL・N' 구조가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 주어는 살아 있는 사람, 동물, 사물, 조직이 될 수 있으며, 주어가 'Num・CL・N' 술어와 소유관계를 가짐을 나타낸다. 또한 주어가 장소 또는 방위일 때, 'Num・CL・N' 술어는 해당 장소 또는 방위의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물을 나타내며, 이 둘은 존재관계를 형성한다. 베트남어의 상황도 대략 비슷한데, 예문(29a-b)의 명사술어는 각각 주어의 소유와 조직의 구성원 소유를 나타내고, 예문(30a-b)는 존재문으로 명사술어는 '一片桃林'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 또는 '一团孩子气'와 같은 추상적인 사물

이 될 수 있다.

베트남어에는 명사로부터 차용한 임시양사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bàn(테이블)', 'cốc(잔)', 'thùng(큰 통)' 등과 같이 용기(容器)의 유형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신체부위 명사가 양사로 차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의 연구 자료에서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어에 '一・Ncl・N' 형식의 명사성 술어가 존재하는지는 불확실하다.

'A・N' 구조의 명사가 사람의 외모를 나타낼 때,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에 의해 수식된 후, 전체 구조는 직접 술어로 사용됨으로써 사람의 외모적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데, 이는 제4장에서 자세하게 논술한 바 있다. 'S+A・N' 구조의 문장은 이중주어문인 'S+N+A' 형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베트남어의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뒤에 와야 하므로 중국어의 'S+A・N' 형식의 명사술어문은 베트남어에서는 모두 이중주어문으로만 표현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1) 베: Đứa bé này mắt to sóng mũi cao.
小孩 这 眼睛 大 鼻梁 高
这小孩眼睛大, 鼻梁高。
중: 这小孩眼睛很大, 鼻梁很高。
这小孩大眼睛, 高鼻梁。
이 아이는 눈이 크고 콧대가 높다.

(32) 베: Đứa bé này măt tròn tròn, Mắt to to, lông mày min min.
孩子 这 脸 圆圆 眼睛 大大 眉毛 细细
这孩子脸圆圆, 眼睛大大, 眉毛细细。
중: 这孩子脸圆圆的, 眼睛大大的, 眉毛细细的。
这孩子圆圆的脸, 大大的眼睛, 细细的眉毛。
이 아이는 동그란 얼굴에 큰 눈 그리고 가는 눈썹을 가지고 있다.

예문(31-32)를 통해 중국어에서는 이중주어문과 명사술어문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에서는 성질형용사이든 중첩된 상태형용사이든 모두 명사의 뒤에 출현하여 주술관계를 형성한 다음, 다시 앞의 대주

어와 이중주어문의 형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상은 베트남어와 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을 비교한 것인데, 두 언어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베트남어는 고립어로서 격이나 성(gender) 그리고 수에 따른 어미의 변화가 없으며, 조사도 사용하지 않는다.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SVO이다. 시제의 변화나 의문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제 부사, 의문 부사를 사용하고,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전치사를 사용한다. 부사는 동사 앞에 놓이고 일반명사는 분류사 뒤에 놓인다.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초기에 태국어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문법적으로 중국어와 유사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Hasbullah(2013:9)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어도 원래 타갈로그어처럼 영계사 언어였는데 인도유럽어족의 네덜란드어와 영어의 영향을 받아 계사 'adalah'가 생겨났다. 고명이(2016)는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명사 서술어' 실현 방식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고, 黃育妙(2017)는 인도네시아어와 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을 대조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인도네시아어는 계사가 존재하지만 영계사의 실현이 가능하다. 즉, 계사 없이 명사성 성분이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명사술어문이 존재한다.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어에서도 맨명사와 'N1・N2' 구조는 주어와의 동등 또는 귀속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직접 술어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33) Saya istri Jeongte.
我-1人称-主格 夫人 正泰
我, 正泰的夫人。
나는 쩡타이의 부인이다.

(34) Dia guru.
他-3人称-单数 老师
他, 老师。
그는 선생님이다.

(35) Dia bukan guru.
他-3人称-主格 否定词-名词 老师
他不是老师。
그는 선생님이 아니다.
*Dia adalah bukan guru.
他 是 否定词 老师

(36) Dia guru yang cantik.
她-3人称-单数 老师 关系代词 漂亮
*她漂亮的老师。
她是漂亮的老师。
그는 예쁜 선생님이다.

예문(33)과 예문(34)는 인도네시아어 명사술어문으로 주어와 술어의 동등 및 귀속관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어의 용법과 동일하며 이때 주어와 명사술어는 단순 형태이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을 부정할 때, 중국어는 명사술어 앞에 '不是'를 삽입하는데 예문(35)를 보면, 인도네시아어는 명사를 부정할 수 있는 부정소 'bukan'을 사용한다. 부정소 'bukan'은 중국어의 부정부사와 달리 계사 'adalah'와 연용하지 않는다. 예문(36)을 보면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명사술어 앞에 형용사 수식어가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她漂亮的老师'와 같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是'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에서 주어나 술어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계사 'adalah'가 반드시 출현해서 주술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점은 중국어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어에서 'Num・CL' 구조, 'Num・CL・N' 구조가 술어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자.

(37) Umur saya 35.[88)]
年龄 我-1人称-属格 35

88) 인도네시아어의 예문은 주로 고명이(2016), 黄育妙(2017)에서 인용하였다.

我35岁。
나는 서른다섯 살이다.

(38) Anjing saya dua.
小狗 我-属格 2
我两只小狗。
나는 강아지가 두 마리다.

예문(37)과 예문(38)은 각각 'Num・CL'과 'Num・CL・N' 구조가 직접 술어로 사용된 사례로서 전자는 사람의 나이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례이며, 후자는 소유를 표현하는 예이다.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39) Sekarang jam 8.
现在 点 8
现在8点。
지금은 8시다.

(40) Hari ini hari kamis.
今天 星期四
今天星期四。
오늘은 목요일이다.

(41) Ulang thaun saya tanggal 27 Oktober.
生日 我-属格 日子 27 10月
我的生日是10月27号。
내 생일은 10월 27일이다.

예문(39-41)은 각각 시점과 날짜를 표현하는 명사술어문이다. 중국어에서 주어가 시간명사가 아닌 명사구 '我的生日(나의 생일)'이고 술어가 시간명사일 때는 일반적으로 '是' 구문을 사용하지만, 동일한 경우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영계사 문장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국어와 같은 어족에 속하는 중국 소수민족 언어의 명사술

어문의 사용 양상을 보기로 한다.

중국어는 중국－티베트어족(Sino-Tibetan Family)에 속한다. 이 어족은 주로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 부탄,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및 기타 여러 아시아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 상술한 나라 중에 중국이 풍부한 어종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티베트어족의 언어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중국－티베트어족에는 중국어와 세 가지 유형의 어파인 티베트-버마어파(藏缅语派), 타이-카다이어파(壮侗语派), 몽-몐어파(苗瑶语派), 총 네 개의 유형이 있다고 보고 있다.[89]

중국－티베트어족 언어는 통사에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많은 언어가 고립어이고 대부분이 문법적인 형태 변화가 풍부하지 않고 어순과 허사가 주요 문법 수단이며, 일부 언어에는 품사가 겹치는 형식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언어에는 양사와 계사가 존재한다. 중국어와 나머지 세 어파 언어의 명사술어문을 비교해 보면 중국어와 중국－티베트어족 기타 언어의 명사술어문이 갖는 공통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명사술어문의 유형학적 특성 및 의미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래에서는 티베트-버마어파, 타이-카다이어파와 몽-몐어파 언어들의 명사술어문 사용 상황을 소개하고 동시에 현대중국어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언어자료는 주로 张军(2005), 韦学纯(2011), 戴庆夏(2012), 周发成(2019) 등이 제시한 용례를 참조하였다.

① 티베트-버마어파

티베트-버마어파는 티베트(藏)어군, 치앙(羌)어군, 징퍼(景颇)어군, 로로(彝)어군, 버마(缅)어군과 일부 어군을 정하지 않은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티베트어군에 속하는 티베트어에는 명사술어문이 존재하는데, 형태는 'NP1+NP2'이며, 여기서 NP2는 일반적으로 수량과 시간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다음은 티베트어 라싸말(拉萨话)의 예문이다.

89) 중국-티베트어족의 '하나의 언어와 세 가지 어파'의 분류 방법은 李方桂(1937)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42) tɕhe^{55} ɕøʔ^{52} lo^{12} tɕø:^{55}ŋa^{54}.
大 最 岁 十五
最大的十五岁。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열다섯 살이다.

(43) saŋ^{55}ŋi^{55} sa^{12}ɬaʔ^{55}pa^{54}.
明天 星期三
明天星期三。
내일은 수요일이다.

(44) t'e^{11} riŋ1^{13} ts'eʔ^{55} pa^{54}ŋa^{54}
今天 号 五
今天五号。
오늘은 5일이다.

예문(42)는 수량사가 술어로 사용되어 주어의 나이를 나타낸 사례이고, 예문(43-44)는 술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으로 이 두 유형은 모두 중국어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티베트어에는 중국어 명사술어문이 갖고 있는 이외의 기타 구조와 의미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티베트어의 명사술어문은 비교적 적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yin과 red 두 계사를 사용해야 한다.

치앙어군에서도 역시 명사술어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계사구문을 사용하거나 기타 조사를 빌려 명사술어문을 표현한다. 아래 예문(45)의 갸롱어(嘉戎语)에서 시간명사는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45) mə sni ʃintɕhi kə-tʂok.
今 天 星期 六
今天星期六。
오늘은 토요일이다.

징퍼어군은 징퍼어와 터룽어(独龙语) 두 가지 언어를 포함하는데, 징퍼어에는 시간과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예문46)이 존재한다. 터룽어의 명사성 술어

는 사람의 신분을 판단하고 주어와의 귀속관계(예문47)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46) tai^{31}ni^{55} lɑ̃^{55}pan^{51} ʃɑ̃^{31}ni^{55}.
今天 星期 天
今天星期天。
오늘은 일요일이다.

(47) ĭk^{55} puŋ^{55} kai^{53}faŋ^{31}tɕyn^{55}.
我们的 哥哥 解放军
我们的哥哥, 解放军。
우리 형은 해방군이다.

로로어군에는 로로어(彝语), 리수어(傈僳语), 하니어(哈尼语), 라후어(拉祜语), 나시어(纳西语), 키노어(基诺语), 노어(怒语) 등 7가지 언어가 있는데 모두 보편적으로 명사술어문을 사용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관계에서 이러한 표현방법을 사용하는지는 언어마다 다르다.

(48) 로로어
a^{31}m(ɿ)^{33} ʂu^{33}khu^{55} li^{33} m(u)^{33}khu^{55}.
今 年 (助) 马年
今年马年。
올해는 말의 해이다.

(49) 리수어
a. thi^{44} thi^{31} tʃhɯ^{44} ma^{44} mo^{31} phu^{44}.
这 一 匹 (助) 马 白
这一匹是白马。
이 말은 백마이다.

b. xɑ̃33mi33 go33tɕhua33 ma33 ŋua33 xɑ̃33mi33
田地 那 块 (助词) 我 田地

那块地我的。

그 땅은 나의 땅이다.

(50) 하니어

thø^{55}dø^{55} a^{31}jo^{31} ɤ^{33}.

这些 他 的

这些他的。

이것들은 그의 것이다.

(51) 키노어

ɕe^{33} ɤ^{33} lɔ^{44}mɔ^{33}.

这 (助) 老虎

这是老虎。

이것은 호랑이다.

(52) 노어

ɕi^{35}ku^{31} sɤ^{31}nɤ^{31} mɛ^{31}sue^{55}.

这个 (助) 墨水

这个是墨水。

이것은 잉크이다.

(53) 나시어

a. ŋə^{31} zi^{33}gv^{33}dy^{31} ɕi^{33}.

我 丽江 人

我丽江人。

나는 리장 사람이다.

b. a^{33}ne^{31} sʅ^{31}dzʅ^{33}?

谁 老师

谁是老师？

누가 선생님입니까?

예문(48-53)을 통해 로로어에서 시간명사를 직접 술어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리수어, 하니어 키노어, 노어 등은 맨명사를 사용하고, '的'字 구조는 간단한 판단이 가능하며, 나시어의 명사술어문은 사람의 신분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맨명사는 의문대명사가 있는 의문문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버마어군의 재와어(载瓦语), 아창어(阿昌语)에는 예문(54-55)와 같이 사람의 직업과 민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이 존재한다.

(54) 재와어

a. ŋo^{51} ki^{31} tʃhi^{31}sǎ^{31}ʒa^{55}.
我 (助词) 医生
我, 医生。
나는 의사다.

b. khə^{55}ŋji^{55} kə^{31} mau^{31}tsau$^{55/35}$pui^{51}.
今天 (助词) 天 阴 日
今天阴天。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c. kuʔ^{31}sək^{55}tsɔ^{31}pɔi^{51} kə^{31} khǎ^{55}ŋji^{55}.
新米节 (助词) 今天
新米节是今天。
신미절은 오늘이다.

d. khǎ^{55}ŋji^{55} kə^{31} lǎ^{55}pan^{31}thaŋ^{51}lǎ^{31} ŋji^{55}.
今天 (助词) 星期一
今天星期一。
오늘은 월요일이다.

(55) 아창어

muaŋ^{55} kǎ^{31}phuaŋ^{31}, ŋɔ^{55} sam^{31}.
你 汉族 我 傣族
你汉族, 我傣族。
너는 한족이고 나는 태족이다.

재와어에서는 직업과 날씨를 나타내는 맨명사와 명절과 요일을 나타내는 시간명사가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반드시 어기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중국어에서 주어와 술어 사이에 존재하는 휴지에 해당한다. 아창어의 맨명사는 나열 방식을 통해 주어의 민족 귀속에 대한 의미관계를 표현한다.

이외에, 중국-티베트어족의 일부 분류가 불확실한 어군의 언어들도 명사술어문을 사용하는데, 모두 개별적인 현상이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② 타이-카다이어파

중국에서 사용되는 타이-카다이어파는 타이어군, 둥수이어군 그리고 흐라이어군의 세 가지 어군으로 나뉘며, 각 어군에는 여러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타이-카다이어파의 각 언어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형식 및 의미의 명사술어문을 갖고 있다.

타이어(傣语)와 장어(壮语)는 타이어군에 속하는데, 해당 언어에서는 시간명사와 수량사가 직접 술어로 사용되며 이는 (56), (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56) 타이어

mu^{11}ni^{33} van^{51}ka:t^{35}.

今天 街日

今天是赶集日。

오늘은 장날이다.

(57) 장어

a. ŋon^{2}ni^{4} pe:t^{7} ŋu:t^{8} sip^{8} ha^{3}.

日 这 八 月 十 五

今天八月十五。

오늘은 8월15일이다.

b. ŋon^{2} li:n^{2} so^{6} sip^{2}.

日 昨 初 十

昨天初十。

어제는 초열흘이다.

c. kou^{24} sa:m^{24} ɕip^{33} pi^{24}.

我 三 十 岁

我三十岁。

나는 서른 살이다.

수어(水语)는 둥수이어군에 속하는데, 이 언어에서는 판단의미를 강조하지 않는 한, 판단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어에서도 명사성 성분이 직접 술어로 기능할 수 있으며 명사성 술어 앞에 부사성 수식어가 올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58) a. man^{11} hi^{53} sup^{31} no^{53} mbe^{11}.

他 四 十 五 岁

他四十五岁。

그는 마흔다섯 살이다.

b. mu^{53} man^{11} si^{33} ni^{24} sup^{31} mbe^{11} ha^{11}.

弟弟 他 才 二 十 岁 句末语助词

他弟弟才二十岁。

그의 남동생은 겨우 스무 살이다.

(59) van^{11}na:i^{24} qo^{33} sa:n^{33} hau^{11} ljeu^{53}.

今天 已经 三十 号 了

今天已经三十号了。

오늘이 벌써 30일이다.

(60) a. man^{11} zən^{11} ha:m^{11}pa^{11}.

他 人 三都

他三都人。

그는 삼도(지명) 사람이다.

b. man^{11} pu^{33} sui^{33}.
他 也 水族
他也是水族。
그도 수족 사람이다.

c. man^{11} ndum^{33} ɕen^{11} tsaŋ^{55}.
他 正是 县长
他正是县长。
그가 바로 현장이다.

(61) pa:k^{7} na:i^{6} to^{2} ju^{2}.
把 这 的 我
这把(柴刀)我的。
이 칼은 내 것이다.

(62) tsau^{55} tsa^{35} me^{31} to^{31} ju^{31}.
双 那 不 的 我
那双不是我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예문(58)은 수어의 수량사가 직접 술어로 사용되어 사람의 나이를 표현한 예이고 예문(58b)와 같이 부사 '才'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예문(59)는 시간명사가 날짜를 나타내는 술어로 사용되었고, 예문(60a)는 'N1・N2' 구조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중국어와 다른 점은 이러한 명사술어는 부사의 수식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문(60c)와 같이 의미를 강조하는 구문은 계사가 출현해야 한다. 예문(61)에서 쓰인 'X的' 구조 '我的'은 주어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 직접 술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명사술어는 (62)처럼 직접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무라타어(仫佬语) 역시 둥수이어군에 속하는데, 무라타어에는 계사 'si^{6}(是)'가 있지만, 특정 언어 환경에서 명사성 단어는 계사 없이도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63) fan^{1}mɔ^{6} tə^{6} njen^{2} lə^{6} pə^{5}.
明天 新年 了 哦
明天就新年了。
내일이면 새해이다.

(64) a. na^{2} nau^{2} le^{5}?
你 谁 呢
你谁呀？
너는 누구니?

b. əi^{2} ŋɔ^{1} a^{5}.
我 五 啊
我老五啊。
나는 다섯째이다.

(65) twa^{6} hɣə:n^{2} na:i^{6} tshəi^{1} fuŋ^{4} kɔ^{5}.
栋 房子 这 翠凤 的
这栋房子翠凤的。
이 집은 추이펑의 것이다.

(66) tsɛ^{2} mɔ^{6} ta^{1} ço^{3} sən^{5} pə^{3}.
姐姐 他 大 学 生 哦
他姐姐大学生哦。
그의 누나는 대학생이다.

(67) jin^{6}cøn^{5} ni^{6} sa:n^{1} çən^{1} lo^{5}?
银娟 宜州 人 吗
银娟是宜州人吗？
인쥐엔은 이저우 사람입니까?

예문(63-67)에서 무라타어의 시간명사는 명절을 표현하는 술어로 사용되었고, 지시대명사는 신분을 묻는 데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대답할 수 있고, 종속을 나타내는 'N+的' 또한 직접 술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N1・N2' 구조는 사람의 직업과 신분을 나타내는 술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서술된 긍정문 외에 의문문에서도 계사가 출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몽-멘어파

몽-멘어파 언어는 주로 묘어(苗语), 부누어(布努语), 먀오어(勉语)와 호네어(畲语) 등을 포함한다. 묘어와 부누어는 묘어군에 속하고 먀오어는 야오어군에 속하며 호네어의 어군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몽-멘어파의 모든 언어에는 명사술어문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68) 묘어

a. $no^{43}na^{55}$ sa^{43} $tʂi^{43}$.

今天 初五

今天初五。

오늘은 초닷새이다.

b. ni^{53} ne^{53} $ɕiə^{44}dʑi^{31}sɛ^{44}$.

昨天 星期三

昨天星期三。

어제는 수요일이다.

c. $tha^{35}nəŋ^{44}$ $tɛ^{44}wu^{44}$.

今天 端午

今天端午节。

오늘은 단오절이다.

d. we^{44} $tɕu^{35}nəŋ^{44}$ $tsei^{53}ku^{22}$ $ʑa^{44}$.

我 今年 四十 了

我今年四十了。

나는 올해 40세이다.

(69) 부누어

$tai^{42}nau^{43}$ $ɵɤ^{33}jɤ^{43}$.

今天　　初一

今天初一。

오늘은 초하루이다.

(70) 호네어

pa^{22}　$hɔ^{33}ne^{31}$.

我们　畲族

我们，畲族。/ 我们是畲族。

우리는 쉐족이다.

(71) 먀오어

je^{44}　$loŋ^{53}min^{53}$.

我　农民

我，农民。/ 我是农民。

나는 농민이다.

묘어의 수량구와 시간명사는 (68)처럼 날짜, 요일, 명절 및 나이 등을 나타내는 술어로 직접 사용되며, 부누어에서는 (69)처럼 시간명사를 술어로 사용할 수 있고, 호네어에는 (70)처럼 주어의 민족을 나타내는 맨명사가 쓰인 명사술어문이 존재하며, 먀오어에는 (71)처럼 주어의 직업을 나타내는 맨명사가 쓰인 명사술어문이 존재한다.

또한 刘玉兰(2012: 234, 276-277, 294-298)은 태국에서 사용되는 먀오어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먀오어의 시간명사, '대명사+的' 구조, 의문대명사도 예문(72-73)과 같이 직접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72) a. $i^{53}nɔi^{33}$　$wan^{33}tsan^{33}$.

今天　星期一

今天星期一。

오늘은 월요일이다.

b. $dʑaŋ^{33}nɔi^{33}$　$kiŋ^{31}tɕhiŋ^{53}meŋ^{53}$.

明天　清明节

明天清明节。
내일은 청명절이다.

(73) a. na:i^{55} nin^{53} nɛi^{33}.
这 他 的
这(是)他的。
이것은 그의 것이다.

b. na:i^{55}xaʔ^{55}nuŋ^{55} lɛ$^{53?}$
这 什么 (语助)
这什么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한 중국 소수민족 각 어군의 일부 언어에서 관찰되는 명사술어문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비교를 통해 중국어를 포함한 중국-티베트어족 언어의 명사성 성분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직접 술어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주어의 나이 등 수량적 특징을 나타낼 때, 시간명사가 직접 술어로 사용될 때, 맨명사와 'N1・N2' 구조가 술어로 사용되어 동등과 귀속관계를 나타낼 때, 특히 주어의 직업, 신분, 출신지와 관련된 귀속관계를 나타낼 때이다. 일부 언어에는 'X的' 구조가 술어로 사용되는 상황이 존재하며, 의문대명사가 술어로 사용되는 상황도 존재한다. 또한 중국-티베트어족의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어 명사술어문이 구조와 의미유형 면에서 가장 풍부함을 알 수 있다. 분석한 결과는 〈표 8-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8-1〉 현대중국어 명사술어문과 소수민족 언어 간의 대조

소수민족 언어	현대중국어의 명사술어문							
	판단성				묘사성	수량성		
	N / N1・N2	시간명사	대명사	X的	A・N	Num・CL	Num・CL・N	一・Ncl・N
티베트어		+				+		

갸롱어		+						
징퍼어	+	+				+		
터룽어	+							
리수어	+						+	
하니어				+				
키노어	+							
노어	+							
나시어	+							
재와어	+	+						
아창어	+							
타이어		+				+		
장어		+				+		
수어	+	+		+		+		
무라타어	+	+	+	+				
바이어	+	+						
묘어		+				+		
부누어		+						
호네어	+							
먀오어	+	+	+	+				

중국-티베트어족의 언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고립어이고 인도네시아어는 교착어이다. 이러한 언어들은 현재 전용 계사를 가지고 있고 시제, 상으로 인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시제와 상의 변화를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어와의 일치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에서 명사술어문의 사용은 주로 의미적, 화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8.2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유형론적 지위

생성문법이론에서는 인류의 언어는 심층적으로 SVO 구조이며,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하고, 술어는 반드시 동사성 성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범언어적 고찰을 해본 결과, 술어가 반드시 동사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engeveld(1992)와 Stassen(1997)은 모두 일부 언어에서 비동사류의 술어(Non-Verbal Predication)를 발견하여 이를 고찰하였고, Hengeveld(1992)는 비동사류의 술어는 동사성 계사를 사용하는(with verbal copula) 것과 동사성 계

사를 사용하지 않는(without verbal copula)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전자는 동사성 문장(Verbal sentence)으로 통합할 수 있고, 후자는 명사성 문장(Nominal sentence)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Payne(1997)는 명사술어문은 일종의 '서술의미(semantic content of the predication)'를 명사로 표현한 구문이라고 보았다. 'Frieda is a teacher'라는 문장에서 'be'는 불완전 동사(defective verb)이지만 술어는 아니며, 문법상의 술어는 'is a teacher'이다. 여기에서 서술의미는 'a teacher'로 표현되었으며 'is'는 어휘적 의미가 없는(semantically empty) 문법 동사(grammatical verbs)로서 서술 관계를 표현하는 데 쓰인다. 명사술어문에 대한 Payne(1997)의 정의는 '광의의 명사술어문'으로, 구체적으로 명사가 서술의미를 지니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가 결여된 문장을 말한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가 결여된 문장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표현 형식이 있다. 첫째는 어휘적 의미가 결여된 계사를 사용하는 형식이다. 둘째는 영어의 'have, make'와 같은 형식의 동사로 계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유형이다. 셋째는 히브리어의 3인칭 대명사 'hu'와 같은 재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계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형식이다. 넷째는 형태의 변화가 없는 보문소(invariant particle)를 사용함으로써 계사의 기능을 충당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세피에르어(Sùpyìré)의 'ne'[90]가 있다. 마지막으로 명사가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형식이 있다.

이상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표현 형식은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계사의 기능을 충당하며 문장에는 연결 기능을 하는 성분이 하나 존재한다. 그렇지만 명사가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문장에는 이러한 연결 성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협의의 명사술어문이다.

3, 4, 5장의 분석을 통해 중국어는 동등관계와 귀속관계를 판단할 때 광의의 명사술어문에 포함된 '是' 구문을 사용하거나 협의의 명사술어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속성 관계, 소유관계, 존재관계를 나타낼 때는 명사술어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90) 해당 예문은 아래와 같다:
wuu ne laklibii
we COP students
우리는 학생이다.

범언어적 비교를 통해 중국어의 명사술어문과 다른 언어 간에는 유사점 및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어 명사술어문이 가진 언어의 보편성과 중국어 자체의 특수성이다. 구체적으로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언어의 계보 분류의 각도에서 볼 때 같은 어족에 속하는 언어는 명사술어문의 사용에 있어 비교적 강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어파 간에는 내부적 차이가 존재한다.

8.1의 고찰과 비교를 통해, 중국어와 같은 어족에 속하는 중국 내 여러 소수민족 언어가 주어의 수량적 속성을 나타낼 경우, 요일과 같은 시간을 나타낼 경우 그리고 귀속관계를 나타낼 경우에 명사술어문을 사용함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귀속관계를 나타낼 때 문장의 통사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며 만약 명사술어가 복잡해지면 계사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张军(2005:97)에 의하면 로로어의 판단 문장에서는 종종 계사 man^{53}을 생략할 수 있지만 문장성분이 복잡해지면 man^{53}의 생략이 불가능해진다. 다음 예를 보자.

(74) a. na^{53} tho:ŋ11khun^{53} hou^{53}
他 朋友 我
他, 我的朋友。
그는 내 친구이다.

b. toŋ^{55}kok^{55} man^{53} tsɯ^{55}hom^{53} kok^{55}ke^{11} ło:i^{53} mi:n^{11}tok^{55}.
中国 是 一 个 国家 多 民族
中国是一个多民族国家。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74)에서 (74a)의 명사술어는 간단한 형식이며 로로어의 계사 man^{53}이 출현하지 않았지만 (74b)의 명사술어는 수식어가 있는 복잡한 형식이기 때문에 man^{53}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현대중국어도 마찬가지다. 이는 6.1.1에서 판단성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을 비교할 때 이미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소수민족 언어에서 쓰이는 명사술어문의 형식과 의미유형은

현대중국어보다 훨씬 적다. 그러므로 호네어 등 일부 언어에서 한 가지 유형의 명사술어문만 존재하는 것은 흔히 있는 현상이다.

영어, 러시아어, 벵골어는 모두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만 영어는 게르만어파, 러시아어는 슬라브어파, 벵골어는 인도-이란어파에 속하고 각각의 특징을 갖는다. 영어와 러시아어는 모두 계사가 있는 언어이며 벵골어에는 계사가 없다. 영어의 계사는 명사나 형용사가 술어로 쓰일 때 반드시 나타나지만 러시아어의 계사는 현재시제 때는 출현하지 않는다. 시제와 주어의 인칭은 명사술어문 사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예컨대,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터키어, 히브리어, 헝가리어에서도 현재시제이거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계사 없이 명사 술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시제가 없는 언어로 간주되고 과거와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명사(예를 들어, 以前, 明天 등), 양태사(예를 들어, 会, 要 등) 그리고 부사를 사용하여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담화의 맥락을 통해 시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5) a. 他, 外科医生。(vs 他现在是外科医生。)
그는 외과 의사이다. (vs 그는 현재 외과 의사이다.)
b. *他去年外科医生。(vs 他去年是外科医生, 现在辞职不干了。)
c. *他以后好的外科医生。(vs 他以后是个好的外科医生。)

(76) a. 他, 我们处长。(vs 他现在是我们处长。)
그는 우리 처장이다. (vs 그는 현재 우리 처장이다.)
b. *他以前我们处长。(vs 他以前是我们处长。)
c. *他以后我们处长。(vs 他以后是我们处长。)

판단을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은 예문(75a-76a)처럼 일반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석되고 명사술어 앞에 과거와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시간명사가 출현하면 계사 '是'를 써야 한다. 그러나 묘사성 명사술어문의 상황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래 예를 보자.

(77) a. 他高个子, 大眼睛。

그는 키가 크고 눈이 크다.

b. *他以前高个子, 大眼睛。

c. 他是高个子, 大眼睛。

그는 키가 크고 눈이 크다.

d. 他以前是高个子, 大眼睛。

그는 전에 키가 크고 눈도 컸었다.

(78) a. 小明二十岁。

샤오밍은 스무 살이다.

b. 小明是二十岁。

샤오밍은 스무 살이다.

c. 小明明年二十岁。

샤오밍은 내년이면 스무 살이다.

d. 小明明年是二十岁。

샤오밍은 내년이면 스무 살이다.

e. 小明去年二十岁。

샤오밍은 작년에 스무 살이었다.

f. 小明去年是二十岁。

샤오밍은 작년에 스무 살이었다.

(79) a. 他一个儿子, 一个女儿。

그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b. 他以前一个儿子, 一个女儿。

그는 이전에 아들 하나, 딸 하나였다.

c. 他是一个儿子, 一个女儿。

그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d. 他以前是一个儿子, 一个女儿。

그는 이전에 아들 하나, 딸 하나였다.

(80) a. 她一脸笑意, 并未受到负面新闻的影响。
그녀의 웃는 얼굴은 부정적인 뉴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b. *她以前一脸笑意, 并未受到负面新闻的影响。
c. 她是一脸笑意, 并未受到负面新闻的影响。
그녀의 웃는 얼굴은 부정적인 뉴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d. *她以前是一脸笑意, 并未受到负面新闻的影响。

예문(77-80)에서는 명사술어문이 현재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과거와 미래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예문(48d)와 같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성분이 출현하더라도 반드시 '是'가 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사용은 시제에 민감하지 않다.

현대중국어에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명사술어문에 사용되는 계사는 주어의 인칭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81) a. 我上海人。/ 我中国人。
나는 상하이 사람이다. / 나는 중국 사람이다.
b. *我们上海人。/ *我们中国人。
我们, 上海人。/ 我们, 中国人。
我们是上海人。/ 我们是中国人。
우리는 상하이 사람이다. / 우리는 중국 사람이다.
(82) a. *你上海人。 / *你中国人。
你是上海人。/ 你是中国人。
너는 상하이 사람이다. / 너는 중국 사람이다.
b. *你们上海人。/ *你们中国人。
你们, 上海人。/ 你们, 中国人。
你们是上海人。/ 你们是中国人。
당신들은 상하이 사람이다. / 당신들은 중국 사람이다.
(83) a. 他上海人。 / 他中国人。
그는 상하이 사람이다. / 그는 중국 사람이다.

b. *他们上海人。/ *他们中国人。
他们，上海人。/ 他们，中国人。
他们是上海人。/ 他们是中国人。
그들은 상하이 사람이다. / 그들은 중국 사람이다.

(81-83)에서 보여주듯이 사람의 본적과 국적을 표현하는 명사술어문의 주어는 1인칭, 3인칭 단수일 때 문장이 자연스럽지만 2인칭 단수일 때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인칭, 2인칭, 3인칭의 복수 형태는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며 '是'가 부가되거나 주술 사이에 휴지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어가 복수형일 때는 두 명사구 간의 관계가 주술 관계가 아닌 동격관계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이다. 반대로 계사 '是'가 동격 구조의 두 성분 사이에 들어가면 문장은 주술관계로 바뀐다. 다음 예를 계속 보자.

(84) a. 他高个子，大眼睛。/ 他是高个子，大眼睛。
그는 키가 크고 눈이 크다.
*他们高个子，大眼睛。
他们都是高个子，大眼睛。
그들은 모두 키가 크고 눈이 크다.
b. 我高个子，大眼睛。
我是高个子，大眼睛。
나는 키가 크고 눈이 크다.
*我们高个子，大眼睛。
我们都是高个子，大眼睛。
우리는 모두 키가 크고 눈이 크다.
c. 你高个子，大眼睛。
你是高个子，大眼睛。
너는 키가 크고 눈이 크다.
*你们高个子，大眼睛。
你们都是高个子，大眼睛。

당신들은 모두 키가 크고 눈이 크다.

예문(84)에서 보듯이 사람의 외모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주어는 1인칭과 2인칭보다 3인칭 단수를 더 많이 쓰고 주어가 복수일 때는 '是'를 사용하면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현대중국어에서 주어의 상용성도 명사술어문과 '是' 구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박정구(2007)에 따르면 요일, 시간과 날짜를 나타내는 명사술어문에서는 '今天', '明天', '现在'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른 어휘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是'가 출현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는 '今天', '明天', '现在'의 상용성에서 기인한다. 요일과 날짜 중에서는 오늘이나 내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 경우 주어와 술어의 공기성이 높아, '是'가 없어도 의사소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다른 문맥의 도움 없이도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시간을 표현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만약 '那天', '这天', '那时候' 등 시간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대부분 계사 '是'를 사용해야 한다. (85)는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이다.

(85) a. 今天是母亲节，你没忘吧。
오늘은 어머니날인데 너는 잊지 않았지.
b. 今天母亲节，你没忘吧。
오늘은 어머니날인데 너는 잊지 않았지.
c. 那天是母亲节，我永远不会忘记。
그날은 어머니날이었는데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d. ?那天母亲节，我永远不会忘记。
e. 那时是十一点半光景，快十二点了。
그때는 11시 반이었는데, 곧 12시가 되려고 할 때였다.
f. *那时十一点半光景，快十二点了。

둘째, 러시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등 언어에서 현재시제와 주어가 3인칭일 때, 명사술어문의 통사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 언어가 언어 형태학

적으로 굴절어와 교착어인 것과 관련이 있다. 굴절어와 교착어의 어휘는 모두 풍부한 형태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단어 자체의 형식 변화를 통해 각종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계사는 어휘적 의미는 없지만 대부분의 언어에서 동사로 쓰이며 시제, 인칭, 성, 수 등과 일치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시제에서 동사성 계사는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문장에서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화자와 청자가 주술 관계임을 나타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와 달리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고립어이며 계사가 동사성 성분이지만 시제, 상으로 인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주어와 명사술어 간의 서술 관계를 해석해 낼 수 있다면 계사의 출현은 더이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다. 상술한 분석에 의하면 언어의 형태유형학적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86) 고립어 > 교착어 > 굴절어

(86)은 굴절어보다 교착어가 더 쉽게 명사술어문을 사용하고 교착어보다 고립어가 더 자주 명사술어문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본고가 분석한 언어에 근거한 가설일 뿐 적용 가능성을 논증하려면 더 많은 언어를 연구해 입증해야 한다.

셋째, 언어 발전과 언어 접촉의 시각에서 볼 때, ‘NP1+NP2’ 구조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가장 원형적 명사술어문이며, 계사의 출현과 발전으로 인하여 계사가 사용된 명사술어문은 전형적인 광의의 명사술어문이 되었다. 협의의 명사술어문은 동등, 귀속등 특정한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현재 시제에서만 사용하게 되었다. 원래 계사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언어들도 다른 언어와 접촉하면서 계사가 생성되었거나 다른 언어의 계사를 차용하였다. 앞서 논술했듯이 인도네시아어에는 원래 계사가 없는데 영어와 네덜란드어의 영향을 받아서 계사가 점차 생겨났다. 중국 내 소수민족 언어도 현대중국어와 접촉하면서 ‘是’를 차용하는 현상이 생겼고 또한 종종 관찰된다.

넷째, 중국어는 풍부한 양사를 가지고 있고, 각종 수량 구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러 통사 위치에서 유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문 양사뿐만 아니라, 차용양사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어가 갖는 특색인데, 차용양사가 출현하는

명사술어문의 사용이 중국어 수량구조의 의미와 기능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지문법의 관점에 따르면, 동사는 시간성을, 명사는 공간성을 가지며, 명량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높은 빈도의 명사술어문이 분포하는 것은 중국어가 공간의 개념을 중시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다섯째, 비록 형용사가 계사의 도움 없이도 직접 술어로 쓰이는 언어가 적지 않지만, 'A·N' 구조가 직접 술어로 쓰이는 현상은 거의 중국어에서만 존재하고 이는 '전체-부분'의 의미관계가 중국어의 어휘 형태와 통사구조에서 비교적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중에 신체부위가 전체의 불가양도한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언어보다 현대중국어에 더 다양한 유형의 명사술어문이 존재하는 것은 중국어가 화제부각언어라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赵元任(1968), 朱德熙(1982), Li&Thompson(1989) 등은 모두 '중국어의 주어는 문법적으로 화제이다'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어 문장은 '행위자-행위'보다 '화제-평언'의 구조를 지니는 빈도가 더 높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명사술어문도 '화제-평언' 구조이다. 화제와 평언 간의 관계는 느슨하고 사이에 화제표지나 음성적 휴지를 자주 사용한다.

범언어적으로 전용 화제 표지가 있는 언어의 경우에는 계사 대신 화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화제 표지가 나타나면 계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强星娜(2008:623)는 '화제 표지가 긍정 명사술어문에서 계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화제 표지 자체가 두 개의 인접한 언어 단위를 연결하는 동시에 이들을 구분시킴으로써 두 언어 단위가 '화제-평언' 의미임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개 화제부각언어에서 발생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화제와 주어를 모두 부각하는 전형적인 예인데. 두 언어에서 NP는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계사화해야 하지만 앞서 분석했듯이 화제표지를 사용하는 구어에서는 계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刘丹青(2008)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쑤저우(苏州)지역 언어의 긍정 판단 구문에서는 화제 표지 '末'을 사용할 경우 계사 '是'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저자에 의하면 예문(87a)에서는 화제표지 '末'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은 성립할 수 있지만, 예문(87b)에서는 화제표지 '末'이 없으면 '是'를 부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87) a. 俚(末)老师, 侬(末)学生, 侬总归要听俚闲话。
他是老师, 你是学生, 你总是要听他的话。
그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니, 너는 항상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b. 蚰蟮*(末)一种益虫, 蝼蛄*(末)一种害虫。
蚯蚓是一种益虫, 蝼蛄是一种害虫。
지렁이는 유익한 곤충이고 땅강아지는 해충이다.

또한, 刘丹青(2008)은 중국 방언 중에서 연성(连城) 지역의 객가어(客家话)와 진어(晋语) 그리고 소수민족 언어인 로로어, 치앙어, 선도어(仙岛语), 재와어, 노어 등에서는 화제 표지가 계사를 대체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91]

앞서 상고 중국어에는 계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두 개 명사구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병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太田辰夫(1987:179)는 두 NP의 병렬은 표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형식에 있어서도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진시기 중국어에서는 대부분 병렬하는 NP 뒤에 조사 '也'를 사용함으로써 판단과 설명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太田辰夫는 첫 번째 NP, 즉 주어 뒤에 알림(提示)기능이 있는 '者'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者'를 사용하면 선행하는 성분이 주어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者'를 사용하면 문말에 있는 '也'를 생략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물론 '者'와 '也'는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다. '者'나 '也'를 사용하는 목적은 주어와 술어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이다. 蒲立本(2006:82)과 李小军(2008)은 심지어 '者'를 화제 표지로 분류하기도 했다.

袁毓林(2002)은 중국어 구어에는 풍부한 어기사가 존재하고 그중 '呢, 啊, 吧, 的话'는 화제 표지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徐烈炯・刘丹青(2007:72)에 따르면 음성적 휴지 역시 일종의 화제 표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强星娜(2008:617)는 휴지가 계사를 대체하는 현상은 여러 언어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 예를 들면, 아랍어와 자와어(Javanese)는 직접 결합한 두 NP를 사용하여 동등관계를 표현할

91) 구체적인 예로 强星娜(2008)를 참조할 수 있다.

수 있는데 두 NP 사이에는 휴지를 두는 것이 필수적이며 주술관계는 휴지를 통해 표시된다고 하였다. 러시아어, 베트남어 및 타타르어에서도 종종 계사를 대신하여 휴지가 사용되는 현상이 보인다. 다음은 러시아어의 예이다.

(88) a. Моя сестра — учительница.
我的 妹妹 老师
我是妹妹, 老师。
나의 여동생은 선생님이다.
b. Столица Франции — Париж.
首都 法国 巴黎
法国的首都, 巴黎。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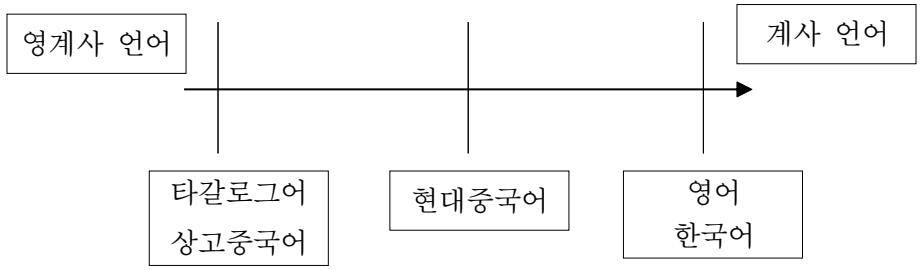
러시아어 예문(88a)와 (88b)를 통해 계사 'есть'가 출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신 주어와 명사술어 사이에 '—'와 같은 연결 기호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연결 기호의 기능은 주어와 술어를 분리하는 것이며 발화할 때는 휴지로 처리한다.

현대중국어 명사술어문에 '是'를 부가할 수 있는 경우, '是' 대신 '呢, 啊, 吧, 的话'를 넣을 수 있다. 이때 휴지도 같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89) a. 鲁迅是浙江绍兴人。
b. 鲁迅呢/啊/吧/的话, 浙江绍兴人。
(90) a. 明天是星期五, 我没课。
b. 明天呢/啊/吧/的话, 星期五, 我没课。
(91) a. 他是高个子, 大眼睛。
b. 他呢/啊/吧/的话, 高个子, 大眼睛。
(92) a. 小明今年是二十岁。
b. 小明呢/啊/吧/的话, 今年二十岁。

(93) a. 我是一个儿子, 一个女儿。
b. 我呢/啊/吧/的话, 一个儿子, 一个女儿。
(94) a. 我家院子很漂亮, 窗前是一棵海棠树。
b. 我家院子很漂亮, 窗前呢/啊/吧/的话, 一棵海棠树。
(95) a. 他头上是一阵剧痛, 像被蛰了一样。
b. 他头上呢/啊/吧/的话, 一阵剧痛, 像被蛰了一样。

결론적으로 다른 언어와 비교해 볼 때, 동등과 귀속관계를 표현하는 명사술어문은 많은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수량사, 형용사와 관련된 명사성 구조는 현대중국어에서 더 자유롭게 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S+A•N' 형식의 명사술어문은 다른 언어에서 아직 보이지 않고 중국어에만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은 가장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명사술어문을 연구하는 좋은 언어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술어문의 범언어적 사용 양상을 통해 영계사 언어에서 계사 언어까지의 연속체를 아래와 같이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8-1〉 '영계사 언어-계사 언어' 연속체에서 현대중국어의 지위

영어의 계사 'be', 한국어의 계사 '이다'는 통사적인 문법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중국어의 '是'는 진정한 문법적 계사가 아닌 일종의 화용적 계사이므로 문장의 의미나 화용에 따라 '是'의 사용은 선택적일 수 있다. 현대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은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是' 구문과 공존하면서 자신만의 의미와 화용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

8.3 소결

유형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유형의 명사술어문은 현대중국어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므로 이 장에서는 명사술어문이 범언어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고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유형론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수량사, 동등과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시간명사 그리고 'N1・N2' 성분, 수량사가 직접 술어로 쓰이는 현상은 범언어적 보편성을 갖고 있으나 'S+A・N', 'S+Num・CL・N', '$S_{장소}$+Num・CL・N' 그리고 'S+一・Ncl・N' 등의 몇 가지 유형의 명사술어문은 중국어만이 갖고 있는 유형이다. 명사술어문의 사용은 형태 변화가 풍부한 일부 언어에서 현재시제와 주어가 3인칭일 때만 가능하고 형태 변화가 풍부하지 않은 언어에서는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언어 간의 비교를 통해 형태 변화가 풍부한 대부분의 언어에는 협의의 명사술어문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중국어, 베트남어와 같이 형태 변화가 많지 않은 고립어에서는 명사술어문을 사용하는 것이 흔한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국어는 많은 수의 양사를 사용하고 문장 각 구성 성분의 의미관계 및 정보구조의 구현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명사술어문의 구조 및 의미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는 또한 중국어가 화제부각언어라는 특징을 갖게 된 데에도 일조하였다.

제9장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명사성 성분이 직접 술어로 기능하는 명사술어문 현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주어와 술어를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했고 특히 술어의 구조와 의미적인 특징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으며 명사술어문에 대한 해석도 지시와 서술, 순서 의미, 주관화 등 다양한 이론을 기초로 하였다. 이와 달리 본고는 구문문법, 인지문법 및 언어유형론 이론에 입각하여 공시와 통시 두 가지 측면에서 명사술어문을 전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사술어문의 통사구조와 의미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구문문법의 각도에서 주어와 명사술어 간의 의미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의미관계가 인지적으로 명사술어문의 형성에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를 밝혔다. 우선 3장에서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경우, 즉 맨명사, 'N1·N2' 구조, 시간명사, 장소명사, 의문대명사, 'X的' 구조가 술어로 쓰이는 현상을 고찰하였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은 여러 구조 유형을 갖지만 주술구조가 갖는 의미유형은 크게 동등관계와 귀속관계 두 가지로 나뉜다.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명사술어는 주어의 등가물이며 지시적이다.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명사술어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며 비지시적이다. 아울러 3장에서는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형성과 인지적 기재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경제성 원칙에 기초하여 '대상-등가물', '대상-속성'의 의미관계의 틀에서 하나의 구문으로 관습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판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두 개의 개체 또는 개념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다. 이어서 4장에서는 묘사성 명사술어문의 사용양상, 즉 'A·N' 구조가 술어로 기능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구조의 측면에서 술어 부분의 형용사는 주로 일음절 성질형용사, 상태형용사, '부사+성질형용사' 등 세 가지 유형인데 상태형용사는 다시 이음절 상태형용사, ABB형식의 상태형용사, 중첩형식의 상태형용사로 나눠서 분석했다. 'A·N' 구조가 술어로 기능할 때, 대부분은 같은 구조의 다른 성분과 나열하여 연용되어야 한다. 단독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앞과 뒤에는 다른 동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이 같이 출현해야 한

다. 또한 의미적 측면에서 명사술어는 주로 주어의 성질을 설명, 평가하거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주어와 술어 간의 '전체-부분'의 관계와 형용사의 서술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수식 기능을 하는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구별적인 특징을 드러내야 하고, 충분한 정보량을 갖고 있으며, 피수식 명사는 일반적으로 일가명사 특히 사람의 신체부위를 표현하는 명사이거나 사물의 구성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이어야 한다. 화용적 측면에서 볼 때 술어로 쓰인 'A·N' 구조에서의 명사는 일반적으로 비지시적이다. 그러나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 이중주어문으로 전환되면 중심어 명사는 모두 지시적 성분이 된다. 5장에서는 수량성 명사술어문의 경우, 즉 'Num·CL' 구조, 'Num·CL·N' 구조, '一·Ncl·N' 구조가 수량, 소유, 존재, 속성을 나타낼 때, 술어로 쓰이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도량사를 사용하는 'Num·CL' 구조는 '대상-수량' 구문에 쓰여서 주어의 양적 속성을 설명한다. 'Num·CL·N' 구조는 '소유주-피소유물', '장소-존재물' 구문에 쓰여서 유정성 주어, 장소 주어의 어떠한 정태적 특징을 묘사한다. '一·Ncl·N' 구조는 '대상-속성' 구문에서 술어로 기능하고 사람인 주어의 어떠한 정태적인 특징을 묘사한다. 'S+Num·CL' 구문은 경제성 원리로 인해 원형인 'S+[Num·CL+A]'구문에서 형용사가 생략된 것이다. 'S+Num·CL·N' 구문에서는 소유주인 주어와 피소유물인 'Num·CL·N' 술어가 두 가지 논항 역할로 충분히 구문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有'의 기능과 일치하기 때문에 '有'가 출현하지 않은 것이다. '$S_{장소}$+Num·CL·N' 구문의 형성과 인지적 기재도 마찬가지다. 다만 은유 기제를 통해 '$S_{장소}$+Num·CL·N' 구문에서의 중심어 명사는 탈범주화하여 일부 형용사와 동사도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양사는 주로 '片', '阵'으로 제한된다. 'S+一·Ncl·N' 구문의 형성은 S와 임시양사로 쓰인 신체부위와의 전체-부분 관계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에서 부분은 전체보다 더 두드러질 수 있고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과정이다. 또한 5장에서는 3, 4, 5장에서 고찰한 모든 유형의 명사술어문 간의 관계도 검토하였고 이로써 어휘의 다의성처럼 동등관계, 귀속관계, 전체-부분 관계, 수량관계, 소유관계, 존재관계 등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하위 구문들도 명사술어문의 네트워크에서 다의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명사성 성분을 술어로 사용하는 현상은 항상 계사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6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명사술어문에 '是'를 부가하여 '是' 구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 후 두 구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를 통해 다양한 명사성 술어에 붙는 '是'의 성질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에는 '是'를 부가할 수 있는데, 명사술어문에 비해 '是' 구문의 주술관계가 보다 명확하고 주어와 술어가 구조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해당 명사술어문은 복문의 종속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명사술어문은 구조적 확장에 의해 제한되어 주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S+A·N'의 술어에 '是'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는 형식에 따라서 내부적 차이가 존재한다. '일음절 성질형용사+명사' 앞에는 '是'를 붙일 수 있지만, '이음절 상태형용사+명사', '중첩형식 상태형용사+명사', '부사+성질형용사+명사' 구조 앞에는 '是'를 붙일 수 없다. 'S+A·N' 구문과 달리 'S+是+A·N' 구문은 긍정과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술어로 기능하는 'Num·CL' 성분과 'Num·CL·N' 성분 앞에 '是'를 붙일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是' 구문은 긍정과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S+一·Ncl·N'의 술어에도 '是'가 붙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사성 술어 는 다른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판단성 명사술어문에 부가된 '是'는 문장의 주요 동사가 되어 주어와 술어 간의 동등과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전형적인 계사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S+A·N' 구문, 'S+Num·CL' 구문,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S+Num·CL·N' 구문, 존재관계를 나타내는 '$S_{장소}$+Num·CL·N' 구문, 'S+一·Ncl·N' 구문에 부가된 '是'는 계사의 기능보다 후행 성분이 문장의 초점임을 표시하는 초점표지 '是'의 기능과 더욱 유사하다. 하지만 이러한 '是'는 문장의 주요 동사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열문에서 쓰이는 전형적인 초점표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계사에서 초점표지까지의 연속체에서 과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대중국어에서 각 시기별로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고대중국어의 명사술어문을 고찰한 이유는 현대중국어의 많은 명사술어문의 형식과 의미적인 변이는 이 구문의 통시적인 변천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是'가 계사로 문법화되기 이전에는 두 명사성 성분을 직접 병치함으로써 판단을 나타내는 수단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동한부터 당(唐)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 '是' 구문이 점차 판단문의 주요 표현형식이 됨에 따라 판단성 명사술어문의 사용 빈도가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수단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특수 의미를 표현할 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S+A・N’, ‘S+Num・CL’, ‘S+Num・CL・N’, ‘S처소+Num・CL・N’, ‘S+一・Ncl・N’ 형식의 명사술어문은 ‘是’의 문법화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상고부터 근대까지 그 사용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형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명사술어문이 범언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유형론적 지위를 탐색하였다. 영어를 비롯된 형태 변화가 풍부한 언어에서는 명사성 성분이 술어로 직접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헝가리어에는 현재시제에서 동등과 귀속관계의 판단성 명사술어문을 사용할 수 있다.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가 중국어 명사술어문의 사용 양상과 가장 가깝지만, 이 두 언어에는 ‘A・N’ 구조를 직접 술어로 사용할 수 없다. 현대중국어와 같이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는 많은 소수민족 언어는 명사술어문을 사용하지만 그 형태는 현대중국어만큼 다양하지 않다. 현대중국어는 영계사 언어에서 계사언어로까지의 연속체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是’의 사용은 강제적이지 않고 문장 각 구성 성분 간의 의미관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명사술어문의 구조 및 의미유형은 가장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시와 통시, 중국어 내부와 외부의 시각에서 명사술어문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명사술어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 반면 본 논문은 주어와 명사술어 간의 의미관계가 명사술어문의 형성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명사술어문의 통시적 변천 및 현대중국어와 기타 언어 간의 차이점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가 중국어 문법 연구자 및 제2외국어로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현대중국어 명사술어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고석주・김현강・박용한・서승현・손희연・이병규・황선영 역(2000),『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Lambrecht Knud, 1994). 서울: 월인.

김종도(2002),『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박이정.

박원기・강병규 역(2018),『구문화와 구문변화』(Elizabeth Closs Traugott and Graeme Trousdale, 2013). 서울: 학고방.

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역(2001),『표준중국어 문법』(Charles N. Li and Sandra A. Thompson, 1989). 서울: 한울아카데미.

이성하(1998),『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曹逢甫(1977),『主题在汉语中的功能研究.迈向语段分析的第一步』, 北京: 语文出版社.

陈昌来(2000),『现代汉语句子』, 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陈建民(1986),『现代汉语句型论』, 北京: 语文出版社.

陈满华(2008),『体词谓语句研究』, 北京: 中国文联出版社.

陈满华(2014),『汉语事实的描写与考察』, 成都: 电子科技大学出版社.

戴庆夏(2012),『景颇语语法』, 北京: 中央民族大学出版社.

丁声树(1961),『现代汉语语法讲话』, 北京: 商务印书馆.

范开泰(1990),『现代汉语语法分析』, 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房玉清(1992),『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高航(2009),『认知语法与汉语转类问题』, 上海: 上海交通大学出版社.

郭锡良(1981),『古代汉语』, 北京: 商务印书馆.

郭锐(2002),『现代汉语词类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蒋绍愚(2005),『古汉语词汇纲要』,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李临定(1986),『现代汉语句型』, 北京: 商务印书馆.

刘月华・潘文娱・故韡(2001),『实用现代汉语语法(增订本)』, 北京: 商务印书馆.

刘丹青(2008),『语法调查研究手册』,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刘顺(2003),『现代汉语名词的多视角研究』, 上海: 学林出版社.

龙果夫(1958),『现代汉语语法研究』(Dragunov, 1952), 北京: 科学出版社.

吕叔湘(1942),『中国文法要略』, 北京: 商务印书馆.

吕叔湘(1979),『汉语语法分析问题』, 北京: 商务印书馆.
吕叔湘(1999[1980]),『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 北京: 商务印书馆.
蒲立本(2006),『古汉语语法纲要』(Pullyblank, 1995), 北京: 语文出版社.
齐沪扬(2014),『现代汉语现实空间的认知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沈家煊(1998),『不对称和标记论』, 江西: 江西教育出版社.
沈家煊(2016),『名词和动词』, 北京: 商务印书馆.
石定栩(2011),『名词和名词性成分』,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石毓智(2000),『语法的认知语义基础』,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石毓智・李讷(2001),『汉语语法化的历程——形态句法发展的动因和机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完权(2018),『说"的"和"的"字结构』, 上海: 学林出版社.
王力(1957),『汉语史稿』, 北京: 科学出版社.
王力(1987[1954]),『中国现代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王力(1989[1943]),『汉语语法史』, 北京: 商务印书馆.
王庆丰(2005),『满语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王珏(2001),『现代汉语名词研究』, 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王寅(2011),『构式语法研究: 分析应用』(上、下卷),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温锁林(2001),『现代汉语语用平面研究』, 北京: 北京图书馆出版社.
吴为善(2016),『构式语法与汉语构式』, 上海: 学林出版社.
徐烈炯・刘丹青(2007),『话题的结构与功能』,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张和友(2012),『'是'字结构的语法语义研究——汉语语义特点的一个视角』,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张敏(1998),『认知语言学与汉语名词短语』,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张世禄(2000),『古代汉语』,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赵元任(1952),『北京口语语法』(李荣编译), 上海: 开明书店.
赵元任(1968),『中国话的文法』(丁邦新译), 香港: 中文大学出版.
朱德熙(1982),『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Bybee, John L.(2010), *Language, Usage,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o, Yuen-Ren(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roft, W.(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as*.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ruse, D. 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use, D. A.(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xon, R. M. W.(2010), *Basic Linguistic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Graeme Trousdale(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nal Chang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Gair, James W.(1970), *Colloquial Sinhalese Clause Structures*. The Hague: Mouton.

Goldberg, Adele(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ldberg, Adele(2006),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Haiman, John(1985),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eine & Kutewa(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ngeveld, K.(1992), *Non-verbal Predication: Theory, Typology, Diachrony*.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Jespersen, Ott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Unwind Ltd.

Lambrecht Knud(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ngacker, Ronald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Ⅰ*. Stanford University Press.

Langacker, Ronald W.(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Ⅱ*. Stanford University Press.

Langacker, Ronald W.(1999[2001]), *Grammar conceptualization*.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Langacker, Ronald W.(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Leech, Geoffrey(1974), *Semantics: The Study of Meaning*. Hamondsworth: Penguin.

Li, Charles N. & Sandra A. Thompson(1989),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ustet, R.(2003), *Copulas: 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ayne, Thomas E.(1997), *Describing Morphosyntax: A guide for fiel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achter, P. and Otanes, F. E. T.(1972), *Tagalog Reference Grammar*.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earle, John R.(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assen, L.(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

Taylor, John R.(2002),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 소논문

김현철・장진개(2017), 「'VA+得+一+Nm+X' 구문 중 'Nm'의 인지적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03호, 45-70.

김윤경(2010), 「현대중국어 '장소+是+NP' 构文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60호, 143-162.

박정구(2005), 「名词性谓语的语法特征及其教学」, 『중어중문학』 3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135-149.

박정구(2007), 「중국어 명사성 성분의 술어적 기능의 인간조건에 대한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25집, 한국중국언어학회, 189-214.

박정구・박은석(2015), 「중국어 '一+量+形'구문의 발전 및 그 기제 — '一+脸+A'형식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61집, 한국중국언어학회, 147-167.

박진호(2005), 「계사 유형론과 한국어 '이다'의 정체성」, 2005년 세종전자사전 '이다' 워크숍 발표논문집,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개발 분과.

박진호(2009), 「계사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 한국 언어유형론 연구회 창립 기념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77-87.

박진호(2012), 「슈타센(Stassen, L.)(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형태론』 제14권 1호, 135-152.

목정수(2010), 「계사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시적)이다(유명)하다의 정체」, 『시학과 언어』 제19호, 시학과언어학회, 99-125.

이슬기(2018),「중국어 명사술어문에 대한 통시적 분석」,『中国学报』第86辑, 23-59.
이은경(2013),「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본 중국어 'NP+的+VP'구조의 의미 기능」,『중국학연구』제63호. 중국학연구회, 47-70
홍재성(2010),「프랑스어와 한국어 계사구문의 유형론적 대조연구」,『학술원 논문집』49, 학술원, 29-89.
安俊丽(2019),「基于语法化理论的魏晋南北朝时期"是"字句考察——≪世说新语≫和≪杂宝藏经≫的比较」,『南通大学学报 (社会科学版)』第35卷第2期, 96-102.
白莉(2010),「试析名词谓语句的特点」,『甘肃高师学报』第15卷 第4期, 62-84.
班吉庆(2001), 「名词谓语句综合研究」, 『盐城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4期, 48-52.
薄文泽(1995),「侗台语的判断词和判断式」,『民族语文』第3期, 73-78.
陈一(1998),「谓词性成分作主语的体词谓语句」,『北方论丛』第1期, 98-102.
陈满华(2007),「体词谓语句形式的熟语考察」,『语言文字应用』第2期, 73-78.
陈平(1987),「释汉语中与名词性成分相关的四组概念」,『中国语文』第2期, 81-92.
陈晓湘・罗琼鹏(2005), 「"是"的句法语义属性研究」, 『外语教学与研究(外国语文双月刊)』第3期, 192-198.
崔永华(1990),「汉语形容词分类的现状和问题」,『语言教学与研究』第3期, 132-140.
戴浩一(2007),「中文构词与句法的概念结构」,『华语文教学研究』第4期, 1-30
邓思颖(2002),「经济原则和汉语没有动词的句子」,『现代外语(季刊)』第1期, 2-13.
邓思颖(2002), 「汉语时间词谓语句的限制条件」, 『中国语文』(总第288期) 第3期, 217-287.
丁雪欢(1994), 「指人名词充当主语的名词性谓语句」, 『汕头大学学报(人文科学版)』 第1期, 47-52.
董秀芳(2003),「无标记焦点和有标记焦点的确定原则」,『汉语学习』第1期, 10-16.
董秀芳(2009), 「整体与部分关系在汉语词汇系统中的表现及在汉语句法中的突显性」, 『世界汉语教学』第4期, 435-442.
杜瑞银(1982),「'定名'谓语存在句」,『汉语学习』第2期, 9-15.
范方莲(1963),「存在句」,『中国语文』第5期, 386-395.
范妍南(2003),「隋唐五代小说中判断句的比较研究」,『西安联合大学学报』第3期, 70-73.
方梅(1995),「汉语对比焦点的句法表现手段」,『中国语文』第4期, 279-288.
冯嘉成(1997), 「浅谈现代汉语中具有描写意义的名词性谓语句」, 『四川师范学院学报』

第3期, 54-57.
冯胜利(2003),「古汉语判断句中的系词」,『古汉语研究』第1期, 30-36.
冯凭(1980),「关于名词单独充当谓语的问题」,『锦州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期, 67-69.
冯凭(1986),「谈名词充当谓语」,『汉语学习』第3期, 21-22.
高航(2015),「句法结构形成中的语用因素: 以现代汉语名词谓语句为例」,『浙江外国语学院学报』第5期, 1-8.
高航(2020),「激进构式语法视角下名词谓语句的跨语言研究」,『现代外语(双月刊)』第43卷第4期, 463-476.
郭锡良(1990),「关于系词"是"产生的时代和来源论争的几点认识」,『汉语史论集(增补本)』, 82-95.
韩春梅(2013),「汉语"数量名"与"名数量"比较初探」,『语言本体研究』第4期, 71-73.
韩昱(2011),「浅析"是……的"句式的历时发展」,『鸡西大学学报』第10期, 122-124.
洪诚(1957),「论南北朝以前汉语中的系词」,『语言研究』第2期, 10-12.
黄长著(1987),「世界语言的分类」,『外语教学与研究』第3期, 1-11.
黄育妙(2017),「印尼语、他加禄语语与汉语的名词谓语句对比」,『2017对外汉语博士生论坛暨 第十届北京地区对外汉语教学研究生学术论坛论文集』, 71-81.
梁银峰(2012),「关于系词"是"的产生年代和形成途径」,『语言研究集刊』第1期, 228-243.
黎锦熙・刘世儒(1957),「汉语语法的科学体系和学科体系」,『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第2期, 102-128.
李一平(1983),「副词修饰名词或名词性成分的功能」,『语言教学与研究』第3期, 40-51.
李小军(2008),「从指代到语气, 从句法到语用——以"者""焉"为例试论主观性对语气词形成的影响」,『汉语史学报』第7辑, 175-185.
李昭东(2009),「关于指称和陈述」,『中国语言研究』第29辑, 77-93.
刘丹青(2010),「汉语是一种动词型语言-试说动词型语言和名词型语言的类型差异」,『世界汉语教学』第24卷 第1期, 3-17.
刘顺(2001),「影响名词谓语句自足的语言形式」,『汉语学习』第5期, 18-22.
刘相臣・丁崇明(2012),「名词和定名短语充当谓语的句法功能差异」,『广西社会科学』第3期, 147-150.
吕叔湘(1965),「形容词使用情况的一个考察」,『中国语文』第6期, 419-431.
龙海平・肖小平(2011),「"我是昨天买的票"句式及其相关问题」,『世界汉语教学』第3期,

305-317.
马庆株(1991),「顺序义对体词语法功能的影响」,『二十世纪现代汉语语法论文精选』, 165-187.
马庆株(1996),「指称义动词和陈述义名词」,『词类问题考察』,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139-152.
莫彭龄(1985),「三大类实词句法功能的统计分析」,『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版)』 第3期, 55-63.
潘艳艳(2003),「框架语义学: 理论与应用」,『外语研究』 第5期, 14-18.
朴正九(2016),「从类型学视角看汉语形容词谓语句的信息结构」,『中国语文』 第4期, 387-396.
强星娜(2008),「话题标记代系词功能的类型学初探」,『语言科学』 第6期, 615-625.
邱峰(2014),「系词'是'字判断句的形成机制」,『湖北社会科学』 第10期, 115-122.
石定栩(2009),「体词谓语句与词类的划分」,『汉语学报』 第1期, 29-40.
施关淦(1994),「关于'省略'和'隐含'」,『中国语文』(总第239期) 第2期, 125-154.
施春宏(2001),「名词的描述性语义特征与副名组合的可能性」,『中国语文』 第3期, 212-287.
沈家煊(1995),「'有界'与'无界'」,『中国语文』 第5期, 367-380.
沈家煊(2013),「谓语的指称性」,『外文研究』 第1卷 第1期, 1-13.
沈家煊(2021),「动主名谓句——为朱德熙先生百年诞辰而作」,『中国语文』 第1期, 3-17.
石毓智・徐杰(2001),「汉语史上疑问形式的类型学转变及其机制——焦点标记"是"的产生及其影响」,『中国语文』 第5期, 454-480.
石毓智(2005),「论判断、焦点、强调、对比之关系——"是"的语法功能和使用条件」,『语言研究』 第4期, 43-53.
沈阳(1995),「领属范畴及领属性名词短语的句法作用」,『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5期, 85-92.
宋玉柱(1982),「定心谓语存在句」,『语言教学与研究』 第3期, 27-34.
宋玉柱(1984),「从'定心谓语存在句'看存在句的结构分析」,『汉语学习』 第1期, 14-17.
宋玉柱(1988),「名词谓语存在句」,『徐州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4期, 87-91.
孙朝奋(2018),「从汉语'是'和英语'BE'的对比看汉语国际教学语法」,『国际汉语教育』 第3卷 第2期, 102-107.
汤廷池(1981),「国语分裂句、分裂变句、准分裂句的结构与限制之研究」,『语言学与语

文教学』, 台北: 学生书局, 250-296.
唐钰明(1991),「上古判断句辨析」,『古汉语研究』第4期, 10-12.
帖伊・覃修桂(2019),「体认语言学视角下的名词谓语句研究: 构式界定与认知动因」,『外国语文』第35卷 第5期, 22-29.
完权(2013),「事态句中的'的'」,『语言本体研究』,『中国语文』第1期, 51-61.
王洁(2000a),「论'省略述语动词'的体词谓语句」,『大理师专学报』第4期, 49-54.
王洁(2000b),「再论'省略述语动词'的体词谓语句」,『辽宁师专学报(社会科学版)』第4期, 25-29.
王洁(2003),「含动词性成分的'的'字短语做谓语的分析」,『大理学院学报』第2期, 43-45.
王洁(2004),「试论省略动词的体词谓语句」,『柳州职业技术学院学报』第2期, 60-74.
王珏(2005),「体词的陈述性与非个体性」,『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6期, 76-84.
王世凯(2006),「汉语体谓成分的类别与体谓功能的理据」,『渤海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1期, 1-4.
王世群(2007),「制约名词语作谓语的语义因素」,『语言应用研究』第2期, 55-57.
王勇・徐杰(2010),「汉语存在句的构式语法研究」,『语言研究』第3期, 62-70.
王成东(2013),「结构经济原则与汉语的名词谓语句」,『中南林业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7卷第6期, 128-130.
王红旗(2015),「体词性成分指称性的强弱」,『语言科学』第4卷第1期, 13-24.
王红旗(2016),「体词谓语句的范围和语法形式」,『汉语学习』第2期, 3-10.
王红旗(2017),「体词谓语句为何加'是'」,『语言学论丛』第2期, 236-260.
王灿龙(2013),「'是'字判断句名词宾语的指称形式」,『世界汉语教学』第27卷第2期, 156-171.
王宇新(2012),「汉语'鳗鱼句'现象及其与日语对应关系小考——以不需要特殊语境解释的句子为中心」,『日语学习与研究』第1期, 65-72.
魏在江(2017),「汉语体词谓语句的语法转喻探索」,『东北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4期, 13-18.
温铁林・郝蕾(1995),「体词谓语句的范围」,『山西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3期, 66-71.
吴仁(2006),「单音节形容词重叠式'AA(的)'功能探微」,『南开语言学刊』第7期, 82-92.
吴峥嵘(2019),「'是'的系词用法与焦点标记用法的关联」,『信阳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

科学版) 第39卷第5期, 92-95.
项开喜(2001),「体词谓语句的功能透视」,『汉语学习』第1期, 13-17.
徐杰・李英哲(1993), 「焦点和两个非线性语法范畴: “否定”、“疑问”」,『中国语文』 第2期, 81-93.
许小艳・桑仲刚・庞加光(2021), 「提取和激活模型下的汉语名词谓语句研究」, 『现代外语』 第44卷第4期, 483-494.
姚振武(2000),「指称与陈述的兼容性与引申问题」,『中国语文』第6期, 564-570.
叶长荫(1987),「体词谓语句」, 载『汉语论文集』, 黑龙江人民出版社. 58-63.
叶婧婷(2020), 「名词性领属结构的概念空间——对中国及其周边语言的考察」, 『民族语文』 第5期, 34-45.
易花萍(2008),「汉语名谓结构重新分析」,『孝感学院学报』第5期, 22-27.
易花萍(2011),「英汉名谓结构论析」,『渭南师范学院学报』第26卷第8期, 3-7.
袁毓林(1994),「一价名词的认知研究」,『中国语文』第4期, 241-253.
袁毓林(2002), 「汉语话题的语法地位和语法化程度——基于真实自然口语的共时和历时考量」,『语言学论丛』第25辑, 97-130.
张帅旗(1992a),「一般体词性谓语句」,『中州大学报(综合版)』第1期, 34-40.
张帅旗(1992b),「一般体词性谓语句(续)」,『中州大学报(综合版)』第2期, 16-22.
张国宪(2000),「现代汉语形容词的典型特征」,『中国语文』第5期, 447-458.
张国宪(2007),「状态形容词和界定和语法特征描述」,『语言科学』第6卷第1期, 3-14.
张韧(2009),「关于词类本质的一个动态认知视角」,『当代语言学』第3期, 233-243.
张军(2015),「判断表达的类型与策略-基于中国境内语言的类型学考察」,『民族语文』 第1期, 38-47.
张姜知・郑通涛(2015), 「类型学视野下的广义名词谓语句框架」, 『厦门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1期, 147-156.
张姜知・张颖(2017), 「系词的形式与功能-兼论名词谓语句」, 『外国语』 第40卷第2期, 62-72.
张麟声(2017a),「‘体词谓语句’‘是字句’的互补性分布」,『海外华文教育』第7期, 910-922.
张麟声(2017b),「从语言类型学的角度来看汉语‘体词谓语句’‘是字句’的定位问题」,『国际汉语学报』第8卷第2辑, 1-14.
张凤(2016),「俄语名词谓语句的构式语法分析」,『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39卷第2期, 56-64.

张文国(2006), 「论古汉语的名词谓语句」, 『中北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22卷第2期, 1-5.

张庆翔(2012),「名词性谓语句形成途径」,『钦州学院学报』第27卷第1期, 43-47.

张庆翔・马强(2015), 「名词性谓语句类型及其形成机制」, 『现代语文(语言研究版)』 第7期, 43-47.

张庆翔・马强(2020), 「≪搜神记≫名词性谓语句的句法模式」, 『现代语文』 第10期, 39-49.

周国正(2008), 「"是"的真正身份——论述记号: "是"的句法、语义、语用功能的综合诠释」,『语文研究』第2期, 5-11.

周日安(1994),「体词谓语句的范围」,『河池师专学报』第1期, 50-55.

周日安(2010), 「名名组合的语义折叠与受事域外化」, 『佛山科学技术学院学报(社会科学版)』第2期, 22-26.

周国光・赵月琳(2011), 「关于体词性谓语句的理论思考」, 『华南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4期, 21-25.

周同燕(2011),「现代汉语体谓结构的语义分析」,『语言本体研究』, 80-82.

周祖亮(2006),「先秦名词性谓语句的语义功能」,『襄樊学院学报』第27卷第1期, 77-81.

朱美玲(2016),「从范畴化网络角度看名词谓语化现象」,『新西部』第12期, 107-108.

朱德熙(1983), 「自指和转指——汉语名词化标记'的、者、所、之'的语法功能和语义功能」,『方言』第1期, 16-31.

Curnow, Timothy Jowan(1999), Towards a Cross-linguistics Typology of Copula Constructions. *Proceedings of the 1999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Linguistic Society*, 1-9.

Curnow, Timothy Jowan(2000), Intransitive Predication by Leon Stassen. *Language* Vol.76, 448-453.

Dixon, R. M. W.(2002), Copula Clause in Australian Language: A Typological Perspective. *Anthropological Linguistics* Vol.44, No.1, 1-37.

Dryer, M.(2007), Clause types, In: T. Shopen(ed.), *Language Typology abd Syntactic Description*(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4-275.

Gundel, J. K. & T. Fretheim(2004), Topic and Focus, in L. R. Horn &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1-19.

Hasbullah(2013), Penggunaan Kopula Bahasa Indonesia dalam Skripsi Mahasiswa

Fakultas hukum Makasar. *Gelar sarjana sastra pada Fakultas sastra Univeritas Hasanuddin*, 89-101.

Haspelmath, Martin(2003), The geometry of grammatical meaning: Semantic maps and cross-linguistic comparison.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s: Cognitive and Functional Approaches to Language Structure* Vol 2, 211-242.

Haspelmath, Martin(2017), Explaining alienability contrasts in adpossessive constructions: Predictability vs. iconicity.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36(2), 193-231.

Koptjevskaja-Tamm, Maria(2002), Adnominal possession in the European languages: Form and function. *Sprachtypologie und Universalienforschung* 55, 141-172.

Ronald W. Langacker(1995), Possession and possessive constructions. In John R. Taylor, & Robert E. MacLaury (eds.). *Language and the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Berlin: Mouton de Gruyter, 51-79.

Li & Thompson(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Subject and topic*, 457-489.

Li & Thompson(1977), A mechanism for the development of copula morphemes. *Mechanisms of Syntactic Change*. Austin and London: University of Texas Press, 419-445.

Tang Sze-Wing(2001), Nominal predication and Focus Anchoring. *Linguistics* 22, 159-172.

Stassen, L.(1994), Typology Versus Mythology: the Case of the Zero-Copula.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17, 105-126.

Wei Ting-Chi(2007), Nominal predicates in Mandarin Chinese. *Taiw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5.2, 85-130.

3. 학위논문

강미석(2008),『국어 계사 '이'의 범언어적 연구 – 언어 유형론의 시각에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곤(2004),『现代中国语名词述语文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홍실(2018),『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명이(2016),『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명사술어' 실현 대조연구 — 계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 례(2018),『인지구성문법에 기반한 한국어 '이다'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진현(2018),『现代汉语 焦点敏感词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 영(2007),『현대중국어 신체부위 임시양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민용(2006),『현대중국어 '是' 구문의 구조와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소정(2011),『현대중국어 '是…的'구문 연구 — 상과 초점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춘옥(2015),『현대중국어 '是…的'구문의 주관성과 주관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창국 (1999),『이차술어 구문: '로'의 계사적 실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은영(2007),『中国语 量词의 变迁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성임(2013),『현대중국어 '一+量+名'구문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초팽염(2014),『현대중국어 '一'의 의미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탄나나(2014),『한중 계사구문의 유형론적 대조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연홍(2018),『현대중국어 '是NP/是个NP/是一个NP'구문의 어법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陈新义(2004),『名词性谓语句的语义分析』, 内蒙古大学硕士学位论文.

初玉(2012),『'NP+一M'及其对比构式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何文勇(2010),『汉越语名词谓语句比较研究』, 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黄芳(2013),『名词谓语句的认知语义研究』, 湖南大学硕士学位论文.

姜渝(2007),『身体名词临时借用为名量词的多视角考察』, 北京语言大学硕士学位论文.

姜红(2007),『与陈述、指称相关的现代汉语语法现象研究』, 苏州大学博士学位论文.

蒋蓓(2012),『日语名词谓语句的研究』, 上海外国语大学博士学位论文.

旷书文(2006),『系词呈现的跨语言及心理现实性分析』,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李黎(2007),『现代汉语名词性谓语句研究』, 山西大学硕士学位论文.

李向明(2008),『『史记』省略类型'是'字句研究』, 湖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李晓奇(2016),『现代汉语系词类动词的省略研究』, 北京大学博士学位论文.

刘春丽(2014),『现代汉语名词形状特征研究』, 黑龙江大学博士学位论文.

刘林(2013),『现代汉语焦点标记词研究——以"是"、"只"、"就"、"才"为例』, 夏旦大学博士学位论文.

刘玉兰(2012),『泰国勉语参考语法』,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龙海平(2012),『已然义“是……的”类句式的多角度考察』, 华中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鲁丽(2013),『心理扫描视角下名词性谓语句研究』, 长沙理工大学硕士学位论文.
马方英(2013),『≪孟子≫名词性谓语句研究』, 扬州大学硕士学位论文.
马慧丽(2019),『“整体-部分”名名组合及“的”字隐现机制研究』, 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潘武俊英(2010),『越语参考语法—基于系统功能观』,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帖伊(2019),『现代汉语名词谓语句研究: 基于框架和参照点的情境植入模型』, 广西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童恋然(2013),『体词谓语句的三平面研究』, 中南民族大学硕士学位论文.
王晶(2008),『现代汉语实词句法功能的不对称研究』, 苏州大学博士学位论文.
王世群(2004),『汉语名词性谓语句研究』, 武汉大学硕士学位论文.
王雪(2010),『≪世说新语≫主谓句系统研究』, 辽宁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王燕燕(2010),『现代汉语名词谓语句的句法研究』, 曲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汪磊(2014),『外国学生名词谓语句习得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韦学纯(2011),『水语描写研究』, 上海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肖瑜(2003),『上古至中古汉语判断句研究』, 广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玄玥(2004),『论汉语对比焦点标记“是”——兼论焦点标记对焦点敏感算子的制约』, 东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尤翠云(2005),『名词谓语句研究』, 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许有胜(2005),『现代汉语名词谓语句研究』, 安徽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徐希明(2000),『现代汉语‘是’字句研究』, 夏旦大学博士学位论文.
徐克天(2010),『不同层级主谓结构的语义关系比较研究』, 宁波大学硕士学位论文.
易花萍(2009),『汉语名词陈述句研究』, 夏旦大学博士学位论文.
张姜知(2013),『体词谓语句与汉语词类』,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博士学位论文.
张军(2005),『汉藏系语言判断句研究』,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张庆文(2004),『现代汉语名词谓语句的句法语义分析』, 北京语言大学硕士学位论文.
张茜(2017),『试析现代汉语‘数+量+名’结构的分布机制和动因』, 四川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朱文奇(2014),『‘不+名词’现象研究』, 曲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臧倩一(2005),『体词谓语句的生成原因探讨』, 东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郑友阶(2013),『同位词句法研究』, 华中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郑邵琳(2010),『甲骨刻辞若干句法问题研究』, 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周发成(2019),『热额纳羌语参考语法』,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Wei Ting-Chi(2004),『Predication and sluicing in Mandarin Chinese』, 国立高雄师范大学博士论文.

4. 사전 및 기타 참고자료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2012),『现代汉语词典(第6版)』, 北京: 商务印书馆.
北京语言学院语言研究所(1986),『现代汉语频率词典』,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BCC: 北京语言大学现代汉语语料库, http://www.bcc.blcu.edu.cn
CCL: 北京大学现代汉语语料库, http://ccl.pku.edu.cn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부록】

축약어 대조표

축약어	원어	한국어 표현
1	first person	1인칭
3	third person	3인칭
A	adjective	형용사
Adv	adverb	부사
CL	classifier	양사
COP	copula	계사
FOC	focus	초점표지
IDF	indefinite	비한정
IND	indicative	서실법, 직설법
MSU	masculine	양성
N	noun	명사
Ncl	nominal classifier	임시 명량사
Num	number	수사
PRES	present	현재 시제
PST	past	과거 시제
S	subject	주어
SUBJ	subject	주어표지
SG	singular	단수
TOP	topic	화제표지

【中文摘要】

现代汉语名词谓语句研究

首尔大学中文系
孔凡莲

本文从构式语法、认知语法以及语言类型学的视角出发，从共时和历时两个方面对现代汉语中的名词谓语句现象集中进行了研究。名词谓语句的句法结构可以概括为“S+NP”，从构式语法的观点来看，它可以看作一个完整的图式构式，S和NP在构式中起论元作用。本研究不仅说明了主语和名词谓语之间存在的多种复杂的选择性语义关系决定名词谓语句的形成和认知性解释，而且通过历时变化过程的考察及与其他语言的名词谓语句使用情况的比较，揭示了现代汉语名词谓语句所具有的类型学特征。

本文首先根据名词谓语的结构特点和主语、名词谓语之间的语义关系，将现代汉语的名词谓语句分为判断性、描述性、数量性三种类型进行了分析。首先，在第3章中考察了判断性名词谓语句的情况，即光杆名词、“N1+N2”结构、时间名词、处所名词、疑问代词、“X的”结构用作谓语的现象。虽然判断性名词谓语句的谓语由上述多种语言形式充当，但主语和名词谓语之间的语义关系大致可以归纳为等同关系和归属关系两种。在表示等同关系的句子中，名词谓语是主语的等价物，是指示性的，在表示归属关系的句子中，名词谓语表示主语的属性，是非指示性的。同时，在第3章，本文还证明了判断性名词谓语句以经济性原则为基础，在“对象-等同物”、“对象-属性”的构式语义框架下，成为一种约定俗成的特殊句式。第4章我们分析了描述性名词谓语句“S+A・N”的使用情况。从形式上来看，单音节性质形容词、双音节状态形容词、ABB形式的状态形容词、重叠形式的状态形容词、“副词+性质形容词”修饰名词所形成的结构可以在谓词位置直接出现。另外，从意义上看，名词谓语主要是说明、评价主语的属性或描述主语的状态。这种主谓关系的形成源于主语和谓语之间“整体-部分”的语义关系和形容词的谓语性，而在这种构式中，具有修饰功能的形容词一般应体现主语的区别性特征，具有充分的信息量，被修饰名词则

一般是一价名词。作谓语的“A・N”结构中的名词是非指示性的，而表达相似语义的动词谓语句、形容词谓语句、主谓谓语中的中心语名词则都是指示性的。在第5章中，我们考察了数量性名词谓语句的情况，即“Num・CL”结构、“Num・CL・N”结构、“一・Ncl・N”结构用作谓语的现象。具体来说，使用度量衡量词的“Num・CL”结构用于“对象-数量”构式说明主语的量化属性，“Num・CL・N”结构用于“领属者-被领属物”、“处所-存在物”构式时主要用来说明有生命度的主语以及处所主语的某种静态性特征。“一・Ncl・N”结构在“对象-属性”构式中作谓语，也主要用来评价主语的某种静态性特征。在经济性原则的推动下，“S+[Num・CL+A]”构式中的形容词可以不出现，从而演化为“S+Num・CL”构式。在“S+Num・CL・N”构式中，领属者主语与被领属物“Num・CL・N”谓语是该构式的两个论元，它们之间所形成的领属关系与领属动词“有”的功能基本一致，因此即使“有”不出现，整个句子也可以被听话人成功解读。“$S_{处所}$+Num・CL”构式的形成和认知机制也是如此。“S+一・Ncl・N”构式的形成源于主语与临时用作名量词的身体部位之间的“整体-部分”关系，在特殊情况下，部分可能比整体更加突出，以部分的某种特征去说明整体是人类的普遍认知过程。判断性、描述性、数量性名词谓语句分别表现了主语与名词谓语之间的等同、归属、“整体-部分”、数量、领属及存在关系，像词汇的多义性一样，这三大类型在名词谓语句的构式网络中形成多义性连接。

名词性成分作谓语与系词的使用有密不可分的关系，因此在第6章中，我们对各类型的名词谓语句进行了能否添加“是”转化为系词句的测试，而且对可以转化的名词谓语句与“是”字句之间的差异进行了比较。通过比较我们发现，判断性名词谓语句可以添加“是”，与名词谓语句相比，“是”字句的主谓关系更加明确，主谓和谓语在句法结构上都可以进行扩展，而名词谓语句的句法结构的扩展则受到限制。此外，“是”字句既可以用于主句，也可以用于从句，但名词谓语句则只能用于主句。“S+A・N”结构的名词谓语句前能否加“是”，内部存在差异。“单音节性质形容词+名词”前可以添加“是”，但“双音节状态形容词+名词”、“重叠形式状态形容词+名词”、“副词+性质形容词+名词”结构前则无法添加。与“S+A・N”构式不同，“S+是+A・N”构式具有肯定和对比意义。在作为谓语的“Num・CL”成分和“Num・CL・N”成分前也可以添加“是”，这样形成的“是”字句同样具有肯定和对比意义。“S+一・Ncl・N”构式的谓语前也可以添加“是”，但大部分情况下，都是由于名词谓语受到了其他副词的修饰。判断性名词谓语句中添加的“是”成为句子的主要动词，具有明确主语和谓

语之间的等同和归属关系的系词功能。但是附加在“S+A・N”、“S+Num・CL”、“S+Num・CL・N”、“$S_{处所}$+Num・CL”、“S+一・Ncl・N”构式中的“是”，其主要功能则是标示其后成分为句子的焦点所在，与分裂句中作焦点标记的“是”的功能更为接近，因此我们可以把“是”的这种用法看做从系词到焦点标记这一连续统的过渡阶段。

名词谓语句共时层面的分化与其在历时层面的变化过程也密切相关。在“是”语法化为系词之前的上古时期，判断性名词谓语句主要采用“S(者)+NP(也)”的形式，到了中古汉语，“是”的系词用法逐渐成熟，“是”字句成为表达判断的主要手段，判断性名词谓语句的使用频率虽大幅下降，但直至近现代汉语，在表达时间、人的身份、籍贯等语义时，仍在使用判断性名词谓语句。描述性与数量性名词谓语句与“是”的语法化过程没有直接关系，从上古到近代，它们的使用频率与使用范围都在持续增加与扩大，形式也变得更加多样化。

最后，本文从跨语言的视角考察了名词谓语句的使用情况，进而探讨了汉语名词谓语句在类型学上的地位。在包括英语在内的形态变化丰富的语言中，名词性成分不能直接用作谓语，但在俄语、土耳其语、希伯来语、匈牙利语等部分语言中，表示等同和归属关系的判断性名词谓语句用于现在时和第三人称是一种较为普遍的现象。越南语和印度尼西亚语都是有系词的语言，在这两种语言中，名词谓语句的使用情况与现代汉语较为接近，但这两种语言中都不存在“A・N”结构直接作谓语的现象。中国境内与汉语同属汉藏语系的众多少数民族语言也使用名词谓语句，但形态不如现代汉语丰富多样。通过比较我们发现，现代汉语处于零系词语言到系词语言连续统的中间位置，系词“是”的使用句法上并不是强制性的，更多的是受到语义和语用的制约，而且汉语非常重视句法成分之间的语义关系及句子的语用功能，因此汉语的名词谓语句的结构及语义类型是最为多样的。

本研究从共时和历时、汉语内部和外部对名词谓语句进行了全面的研究。本文的考察与分析，在深化对汉语名词谓语句的理解以及探寻其类型学特征等方面，具有一定的学术价值与意义。

关键词：名词谓语句，构式的多义性，判断，等同关系，归属关系，经济性原则，整体-部分，数量短语，领属关系，存在关系，‘是’，历时，类型学特征

学　号：2014-30877